

호남한국학자료총서 2

# 서암일기<sub>棲巖日記</sub> 2



호남한국학자료총서 2

# 서암일기 2

棲巖日記

김영찬 著



## 일러두기

---

- 서암일기는 김영찬이 1912년 1월 1일부터 1930년 6월 15일까지 손수 기록한 일기이다.
- 이 책의 서명은 저자의 호를 써서 '서암일기'라고 명명한다.
- 번역문을 먼저 싣고 탈초문을 아래쪽에 실었는데, 하루 단위로 번역을 하였다.
- 원본의 이미지는 한국학호남진흥원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이다.
- 이 책은 두 권으로 구성하였다.

## ■ 발간사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권 한국학 진흥과 민족문화 균형 발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출연한 학술기관입니다. 개원 1년의 성과를 상재합니다.

본원은 그동안 고문서 수집 집성, 근대 문집의 표점 영인, 고문서·일기·선현 문집 국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의 과제는 두 범주로 요약됩니다.

하나, 호남한국학 기초자료 발굴  
둘, 호남 사상·생활문헌 국역

5

이상의 연구사업은 서세동점 이후 구학(舊學)·구습(舊習)으로 폄하되었던 전통적 학술사조와 생활세계를 탈근대 차원에서 재구성한다는 목표 아래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지난 위망과 극단의 세월에 덧씌워진 ‘소국 트라우마’ ‘문명콤플렉스’와 같은 문화심리의 질곡을 건어내고자 합니다. 또한 호혜 공존의 생활지혜 나아가 법고창신(法古創新) 연구혁신(沿舊革新)의 사유 역정이어말로 당당한 새로운 미래 설계의 자양임을 응변하고 싶습니다.

2019년 12월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 이종범



■ 목 차

발간사	• 005
1918년	• 009
1919년	• 037
1920년	• 077
1921년	• 091
1922년	• 101
1927년	• 123
1928년	• 145
1929년	• 305
1930년	• 381





확연대공설(廓然大公說)

이단에 대해 변론하다[辨異端]

수언(數言) - 사계선생유고(沙溪先生遺稿)

측량원인 제주도 양치호에게 주다[贈測量員古耽羅濟州島濟州面禾北里梁致祐]

경상도 박용진의 시에 화답하다[和慶尙道善山玉城面玉冠洞 密陽后人朴鏞振韻]

양치호 차운시[梁致祐次]

박용진이 준 시[朴鏞振贈]

이희채의 보호록에 쓰다[題李熙采保護錄] 2수

추천사적(秋川事蹟)(文)

망제 희증을 제사하는 글[祭亡弟希中文]

목우망목우(牧牛忘牧牛)

지선주(止善酒)(文)

계자첩을 짓다[作戒子帖]



1918년 1월 1일. 기축. 맑음. 향리의 연소배들의 세배를 받았다.

戊午. 正月. 初一日. 己丑. 陽. 受鄉里年少歲拜.

1918년 1월 2일. 경인. 선조의 묘소에 성묘했다.

二日. 庚寅. 行省先墓.

1918년 1월 3일. 신묘. 맑음. 성묘를 갔다.

三日. 辛卯. 陽. 行省墓.

1918년 1월 4일. 임진. 맑음.

四日. 壬辰. 陽.

1918년 1월 5일. 계사. 점점 맑아짐. 일없이 한가하게 있다가 우연히 ‘확연대공설(廓然大公說, 확연하여 크게 공평하다는 설)’을 기록했다.

선배들이 기록한 확연대공은 곧 정(靜)할 때의 기상이다. 동(動)하여야 증험할 수 있으니, 동하지 않으면 어찌 정할 때의 기상이 이와같이 그 확연대공(廓然大公)함을 알겠는가? 그러나 확연대공이란 것은 억지로 하나의 마음을 붙잡고서 이와 같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다. 경(敬)을 위주로 한다면 내외가 숙연해지기 때문에 내외 모두를 잊게 되어 심(心)이 절로 보존되고 함양하게 된다. 인의예지의 성(性)이라는 것도 자연히 확연대공하게 되리라.

五日. 癸巳. 漸陽. 無事閑居, 偶記廓然大公說. 前輩所記廓然而大公者, 卽靜時氣像. 動而驗得, 非動則安知靜時氣象如此其廓然大公乎? 然廓然大公者, 非強把捉一箇心以爲如此也. 以敬爲主, 則內外肅然, 故內外兩忘, 心自存而涵養, 仁義禮智之性者, 自然廓然而大公也夫.

1918년 1월 6일. 갑오. 맑음.

六日. 甲午. 陽.

1918년 1월 7일. 을미. 잠깐 맑았다가 잠깐 흐려짐. 밤에 눈이 왔다.

七日. 乙未. 乍陽乍陰. 夜雪.

〈이단에 대해 변론하다[辨異端]〉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문기를 “지금 제교(諸教)가 붕기하여 각기 ‘종교’라고 칭합니다. 사대부가 받드는 선현의 의리가 골수에 사무친 자가 아니면 모두 갈팡질팡하며 이교(異教)로 달려가니, 대저 이교란 어떤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응답하기를 “오도(吾道)는 생민(生民)이래로부터 성인이 하늘을 법칙함을 밝혀서 후세에 전하였다. 대개 복희·신농·황제·요·순·우·탕·문왕·무왕·주공이 사도(斯道)를 몸소 행하였으니, 곧 민생이 일용하는 이륜(彝倫)이 이것이다. 공자는 하늘이 내신 성인[天縱之聖]<sup>1</sup>으로서 선왕을 조술(祖述)하여 시서(詩書)를 간추리고 예악(禮樂)을 정비하였으며, 《주역》을 편찬했고 《춘추》를 지어 명교(名教)를 크게 이루셨다. 《효경》과 《노어(魯語)》는 곧 그가 전수한 심법(心法)인 것이다. 그리고 그 도를 이어받은 것은 자사·안자·증자·맹자였다. 자사는 《중용(中庸)》을 지었고 안자는 불행히 요절하여 비록 책을 지어서 학문을 전하지는 못하였으나, 극기복례(克己復禮)로 또한 심법을 전하였다. 증자는 《대학》을 저술하였고, 맹자는 《맹자》를 지었으니, 천리와 인사가 해와 달처럼 밝아서 천지를 다하도록 만고도록 뺄는 것이 마치 부절(符節)을 합한 것과 같다.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 법칙을 세우고[繼天立極]<sup>2</sup> 선현을 잇고 후학을

- 1 하늘이 내신 성인[天縱之聖] : 제자 자공이 스승 공자를 하늘이 내신 성인[天縱之聖]이라고 하였다. (《논어》〈자한(子罕)〉)
- 2 하늘의 ... 세우고[繼天立極] : 주희(朱熹)의 〈중용장구 서(中庸章句序)〉에 “대개 상고 시대에 거룩하고 신령스러운 분들이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 최고의 표준을 세운 때로부터 도통(道統)이 전해져 내려온 것이 원래 유래가 있었다. [蓋自上

열어준[繼往開來]<sup>3</sup> 것이 사도보다 성한 것은 없었다. 그러므로 송(宋)의 제현이 이 법을 준수하여 《근사록》 여러 편을 저술하였으니, 의리의 정미함이 이보다 자세할 수 없다. 몸을 닦는 큰 법도로 또 《소학》을 저술하니 성인의 가르침이 크게 갖추어졌다.

우리 동방이 들림이 있게 된 것은 기자(箕子)의 공이다. 홍범을 보면 어찌 증명하는 데 부족함이 있겠는가?<sup>4</sup> 기자가 동토(東土)로 온 이래 제현을 배향하고 사도를 천명하여 각기 옛 성인과 여러 학자의 문헌을 저술하여 분명히 서책에 실었으니, 비록 타고난 바탕이 고매한 자일지라도 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낮에는 외우고 밤에는 사색하게 하였다. 털끝만한 차이가[差之毫釐], 기질에 구애되고 물욕(物慾)에 가리게 되면 끝내 소인으로 돌아가게 됨을 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사도를 벗어나서 노망멸렬(魯莽滅裂)한 자가 좁은 소견으로 어찌 선왕의 대도를 알겠는가?

노자가 주나라 말엽에 태어나 유무(有無)를 둘로 여기고 허무적멸(虛無寂滅)한 데로 돌아갔으며, 양주(楊朱)와 묵직(墨翟)이 전국시대에 태어나 인의를 배웠으나, 어긋나기가 무부무군(無父無君)에 이르렀다. 불교가 한 나라 때에 들어와 청정자비(淸淨慈悲)를 숭상하였으나 끝내는 윤리를 도외시켰으며, 또 선학자(禪學者)가 있어 돈오(頓悟)로써 기약하였으나 의리에 모호하였다. 그 나머지 백가(百家)와 여러 학술의 유파는 모두 흑세무민(惑世誣民)하여 괴란함이 극심했다.

선배들이 말하기를 ‘공자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인류가 멸망했을 것이

古聖神繼天立極 而道統之傳 有自來矣]”라는 말이 나온다.

- 3 선현을 … 열어준[繼往開來] : 지난 성인(聖人)의 뒤를 잇고 앞으로 올 후학을 열어주는 학문의 공을 말한다. 주자가 <중용장구서(中庸章句序)>에서 공자의 덕을 찬양하면서 “지나간 성인을 잇고 후세에 올 학자를 열어 준 것은 그 공이 도리어 요순(堯舜)보다도 나은 점이 있다. [繼往聖開來學, 其功反有賢於堯舜者.]”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4 홍범(洪範)을 … 있겠는가 : 기자는 은(殷)나라 주왕(紂王)의 숙부인데, 기(箕)는 나라 이름이고 자(子)는 작위이다. 은나라가 멸망한 후에 주(周)나라 무왕(武王)의 물음에 답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의 대법(大法)인 홍범구주(洪範九疇)를 가르쳐 주고 조선의 평양(平壤)으로 옮겨와 기자조선(箕子朝鮮)을 세웠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다. [孔子不生, 人之類滅矣]<sup>5</sup>라고 하였으니, 어찌 나를 속이는 말이겠는가? 주자가 말하기를 ‘하늘이 물(物)을 낳을 때 근본이 하나이게 하였다. [天之生物, 使之一本]’라고 하였으니<sup>6</sup>, 이것이 옳으면 저것이 틀리고, 이것이 틀리면 저것이 옳다. 대개 병립하거나 양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시비(是非)를 안다면 하루가 안 되어서 제교(諸教)를 막아내고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 辨異端.

或有問於余曰, “至今諸教蜂起, 各稱宗教. 若非士大夫奉承先賢義理決髓者, 皆俛俛然奔走於異教, 大抵異教是何等物事也?” 余應之曰, “吾道自生民以來, 聖人則天明以垂後世者也. 蓋伏羲神農黃帝堯舜禹湯文武周公, 躬行斯道, 即民生日用彝倫是也. 孔以天縱之聖, 祖述先王, 刪詩書, 定禮樂, 贊周易, 修春秋, 大成名教. 孝經魯語即其傳授心法者也, 而以傳其道者, 子思顏子曾子孟子. 子思作《中庸》, 顏子不幸而夭, 雖不作傳學, 克己復禮, 又傳心法. 曾子述《大學》, 孟子作《孟子》. 天理人事, 昭如日星, 窮天地亘萬古, 若合符節. 繼天立極, 繼往開來, 未有盛於斯道也. 故有宋諸賢遵斯法, 著述《近思》諸篇, 義理精微, 莫詳於此也. 修身大法, 又著《小學》, 聖人之教大備矣. 吾東之與聞者, 箕聖之功也. 得見洪範, 豈不足徵也? 箕聖之臨東土以來, 從享諸賢, 闡明斯道. 各述往聖諸子文獻, 昭在方冊, 雖天質高邁者, 自少至老, 晝誦夜思. 差之毫釐, 拘於氣質, 蔽於物慾, 終未免爲小人之歸, 況外於斯道, 魯莽滅裂者, 以管見, 豈足以知先王之大道乎? 老子生於周末, 以有無爲二, 而歸於虛無寂滅. 楊墨出於戰國, 學仁義而差至於無父無君. 佛子入漢, 尚以清淨慈悲, 終外倫理, 又有禪學者, 以頓悟爲期, 而含糊於義理. 其餘百家眾枝之流, 皆惑世誣民, 乖亂極矣. 前輩有言曰, ‘孔子不生, 人之類滅矣.’

5 선배들이 ... 것이다 : 한유(韓愈)가 지은 <원도(原道)>에 “옛날에 성인이 없었던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을 것이다. [如古之無聖人, 人之類滅久矣.]”라는 구절이 있다.

6 주자가 ... 하였으니 : 원문에는 주자가 말했다고 하는데, 《맹자》에 나오는 내용이다. 《맹자》 <등문공 상(滕文公上)>에, “하늘이 물(物)을 낳을 때 근본이 하나이게 하였다. [天之生物也, 使之一本.]”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豈欺我哉? 朱子曰, ‘天之生物, 使之一本.’ 此是則彼非, 此非則彼是. 蓋不容竝立而兩存也. 若少知是非, 則近日而逆諸不與同也.

1918년 1월 8일. 병신. 맑음.

八日. 丙申. 陽.

1918년 1월 9일. 정유. 약간 맑음. 《사계선생유고(沙溪先生遺稿)》 몇 마디를 기록한다.

九日. 丁酉. 陽微. 記《沙溪先生遺稿》數言.

성인이 도를 닦고 가르침을 세우는 것은 삼강오상(三綱五常)일 뿐이다. 절의(節義)는 이 물을 부식(扶植)하는 것이다. 믿음(信)이란 군주의 큰 보물이니, 공자께서 ‘병사와 먹을 것은 제거할 수 있지만 믿음은 버릴 수 없다’고 하였다.<sup>7</sup> 그러므로 국가가 장차 망하려 함에 있어서는 신의(信義)가 먼저 망하는 것이다. 퇴계 선생께서 말하기를 “학교는 풍화의 근원이요, 선을 숭선하는 터전이고, 선비는 예의의 중주요 원기가 간직된 자이다.”라고 하였다. 율곡 선생은 “반궁(泮宮)<sup>8</sup>은 선을 숭선하는 곳이다.”라고 하였다.

聖人之修道立教者, 三綱五常而已. 節義者, 所以扶植此物也. 信者, 人君之大寶, 聖人以兵食可去而信不可去. 故自故國家將亡, 信義先亡也. 退溪

7 공자께서 ... 하였다 : 《논어》〈자공(子貢)〉에, 자공이 정사에 대해 물으니 공자가 “양식과 군대를 충실히 하면 백성들이 믿을 것이다. [足食足兵, 民信之矣.]”라고 하였다. 자공이 부득이하여 하나를 버린다면 무엇을 버려야 하나냐고 묻자 공자는 “군대를 버려야 한다. [去兵]”라고 하였고, 다시 같은 질문을 하자 공자는 “양식을 버려야 하니, 자고로 사람은 모두 죽음이 있지만 백성들은 믿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 없다. [去食,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라고 하였다.

8 반궁(泮宮) : 원래 주대(周代) 제후의 학궁(學宮)을 말하는데, 그 제도는 동서의 문 남쪽으로 물이 둘러 있어 그 형상이 반벽(半璧)과 같고 그 규모는 천자의 학궁인 벽옹(辟雍)의 반인 까닭으로 반궁이라 한다. 조선조의 성균관에 해당한다.

先生曰“學校風化之原, 首善之地, 而士子禮義之宗, 元氣之寓也.” 栗谷先生曰“泮宮首善之地.”

1918년 1월 10일. 무술. 맑음.

十日. 戊戌. 陽.

1918년 1월 11일. 맑음.

十一日. 己亥. 陽.

1918년 1월 12일. 경자. 맑음. 여러 손자들이 마른 대나무로 배를 만들어서 그 위에 앉아 마당에서 끌고다녔다. 내가 경계하여 말하기를 “단주(丹朱)<sup>9</sup>와 같이 오만하게 육지에서 배를 끌고 다니지 말라.”라고 하였다.

十二日. 庚子. 陽. 諸孫以藁筭爲舟, 坐其上, 盪於場. 余戒曰“無若丹朱傲盪舟陸地.”

1918년 1월 13일. 신축. 맑음.

十三日. 辛丑. 陽.

1918년 1월 14일. 임인. 맑음.

十四日. 壬寅. 陽.

1918년 1월 15일. 계묘. 맑다가 흐리고 흐리다가 바람이 불었다. 점을

9 단주(丹朱): 요(堯) 임금의 아들인데, 행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요 임금이 순(舜)에게 왕위를 넘겼다. 그러므로 우가 순 임금에게 고하기를 “단주처럼 오만하게 하지 마소서. 그는 태만하게 노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오만하고 포악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無若丹朱傲. 惟慢遊是好, 傲虐是作.]”라고 하였던 것이다. (《서경》〈익직(益稷)〉)

쳐서 <귀매(歸妹)>괘 구이(九二)효를 만났다. 구이(九二)에 “애꾸눈으로 보는 격이니, 은둔자의 곧음이 이롭다. [眇能視, 利幽人之貞]”라고 하였다. (정자의) <전(傳)>에서는 “이(二)는 강하고 바른 덕이 있어서 유정한 사람이다. [二有剛正之德, 幽靜之人也]”라고 하였다. (주자의) <본의(本義)>에는 “유인 또한 도를 품고 바름을 지키지만 때를 만나지 못한 자이다. [幽人亦抱道守正, 而不偶者也]”라고 하였다.

집사람 또한 <귀매>괘를 얻었고, 효 또한 오효(五爻)를 얻었다. 육오(六五)에 “은나라 왕 제율이 누이동생을 시집보낼 때, 그 정실의 옷차림이 측실의 옷차림만 못하다. 달이 거의 찰 때 길하다. [帝乙歸妹, 其君之袂, 不如其娣之袂良, 月幾望, 吉]”라고 하였다. <전>에 “기망은 아직 가득 차지 않은 것이다[幾望, 未至於盈]”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겸손하고 낮추어서 예를 따른다. [謙降從禮]”라고 하였다. <본의>에 “덕을 숭상하고 꾸밈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尚德而不貴飾]”라고 하였다.

十五日. 癸卯. 陽而陰, 陰而風. 占遇<歸妹>九二爻. 九二 “眇能視, 利幽人之貞.” <傳> “二有剛正之德, 幽靜之人也.” <本義> “幽人亦抱道守正而不偶者也.” 室人亦<歸妹>, 爻則亦五矣. 六五, “帝乙歸妹, 其君之袂, 不如其娣之袂良, 月幾望, 吉.” <傳> “幾望未至於盈.” 又曰, “謙降從禮”, <本義> “尚德而不貴飾.”

1918년 1월 16일. 갑진. 흐림. 새벽부터 저녁까지 가랑비가 그치지 않았다.  
十六(日). 甲辰. 陰. 自晨至暮, 微雨不絕.

1918년 1월 17일. 을사. 맑음.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장동에 도착했다. 밤에 비와 눈이 번갈아 내렸다. 대나무 숲이 눈에 눌러 꺾이는 소리가 설날 밤의 폭죽소리와 같았다.

十七日. 乙巳. 陽. 赴祖考忌, 底於章洞. 夜雨雪交降, 竹林爲雪所壓, 剖節之聲, 如元夜之爆竹.

1918년 1월 18일. 병오. 맑음.

十八日. 丙午. 陽.

1918년 1월 19일. 정미. 맑음.

十九日. 丁未. 陽.

1918년 1월 20일. 무신. 맑음.

二十日. 戊申. 陰.

1918년 1월 21일. 기유. 흐림.

二十一日. 己酉. 陰.

1918년 1월 22일. 경술. 흐림. 오후에 비가 내렸다.

二十二日. 庚戌. 陰. 午後雨.

1918년 1월 23일. 신해. 맑음. 사위 이대수(李大洙)가 왔다.

二十三日. 辛亥. 陽. 女婿李大洙來.

1918년 1월 24일. 임자. 맑음.

二十四日. 壬子. 陽.

1918년 1월 25일. 계축. 흐림.

二十五日. 癸丑. 陰.

1918년 1월 26일. 갑인. 맑음.

二十六日. 甲寅. 陽.

1918년 1월 27일. 을묘. 흐림. 들에서 아이들이 그의 이모부를 전송하는 것을 보고는 시경에 “제비와 제비의 낱이여, 오르내리도다. 저 사람이 돌아가매, 멀리 전송하노라. [燕燕于飛 頡之頡之, 之子于歸, 遠送于歸]”<sup>10</sup>라는 뜻을 알겠다.

二十七日. 乙卯. 陰. 見兒曹之送渠姨夫之於野, 知詩之“燕燕于飛, 頡之頡之, 之子于歸, 遠送于歸”之意.

1918년 1월 28일. 병진. 맑음.

二十八日. 丙辰. 陽.

1918년 1월 29일. 정사. 맑음.

二十九日. 丁巳. 陽.

1918년 1월 30일. 무오. 맑음.

三十日. 戊午. 陽.

1918년 2월 1일. 기미. 맑음.

二月. 初吉. 己未. 陽.

1918년 2월 2일. 경신. 맑음. 금양송(禁養松)을 심었다.

10 제비와 ... 전송하노라 : 《시경》〈패풍(邶風) 연연(燕燕)에 나온다.

二日. 庚申. 陽. 植禁養松.

1918년 2월 3일. 신유. 맑음.

三日. 辛酉. 陽.

1918년 2월 4일. 임술. 맑음.

四日. 壬戌. 陽.

1918년 2월 5일. 계해. 맑음.

五日. 癸亥. 陽.

1918년 2월 6일. 갑자. 가랑비가 내림.

六日. 甲子. 微雨.

1918년 2월 7일. 을축. 맑음.

七日. 乙丑. 陽.

1918년 2월 8일. 병인. 맑음.

八日. 丙寅. 陽.

1918년 2월 9일. 정묘. 맑음.

九日. 丁卯. 陽.

1918년 2월 10일. 무진. 맑음.

十日. 戊辰. 陽.

1918년 2월 11일. 기사. 맑음.

十一日. 己巳. 陽.

1918년 2월 12일. 경오. 맑음.

十二日. 庚午. 陽.

1918년 2월 13일. 신미. 흐림. 바람이 불고 큰비가 내렸다.

十三日. 辛未. 陰. 風大作雨.

1918년 2월 14일. 임신. 맑.

十四日. 壬申. 晴.

1918년 2월 15일. 계유. 맑음.

十五日. 癸酉. 陽.

1918년 2월 16일. 갑술. 맑음.

十六日. 甲戌. 陽.

1918년 2월 17일. 을해. 흐리고 비.

十七日. 乙亥. 陰雨.

1918년 2월 18일. 병자. 맑음.

十八日. 丙子. 陽.

1918년 2월 19일. 정축. 흐림.

十九日. 丁丑. 陰.

1918년 2월 20일. 무인. 흐림. 간간히 비가 내렸다.

二十日. 戊寅. 陰. 間雨.

1918년 2월 21일. 기묘. 흐림. 가랑비가 내렸다.

二十一日. 己卯. 陰. 微雨.

1918년 2월 22일. 경진. 흐림.

二十二日. 庚辰. 陰.

1918년 2월 23일. 신사. 흐리고 비 옴.

二十三日. 辛巳. 陰雨.

1918년 2월 24일. 임오. 흐리고 비 옴.

二十四日. 壬午. 陰雨.

1918년 2월 25일. 계미. 갸.

二十五日. 癸未. 晴.

1918년 2월 26일. 갑신. 흐리고 비가 옴.

二十六日. 甲申. 陰雨.

1918년 2월 27일. 을유. 흐림.

二十七日. 乙酉. 陰.

1918년 2월 28일. 병술. 흐림

二十八日. 丙戌. 陰.

1918년 2월 29일. 정해. 흐림.

二十九日. 丁亥. 陰.

1918년 3월 1일. 무자.

三月. 初吉. 戊子.

1918년 4월 8일. 갑자. 일전에 선산(先山)을 측량했는데, 측량원의 거주지와 성명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매곡(梅谷)의 김만택(金萬澤) 사당을 방문했다.

四月. 初八日. 甲子. 日前, 測量先山, 未知測量員之居住姓名, 故訪問梅谷金萬澤舍廡.

〈측량원인 고탐라 제주도 제주면 화북리 양치호에게 주다〉

贈測量員古耽羅濟州島濟州面禾北里梁致祐

선조 위한 한 길로 매곡에 임하니,	爲先一路臨梅谷
양씨의 어진 마음이 등한히 여기지 않았네.	梁氏仁心不等閒
공공한 도리가 지적도에 나타나니,	公公道理著於畫
경계가 분명한 태고의 산일세.	經界分明太古山

〈경상도 선산 옥성면 옥관동의 밀양후인 박용진의 시에 화답하다〉 和慶尙道

善山玉城面玉冠洞 密陽后人朴鏞振韻

남아가 하필 깊고 궁벽진 곳에 거주하라만,	男兒何必居幽僻
천명이니 달게 받아 스스로 한가하다네.	天乎命也自爲閒
산림의 도의는 예나 지금 마찬가지로,	山林道義同今古
하나의 경륜도 없이 이 산에 은거한다네.	無一經綸隱此山

그윽한 길을 통하여 가다 서암을 만났더니,	深通幽徑遇棲岩
말 없이 시만 주니 마음이 한가하지 않네.	無語贈詩心不閒
세간의 선비중에도 청백함이 있으니,	世間儒雅在清白

훗날에야 공정하게 그였음을 자세히 알리라. 後日詳知公畫山  
 〈양치호가 차운하여 짓다〉 梁致祐次

어찌하여 반드시 은둔을 깊은 벽지에 하라, 何須避地深於僻  
 호를 서암이라 하니 은거한 뜻 한가롭다. 號曰棲岩意棲閒  
 엄자룽 선생의 이름도 은자의 명부에 있으니, 嚴子先生名在隱  
 지금까지도 푸르름이 부춘산에 남았네. 至今餘翠富春山  
 〈박용진이 준 시〉 朴鏞振贈

1918년 4월 20일. 갑자. 맑음. 옥과에 성묘하러 갔다. 박준안(朴俊安)의 집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옥전(玉田)의 김참봉(金參奉) 댁에 가서 유숙하였다. 말이 경연관(經筵官), 서연관(書筵官)의 뜻에 미치지, 《현주집(玄洲集)》을 펼쳐서 읽어보니, 이 뜻이 이미 분명하였다. 서연관의 책임은 송독하고 강학하는 것이고, 경연관의 책임은 진강(進講)할 때 지의(旨義)를 토론하는 것이다.

二十日. 丙子. 陽. 作玉果省行. 午飯於朴俊安家, 轉及玉田金參奉宅, 留宿. 語及經書筵官之意, 披閱《玄洲集》, 此意已著. 書筵官之責, 誦讀講學而已, 經筵之責, 進講時, 討論旨義者也.

1918년 5월 5일. 장동에 도착하였다.

戊午. 五月. 五日. 到獐洞.

〈이희채(李熙采)의 보호록(保護錄)에 쓰다〉 題李熙采保護錄

산은 분명하게 네 산 내 산이 있어서, 山明人我山  
 수호하며 각자가 스스로 한가하였는데, 守護各自閑  
 어찌다가 서로 다투어 빼앗는 형세가 되어, 胡爲爭奪勢

송사를 일으키고 자주 범안(犯顔) <sup>11</sup> 하였다.	起訟累犯顔
어찌 엄벌에 처하는 우환을 당해,	寧恤嚴律處
구속된 채 기한 넘어 돌아왔으니,	拘繫過期還
중랑(中郎) <sup>12</sup> 이 한나라 절부를 지냈고,	中郎持漢節
맹상(孟嘗)이 진나라 관문을 나온 것 같네. <sup>13</sup>	孟嘗出秦關
부모와 처자가	父母與妻子
처음에 듣고 눈물 주르륵 흘리니,	初聞淚泫然
살갓 얼고 비가 새는 가시울 속이요,	凍膚漚棘裏
더위와 습기 가득한 변방의 형벌이었네.	暑濕積刑邊
만 번 죽다 살아남은 몸,	萬死餘生身
달이 다시 생겨나는 듯 살아나니,	如月再生弦
이웃마을 사람들 다투어 와서 모이고,	隣里爭來集
찬탄하며 축하연 함께 했네.	嗟歎共賀筵
지나온 것 보면 어진 줄 알겠으니,	看過知仁矣
상도에는 어긋나지만 바름에는 합치되었네. <sup>14</sup>	反經合正焉
인정으론 반드시 하기 어려운 것,	人情所難必
누가 알았으랴 그 효가 온전함을.	誰識其孝全
부모님 봉양하며 뜻을 이으니,	養志兼繼志
또한 노친의 연세 아는 것이네.	亦知老親年
본심에서 어찌 감히 미혹되랴.	本心豈敢惑
믿는 것은 하늘뿐이라.	所恃者上天

- 11 범안(犯顔) : 상관의 안색에 개의치 않고 말을 함부로 함.
- 12 중랑(中郎) : 중국 한나라 소무(蘇武)를 말한다. 무제(武帝) 때 소무(蘇武)가 중랑장(中郎將)으로서 흉노(匈奴)에게 사신 갔다가 억류를 당하여 19년 동안 한나라 절부(節符)를 가졌다. 《한서(漢書)》〈소무전(蘇武傳)〉에 보인다.
- 13 맹상(孟嘗)이 … 같네 : 전국 시대 제(齊)나라 맹상군(孟嘗君)이 진(秦)나라에서 도망쳐 올 때, 식객(食客) 한 사람이 닭 울음소리를 잘 흉내 내어 성문을 열게 한 덕분에 무사히 탈출했다는 고사가 있다. 《사기》권75 〈맹상군열전(孟嘗君列傳)〉
- 14 상도에는 … 합치되었네 : ‘상도에는 위배되지만 의리에는 합치됨[反經合道]’과 같은 말이다. 권도(權道)의 이해방식은 한나라 때의 학자와 송나라 때 주자와는 대립되는 해석을 하였다.

끝없는 복을 받은 까닭에	所以受遐福
고향 산소 하나같이 여전하고,	家山一如前
자손들 장차 성대하리니,	子孫將振振
어찌 힘쓰고 삼가지 않으랴.	何不勉慎旃

그대가 구금되고부터 갈수록 처량해지니,	自君縲繼轉淒然
다시는 서로 대면하는 자리 없을까 두려웠네.	恐或更無對面筵
차가운 가시울 속에서 죽을 고비 넘겼고,	萬死餘生寒棘裏
열 번 고꾸라지고 아홉 번 넘어지며 고향으로 돌아왔네.	十巔九倒故園邊

간과해도 인을 안 것은 노부를 따를 때이고,	看過知仁從老父
상도에 어긋나지만 바름에 합치됨은 청년일 때이라.	反經合正際青年

곧장 앞으로 용감히 나가는 것 남아의 일이니,	直前勇往男兒事
누가 알라 진정한 정성은 본래 하늘에서 낸 것임을.	誰識血誠本出天

誰識血誠本出天

1918년 7월 2일. 입추. 추천(秋川)의 사적을 기록한다.

戊午. 七月. 初二日. 立秋. 記秋川事蹟.

공의 이름은 준철(俊哲)이고, 자는 치도(杼道)이며, 호는 추천(秋川)으로, 하남부자 이천(伊川)과 승국충신 건천(巾川, 程廣)의 후예이다. 연원이 있는 대성(大姓)으로, 사문의 망족(望族, 명망이 높은 집안)이다. 7세조 필영(必永)이 광주 덕산으로부터 비로소 담양 목면(木面) 대추리(大秋里)<sup>15</sup>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 6세조는 만주(萬周)이고, 5세조는 이복(履福)이며, 고조는 경수(景洙)인데, 타고난 재질이 영특하여 열두세 살 때 능히 시서(詩

15 대추리(大秋里) : 담양군 구암면 대추리로, 현재 담양군 봉산면 대추리에 해당된다.

書)에 통달하였고, 부모 섬김을 지극히 효성스럽게 하였으며 상을 당해서는 여묘살이를 했다. 증조부 취옹(醉翁) 상권(尙權)은 천성이 효순하여 부모를 지성으로 섬겼고, 온 고을이 추중(推重)하였다. 할아버지는 달승(達承)이고, 아버지는 한평(漢平)인데, 덕행을 쌓고 은거하니 가풍에서 유래한 것이다. 어머니는 추성(秋城) 국씨(鞠氏)이니, 또한 두문동 72현 중의 한 사람인 사간 유(繻)의 후손 윤관(允觀)의 딸로, 부녀의 덕과 행실이 높아서 능히 태교할 줄을 알았으며, 순정후 4 기축년(1829) 7월 9일에 공을 담양부 지침리(砥砧里)<sup>16</sup>의 집에서 낳았다.

공은 타고난 자태가 순수하고 아름다웠으며, 영명 활달하고 노성하게 엄숙하여 바라본 사람은 저절로 공경심이 일어났다. 성품이 바르고 청명하며 간정하고 고결하여 악인(惡人)과는 함께 서 있지 않은 것이 마치 몸이 더러워질 듯이 했다.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는 늙을수록 더욱 독실해졌으며, 과거공부를 일삼지 않고 온전하게 위기지학(爲己之學)에 힘썼다. 이단을 멀리하고 바른 학문을 끝추세웠으며, 한결같이 천질(天秩)의 예(禮)로써 자기의 임무로 삼았다. 경전을 안고 홀로 서 있는 것이 마치 세찬 물결 속에 있는 지주(砥柱)와 같았고 벽처럼 우뚝 선 기상이었다.

정축년(1877)에 아버지의 상을 당했고, 정해년(1887)에 어머니 상을 당했는데, 상례와 장례에서 예를 다했고, 한결같이 주자가례를 따르며 건천(巾川)의 뜻을 이었다. 삭망으로 성묘를 하고, 춘추로 옛집을 방문하여 취옹(醉翁)의 일을 서술하였는데, 효성이 지극한 것은 천성이 그래서인가, 가훈이 그래서인가? 현회(顯晦, 유명해지는 것과 은폐되는 것)에 개의치 않으며, 알아주지 않아도 성년 기색이 없으니 군자인가, 군자로다. 향아리가 자주 비어도 걱정하지 않고, 자식을 기르지 못했어도 유감이 없으니, 명(命)을 알아서인가? 명을 아는 것이다. 배우자는 밀양 박씨 세은(世殷)의 딸로 또한 아름다운 덕(德)이 있어 아내의 도리를 지킬 수 있었다. 후사가 없이 죽어서 아우 준혁(俊赫)의 아들을 자식으로 삼았다.

만년에 평장동(平章洞) 친산(親山) 아래의 역촌(驛村)에 살면서 아침저녁

16 지침리(砥砧里) : 담양면 지침리로, 현재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이다.

으로 친묘(親墓)를 우러러 보니, 그 성효(誠孝)는 세상에서 필적할 사람이 드물다. 갑진년(1904) 정월 초일일에 남산(南山)의 본제(本第, 본가)에서 죽으니, 향년 76세였다.

평생 동안 지은 시문과 수문록(隨聞錄) 등을 기록한 것은 대개 공의 여사(餘事)인데, 영포(令抱, 남의 손자를 존칭하는 말) 경호(璟灝)가 모아가 지고 와서 나에게 한마디의 말을 청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평소 친하게 지낸 정이 있는지라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듣고 본 것을 간략히 기록하여 아름다운 자취를 이어가길 권면한다.

公諱俊哲, 字穉道, 號秋川, 河南夫子伊川之后, 勝國忠臣中川之裔也. 以淵源之大姓, 斯文之望族. 七世祖諱必永, 自光州德山, 始居潭陽木面大秋里. 六世祖諱萬周, 五世祖諱履福, 高祖諱景洙, 天才英特, 十二三歲能通詩書, 事親至孝, 因喪居廬. 曾祖醉翁諱尚權, 天性純孝, 事親至誠, 一鄉推重. 祖諱達承, 考諱漢平, 有陰德潛光, 而家風有素. 妣秋城鞠氏, 亦杜門洞七十二賢中司諫禱之后, 允觀之女, 幽閑靜貞, 能知胎教, 而崇禎四回己丑七月九日, 生公于府中祗砧里第. 天姿粹美, 英達夙成儼然, 人望自然生敬. 雅性清明, 簡貞高潔, 不與惡人立若將浼焉. 其於事親, 老而彌篤, 不事舉子業, 全務爲己學. 遠異端扶正學, 一以天秩之禮爲己任. 抱經獨立, 如頹波之砥柱, 壁立之氣像也. 丁丑丁外艱, 丁亥丁內艱, 喪葬盡禮, 一遵朱子家禮, 繼中川之志. 朔望省楸, 春秋訪舊, 述醉翁之事, 純孝至誠, 天性以然歟. 家訓以然歟. 不以顯晦介意, 不爲不知慍色, 君子乎, 君子也. 瓠婁空而不憂, 子不育而無憾, 知命歟知命也. 配密陽朴氏世殷之女, 亦有淑德, 能執婦道. 卒以無嗣, 以弟俊赫之子爲子. 晚居平章洞親山下驛村, 朝夕瞻望親墓, 其誠孝世罕與儔. 甲辰正月初一日, 歸終于南山本第, 享年七十六也. 平生所著詩律文, 與所記隨聞錄等篇, 蓋公之餘事, 而令抱璟灝蒐取, 以來請余一辭. 余竊想, 平昔親厚之誼, 不敢辭, 略記聞見, 以勉趾美.

〈망제(亡弟) 희중(希中)을 제사하는 글〉 祭亡弟希中文

유세차(維歲次) 무오년 7월 병술삭 25일 경술에, 형이 망제 회중의 영령에게 고하노라.

維歲次, 戊午七月丙戌朔, 二十五日庚戌, 兄告于亡弟希中之靈.

아! 슬프도다.	嗚呼哀哉
너는 나보다 뒤에 태어났는데,	爾後我生
어찌 나보다 먼저 갔느냐.	胡先我逝
목숨은 비록 정해져 있다지만,	命雖有定
어찌 아우가 먼저 죽는단 말인가.	豈如弟厲
한평생이 가난하여,	一生艱難
살아갈 계획도 없었고,	生活無計
세상의 도는 쇠미해져,	世衰道微
또 가세까지 잃었구나.	又爲失勢
죽음에 이르도록 변하지 않은 것은,	至死不變
바름을 얻은 조예였는데,	得正造詣
하루아침에 영결(永訣)하고,	一朝永訣
저승과 이승이 서로 막히게 되었네.	幽明相滯
보고 싶은 맘 비록 간절하지만,	欲見雖切
한 번이라도 볼 길 전혀 없네.	無路一睇
아, 슬프도다.	嗚呼痛哉
지금 사람 중에는,	凡今之人
형제만한 이 없으니,	莫如兄弟
외모(外侮)를 누가 막아주고,	外侮誰禦
곤경을 만나면 누가 구제해줄까.	遇險誰濟
내 마음이 비통하여,	我心悲傷
속절없이 상채(常棣) <sup>17</sup> 시만 읊조리네.	空詠常棣
세월이 빠르게 흘러,	日月流邁
어느덧 상제에 이르니,	奄及常制

17 상채(常棣): 형제의 우애를 읊은 시로 《시경》〈소아(小雅)〉에 들어있다.

비창함을 이길 수 없어	不勝悲愴
상제(上帝)에게 호소하려 하네.	欲訴上帝
척령(할미새)이 언덕에 있고,	眷令在原
기러기떼 물가에 있는데,	鴻鴈居汜
나 홀로 쓸쓸히	我獨蹢躅
어디에서 박(匏)처럼 매여 살까. <sup>18</sup>	居何匏繫
마음이 목석이 아니니,	心非木石
어찌 처창하지 않겠는가.	寧不愴悽
통곡하며 길게 부르짖고서,	痛哭長呼
눈물 흘리며 제에 임하니,	涕淚臨祭
옛적에 화목함을 생각하네.	念昔既翁
답락하는 형제를,	湛樂弟兄
지금은 볼 수 없으니,	至今不見
애통하고 평안치않도다.	哀慟不平
도로에서 짐 짊어질 때,	擔負道路
나의 짐을 네가 함께했었지.	我任爾并
함께 먹고 마심이 화락하였고,	飲食衍衍
마른 밥에 나물국 먹어도,	糗飯藜羹
가족이 함께 살며,	同居家門
내 이랑을 네가 갈았지.	我畝爾耕
병란을 함께 피하고,	共避兵亂
위험도 함께 행한 것을,	危險共行
절절이 생각하니,	節節思之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如聞容聲
너의 아들 칠수는,	爾子哲洙
점점 자라서 충영(充盈)해지고,	漸漸充盈

18 박처럼 매여 살까 : ‘포계(匏繫)’는 무용지물을 뜻한다. 《논어》〈양화(陽貨)〉에 “공자가 이르기를 ‘내 어찌 뒤웅박이겠느냐. 어찌 매달려 있지만 하고 먹지 못할 쏘냐. [吾豈匏瓜也哉? 焉能繫而不食?]’라 하였다.”라고 하였다.

나씨댁에 시집간 딸과 유서방도,	羅女柳婿
같이 와서 맞이하는구나.	亦爲來迎
이에 변변찮은 제물을 갖추어,	玆具菲薄
질명(質明, 날이 썰 무렵)에 바치고,	以陳質明
영혼에 바라노니,	靈祈祈
내려와서 정성을 흠향하시라.	庶幾享誠
소를 치면서 소 치는 것 잊고서,	牧牛忘牧牛
시냇가 논두렁에서 한가함을 틈타 잠든다.	澗畔借閑眠
또 인간사를 멀리하니,	且遠人間事
물소리만 꿈속을 감든다.	水聲繞夢魂

1918년 9월 30일. 9월[剝月]<sup>19</sup> 그믐에, 취하여 <지선주(止善酒)>를 지었다.

戊午. 剝月晦. 醉而題<止善酒>.

옛날에 예락(醴酪)<sup>20</sup>이 있어 의적(儀狄)<sup>21</sup>이 술을 만들었는데, 숭백(崇伯)의 아들이 싫어한 것은 부모를 돌아보고 봉양하고자 해서 그런 것이다.

<sup>22</sup> 주시(周詩, 시경)에 이미 이르기를, '이미 술에 흠뻑 취하였고, 이미 덕에

19 박월(剝月) : 박월(剝月)은 《주역》의 64괘(卦) 중 박괘(剝卦)에 해당하는 달로 음력 9월을 달리 부르는 말이다.

20 예락(醴酪) : 예(醴)는 하룻밤 만에 담근 감주(甘酒), 즉 발효가 덜 되고 멈춘 초보적인 단계의 술을 말하며, 락(酪)은 초(醋)를 가리킨다.

21 의적(儀狄) : 의적(儀狄)은 우(禹) 임금 때에 술을 잘 빚었던 사람이다. 하우씨(夏禹氏) 이전까지는 감주(甘酒)만 있고 술은 없었는데 우 임금 때에 이르러 의적이 술을 만들어서 우 임금에게 바치자, 우 임금이 마셔 보고 이르기를 “후세(後世)에 반드시 술 때문에 나라를 망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마침내 의적을 멀리했다고 한다. (《전국책》)

22 숭백의 아들 ... 것이다 : 숭(崇)은 나라 이름이며, 백(伯)은 작위(爵位)이다. 우 임금의 아버지인 곤(鯀)을 숭(崇)에 봉한 까닭에 《국어(國語)》에서 그를 숭백(崇伯)이라 하였다. 그 아들이란 우 임금을 말한다. (《전국책》 〈위책〉)에 우임금이 술을

배가 불렀도다[既醉以酒, 既飽以德]<sup>23</sup>라고 하였으니, 후세에도 금할 수 없었고, 제사에 술이 없으면 성대하지 않고, 즐거운 잔치에 술이 없으면 풍성하지 않은 것은 그 뜻이 그러해서인 것이다. 그러므로 진(晉)의 처사 정절(靖節, 도연명)은 갈건(葛巾)으로 술을 걸렀고<sup>24</sup>, 선정(先正)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는 술을 그칠 때 쓰기를 그쳤으니, 후생 말하야 어찌(술을) 마셔 근심을 잊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아, 이학(異學)이 봉기하여 우리 부자(夫子, 공자)의 도를 알지 못하고 천하를 바꾸고자 하니, 이 때문에 근심이 적지 않다. 근심을 해소하는 계책은 항상 술을 마시는 것이니, 조금만 마셔도 문득 취하여 낮빛이 풀리고 귀가 뜨거워지며 장(腸)이 풀려 배고픔을 면하게 된다. 때로 붓을 뽑아 선왕의 도를 조술(祖述)한다. 요(堯)는 ‘운집궐중(允執厥中)’<sup>25</sup>이라 하였고, 순(舜)은 ‘유정유일(惟精惟一)’을 더하였다. 우(禹)는 도를 탕(湯)에게 전하였고, 탕은 이 도를 문왕·무왕·주공에게 전했으며, 주공은 이

절타한 내용이 있고, 《맹자》〈이루 하〉에 우임금이 맛좋은 술을 싫어하였다는 구절이 있다. 또한 ‘부모를 돌아보고 봉양하고자 해서 그런 것’은 《맹자》〈이루 하〉의 ‘불고부모지양(不顧父母之養)’을 염두에 둔 말이다.

- 23 이미 술에 ... 불렀도다 : 《시경》〈대아(大雅) 기취(既醉)〉에 “이미 술에 흠뻑 취하였고 이미 덕에 배가 불렀도다. 군자께서 만년토록 큰 복을 누리시기를. [既醉以酒, 既飽以德. 君子萬年, 介爾景福]”이라는 말이 나온다.
- 24 진의 처사 ... 술을 걸렀고 : 도연명은 음악을 알지 못하면서 소금(素琴) 한 장(張)을 가지고 있는데 줄이 없었다. 매양 술과 쾌적한 일이 있으면 어루만져 희롱하여 그 뜻을 붙였고, 여름에 북창 아래 누워 있다가 맑은 바람이 불어오면 스스로 북희씨 시대의 사람이라 하였다. (《진서(晉書)》〈도잠전(陶潛傳)〉) 이백(李白)이 이를 인용해 지은 〈장난삼아 정을양에게 주다[戲贈鄭溧陽]〉라는 시에서 “소금은 본래 줄이 없고, 술 거를 땀 갈건을 썼다네. 맑은 바람 부는 북창 아래 누워, 스스로 태고 적 사람이라 하였네. [素琴本無絃, 漉酒用葛巾. 清風北窓下, 自謂羲皇人.]”라고 하였다.
- 25 운집궐중(允執厥中) : ‘진실로 그 중도를 잡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서경》〈대우모(大禹謨)〉에 “인심은 위태하고 도심은 미세하니, 오직 정밀하고 일관되게 하여 진실로 그 중도(中道)를 잡아야 한다.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라고 하였는데, 그 주(註)에 “요임금이 순에게 고할 때 다만 ‘진실로 그 중도를 잡아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순임금이 우에게 명하였으니, 또한 그 까닭을 미루어 자세히 말한 것이다. [堯之告舜, 但曰‘允執其中’, 今舜命禹, 又推其所以而詳言之.]”라고 하였다.

도를 우리 부자(夫子, 공자)에게 전했다.<sup>26</sup> 부자는 ‘우리 도는 일이관지(一以貫之)<sup>27</sup>’라고 말하였고, 문인인 안자는 ‘학이지지(學而知之)<sup>28</sup>’ 하였으며, 증자는 조술(祖述)하여 전하였고, 부자의 손자인 자사(子思)는 그 도가 실전될 것을 근심하여 《중용》을 지었다.

이단의 도는 나날이 새롭고 성대해졌지만, (우리 도는) 그 전함이 민멸(泯滅)되어, 곧 우리 도가 붙어 있는 것은 언어와 문자의 사이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도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아성(亞聖)인 맹부자[맹자]의 공이다. 송나라 하남(河南)의 두 부자[이정(二程)]께서 나오게 되자 선왕의 도가 찬란하게 다시 세상을 밝혔다. 남송에 이르러 천년에 한번 맑아지는 황하가 다시 맑아지게 된 것인가? 신안 부자(新安夫子, 주자)가 다시 일어나 위로 일천 성인의 도를 조술하자 사문이 크게 밝아지고 이륜(彝倫)이 펼쳐졌다. 이후로 제현이 계속 이어져 지금에 이르렀다. 망령된 자들은 사도(斯道)의 중함을 알지 못하고 갈광질광하며 향방을 알지 못하니, 지금에 뜻이 있는 자가 어찌 근심하지 않겠는가? 이 때문에 (술을) 마시며 스스로 지켜, 술을 ‘지선주(止善酒, 지극한 선에 머물게 하는 술)’로 삼는다. 古有醴酪，儀狄作酒，崇伯子惡旨，以其顧養而然也。《周詩》既曰，‘既醉以酒，既飽以德’ 則後世禁之不得。而祭祀非酒不殷，宴樂非酒非盛，以其旨之然也。故晉處士之貞節，漉用葛巾，金河西之先正，止以寫止，後生末學，豈不飲而忘憂也哉。嗚呼，異學蜂起，不知吾夫子之道，欲以易天下，以是之憂不少。解憂之計，常常引飲，飲少輒醉，則怡顏熱耳，解

- 26 우(馬)는 … 전했다: 한유의 <원도(原道)>에 “요는 이 도를 순에게 전하고, 순은 이 도를 우에게 전하고, 우는 이 도를 탕에게 전하고, 탕은 이 도를 문왕·무왕·주공에게 전하고, 그들은 공자에게 전하고, 공자는 맹가에게 전했는데, 맹가가 죽은 뒤에는 전하는 일이 없게 되었다. [堯以是傳之舜，舜以是傳之禹，禹以是傳之湯，湯以是傳之文武周公，文武周公傳之孔子，孔子傳之孟軻，軻之死，不得其傳焉。]”라는 유가(儒家)의 이른바 도통설(道統說)이 나온다.
- 27 우리 … 일이관지(一以貫之): 모든 이치가 하나의 이치로 관통된다는 뜻이다. 공자가 증자(曾子)에게 “우리 도는 하나로써 모든 것을 꿰뚫는다. [吾道一以貫之]” 한 데서 온 말이다. (《논어》〈이인(里仁)〉)
- 28 학이지지(學而知之): 배워서 이치를 아는 현인(賢人)의 공부를 뜻한다. (《논어》〈계씨(季氏)〉)

腸免飢. 於時抽筆, 而祖述先王之道. 堯曰 ‘允執厥中’, 舜加之以 ‘惟精惟一’. 禹以是傳之湯, 湯以是傳之文、武、周公, 周公以是傳之吾夫子. 夫子曰 ‘吾道一以貫之’, 門人顏子, 學而知之, 曾子述以傳之, 夫子之孫子思子, 憂失其傳, 而作《中庸》矣. 異端之道, 日新月盛, 其傳泯焉, 卽吾道之寄, 不越乎言語文字之間, 而傳其道者, 亞聖孟夫子之功也. 至於有宋河南兩夫子出, 而先王之道, 粲然復明於世. 至於南宋, 千一清之, 河復清歟? 新安夫子復起, 上述千聖之道, 斯文大闡, 彝倫惟敘. 此後諸賢, 繼繼承承. 至于今日, 妄彼人生, 不知斯道之爲重, 而俛俛然不知向方, 當今之時, 有志者, 寧不憂也? 故飲而自衛, 以酒爲止善酒.

1918년 10월 1일. 을묘. 맑다가 흐림.

十月. 初吉. 乙卯. 陽而陰.

〈계자첩(戒子帖)〉을 지었다. 作戒子帖

비록 효성스러운 자손이라도,	雖孝子孝孫
그들이 복역할 때는,	渠之服勞時
사친지심(思親之心)이 적어질 수 있고,	少思親之心
비록 우부우부(愚夫愚婦)라 할지라도,	雖愚夫愚婦
그들이 세도를 부릴 때는,	渠之用事時
사람을 짓누르는 기상이 있다.	有壓人之氣
이밖에도 여러 가지에 보이니,	除是見這般
심기를 끝까지 연마해가고,	心氣消磨前
익혀서 위로 진일보한다면,	習上進一步
거의 도에 가까워질 것이다.	庶幾乎道矣

1918년 12월. 계미. 그믐. 국휼(國恤)<sup>29</sup>을 들었다. 처음에는 12월 20

29 국휼(國恤): 국민 전체가 복(服)을 입는 왕실의 상으로, 국상(國喪) 또는 국애(國哀)라고도 한다. 여기에서는 1918년 12월 20일에 승하한 고종 황제의 상을

일에 승하하셨다고 들었다. 혹은 16일이라고 한다. 춘왕정월(春王正月)<sup>30</sup> 갑신 초하루[死魄]<sup>31</sup>의 삼일째 되는 날인 초사흘[哉生明]<sup>32</sup>에 소관(素官)과 소복(素服) 차림으로 이어암(李御巖)에서 왕을 위해 곡(哭)을 하였다. 기생백(既生魄)의 3일째 되는 날인 18일 신축(辛丑)에는 큰 안개가 하늘을 가리어 만나절이 되어도 걷히지 않고, 종일(終日) 이어졌다.

戊午. 十二月. 癸未. 晦. 聞國恤. 初聞十二月二十日昇遐矣. 或十六日也. 春王正月甲申死魄, 越三日哉生明, 素官素服哭王于李御巖. 既生魄越三日十八日辛丑, 大霧蔽天, 至半晌不捲, 連終日.

말한다.

- 30 춘왕정월(春王正月) : 공자가 지은 《춘추(春秋)》에 해마다 춘왕정월(春王正月)을 표기했는데, 이는 주(周) 나라의 정삭(正朔)이 아직도 천하에 행해지고 있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 31 초하루[死魄] : 백(魄)은 달이 태양빛을 받지 못해 어두운 부분을 말한다. 초하루의 달은 달빛이 아주 소멸하여 사백(死魄)이라 하고, 초이튿날의 달은 사백에 가깝다고 하여 방사백(旁死魄)이라 한다.
- 32 초사흘[哉生明] : 음력 초사흘을 말한다. 《서경》〈무성(武成)〉 주에 “재는 비로소이다. 비로소 밝음이 나타나니 음력 초사흘이다. [哉, 始也. 始生明, 月三日也]”라고 하였다.





1919년 2월 29일

가은재(可隱齋)시 2수

울곡선생세계도 -울곡선생전서(栗谷先生全書)

이기설(理氣說)

사물선후설(事物先後說)

신안주씨세보(新安朱氏世譜) -주부자세계(朱夫子世系)

고광선 증김증곤서(高光善贈金棕坤書) -고광선(高光善)

죽천재기(竹泉齋記)

잡기(雜記) -울곡선생전서(栗谷先生全書)

삼가 석호재에 차운하다[謹次石湖齋]

공학원과 이기(理氣)를 논함

서암기(棲巖記) -공학원(孔學源)

동지음(冬至吟)

우기시아(偶記示兒)(文)

성명(性命) -성리대전(性理大全)

기질지성(氣質之性) -성리대전(性理大全)

인심이 인욕으로 흐른다는 설[人心流於人欲說] -성리대전(性理大全)



1919년 2월 29일. 장성(長城) 사위 집에 도착했다.

己未. 二月. 二十九日. 到長城女婿家.

1919년 2월 30일. 외손 사위를 맞이했는데, 흥덕(興德) 아산(鵝山)<sup>1</sup>에 사는 오감천(吳感泉)의 후손이다.

三十日. 迎外孫婿, 卽興德鵝山吳感泉后孫也.

1919년 3월 2일. 선평(仙坪)<sup>2</sup>의 유송고(劉松皐)를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하고 물러나서 조병채(曹秉彩)<sup>3</sup>의 집에서 묵었다. 다음 날 울산 김씨(蔚山金氏) 선산(先山)인 북부등(覆釜嶺)<sup>4</sup>에 올랐는데, 산수가 뛰 어났다. 사면(四面)이 둥글게 에워싸고 공읍(拱揖)하는 것 같아, 마치 덕이 있는 군자가 깊은 궁 안에 있는 것과 같았다. 사방을 돌아보고 흠양(欽仰)하며 진실로 하서선생(河西先生)을 느끼게 되었다. 곧 선평(仙坪)으로 내려와 점심을 먹고 사산부자묘(泗山夫子廟)로 향하다가 명정(明亭)<sup>5</sup>에 사는 김희(金熹)의 사랑에서 유숙하였다. 다음 날 사산에 도착하여 부자묘에 헌관(獻官)으로 참여하였다. 5일 돌아오는 길에 공봉원(孔奉源)이 나에게 가은재(可隱齋) 시를 지어주기를 청하기에 귀가하여 완성했다.

1 아산(鵝山):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을 말한다.

2 선평(仙坪):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마령리 선평마을을 말한다.

3 조병채(曹秉彩): 경은(耕隱) 조희유(曹喜有 1742~1814)의 후손으로 조희유신도비(曹喜有神道碑)의 비문을 썼으며, 조희유의 시문집인 경은집(耕隱集)의 발문을 썼다.

4 북부등(覆釜嶺): 김인후의 5대조 김은(金穩, 1348~1413, 장성군 북이면 신평리에 그의 부조묘가 있다.)은 태종(太宗)조 왕위계승 정쟁에 휘말려 화를 입자 정부인(貞夫人) 여흥 민씨(驪興閔氏)가 아들 3형제를 데리고 솔가(率家)하여 전라도 장성(長城)으로 내려와 새 본거지로 삼았다. 여흥 민씨의 묘소가 북부혈 명당이라고 하는데,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명정리에 북부혈 유적지가 있다.

5 명정(明亭):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명정리를 말한다.

三月. 初二日. 訪仙坪劉松臯, 不遇退宿於曹秉彩家. 翌日登蔚山金氏先山覆釜嶺, 山水絕勝. 四面環抱拱揖, 如有德君子在深宮也. 四顧欽仰, 固感河西先生. 卽下仙坪午飯, 向泗山夫子廟, 留宿於明亭金煇舍廊. 翌日到泗山參夫子廟獻官. 五日回程, 孔奉源請余可隱齋韻, 歸家以成.

알맞은 곳 택했으니 세월 보낼만 하고,	云爲擇可送時年
독선(獨善) <sup>6</sup> 하니 심기(心機)가 눈앞에 드러나네.	獨善心機著目前
처한 상황 순리로 받아들이니 <sup>7</sup> 그밖의 것 원치 않고,	素位常行無慕外
영과(盈科) 이후의 나아감도 원천에서부터네. <sup>8</sup>	盈科工進自源泉
속진이 어찌 심산유곡의 경계를 더럽힐까?	俗塵何染深幽境
권세와 이익에 놀라지 않고 돌아와 취해 잠드네.	勢利不驚歸醉眠
부자(夫子)를 향사한 사당 항상 가까이 모시니,	夫子先祠長近侍
몸은 비록 숨었으나 도는 오히려 전해지리.	身雖隱也道猶傳

〈또〉	又
은거할 만한 시절에 가은재를 이루고,	可隱齋成可隱年
산 뒤에 숨다가 산 앞에서 더부네.	隱於山後與山前
문전에 기대 버들 심으니 봄에는 제비 쫓고,	門柳倚栽春逐鶯

- 6 독선(獨善) : 《맹자》 <진심 상(盡心上)>에 “근궁해지면 자기의 몸 하나만이라도 선하게 하고, 뜻을 펴게 되면 온 천하 사람들과 그 선을 함께 나눈다. [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라고 하였다.
- 7 처한 ... 받아들이니 : ‘素其位而行’에서 유래한 말이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순리대로 받아들임을 말하는 것으로,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4장에 “군자는 현제의 위치에 따라 행하고, 그 밖의 것을 원하지 않는다. [君子素其位而行, 不願乎其外]”라고 하였다.
- 8 영과 ... 원천에서부터네 : 맹자가 <이루 하(離婁下)>에서 “근원 있는 샘물이 풍풍 솟아나서 밤낮으로 쉬지 않는지라, 구덩이를 가득 채운 뒤에 전진하여 바다에 이르는 것이다. [原泉混混, 不舍晝夜, 盈科而後進, 放乎四海.]”라고 한 말과 관련이 있다.

그늘진 벼랑 가까우니 밤에도 샘물소리 들리네.	陰崖近隔夜涼泉
귀 씻은 <sup>9</sup> 경륜으로 속세를 벗어나고,	洗耳經綸塵世外
진리를 기른 의미로 한낮의 창가에서 잠 드네.	養真意味午窓眠
주인翁 심사는 세상을 저버리는 것 아니라,	主翁心事非長往
출처가 분명한 것이 도가 전해진 것이네.	出處分明是道傳

1919년 4월 8일. 기미. 아들의 병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이웃 학당에서 배우는 어린 학생이 두세 번 와서 청하기에 부득이 해서 가보니, 그의 스승이 안락과 가빈(嘉賓)의 즐거움에 익숙해져서 한창 <녹명(鹿鳴)><sup>10</sup>의 시를 노래하고 있었다. 나는 나라의 국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스승에게 말하기를, “옛날의 예악이 좋다면 좋은 것이지만, 국상 중에는 불가하니 깊이 양해해주시시오.”라는 말을 하고 곧바로 돌아왔다.

四月. 壬子. 朔初八日. 己未. 以子患惱碌, 而隣齋學少再三來請, 不得已往焉, 則其師習於安樂嘉賓之樂, 方歌<鹿鳴>. 余以國哀難參, 故語其師曰, “在昔禮樂, 好則好矣, 不可於國恤中, 深諒焉”之語, 而即還.

1919년 5월 20일. 경자. 흐림. 《울곡선생전서(栗谷先生全書)》 33권의 <선생세계도>를 보았다.

五月. 二十日. 庚子. 陰. 看《栗谷先生全書》卷之三十三<先生系圖>.

9 귀 씻은 은사 : 요(堯) 임금 당시 은사인 허유(許由)가, 천하를 물려받아 다스려 달라는 요 임금의 요구를 거절하고 영수(潁水) 남쪽에 은거하던 중에 요 임금이 또 불러 구주장(九州長)이 되어달라고 하자,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 하여 영수 물에 귀를 씻었다는 데서 인용한 것이다. 《고사전(高士傳)》

10 녹명(鹿鳴) : 《시경》 <소아(小雅)에 실려 있는 시의 편명으로, 임금과 신하 및 사방에서 온 손님이 잔치를 열어 도(道)를 강구하고 정사를 닦는 데 쓰이는 악가이다.

1세. 둔수(敦守). 이씨의 계출(系出)은 풍덕군(豐德郡)의 덕수현(德水縣)이다. 고려 조정에서 중랑장(中郎將)을 지냈다.

一世. 敦守. 李氏系出豐德郡之德水縣. 高麗朝中郎將.

2세. 양준(陽俊). 보승장군(保勝將軍)이다.

二世. 陽俊. 保勝將軍.

3세. 소(劬). 함문지후(閤門祇候)로 자금어대(紫金魚袋)를 하사 받았고, 지삼사사(知三司事)를 지냈다.

三世. 劬. 閤門祇候. 賜紫金魚袋. 知三司事.

4세. 윤온(允葢). 민부전서(民部典書)로 첨의정승(僉議政丞), 덕수부원군(德水府院君)에 증직되었다.

四世. 允葢. 民部典書. 贈僉議政丞. 德水府院君.

5세. 천선(千善). 공민(恭愍)왕의 조정에서 기씨(奇氏)를 죽인 공이 있어서 수사공주국(守司空柱國) 낙안백(樂安伯)이 되었다. 시호는 양간(良簡)이다.

五世. 千善. 恭愍朝誅奇氏有功. 守司空柱國樂安伯. 諡良簡.

6세. 인범(仁範). 정당문학(政堂文學)·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지냈다.

六世. 仁範. 政堂文學. 藝文館大提學.

7세. 양(揚). 조선에 들어와 공조참의(工曹參議)를 지내고 판서(判書)에 증직되었다.

七世. 揚. 入我朝工曹參議. 贈判書.

8세. 명신(明晨).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를 지냈고, 시호는 강평(康平)

이다.

八世. 明晨. 知敦寧府事, 諡康平.

9세. 추(抽). 지온양군사(知溫陽郡事)를 지냈고,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증직되었다.

九世. 抽. 知溫陽郡事. 贈議政府左贊成.

10세. 의석(宜碩). 경주판관(慶州判官)으로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에 증직되었다. 이하 3대의 증직은 모두 선생이 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十世. 宜碩. 慶州判官, 贈司憲府大司憲. 以下三世之贈, 皆以先生貴也.

11세. 천(薦).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에 증직되었다.

十一世. 薦. 贈議政府左參贊.

12세. 원수(元秀). 자(字)는 덕형(德亨)이다.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이며,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증직되었다. 부인은 평산(平山) 신(申)씨로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증직되었다. 기묘명인(己卯名人)인 진사(進士) 명화(命和)의 딸이다. 어려서 경서를 통달하여 문장에 능하고 회화와 침선(針線)을 잘하였다. 타고난 자질이 효순하며, 지조가 단정하고 말 수가 적으며 언행에 신중하였다. 네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 선(璿)은 참봉(參奉)이고 차남은 변(璠)이며 다음이 선생이고 막내가 우(瑀)로 감정(監正)이었다.

十二世. 元秀. 字德亨. 司憲府監察, 贈議政府左贊成. 夫人平山申氏, 贈貞敬夫人. 己卯名人, 進士諱命和女. 少通經書, 能屬文善繪事針線, 天資純孝, 志操端潔, 寡言慎行, 生四男, 長璿參奉、次璠、次即先生、季瑀, 監正.

13세. 이(珥). 곧 선생으로, 셋째 아들이다. 부인은 노씨(盧氏)로 자식이 없고, 측실(側室)에 두 명의 아들이 있어 경임(景臨)과 경정(景鼎)이다.

十三世. 珥. 卽先生, 序第三. 夫人盧氏無子, 側室二男, 景臨、景鼎.

14세. 경임(景臨). 교관(敎官)으로 복정(僕正)에 증직되었다. 아들에 제(濟)·거(矩)·추(秋)·칭(稱)이 있다.

十四世. 景臨. 敎官, 贈僕正. 男濟、矩、秋、稱.

15세. 제(濟). 참봉(參奉)으로 호조참의에 증직되었다. 아들이 없어서 거(矩)의 아들 후시(厚時)를 양자로 삼았다.

十五世. 濟. 參奉, 贈戶議. 無子, 子矩男厚時.

16세. 후시(厚時). 별제(別提)로 호참(戶參)에 증직되었다. 아들 계(繼)가 일찍 죽자 조정의 명으로 후수(厚樹) - 추(秋)의 아들 - 의 아들 연(鋌)을 아들로 삼았다.

十六世. 厚時. 別提, 贈戶參. 男繼早夭, 以朝命子厚樹【秋子】男鋌.

17세. 연(鋌). 첨지(僉知). 아들에 돈오(敦五)·진오(鎭五)·행오(行五)·휘오(徽五)가 있다.

十七世. 鋌. 僉知. 男敦五、鎭五、行五、徽五.

18세. 돈오(敦五). 참봉(參奉). 아들에 백(伯)·중(仲)·보(備)가 있다.

十八世. 敦五. 參奉. 男伯、仲、備.

19세. 백(伯). 별제(別提). 아들에 인림(仁林)·예림(禮林)이 있다.

十九世. 伯. 別提. 男仁林、禮林.

20세. 인림(仁林). 군수(郡守). 아들에 묵(默)·점(點)·익(黻)·유(黜)가 있다.

二十世. 仁林. 郡守. 男默、點、黻、黜.

21세. 묵(默). 진사(進士)로 사복정(司僕正)에 증직되었다. 아들에 종효(宗孝)·근효(根孝)가 있다.

二十一世. 默. 進士, 贈司僕正. 男宗孝、根孝.

22세. 종효(宗孝). 현감(縣監)으로 좌승지(左承旨)에 증직되었다. 아들에 민도(敏道)·민학(敏學)·민성(敏性)·민경(敏敬)이 있다.

二十二世. 宗孝. 縣監, 贈左承旨. 男敏道、敏學、敏性、敏敬.

23세. 민도(敏道). 도정(都正)으로 호참(戶參)에 증직되었다. 아들에 한영(漢永)과 태영(台永)이 있다.

二十三世. 敏道. 都正, 贈戶參. 男漢永、台永.

24세. 한영(漢永). 문과(文科)에 합격하여 참판(參判)을 지냈다. 아들이 없어서 태영(台永)의 아들 종문(種文)을 아들로 삼았다.

二十四世. 漢永. 文科參判. 無子, 子台永子種文.

25세. 종문(種文). 문과(文科)에 합격하여 교리(校理)를 지냈다. 아들은 학희(鶴熹)·유희(瀏熹)가 있다.

二十五世. 種文. 文科校理. 男鶴熹、瀏熹.

또 선생 연보를 기록하였다. 又記先生年譜.

병신년(1536), 명나라 세종황제(世宗皇帝) 가정(嘉靖) 15년, 우리 중종 공희대왕(恭僖大王) 31년 12월 정미(丁未) 26일, 인시(寅時)에 선생이 강릉 부(江陵府) 북평촌(北坪邨)에서 태어났으니, 곧 선생의 외갓집이다. 이해 봄에 어머니께서 꿈에 용을 보고서 낳았기 때문에 어려서의 자(字)를 현룡(見龍)이라 하였으며, 열두 달 만에 낳았다. -7세에 <진복창전(陳復昌傳)>을 지었으며, 13세에 진사시(進士) 초시(初試)에 합격하였다. 16세에 어머니 신씨부인의 상을 당했다. -

丙申, 大明世宗皇帝嘉靖. 十五年, 我中宗恭僖大王三十一年, 十二月丁未二十六日寅時, 先生生于江陵府北坪邨, 卽先生外氏第. 是年春, 母夫人夢見龍而生, 故小字見龍, 十二朔而生焉. 【七歲, 作〈陳復昌傳〉. 十三歲, 中進士解. 十六歲, 丁申夫人憂.】

19세인 갑인년(1554)에 관례(冠禮)를 행했다. 금강산으로 들어갔다. - 석씨(釋氏, 불교)의 서적을 보고서 선학(禪學)의 설에 몰든 일이 있었다. - 벗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글을 남겼는데 그 대략에, “기(氣)는 사람들이 똑같이 타고난 것으로서, 잘 기르면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고, 잘 기르지 못하면 마음이 기의 부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기가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면 몸이 주재(主宰)가 되어서 성현도 될 수 있는 것이요, 마음이 기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되면 칠정(七情)을 통솔하는 데가 없어서 어리석고 미친 사람이 됨을 면할 수 없다. 옛사람 가운데 기를 잘 기른 이가 있는데, 맹자(孟子)가 바로 그 분이다. 사람이 이치를 궁구하고 성품을 극진히 하는 데 뜻을 둔다면 이것을 버리고 어디 가서 찾겠는가. 공자(孔子)가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sup>11</sup>라고 했는데, 산수를 좋아하는 자는 흐르는 물과 높이 솟은 봉우리만을 취한 것이 아니라 동정(動靜)의 체(體)를 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진 이와 지혜로운 이가 기를 기르는 방법을 체득하려면 산과 물을 버리고 어디서 찾겠는가.”라고 하였다.

十九歲, 甲寅, 冠禮. 入金剛山. 【有看釋氏書, 染禪學說.】留別諸友, 其略曰 “氣者人之所同得而養之則役於心, 不能養之, 則心爲氣役. 氣役於心, 則一身有主宰, 而聖賢可期, 心役於氣, 則七情無統紀, 而愚狂難免. 古之人有善養者, 孟子是也. 人之有志於窮理盡性者, 捨此而奚求哉. 孔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樂山水者, 非取其流峙而已, 取其動靜之體也. 仁智者之所以養氣者, 捨山水而奚求哉.”

11 지혜로운 ... 좋아한다 : 《논어》〈용야(雍也)〉에 “지혜로운 이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이는 산을 좋아한다. [知者樂水, 仁者樂山]”라는 말이 나온다.

20세인 을묘년(1555) 봄에, 강릉으로 가서 <자경문(自警文)>을 저술했다.

二十歲, 乙卯, 春, 往江陵, 著<自警文>.

21세인 봄에, 서울 집으로 돌아와 대책(對策)으로 한성시(漢城試)에서 일등으로 뽑혔다.

二十一歲, 春, 還京第. 對策魁漢城試.

22세인 9월에, 부인 노씨(盧氏)에게 장가들었는데, 성주목사(星州牧使) 노경린(盧慶麟)의 딸이다.

二十二世, 九月, 聘夫人盧氏, 星州牧使, 諱慶麟之女也.

23세인 무오년(1558) 봄에, 예안(禮安)의 도산서원(陶山書院)으로 퇴계 이황 선생을 뵈고, 읍시 한 수를 올렸다.

시내가 나뉘니 수사 <sup>12</sup> 의 갈래요,	溪分洙泗派
봉우리 빼어나니 무이산 <sup>13</sup> 이로다.	峰秀武夷山
살아가는 계획은 천권의 경전이요,	活計經千卷
생애는 두어 칸의 초옥이라네.	生涯屋數間
흥회는 개인 달 <sup>14</sup> 같이 트여 있으니,	襟懷開霽月
담소함에 미친 물결 <sup>15</sup> 막는 도다.	談笑止狂瀾
소자는 도(道) 듣기를 원함이지,	小子求聞道
반일의 한가한 틈을 취함이 아납니다.	非偷半日閒

12 수사(洙泗): 공자가 살던 곳의 물 이름이다.

13 무이산(武夷山): 주자가 거처하던 산의 이름이다.

14 개인 달(霽月): 송(宋) 나라 황산곡(黃山谷)이 주렴계(周濂溪)의 인품을 칭찬하여 광풍계월(光風霽月)이라 하였다.

15 미친 물결: 미친 물결은 학문과 도덕이 퇴폐하여 흘러가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퇴계 선생이 화답하여 읊었다.

내 병으로 문 닫아두고 봄을 보지 못했더니,	病我牢關不見春
공이 와서 회포를 열어주니 심신이 맑아지네.	公來披豁醒心神
비로소 명성아래 헛된 선비 없음을 알았으니,	始知名下無虛士
연상으로 몸가짐 부족이 부끄럽기만 하네.	堪愧年前闕敬身
좋은 곡식은 돌피가 잘 익기를 용납지 않고,	嘉穀莫容稊熟美
갈고 닦은 새 거울엔 먼지를 허락지 않네.	遊塵不許鏡磨新
정이 과한 시어는 모름지기 깎아 버리고,	過情詩語須刪去
저마다 공부에 힘써 날로 가까워지세.	努力功夫各日親

퇴계 선생과 더불어 주경(主敬) 공부, 《대학》의 정정안려(定靜安慮)<sup>16</sup> 및 오타(敖惰)<sup>17</sup>의 의미, 정자(程子)의 격물설(格物說), 주자의 존양성찰(存養省察)의 가르침과 사호(四皓)<sup>18</sup>의 출처(出處), <성학십도(聖學十圖)>의 의 심처를 강론했다. -원편(原編)에 함께 보인다. - 겨울에 향시(別試)에 장원으로 합격했다.

二十三歲, 戊午, 春, 謁退溪李先生于禮安之陶山. 仍呈一律 “溪分洙泗

16 정정안려(定靜安慮) : 《대학장구(大學章句)》에 “그칠 데를 안 뒤에 정함이 있으니, 정한 뒤에 고요할 수 있고, 고요한 뒤에 편안할 수 있고, 편안한 뒤에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한 뒤에 얻을 수 있다. [知止而后有定, 定而后能靜, 靜而后能安, 安而后能慮, 慮而后能得.]”라고 하였는데, 주자의 주에 “지(止)는 마땅히 그쳐야 할 곳이니 바로 지선(至善)이 있는 곳이다. 이것을 안다면 뜻이 정(定)한 방향이 있을 것이다. 정(靜)은 마음이 망령되어 동(動)하지 않음을 이르고, 안(安)은 처한 바에 편안함을 이르고, 려(慮)는 일을 처리하기를 정밀하고 상세히 함을 이르고, 득(得)은 그 그칠 바를 얻음을 이른다.” 하였다.

17 오타(敖惰) : 《대학장구》 전(傳) 8장에 무릇 사람이란 “오만하고 태만이 한 데에서 편벽되기 마련이다. [所敖惰而僻焉]”라는 말이 나온다.

18 사호(四皓) : 사호는 상산(商山)에 은거한 네 노인, 즉 동원공(東園公)·기리계(綺里季)·하황공(夏黃公)·녹리선생(角里先生)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한 고조(漢高祖)가 초빙할 때에는 전혀 응하지 않다가 나중에 장량(張良)의 권유를 받고 나와서 태자로 있던 혜제(惠帝)를 보필했던 고사가 있다. 《사기》 권55 유후세가(留侯世家)

派, 峯秀武夷山. 活計經千卷, 生涯屋數間. 襟懷開霽月, 談笑止狂瀾. 小子求聞道, 非偷半日間.”退溪先生和云 “病我牢關不見春, 公來披豁醒心神. 始知名下無虛士, 堪愧年前闕敬身. 嘉穀莫容稊熟美, 遊塵不許鏡磨新. 過情詩語須刪去, 努力功夫各自親.”與退溪先生講論, 主敬功夫、《大學》定靜安慮及教情之義、程子格物之說、朱子存養省察之訓, 與四皓出處、聖學十圖可疑處【竝見原編】. 冬, 魁別試解.

26세인 5월에, 아버지 찬성공(贊成公)의 상을 당했다.

二十六歲, 五月, 丁贊成公憂.

29세인 7월에, 생원과 진사에 합격하고, 8월에 명경과(明經科)에 급제하여 호조좌랑(戶曹佐郎)에 제수되었다. 감시(監試)의 초시(初試)와 복시(覆試)에 장원하였으며, 문과에도 장원하였다. 생원 및 문과 복시와 전시 등 대개 전후로 장원을 한 것이 모두 아홉 번이다. 장방(唱榜, 과거 시험 합격자 발표) 하는 날에 저잣거리의 아이들이 말을 둘러싸고 말하길, “아홉 번 장원한 공이시다.”라고 하였다.

二十九歲, 七月, 中生員、進士, 八月, 中明經及第, 拜戶曹佐郎. 魁監試兩場, 文科又魁, 生員及文科覆試, 殿試, 蓋前後居魁者凡九. 唱榜之日, 市童擁馬曰 “九度壯元公也.”

30세인 을축년(1565) 봄에, 예조좌랑(禮曹佐郎)으로 옮겼으며, 9월에 황장목 경차관(黃腸木敬差官)<sup>19</sup>으로서 관서(關西)에 갔다가 겨울에 복명(復命)하였고, 11월에는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에 제수되었다.

三十歲, 乙丑, 春, 移禮曹佐郎. 九月, 以黃腸木敬差官, 往關西, 冬復命, 十一月, 拜司諫院正言.

19 황장목 경차관(黃腸木 敬差官): 황장목은 속이 누런 질 좋은 소나무로 임금의 관(棺)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었는데, 조정에서 특별히 경차관을 보내어 관리하였다.

31세인 병인년(1566) 3월에, 다시 정언(正言)에 제수되었다.  
三十一歲, 丙寅, 三月, 復拜正言.

32세인 정묘년(1567) 목종황제(穆宗皇帝) 융경(隆慶) 원년에 대행대왕 [명종]의 만사(挽詞)를 지어 올렸다. -원편에 보인다. - 10월에 기고봉(奇高峯, 기대승)의 편지에 답장하였다.

丁卯, 穆宗皇帝隆慶元年, 先生三十二歲, 製進大行大王挽詞. 【見原編】  
十月, 復奇高峯書.

고봉 기대승은 ‘대학’의 지극한 선에 그친다[止至善]를 다만 행처(行處)에 속한다고 했으며, 명명덕(明明德)은 궁리 진성(窮理盡性)<sup>20</sup>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선생이 변론하여 말씀하시길, “지선(止善)이라는 것은 다만 사물의 당연한 법칙입니다. 통합하여 말하면 지(知)와 행(行)이 모두 지극하여 하나의 흠도 남아 있지 않고 만 가지 이치가 다 밝아진 뒤에야 지지선(止至善)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나누어 말하면 지에도 지선이 있고 행에도 지선이 있습니다. 지가 매우 알맞은 곳에 이르러 다시 이역(移易)할 것이 없으면 지의 지어지선(止於至善)이라고 말하며, 행이 매우 알맞은 곳에 이르러 다시 천동(遷動)할 것이 없으면 행의 지어지선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선생의 말대로라면 행에만 지선이 있고 지에는 지선이 없는 것입니다. 사물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물의 법칙이 있는 것인데, 지는 무슨 사물이기에 홀로 지선이 없겠습니까? 만약 지를 물(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 명덕(明德)도 물이라 하는데 이 지(知)만 홀로 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보내온 말씀에 ‘명명덕(明明德)을 아무리 다한다 해도 궁리진성(窮理盡性)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더욱 온당치 못한 말입

20 궁리 진성(窮理盡性) : 이치를 궁구하여 천성(天性)을 다하는 것. 《주역》〈설괘전(說卦傳)〉에 ‘窮理盡性, 以至於命’이라 하였는데, 그 주석에 ‘천하의 이치를 궁구하고 인물의 성을 다하여 천도에 합치되게 하는 것이다. [窮天下之理, 盡人物之性, 而合於天道]’라고 하였다.

니다. 명명덕이라는 조목에 격물치지(格物致知)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궁리입니다. 또 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진성입니다. 만약 보내온 말씀과 같다면, 《대학》에 대한 공부를 아무리 극진히 한다 해도 오히려 성인의 경지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무릇 그렇게 된다면 공자가 무엇 때문에 사람에게 지극한 도로 가르치지 않고 제 2등에 속하는 학문으로 가르쳤겠으며, 또 사람으로 하여금 그 도를 다하기 어렵도록 하여 다만 제 2등에 속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겠습니까?

보내온 편지에 또 이르기를, ‘능득(能得)은 불혹(不惑)의 지위가 되기 때문에 명명덕은 궁리 진성의 지위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너무 고집스러운 말입니다. 선유의 해설은 각각 가리키는 바가 있으므로 너무 고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능득’이란 본래 얕거나 깊은 경지가 있는 것이니, 그 얕은 것으로 말하자면 불혹 또한 능득이라 말할 수 있고, 깊은 경지로 말하자면 생각하지 않고도 알게 되거나 힘쓰지 않아도 맞게 되는 것이 아니면, 능득의 극공(極功)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대학》의 극공이 불혹에만 그치고, 끝내 성인의 지위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판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또 ‘안자(顏子)는 정심(正心)에 대한 공부가 덜 되었다’고 한 말은 어찌 고명계 또한 불합리함이 있을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오직 성인만이 그 심성의 분수를 다할 뿐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심성의 분수에다 조금 더 보탬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만약 ‘성인도 심성 위에다 또 더 보탬 것이 있다[聖人於心性上又有加焉]’고 한다면, 안자도 그 심정(心正)에 대한 극공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성인은 털끝만큼도 더하지 않는다[聖人不加毫末]’<sup>21</sup>고 한다면, 안자는 본래 미진한 데가 조금 있다는 말입니다. 심정에 대한 극공을 이미 다하지 못했다면, 심의 지(知)도 역시 조금 미진한 데가 있게 됩니다.

21 성인은 ... 않는다 : 《맹자》〈이루(離婁) 하〉에서 “양씨가 말하길, ‘성인이 하시는 바는 본분 밖에 털끝만큼도 더하지 않음을 말씀한 것이니, 맹자처럼 참으로 공자를 아신 분이 아니라면 이 말로써 칭할 수 없다. [楊氏曰, 言聖人所爲, 本分之外, 不加毫末, 非孟子真知孔子, 不能以是稱之.]’라고 하였다.”

또 성인의 '종심소욕(從心所欲)'이란 말은 마음에 하고 싶은 바를 모두 천리대로 한 때문이었고, 안자가 종심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은 마음에 하고 싶은 바를 혹 천리대로 하지 못한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른바 비천리(非天理)라고 한 것은 지극히 정미한 경지에 나아가 말한 것 뿐이고, 안자에게 문득 나쁜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종심소욕'이 되지 못했다면 그 심성의 분수를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저 이른바 성(聖)이라고 하는 것이나 이른바 화(化)라고 하는 것이나 이른바 신(神)이라고 하는 것들은 알기 어려운 허황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 심성에 대한 분수를 다했다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안자가 이미 그 심성에 대한 분수를 다하긴 했지만 아직은 화(化)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성인의 덕은 반드시 심성에 대해 군더더기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안자가 심성에 대한 극공은 다했다고 할지라도 심성에 대한 분수는 다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대학>의 공부는 제2등에 떨어져 있는 셈입니다.

또 고명께서는 '명명덕을 이미 다한 다음에야 바야흐로 지이지선(止於至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나는 '명명덕을 이미 다한 곳이 바로 명명덕에 대한 지지선(止至善)이다'라고 여깁니다. 이 말이 비록 서로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 배우는 자가 자세히 살피지 않고 명명덕을 이미 다한 연후에 또 지지선 공부를 구해야한다고 여긴다면 어찌 큰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또 보내온 편지에 '이른바 지선이란 것은 중(中)이 아니다'고 한 말도 역시 온당치 못합니다. 지선에는 천연적으로 그 중(中)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현의 말씀은 비록 각각 가리키는 바가 있어서 명칭을 붙이긴 했을지라도 그 실재를 따지면 다 한 가지입니다. 만약 모두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이미 지선이란 명칭이 있고 또 중이란 명칭이 있으며, 또 당연지칙(當然之則)이라는 명칭도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배우는 자가 장차 어디를 따라야겠습니까?'라고 하였다.

奇高峯大升 '以大學止至善, 只屬於行處, 又以明明德, 非窮理盡性'.

先生辨之曰“至善云者，只是事物當然之則也。統而言之，則知行俱到，一疵不存，萬理明盡之後，方可謂之止至善，分而言之，則於知亦有箇至善，於行亦有箇至善。知到十分恰好處，更無移易，則謂知之止於至善，行到十分恰好處，更無遷動，則謂行之止於至善。若如來教，則於行只有至善，而於知無有至善。有物必有則，知是何物，而獨無至善耶？若以知爲非物，則明德且謂之物，知獨非物耶？且來教，所謂明明德雖盡，猶未到窮理盡性者，尤爲未安。明明德之目，有格物致知，此則窮理也。有誠意正心修身，此則盡性也。若如來教，則大學功夫雖極盡，而猶未至聖人也。夫如是，則孔子何不教人以至極之道，而乃教以第二等之學，使人雖盡其道，只做第二等人耶？來教，又以爲能得爲不惑地位，故明明德，未到窮理盡性地位，此亦太固。先儒之說，各有所指，不可執滯也。能得固有淺深，就其淺者言之，則不惑亦可謂之能得，就其深處言之，則非不思而得，不勉而中，則不可謂之能得之極功，烏可判大學之極功，止於不惑，而終不至聖人地位耶？且顏子未盡正心功夫云者，豈意高明亦有不合也，且道聖人只盡其心性之分耶？抑加毫末於心性之分耶？若曰‘聖人於心性上又有加焉’，則顏子可謂畢心正之極功矣。若曰‘聖人不加毫末’，則顏子固有一毫未盡處矣。心正之極功既未畢，則心之知亦有一毫未盡處矣。且聖人之從心所欲者，心所欲皆天理故也。顏子之未得從心者，心所欲有時非天理故也。此所謂非天理者，就其至精至微處言之耳，非謂顏子便有惡念也。既不得從心所欲，則不可謂之盡其心性之分也。夫所謂聖，所謂化，所謂神者，非渺茫恍惚之謂也，只是盡其心性之分而已。若曰顏子既盡心性之分而猶未化，則是聖人之德，必有贅於心性也。烏可哉？若曰顏子既畢心正之極功，而猶未盡心性之分，則大學功夫，落在第二等矣。且高明以爲明明德既盡，然後方可止於至善。珥以爲明明德既盡處，此是明明德之止至善。此說雖不大忤，若學者不察，以爲明明德既盡，然後又求止至善功夫，則豈不大錯耶？且來教，所謂至善非中者，亦未安，至善乃天然自有之中也。聖賢之說，雖各有所指而名之者，其實一也。若皆二之，則既有至善，又有中，又有當然之則，學者將何所適從耶？”

5월에, 우계선생(牛溪先生)과 더불어 지선(至善)과 중(中), 그리고 안자의 격치성정(格致誠正)에 대한 설을 논하였다.

五月. 與牛溪先生, 論至善與中及顏子格致誠正之說.

우계선생이 중(中)을 체(體)로, 지선을 용(用)으로 삼고, 또 시중(時中)의 중을 솔성(率性)의 도(道)로 삼으니, 선생이 편지로 변론하였다. “지선은 태극의 다른 이름이며, 명덕(明德)의 본체입니다. 하늘로부터 얻어서 본연한 일정의 법칙이 있는 것은 지선의 체이니,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통체(統體)의 태극입니다. 일용(日用) 사이에 나타나서 각각 본연한 일정의 법칙이 있는 것은 지선의 용이니, 바로 사물마다 각각 갖춘 태극입니다. 이로 본다면 지선의 체가 바로 미발(未發)의 중이 아니겠으며, 지선의 용이 사물 상에 저절로 있는 중이 아니겠습니까? 대개 지선의 체는 곧 미발(未發)의 중으로, 천명의 성인 것이고, 지선의 용은 바로 사물 상에 저절로 있는 중으로 솔성의 도인 것입니다.

지어지선이라는 것은 바로 ‘시중의 중[時中之中]’으로 도를 닦는 교(修道之教)입니다. 지선(至善) 상에서 성(性)과 도(道)를 나누지만 교(教)자를 붙일 수 없는 것은, 지선은 오로지 정리(正理)만을 가리킨 것일 뿐, 인사(人事)를 겸하여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中) 자 상에서 성(性)·도(道)·교(教)를 통하여 말한 것은 중(中)자는 성정(性情)과 덕행을 겸하여 말했기 때문입니다. 형계서는 중을 체로 삼고, 지선으로 용을 삼았으니, 온당치 못한 것이 아닙니까?

또 형계서 시중의 중을 솔성의 도로 삼은 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중은 도를 닦는 것인데, 만약 이것으로 솔성의 도라고 한다면, 도는 곧 사람으로 인하여 있게 되는 것이니, 어찌 옳겠습니까? 또 발현되지 않은 중(中)은 다만 이것이 내 마음의 통체(統體)인 한 태극이지, 바로 이(理)의 일본처(一本處)인 ‘역(易)에 태극이 있다’는 태극으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형의 이른바 ‘내 마음을 사물과 상대하여 말한다면 내 마음은 체가 되고 사물은 용이 된다.’고 한 것은 매우 옳습니다. 다만 내 마음을 천도(天道)와 상대하여 말한다면 천도는 체가 되고 내 마음은 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 통체(統體) 속에도 체·용이 있고 각기 구비한 속에도 체·용이 있으니, ‘역에 태극이 있다’는 태극으로 본다면, 내 마음의 한 태극도 이것은 각기 구비한 속의 통체입니다. ‘역에 태극이 있다’는 태극은 곧 통체 속의 통체입니다. ‘역에 태극이 있다’는 태극은 물의 본원(本源)이요, 내 마음의 한 태극은 물이 우물에 있는 것이요, 사물의 태극은 물이 그릇에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선을 다만 그릇 속의 물로만 삼는다면, 이는 그 용만 들고 그 체는 빠뜨린 것이며, 중을 다만 우물 속의 물로만 삼는다면 이는 그 체만 잡고 그 용에는 어두운 것이니, 모두 도리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선과 중이 실상은 같은데 가리킴이 다르다고 한다면, 지선은 곧 내 마음과 사물상의 본연의 중인데 오로지 정리(正理)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요, 중은 곧 치우치지도 않고 기대지도 않으며, 지나치거나 미치지도 못하는 것이 없는 정리인데, 덕행(德行)을 겸하여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다. 중용의 이(理)는 바로 지선이요, 중용의 행(行)은 바로 지지선입니다. 중(中)과 화(和)는 바로 지선의 체와 용이요, 중과 화를 극진하게 함은 바로 지지선입니다. 이와 같이 설을 세워야만 병통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牛溪先生, 以中爲體, 至善爲用, 且以時中之中, 爲率性之道. 先生以書辨之曰, “至善, 太極之異名, 而明德之本體. 得之於天, 而有本然一定之則者, 至善之體, 乃吾心統體之太極也. 見於日用之間, 而各有本然一定之則者, 至善之用, 乃事事物物各具之太極也. 以此觀之, 至善之體, 非未發之中耶? 至善之用, 非事物上自有之中耶? 蓋至善之體, 卽未發之中而天命之性也. 至善之用, 卽事物上自有之中而率性之道也. 止於至善者, 卽時中之中, 而修道之教也. 至善之上分性道, 而著數字不得者, 至善是專指正理, 不兼人事而言故也. 中字上通性道教而言者, 中字兼性情德行而言故也. 兄乃以中爲體, 以至善爲用, 無乃未安耶? 且兄以時中之中 爲 率性之道, 似亦誤矣. 時中是修道者也, 若以此爲率性之道, 則道乃因人而有者也, 烏可哉? 且未發之中, 只是吾心之統體一太極也, 不可便喚做理之一本處. 易有太極之太極也. 兄所謂以吾心對事物而言, 則吾心爲體, 事物爲用者, 甚是. 但以吾心對天道而言, 則天道

爲體, 吾心爲用矣. 統體中也, 有体用, 各具中也, 有体用, 以易有太極之太極觀之, 則吾心之一太極, 亦是各具中之統體也. 易有太極之太極, 乃統體中之統體也. 易有太極之太極, 水之本源也, 吾心之一太極, 水之在井者也, 事物之太極, 水之分乎器者耳. 若以至善, 只作器中之水, 則是舉其用而遺其體也, 以中只作井中之水, 則是執其體而昧其用, 皆不成道理矣. 若曰至善與中, 同實而異指, 至善即吾心與事物上本然之中, 而專指正理而言, 中即不偏不倚無過不及之正理, 而兼指德行而言, 中庸之理, 是至善也, 中庸之行, 是止至善也. 中和, 是至善之體用也, 致中和, 是止至善也. 如此立說, 方無病痛矣.”

1919년 5월 1일. 신사. 흐리다 맑음. 이기설(理氣說).

이기는 본래 혼돈의 한 덩어리에서 나온 것으로, 그 음양동정(陰陽動靜)한 것은 기(氣)가 되고, 그 소이연(所以然)한 것은 이(理)가 된다. 그러나 이는 혼돈개벽(混沌開闢)이나 소식유무(消息有無)로서 있다거나 없다 라고 말할 수 없다. 기는 물(物)이 있으면 반드시 있으나, 이가 있는 뒤에 기가 있고, 기가 있는 뒤에 물이 있다. 물 가운데는 각각의 소이연지고(所以然之故)가 있어서 술개와 물고기가 날고 뛰니, 상하에 그 대개(大概)가 밝게 드러난다.

五月, 初一日. 辛巳. 陰而陽. 理氣說, 理氣本自混沌一塊中流出者, 以其陰陽動靜者, 爲氣, 以其所以然者, 爲理. 然理則不可以混沌開闢, 消息有無有無也. 氣則有物則必有, 而有理然後有氣, 有氣然後有物. 物中各有所以然之故, 鳶魚飛躍, 上下昭著之其大概也.

1919년 5월 2일. 임오. 맑음. 사물선후설(事物先後說).

《대학(大學)》에서 말하기를, “물에는 본말(本末)이 있고 일에는 시종(始終)이 있으니, 선후(先後)를 알면 도(道)에 가까워진다.”라고 했다. 대개 사람은 각기 주관하는 물사(物事)가 있으니, 일찍 일어나서 야기

(夜氣)<sup>22</sup>가 청명하고 분요함이 실 때, 오늘은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효제충신(孝悌忠信)에서 부터 잡다한 집안 일, 이런저런 농사일 또한 시시 때때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하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은 나중에 해야 한다. 그 사이에 혹시 뜻밖의 일이 있거든, 또한 일의 경중(輕重)과 선후(先後)를 판단하여 독실히 행할 것이니, 그러면 인도(人道)에 거의 가까워질 것이다.

二日. 壬午. 陽. 事物先後說. 《大學》曰, “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則近道矣.” 蓋人各有所管領物事, 夙興而清明所息時, 熟思今日所爲何先何後. 自孝悌忠信, 至於家事之冗長, 畎畝之縱橫, 又時時無不鍊窮, 於先其所先後其所後. 其間或有意外之事, 亦以事之輕重先後裁度而篤行焉, 則其於人道, 庶幾近乎.

1919년 7월 13일. 임진. 맑음. 입추(立秋)이다. 어머님 산소에 일이 있어 신안(新安)을 지나가다 주영묵(朱永默) 댁을 방문해서 점심을 먹었다. <주부자세계(朱夫子世系)>를 보고 그것을 기록한다.

七月. 十三日. 壬辰. 陽. 立秋也. 有事于先妣山, 過新安, 訪朱永默宅, 午飯. 看<朱夫子世系>, 記之.

#### <신안주씨세보(新安朱氏世譜)>

시조(始祖)는 주괴(朱瓌)로 다원공(茶院公)이다. 2세는 정준(廷雋)이다. 3세는 소원(昭元)으로, 송나라 건륭(建隆)<sup>23</sup>연간의 진사(進士)이며, 행동 남도종사사대리평사(行東南道從事試大理評事)이다. 4세는 유보(惟甫) 염

22 야기(夜氣) : 한밤에 사물의 생장(生長)을 돕는 맑은 기운으로, 인의(仁義)의 마음을 자라도록 돕는다고 한다. (《맹자》 告子上)

23 건륭(建隆) : 북송의 태조인 조광윤의 치세에 쓰였던 송나라 최초의 연호로서 960년에서 963년까지 쓰였다.

계군(歙溪君)이다. 5세는 진(振) 노촌군(蘆村君)이다. 6세는 순(絢) 옥교군(玉矯君), 7세는 삼(森) 승사랑(承仕郎)으로 추증(追贈)되었다. 8세는 송(松) 좌승의랑(左承議郎)이며 호(號)는 위재(衛齋)이다. 9세는 희(熹)로서 호는 회암(晦菴)이며, 태사휘국공(太師徽國公)으로 추증되었고 시호(諡號)는 문공(文公)이다. 묘(墓)는 건양(建陽) 가목리(嘉木里) 당석(唐石)의 대림곡(大林谷) 구돈봉(九頓峯) 아래 있는데 풍취나대형(風吹羅帶形)<sup>24</sup>이다. 10세는 만이가 숙(塾), 둘째가 야(埜)이다. 둘째에게 딸이 있는데, 큰 딸은 유학고(劉學古)에게, 다음은 황간(黃幹)에게, 다음은 범원유(范元裕)에게 시집갔다.

### 新安朱氏世譜.

始祖朱瓌, 是爲茶院公. 二世廷雋. 三世昭元, 宋建隆進士, 行東南道從事試大理評事. 四世惟甫, 歙溪君. 五世振, 蘆村君. 六世絢, 玉矯君. 七世森, 贈承仕郎. 八世松, 左承議郎, 號韋齋. 九世熹, 號晦菴, 贈太師徽國公, 諡文公. 墓在建陽嘉木里唐石之大林谷, 九頓峯下風吹羅帶形. 十世長塾次埜, 次在女, 劉學古, 次黃幹, 次范元裕.

1919년 7월 26일. 을사. 남원(南原) 진효(鎭敷)가 와서 광주(光州) 고광선(高光善)이 김종곤(金棕坤)에게 준 글을 전해주어서 이를 기록해 둔다.

七月, 二十六日. 乙巳. 南原鎭敷來傳, 光州高光善贈金棕坤書, 記之.

대저 해파리는 눈이 없는 것으로, 부침(浮沈)과 동정(動靜)을 하나같이 새우뚝의 인도(引導)에 따릅니다. 소길(瓊蛞)<sup>25</sup>은 창자가 없는 것으로, 호

24 풍취나대형(風吹羅帶形) : 풍수지리설에서 명당처 중 하나로 꼽히는 형태로, 바람에 날리는 비단 띠와 같은 형국을 가리킨다. 조정의 귀인이 관복을 입고 그 위에 걸친 띠가 바람에 나부끼는 형상이다. 띠는 중요한 제사를 지내거나 의례행사를 할 때 두르는 것으로, 풍취나대형에는 자손들이 높은 벼슬에 올라 부귀공명을 누린다고 알려져 왔다.

25 소길(瓊蛞) : 〈한서〉 지리지(漢書地理志)의 회계군 길기정(會稽郡結埼亭) 주(注)에서, 사교(師古)가 이르기를, “길(蛞)은 길이 한 치, 너비 두 폰이며 한 마리의 작은 게가 그 배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이것인데, 쇠길(瓊蛞) 또는 해경(海鏡)이라 한다.”라고 했다.

흡(呼吸)과 토납(吐納, 들이마시며 내뿜음)을 게(蟹)의 껍질에 일임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눈이 없는 해파리도 아니요, 창자가 없는 소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선성의 글을 보아 자기의 눈을 짓는 것이 해파리가 새우 눈을 통하는 것 같고, 날마다 선성의 말씀을 읽어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소길이 게의 창자를 통한 것과 같으니, 눈이 없다 해서 무슨 근심이며 창자가 없다 해서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마치 그 길가에 고인 빗물이 바다로 흘러가려 하지만 중간에 말라버리고, 노둔한 말을 타고서 빨리 달려주기를 바라나 중도에 피곤하면 이것은 자포자기하는 것을 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어찌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종곤(棕坤)씨께서는 혹시 사람이 보잘 것 없다 하여 말을 폐하지는 않겠지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선(光善) 저는 나이가 육십을 넘어 병으로 세상 밖 운산에 누워있으니, 오직 자잘한 고통의 한탄만 간절할 뿐입니다. 그런데 종곤씨가 간장을 가지고 방문하였으니 그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마침내 눈을 비비고 지령이 같은 글씨로 이와 같이 씁니다.

무(戊)년 7월 19일에 광선 씀.

夫水母無目者也, 而浮沈動靜, 一遵眾鰓之導. 瓊蛞無腹者也, 而呼吸吐納, 一任蟹之甲, 則竊念, 吾輩非無目之水母, 无腹之瓊蛞乎. 然則日看先聖書, 作自己之目, 如水母之目鰓, 日讀先聖語, 充自己之腹, 如瓊蛞之腹蟹, 則何患乎母目, 亦何患乎无腹哉? 若謂其行潦之水, 願朝宗而中渴, 驚蹇之乘希逸足而中疲, 則是未免自畫者也. 何殊之有? 惟吾棕坤, 倘不以人微而廢言歟. 勉之哉. 光善年踰六旬, 病臥于世外雲山, 只切微苦之歎. 而棕坤甫汗醬來訪, 謬恩爲感. 遂拭翳而蚯蚓如右云爾. 戊七月十九日. 光善.

1919년 9월 17일. 을축. 맑음. 장동(獐洞)에 사는 이희채(李熙采)가 내방하여 춘부(椿府)의 편역인 죽천재기(竹泉齋記)를 청하였다. 그러므로 기록한다.

九月. 十七日. 乙丑. 陽. 獐洞李熙采來訪, 請其椿府扁, 其竹泉齋記. 故記之.

### 〈죽천재기(竹泉齋記)〉

호남(湖南)의 담양(潭陽)에 거사 이근옥(李根沃)공이 있는데, 평생을 대나무와 샘을 좋아하여 ‘죽천(竹泉)’이란 이름으로 집에 편액하였다. 집의 사면으로 보이는 물사(物事)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니니, 오동나무에 비친 깨끗한 달빛, 버드나무에 부는 맑은 바람, 하얀 바위와 붉은 벼랑, 산의 구름과 시냇물 등 모두가 수양을 돕는 도구들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도 어찌 다만 이 양물(兩物)만을 편액한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대저 대나무와 샘이란 물건은 청청한 높은 절개가 변하지 않고, 사시(四時)가 일관되게 끊임없이 솟아나고 흘러 구덩이를 가득 채우고 사해(四海)에 도달하니, 진덕 수업(進德修業)의 공부를 타물(他物)과 비견할 수 없다. 《과경(葩經)》<sup>26</sup>에 이르기를 “푸른 대가 아름답고 무성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위 무공(衛武公)이 스스로 도학을 닦은 것을 찬미한 것이다.<sup>27</sup> 맹자가 “근원이 있는 샘물은 용솟아 흐른다.”<sup>28</sup>라고 하였으니, 후학에게 공부가 단계를 밟아 성취되는 것을 열어준 것으로, 그 뜻을 상상할 수 있다.

대저 이 주인翁(主人翁)은 이 양물을 사랑하여 항상 수양에 도움이 되

- 26 파경(葩經) : 《시경》을 가리킨다. 한유(韓愈)의 <진학해(進學解)>에서 “《시경》은 바로 꽃봉오리와 같다. [詩正而葩]”라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 27 위 무공(衛武公)이 … 것이다 : 《시경》 <위풍(衛風) 기옥(淇奥)>에, “저 기수가 언덕을 보니, 푸른 대가 아름답고 무성하다. 문채 빛나는 우리 님이여, 짐승의 골각(骨角)을 꿇고 갈듯, 옥석(玉石)을 쪼고 갈듯 하도다. [瞻彼淇水, 綠竹猗猗. 有匪君子, 如切如磋, 如琢如磨.]”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이 시는 본디 위 무공(衛武公)의 높은 학문과 덕행을 칭찬하여 노래한 것인데, 전하여 여기서는 곧 학문과 덕행을 절차탁마하는 것을 의미한다.
- 28 맹자가 … 흐른다 : 서자(徐子)가 맹자에게, 공자가 자주 물을 칭탄(稱歎)한 데 대하여 묻자, 맹자가 이르기를 “근원 있는 샘물이 팔팔 솟아 나와서 밤낮을 쉬지 않고 흘러 구덩이를 채운 다음에야 나가서 사해에 이르나니, 근본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은 것이라, 이것을 취하신 것이다. [源泉混混, 不舍晝夜, 盈科而後進, 放乎四海, 有本者如是, 是之取爾.]”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맹자》 <이루 하(離婁下)>). 군자가 단계를 밟아 부단히 노력해야 도(道)에 이를 수 있음을 비유한 것이다.

고 일심이 환해져서 자수하여 위 무공이 되기를 기약하였고, 진학한 것은 추(鄒)의 아성(亞聖, 맹자)을 배운 것이었다. 그가 성덕(成德)하여 군자의 절개를 세울 수 있었으니, 또한 도학(道學)의 근원을 아는 것이로다.

도유협흡(屠維協洽, 기미(己未)년)<sup>29</sup> 가을 9월 17일에 영운(令胤) 희재가 나에게 기문 써주길 청하기에 감히 나무꾼의 문체로 이와 같이 정을 묘사하였다. 이어서 시를 지었다.

### 竹泉齋記.

湖之南, 潭之陽, 有居士李公根沃. 生平愛竹與泉, 以竹泉扁其第. 第之四面, 所管領物事, 靡不爲多, 梧桐霽月, 楊柳光風, 白石丹崖, 山雲溪河, 皆可爲助養之具矣. 奚特偏愛此兩物者, 果何如哉? 夫竹泉之爲物, 青青高節, 不變而貫四時, 混混逝流, 盈科而達四海, 進修之功, 不可以他物比肩也. 《葩經》云, “綠竹猗猗”, 贊衛武公之道學自修. 孟子曰, “源泉混混”, 開來學者之工程階梯, 則其意可想也已. 大抵斯翁, 愛此兩物, 常常助養, 而一心瑩然自修期衛武公. 進學學鄒亞聖歟, 其於成德, 能立君子之節, 亦知道學之源矣夫.

屠維協洽. 秋九月, 十七日. 令胤熙采請余爲記, 敢以菟辭寫情如右. 繼以詩曰.

주인옹(主人翁)이 사랑한 물건 많지 않아,	主翁愛物不爲多
푸른 대나무와 근원이 있는 샘물에 초가 한 채뿐이네.	綠竹源泉草一家
성긴 그림자와 함께 초저녁 달이 나란히 나타나고,	疎影齊頭初夜月
차가운 물 흐르는 곳에 봄꽃이 다시 피었네.	寒流淙處復春花
의관이 대대로 이어진 것은 시례(詩禮)로 인함이니,	衣冠繼世因詩禮
충효(忠孝)의 여풍(餘風)이 아직도 노래되네.	忠孝餘風尙詠歌
자손들은 토구(菟裘) <sup>30</sup> 의 업을 지키리니,	子孫能守菟裘業

29 도유협흡(屠維協洽) : 도유와 협흡은 고간지(古干支)로, 도유는 기(己)이고 협흡은 미(未)로, 여기서는 1919년이다.

30 토구(菟裘) : 토구(菟裘)는 춘추시대 노(魯)나라에 있던 지명인데, 뒷날 은거지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노나라 은공(隱公)이 환공(桓公)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계승하고 복응(服膺)하여 잃지 않는 것이 어떠한가? 承以服膺勿失何

1919년 9월 그믐. 무인. 흐렸다가 맑음. 《율곡선생전서》권 13, <잡기(雜記)>를 보고 기록한다.

九月. 晦. 戊寅. 陰而陽. 看《栗谷先生全書》卷之十三<雜記>, 而記之.

### <잡기(雜記)>

자고(子固, 윤근수(尹根壽))가 나에게 들려 조용히 담화하다가 말이 심·성·정에 미쳤다. 내가 말하기를, “공(公)은 이 세 글자에 대해 다 이해하는가?”라고 하니, 자고가 말하기를, “못합니다. 성이 발하여 정이 되고, 심이 발하여 의(意)가 된다는 것은 더욱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공이 이것에 대하여 깨닫기 어려웠다면 심·성·정에 대해 거의 견해가 있는 것이다. 선유의 이 말은 따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고 직접 심성(心性)을 논한 것이 아닌데, 지금 학자들은 이 말을 잘못 알고 심과 성을 나누어 두 개의 작용이 있고 정과 의(意)가 두 가지가 있는 줄 생각하니, 내가 가장 딱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이제 공이 여기에 의심을 가지니 참으로 아는 바가 있는 것 같다.

성은 바로 심(心)의 이(理)요, 정은 바로 심의 동이니, 정이 동한 후에 정으로 인하여 계교하는 것이 의(意)가 된다. 만일 심과 성이 둘이라면 도(道)와 기(器)가 서로 떠날 수도 있을 것이며, 정과 의가 둘이라면 사람의 마음에도 두 가지 근원이 있는 것이니, 어찌 크게 잘못된 이론이 아니겠는가? 반드시 성·심·정·의가 한 길이면서 각각 경계가 있는 것임을 안 연 후에야 어긋남이 없다 할 것이다. 어째서 한 길이라 하는가? 심이 아직 발하지 않았을 때는 성이요, 이미 발하면 정이며, 정이 발한 후에 헤아리는 것이 의가 되니, 이것이 한 길인데, 어째서 각각 경계가 있다고 하는가. 심이 고요히 동하지 않을 때가 성의 경계요, 심이 감축하여 통할 때는 정의 경

서 “내 장차 토구 땅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늙으리라.”라고 하였다. (《춘추좌씨전》은공11년)

계이며, 느끼는 바에 따라 이리저리 생각을 찾아내고 헤아리는 것은 의의 경계가 되는 것이니, 다만 이것은 일심(一心)에 각각 여러 가지 경계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雜記.

子固歷見余談話，從容語及心性情，余曰，“公於此三字，能一一理會否？”子固曰，“未也。性發爲情，心發爲意云者，殊未曉得。”余曰，“公於此難曉，則庶幾有見於心性情矣。先儒此說，意有所在，非直論心性，而今之學者，爲此說所誤。分心性爲有二用，分情意爲有二歧，余甚苦之。今公自謂於此有疑，則庶幾有真知矣。性是心之理也，情是心之動也，情動後緣情計較者爲意。若心性分二，則道器可相離也，情意分二，則人心有二本矣，豈不大差乎？須知性心情意只是一路，而各有境界，然後可謂不差矣，何謂一路？心之未發爲性，已發爲情，發後商量爲意，此一路也，何謂各有境界？心之寂然不動時，是性境界，感而遂通時，是情境界，因所感而絀繹商量，爲意境界，只是一心，各有境界。”

김장생(金長生)과 이배달(李培達)이 묻기를, “부모가 자애(慈愛)하고 자식이 효도하는 것은 떳떳한 이치인데, 무슨 까닭으로 자애한 자는 많은데 효도하는 자는 적습니까? 동물의 경우에도 제 새끼는 사랑할 줄 알면서 아버지를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라고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이(理)로 말하자면 말(末)이 본(本)을 중(重)히 여기고, 기(氣)로 말하면 구(舊)가 신(新)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니, 기는 낳고 낳아 쉽니 없으니 묵은 것은 지나가고 오는 것이 계속된다. 갈 것이 시들면 오는 것은 새롭기 때문에 이치에 밝은 자는 근본을 소중히 여겨 아버지를 사랑한다. 기가 하는 대로 맡겨 두는 자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자식만 귀하게 여긴다. 대개 이와 같으니 다만 스스로 궁리하여 깨닫는 데 달려 있다.”라고 하였다.

金長生、李培達問曰，“父慈子孝，常理也，何故，慈者眾而孝者甚鮮乎？至於禽獸，皆愛其子而不愛其親，亦何故耶？”余曰，“以理言之，末以本

爲重。以氣言之，舊以新爲貴。氣生生不息，而往者過，來者續。往者以謝。來者方新，而理明者，重本而愛親。任氣之所爲者，則不愛親而只貴其子矣。大概如此，只在自窮得。”

내가 갑자년(1564, 명종19) 겨울에 강릉을 향해 가다가 태화역(太和驛)에서 묵었는데, 망중(望中) 최운원(崔雲遠)과 만나 같이 자면서 밤에 대화를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지금 세상 선비들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을 근심할 것이 아니라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근심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망중이 말하기를, “퇴계는 ‘배우는 자가 자기의 허물을 살피지 않고 먼저 남의 허물을 살피니 이것이 공통된 근심거리이다’고 하였는데, 이 말이 매우 좋다.”라고 하였다.

余甲子冬，向江陵宿太和驛，遇崔雲遠望中同宿夜話。余曰，“今世之士，不患不能言，只患不能行耳。”望中曰，“退溪有言曰，‘學者不省己過，先省人過，此是通患’，此言甚好。”

〈삼가 석호재에 차운하다〉-죽속 성현의 재실이다-

謹次石湖齋【族叔盛鉉】

편액이 석호인데 이곳에 집을 지으니,	扁是石湖宅是所
훌륭하고 준수한 선비들 이웃하기 좋네.	好其俊彦接芳隣
어찌 나루터에서 길이 은거하는 자를 배우랴,	寧學津頭長往者
반드시 기수에서 노래하며 돌아오는 사람 그리워하리.	必懷沂上詠歸人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일에 어찌 도라 따르랴,	不然凡事何從道
그런 까닭에 평생 스스로 몸을 깨끗히 했네.	所以平生自潔身
정순함은 옥 같고 밝은 지혜는 거울 같아,	精純如玉明如鏡
명분과 실제 모두 같으니 덕도 새로우리라.	名實俱同德與新

1919년 10월 11일. 기축. 흐림. 참봉 김용순(金容珣)과 동행하여 화개산(華蓋山)에 들어가 머물렀다. 다음날 장성 약수정(弱水亭)에 도착

해 술을 시켜 함께 마시고는 달빛을 따라 궤전(蕪田) 김길령(金吉寧) 집에 도착해 유숙했다. 다음날 하만리(河晩里)에 들어가 여러 벗들의 상(喪)을 위문하고, 또 그 다음날 저물녘에는 곽한풍(郭漢豐)의 사랑에 들러 유숙했다. 또 그 다음날 아침에는 딸집에 도착했다. 그날 모현(茅峴)의 신석휴(申錫休)씨를 방문했지만 만나지 못했고, 유상춘(柳相春)씨 댁에서 점심을 먹었다. 해질녘에 만무정(晩舞亭) 공학원(孔學源) 댁에 도착해 며칠을 머물렀다. 돌아오는 길에 세곡(細谷) 왕림(旺林) 댁에서 점심을 먹고 돌아왔다.

十月. 十一日. 己丑. 陰. 與金參奉容珣同行, 入華蓋山, 留連. 再明到長城弱水亭, 招酒相飲, 隨月色, 至蕪田金吉寧家留宿. 翌日入河晩里, 慰問諸友喪, 又明日薄暮轉於郭漢豐舍廊留宿. 又明朝, 到女婿家. 即日訪茅峴申錫休氏, 不遇而午飯於柳相春宅. 夕陽到晩舞亭孔學源宅, 留數漢回. 回路午飯於細谷旺林宅以還.

공학원과 이기(理氣)를 논하였다. 학원이 말하기를, “저는 ‘이(理) 밖에 기(氣)가 없고 이는 기 가운데 있다. [理外無氣, 理在氣中]’라는 8글자로 해결하였습니다.”라고 했다. 내가 응하여 말하기를, “옳습니다. 이것은 이기를 합해서 말한 것입니다. 이기는 합해져 있으면서도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으면서도 합해져 있습니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라는 것을 선유(先儒)들이 이미 말했습니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sup>31</sup>이 경연에서 이기를 논하면

31 한원진(韓元震, 1682~1751): 자는 덕소(德昭), 호는 남당(南塘), 본관은 청주이다. 권상하(權尙夏)의 문인으로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 중 한 사람이며, 호락논쟁(湖洛論爭)에서 호론(湖論)인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주장한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성삼층설에 입각하여 성을 인간과 사물이 같은 초형기(超形氣)의 성, 인간과 사물이 다른 인기질(因氣質)의 성, 인간과 인간이 서로 다른 잡기질(雜氣質)의 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또한 성은 이(理)가 기질 속에 내재된

서 울곡(栗谷) 선생의 말을 인용하여, '발하는 것은 기이고 발하게 하는 소이는 이이다. 기가 아니면 발할 수 없고 이가 아니면 발할 곳이 없다. 선후(先後)도 없고 이합(離合)도 없다. 나누어 말할 것 같으면 이는 무위(無爲)하지만 기는 유위(有爲)하고, 이는 무형(無形)이지만 기는 유형(有形)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라고 했다.

與孔學源論理氣, 學源曰, “余以‘理外無氣, 理在氣中’八字打開. 余應之曰“是也, 是合理氣言, 理氣合而離, 離而合, 一而二, 二而一, 先儒已言之.” 又曰, “韓南塘經筵論理氣, 引栗谷先生言, 發之者氣也, 所以發者理. 非氣不能發, 非理無所發. 無先後無離合. 若分而言之, 理無爲而氣有爲, 理無形而氣有形也.”

#### 〈서암기(棲巖記)〉

선비가 고심(苦心)하여 힘써 학문하는 것은 세상에 쓰일만한 인재가 되는 것에 뜻이 없을 수 없지만, 이미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자취를 감추고 학문에 힘써 홀로 그의 자신을 선하게 할 따름이다. 또 그럴 수 없다면 빈곤하고 궁박할 것이니 바닷가 절도(絶島)가 아니라면 반드시 궁벽한 산의 암혈(巖穴)에 거처하게 될 것이다. 선비가 이런 지경에 이르면 한탄하고 슬퍼하지 않겠는가?

김영찬(金永燾)씨는 담양의 고사(高士)이다. 젊어서는 부지런히 학문을 하여 능히 수신 제가의 도리를 다 하였다. 늙어서는 또 부지런히 힘써서 곁으로 강마(講磨)의 이익을 구하였다. 그러나 유사(有司)가 그의 성명을 천거하지 않아 과거시험에 떨어졌다. 그러자 강의실 한 칸을 지어 향리에서 배

---

뒤에 말해질 수 있는 개념이라는 이이(李珥)의 생각을 계승하여, 인성과 물성은 기질을 관련시키는 인기질의 차원에서 비교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와 같은 사고를 바탕으로 인성과 물성은 다르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그는 미발심체(未發心體)의 문제에 관한 논쟁에서도 미발의 심체는 본래부터 선하다고 주장하는 이간(李柬)과는 달리, 미발의 심체에도 선악의 가능성이 공재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미발심체유선악설(未發心體有善惡說)을 주장하였다.

우고자 하는 이를 받아 오로지 위기지학(爲己之學)에만 힘썼다. 머리를 굽혀 자취를 감추고 이에 거처하면서 마치 장차 몸을 마칠 듯이 하였다.

그러나 세상이 더럽혀지고 풍속이 경박한 것을 숭상하게 되어 유학자가 가진 것은 선천구물(先天舊物)에 속해버리게 되었다. 몇 칸의 건물도 거의 지탱하기 어려워서, 나가면 의지거나 기댈 가망도 없고 들어오면 무릎을 허용할 땅도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앙앙(怏怏不樂)하며, 구림(邱林)에서 소요하고 집안에서 움추리고 지내니, 그 힘들고 곤고함은 시대가 그렇게 한 것인지라 누구를 닮아왔는가?

집 주변에는 쌓임이 벽처럼 우뚝 서 있어서 때때로 오르내리며 소요하고 걸터앉기도 하면서 이끼를 굽적이고 새의 발자국을 지우기도 했다. 높고 험하여 그 완고함을 사랑하였고, 두드리고 밀어보아 그 견고함에 압도되었으며, 굽어보고 쳐다보거나 누웠다 일어나는 것을 오직 바위에만 의지하였다. 그것을 인하여 문명에 ‘서암(棲巖)’이라고 편액 하였으니, 옹(翁)은 바위에 대해서는 계획을 얻었다고 할 만하다.

다만 생각전대 ‘바위에 깃들여 살며 은미한 효험 바라노라[巖棲冀微效]<sup>32</sup>는 고정 부자(考亭夫子, 주자)가 지은 것인데, 그 귀의처는 유병산(劉屏山)<sup>33</sup>이 말한 ‘회(晦)’에 있다. 지금 옹의 ‘회적(晦跡, 자취를 감춤)’은 이미 서암 이전에 있으니, 어찌 암서한 이후에 그 은미한 효험을 바랐다고 할 수 있겠는가? 가령 ‘봄의 자태가 찬란히 퍼지고, 신명이 안에서 넉넉하다. [春

32 바위에 ... 바라노라 : 주자의 <회암(晦菴)>시에 “오랫동안 자신하지 못하니 바위에 깃들여 은미한 효험 바라노라. [自信久未能, 巖棲冀微效]”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후 산속에 기거하며 학문에만 정진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도산에 있는 퇴계의 암서헌(巖棲軒)과 화양동에 있는 우암 송시열의 암서재(巖棲齋)가 널리 알려져 있다.

33 유병산(劉屏山) : 유자휘(劉子翬, 1101~1147). 자는 언충(彦沖), 호는 병산(屏山), 시호는 문정(文靖)이며, 복건성 숭안(崇安) 사람이다. 주희(朱熹)의 스승이다. 그는 1127년에 금(金)나라가 송나라의 수도 변경(卞京)을 함락시키고 흠종(欽宗)과 휘종(徽宗)을 포로로 끌고 간 정강(靖康)의 난리에서 아버지 유견(劉鞏)이 전사하자, 금나라에 대한 원한의 칼을 품은 채 평생 동안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무이산(武夷山)으로 들어가 강학에만 힘을 쏟았다. (《송사(宋史) 권 434 유자휘열전(劉子翬列傳)》)

容燁敷, 神明內腴]<sup>34</sup>는 것은 도체(道體)를 다 설명하였고, 정묘함을 철저히 발용(發用)한 것이다. 비록 고정(考亭)과 같은 학문으로도 오히려 평생에 힘을 들였는데, 궁벽한 시골의 만생(晩生, 선배에 대한 후배의 겸칭)이 어찌 감히 갑자기 의의(擬議)할 수 있겠는가? 바로 원하는 바는 곧 주자를 배우는 것이니, 옹의 품은 뜻[志尙]은 여기에 근거해 대강을 볼 수 있다.

나 학원은 사산사(泗山祠)의 제사를 대개 창주정사(滄洲精舍)<sup>35</sup>에서 행한 예(例)를 본받았는데, 옹이 자주 찾아 주었으니 또한 (주자의) ‘좋은 날에 꽃을 찾아 사수 가를 찾는다. [勝日尋芳泗水濱]<sup>36</sup>는 뜻을 본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나이를 잊고 함께 놀며 계합(契合)이 매우 친밀하니, 문미에 걸 기문에 대한 요청을 감히 어리석고 비루하다는 이유로 끝내 사양할 수가 없었다.

기미년(1919) 10월 하순,

곡부(曲阜) 공학원(孔學源)이 삼가 짓는다.

棲巖記.

士苦心力學, 不能無意於需世, 而既不可得, 則晦跡藏修, 獨善其身而已. 又不可得, 則厄窮矣, 如非瀕海絕島, 必也窮山巖穴. 士而至此, 可不於邑長唏. 金永榮氏潭之高士, 少而勤學, 克盡修齊之道. 老且矻矻, 旁求講磨之益, 有司不舉聲名, 不利於場屋. 營講室一屋, 納鄉里之願學

34 봄의 ... 넉넉하다 : 유자회가 주희의 자(字)를 원회(元晦)라 지어 주며 남긴 축사에 “나무는 뿌리에 감추어야 봄의 자태가 찬란히 퍼지고, 사람은 몸에 감추어야 신명이 안에서 넉넉하다. [木晦於根, 春容燁敷, 人晦於身 神明內腴.]”라고 하였다. 주자의 자인 원회(元晦) · 중회(仲晦)와 호인 회암(晦菴) · 회옹(晦翁)은 모두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35 창주정사(滄洲精舍) : 주희가 복건성(福建省) 건양현(建陽縣)에 지은 정사이다. 주희가 그곳에서 기거하자 많은 제자가 그리로 모여들어 세상에서 그들을 일러고 정학파(考亭學派)라고 하였다. (《복건통지(福建通志)》)

36 좋은 ... 찾는다 : 주희의 <춘일(春日)> 시에 “좋은 날에 꽃을 찾아 사수 가를 찾으니, 가없는 봄 풍경이 한때에 싱그러워라. 심상하게 동풍이 얼굴 스친 줄만 알았더니, 붉고 검붉은 수많은 꽃이 모두 봄이로구나. [勝日尋芳泗水濱, 無邊光景一時新. 尋常識得東風面, 萬紫千紅總是春.]”라고 하였다.

者, 專務爲己. 屈首屏跡, 爰居爰處, 若將終身而已. 世級汚下, 俗尚偷薄, 儒者所有, 屬之先天舊物, 數間棟宇, 殆不支吾, 出無依靠之望, 入無容膝之地. 由是焉, 怏怏不樂, 婆娑邱林, 踟躕戶庭, 其所厄窮, 時也誰尤? 宅邊有雙巖壁立, 時復登降, 盤旋箕坐. 搔苔髮而浴鳥跡, 峻嶒而愛其頑, 敲推而服其堅. 偃仰臥起, 惟巖是依, 因以棲巖扁其楣, 翁之於巖, 可謂得計. 第念‘巖棲冀微效’, 考亭夫子所作, 而其歸重在於劉屏山所示之晦. 今翁之晦跡, 已在棲巖之前, 豈可謂巖棲然後, 冀其效也? 至若‘春容燁敷, 神明內腴’, 說盡道體, 發用精妙到底, 雖以考亭之學, 猶爲平生用力, 寒鄉晚出, 豈敢遽爾擬議? 乃所願, 則學朱子者, 翁之志尚, 卽此而可見梗概矣. 學源俎豆泗山, 放滄洲精舍已例, 而翁頻賜筇屐, 亦效‘勝日尋芳泗水濱’之意. 是以忘年相諶, 契合甚蜜, 記楣之請, 不敢以愚陋終辭.

歲己未陽月下澣, 曲阜孔學源謹述.

1919년 11월 2일. 기유. 오늘은 동지(冬至)로, <동지음(冬至吟)>을 지었다.

十一月. 初二日. 己酉. 卽冬至也. 作<冬至吟>.

천도는 순환하여 박(剝)이 복(復)이 되니 <sup>37</sup> ,	循環天道剝而復
고요함 속에서 미미한 양이 비로소 동하는 때이니.	靜裏微陽始動時
집집마다 팥죽 먹으며 재계하고 안식하니,	豆粥家家齊又息
어찌 유도(柔道)에 이끌려 옮기겠는가. <sup>38</sup>	豈爲柔道牽而移

37 박(剝)이 복(復)이 되니 : 박(剝)괘는 음(陰)이 성하고 양(陽)이 다하는 괘인데, 다시 복(復)괘로 순환된다. 복(復)은 음(陰)이 극성(極盛)한 중에 다시 밑에서 일양(一陽)이 나는 괘인데, 이때를 동지(冬至)라 한다.

38 유도(柔道) : <주역> <구괘(姤卦)> 상(象)에 “금니(金柅)에 묶어놓는 이유는 음유(陰柔)의 도에 이끌릴까 두려워해서이다. [繫于金柅, 柔道牽也.]”라는 말이 나온다. 금니는 수레를 멈추게 하는 쇠로 만든 장치를 말한다.

1919년 11월 7일. 갑인. 1~2척 가량이나 대설(大雪)이 내려서 장동(獐洞)의 희적(羲迪)덕에서 묵어 있었다. 희적과 함께 우계(牛溪, 성혼(成渾))와 구봉(龜峰, 송익필(宋翼弼))이 지은 율곡 선생의 제문을 보았다. 희적이 “구봉의 문장이 우계의 문장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자, 내가 응답하기를 “우계의 문장은 하늘과 인간의 도가 묘합(妙合)하여 흔적이 없고, 구봉의 문장은 하늘과 인간의 도가 극합(極合)하여 흔적이 있으니, 다시 자세히 살펴보라.”라고 말하였다.

十一月. 初七日. 甲寅. 大雪一二尺許. 滯於獐洞羲迪宅. 與羲迪同看牛溪龜峰, 祭栗谷先生文. 羲迪曰 “龜峰之文, 長於牛溪.” 余應之曰 “牛溪之文, 於天人道妙合而無迹, 龜峰之文, 於天人道極合而有迹, 更詳察焉.”

1919년 12월 4일. 신사. 우연히 기록하여 아이에게 보였다.

“언행 전에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홀로 자기만 아는 것이니, 홀로 아는 곳을 궁리진성(窮理盡性)<sup>39</sup>하여 그 옳고 그름을 정하여 옳은 이후에 언행을 한다면 다른 사람도 그릇되었다 하지 않고 옳다고 할 것이니, 비록 오랑캐의 나라일지라도 행할 만하다. 대순(大舜)은 ‘유정유일(惟精惟一)’이라고 하였고, 자사(子思)는 ‘신독(慎獨)’이라 했으며, 증자는 ‘근독(謹獨)’이라 하였고, 정자(程子)는 ‘천덕과 왕도는 다만 근독에 있을 뿐이다.’<sup>40</sup>라고 하였으니, 근독하여 언행을 한다면 절로 말과 행동에 허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十二月. 初四日. 辛巳. 偶記示兒. “言行之前, 人所不知, 而已所獨知之地, 於獨知之處, 窮理盡性, 定其是非而是, 然後言行, 則人亦不非而是. 雖

39 궁리진성(窮理盡性) : 이치를 궁구하여 천성(天性)을 다하는 것. 《주역(易經)》〈설괘전(說卦傳)〉에 “窮理盡性 以至於命”이라 하였는데, 그 주석에 ‘천하의 이치를 궁구하고 인물의 성을 다하여 천도에 합치되게 하는 것이다. [窮天下之理, 盡人物之性, 而合於天道.]’라고 하였다.

40 천덕과 … 뿐이다 : 《심경부주(心經附註)》〈서문(序文)〉에 나온다.

蠻貉之邦, 可以行矣. 大舜曰 ‘惟精惟一’, 子思曰 ‘慎獨’, 曾子曰 ‘謹獨’. 程子曰 ‘天德王道, 只在謹獨.’ 謹篤而言行, 則自無口身之過矣.”

도심(道心)은 사람의 양지양능(良知良能)<sup>41</sup>으로, 성인과 다름이 없다. 젓 먹이 아이 때부터 그 부모를 사랑할 줄 알고 자라서는 그 형을 공경할 줄 알며,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고, 의리가 아닌 것을 보면 수오(羞惡)하는 마음이 일어나며, 종묘를 지날 때는 공경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무서워 떠는 소를 보고는 차마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곧 성정의 자연스러움이다. 그러나 ‘힘쓰지 않아도 적중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알게 되어 조용히 도에 합치되는 것[不勉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sup>42</sup>은 형기(形氣)를 인연하지 않고 천명(天命)에서 근원한다. 흘러나온 것이 미묘하여 알기 어렵기 때문에 백성들이 날로 쓰면서도 알아차릴 수 없다. 진실로 능히 알고서 확충해간다면, 안연(顏淵)이 말한 ‘순임금은 어떤 사람인가, 요임금은 어떤 사람인가? 되려고 하는 자 또한 이쳐릴 될 것이다.’<sup>43</sup>라는 것이 될 것이니, 오직 도심(道心)을 말한 것이리라.

道心, 人之良知良能, 與聖人無異, 而自孩提無不知愛其親, 及其長也, 無不知敬其兄. 見孺子入井而惻隱, 見非義而羞惡, 過宗廟而恭敬, 見穀觶之牛不忍之類, 是乃情性之自然, 而不勉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者, 不緣形氣, 而原於天命, 流出微妙而難見, 故百姓日用而不能察焉. 苟能知而擴充, 則顏淵曰, ‘舜何人也堯何人也? 有爲者亦若是’ 者, 惟道心之謂歟!

- 41 양지양능(良知良能): 선천적으로 알고 행할 수 있는 마음의 작용을 말한다.
- 42 힘쓰지 않아도 ... 합치되는 것: 《중용장구》 제20장에 “성실한 자는 힘쓰지 않고도 도에 맞으며 생각하지 않고도 터득하여 조용히 도에 맞으니 성인이다(誠者, 不勉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 聖人也.)”라고 하였다.
- 43 순임금은 ... 될 것이다: 《맹자》〈등문공(滕文公) 상〉에서 안연(顏淵)은 “순 임금은 어떠한 분이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되려고 하는 자는 역시 이와같이 될 것이다. [舜何人也, 子何人也, 有爲者亦若是.]”라고 하였다.

인심(人心)은 마치 굶주리면 음식을 먹고 싶고, 추우면 옷을 입고 싶고 힘들면 쉬고 싶으며, 정력이 차면 결혼하고 싶은 종류가 이것이니, 형기(形氣)에서 생겨나 쉽게 인욕으로 빠져든다. 진서산(眞西山, 진덕수(眞德秀))은 오로지 인욕으로 돌리고 일로써 지극함을 이루는 것은 미진한 데가 있다고 여겼다. 율곡은 주서(朱書)의 '비록 상지(上智)일지라도 인심이 없을 수 없으니, 성인 또한 인심이 있다. [雖上智, 不能無人心, 聖人亦有人心]<sup>44</sup>는 말을 인용해 변석하여 말하기를, “‘인심유위(人心惟危)’의 ‘인심(人心)’ 두 글자는 인욕으로 빠지는 것을 가라키기 때문이니, 어찌 (인심을 모두) ‘인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학자는 마땅히 인심 상에서 더욱 성찰 공부를 더하여 도심에서 명(命)을 들으면, 인심도 또한 도심이 될 것이다. 밥을 먹어야 할 때 밥을 먹고, 옷을 입어야 할 때 옷을 입는 것과 같으니, 이 또한 천리의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했다.

人心, 如飢欲食, 寒欲衣, 勞欲休, 精盛思室之類是也. 生於形氣, 易流於人欲. 眞西山, 全歸於人欲, 一以極致有未盡矣. 栗谷引朱書, ‘雖上智, 不能無人心, 聖人亦有人心’之語, 而辨之曰, “人心惟危二字, 指流於人欲故也, 豈可謂人欲乎? 學者當於人心上, 力加省察之功, 聽命於道心, 則人心亦爲道心. 如當食而食, 當衣而衣, 此亦天理之自然也.”

인욕(人欲)은 인심이 흘러가 버린 것으로, 재물을 탐하는 자가 이득을 보면 의리를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은 종류이다.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이륜(彝倫)을 무너뜨리는 데 이르게 되어 천리가 끊어지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맹자(孟子)》에서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한다(遏人欲, 存天理)’고 했다.

人欲, 人心之流者, 如貪得者, 見得不思義之類. 放過則至於敦敗彝倫, 滅絕天理. 故孟子遏人欲者存天理也.

1919년 12월 17일. 갑오. 맑음. 《성리대전(性理大全)》을 보고 성명

44 비록 상지 ... 가지고 있다 : 《중용장구》 서(序)에 나온다.

(性命) 부분을 기록하였다.

정자(程子)는 “하늘에 있는 것을 명(命)이라고 하고, 사람에게 있는 것을 성(性)이라고 하며, 성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고 한다. 성과 명과 도라고 하는 것은 각각 담당하는 바가 있다. [在天曰命, 在人曰性, 循性曰道. 性也, 命也, 道也, 各有所當]”라고 말했고, 양귀산(楊龜山)<sup>45</sup>은 “성은 천명이고, 명은 천리이다. 도는 성명의 이치일 따름이니, 맹자가 성선을 말한 것은 대개 여기에서 근원한다. [性天命也, 命天理也. 道則性命之理而已, 孟子道性善, 蓋原於此]”라고 말했으며, 주자는 “이(理)라는 것은 하늘의 체(體)요, 명(命)이라는 것은 이(理)의 용(用)이다. 성(性)은 사람이 받은 것이요, 정(情)은 성의 용(用)이다. [理者天之體, 命者理之用. 性是人之所受, 情是性之用]”라고 하였다. 오임천(吳臨川, 오징(吳澄))은 “선한 것은 하늘의 도이며 사람의 덕이다. 하늘의 도는 무엇이 선한가? 원형이정이 사시로 유행하니 이를 일러 명이라고 한다. 사람의 덕은 무엇이 선한가? 인의예지가 한 마음에 구비되어 있으니 성이라고 하며 이것이 선이다.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것은 공공하여 사사롭지 않으며, 사람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은 모두 같고 다르지 않다. 비록 혹 기질이 나란하지 않더라도 그 선에 있어서는 한 가지이다. [善者天之道人之德也. 天之道, 孰爲善? 元亨利貞, 流行四時, 而謂之命也. 人之德, 孰爲善? 仁義禮智, 備具一心, 而謂之性是善也. 天之付於人者, 公而不私, 人之受於天者, 同而不異. 雖或氣質之不齊, 而其善則一也.]”라고 말했고, 또 “성의 근본을 명이라고 하고, 성의 자연스러운 것을 천이라고 한다. 자성에서 형체가 있는 것을 심(心)이라고 하고, 자성에서 경계가 있는 것을 정이라고 하는데 모두 한 가지이다. [性之本謂之命, 性之自然者謂之天. 自性之有形者,

45 양귀산(楊龜山) : 송나라 학자 양시(楊時)의 호로, 자는 중립(中立)이다. 이정(二程)의 문인이다.

謂之心, 自性之有邊者, 謂之情, 皆一也.]”라고 말했다. 본연의 성에 대해서 <탕고(湯誥)><sup>46</sup>에서는 “위대한 상제께서 아래 백성들에게 치우침이 없이 명을 내려 주셨으니, 항성(恒性)이 있는 것 같다. [惟皇上帝, 降衷于下民, 若有恒性]”라고 했고, <계사전>에서는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도라고 하니, 그것을 잇는 것이 선이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성이다.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 成之者性]”라고 했다. 《중용》에서 말하는 ‘천명지성(天命之性)’, 맹자가 말하는 ‘성선(性善)’, 주자가 말하는 ‘하늘이 사람을 낳음에 인의예지의 성을 두지 않음이 없다.’<sup>47</sup>는 말, 또 ‘성즉리(性卽理)’ 라는 말은 모두 성의 본연을 가리킨 것이다.

己未. 十二月. 十七日. 甲午. 陽. 看《性理大全》, 記性命.

程子曰, “在天曰命, 在人曰性, 循性曰道. 性也, 命也, 道也, 各有所當.” 楊龜山曰, “性天命也, 命天理也. 道則性命之理而已, 孟子道性善, 蓋原於此.” 朱子曰, “理者天之體, 命者理之用. 性是人之所受, 情是性之用.” 吳臨川曰, “善者天之道人之德也, 天之道, 孰爲善? 元亨利貞, 流行四時, 而謂之命也. 人之德, 孰爲善? 仁義禮智, 備具一心, 而謂之性是善也, 天之付於人者, 公而不私, 人之受於天者, 同而不異. 雖或氣質之不齊, 而其善則一也.” 又曰, “性之本謂之命, 性之自然者謂之天. 自性之有形者, 謂之心, 自性之有邊者, 謂之情, 皆一也.” 本然之性, <湯誥>曰, “惟皇上帝, 降衷于下民, 若有恒性.” <繫辭>曰,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 成之者性.” 《中庸》曰, ‘天命之性’, 孟子曰, ‘性善’, 朱子曰, ‘天降生民, 莫不有仁義

46 탕고(湯誥) : 《서경(書經)》의 편명. 탕왕이 걸왕을 내쫓고 박(亳)땅으로 돌아와서 모든 제후들을 모아놓고 걸왕을 친 이유와 왕위에 오른 자신의 소신을 천하에 고한 것이다.

47 하늘이 ... 없다 : 주희(朱熹)는 <대학장구서>에서 “하늘이 사람을 낳으므로부터 이미 인의예지의 성(性)을 부여하지 않음이 없다. [蓋自天降生民, 則既莫不與之以仁義禮智之性矣.]”라고 했다. 일기와는 약간의 글자 출입이 있다.

禮智之性', 又曰, '性卽理' 也, 皆指性之本然也.

### 〈기질지성(氣質之性)〉

《성리대전(性理大全)》에서 이르기를, “장자(張子, 장재)가 천지지성(天地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을 나누면서 제자(諸子)의 설들이 비로소 정해지게 되었다.”라고 했다. 주자(朱子)는 말하기를 “천지지성이 있고 기질지성이 있는데, 천지지성은 태극 본연의 오묘함으로 수만 가지로 달라지지만 근본은 하나이다. 기질지성은 두 기(氣)가 번갈아 운용하여, 하나의 근본에서 생기지만 만 가지로 달라진다.”고 했다.

생각건대, 성인(聖人)의 기질은 청명하여 기품(氣稟)의 허물이 되지 않고, 부여된 성이 그대로 발현하는 것과 같이 천리(天理)가 곧바로 나와 그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단서를 볼 수 있다. 그 나머지는 혹은 선하고 혹은 악해서 만 가지가 같지 않으니, 탁한 기운과 악한 기질로 가려진 사람은 그 본체를 잃어버리고 악이 멋대로 나타나서 인의예지의 본연을 알지 못한다. 학자가 궁리진성하여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기질지성 또한 천지지성이다.

### 氣質之性.

《性理大全》曰, “張子分爲天地之性氣質之性, 諸子之說始定”. 朱子曰, “有天地之性, 有氣質之性, 天地之性, 太極本然之妙, 萬殊而一本也, 氣質之性則, 二氣交運, 而生一本, 而萬殊也”. 切想, 聖人氣質清明, 不爲氣稟之累, 而賦予之性如其發也, 天理直出, 可見其仁義禮智之端. 其餘則, 或善或惡, 有萬不同, 而濁氣惡質之所掩者, 失其本體, 惡乃橫生, 不知仁義禮智之本然矣. 學者 能窮理盡性, 變化氣質, 則氣質之性, 亦天地之性也.

### 〈인심이 인욕으로 흐른다는 설[人心流於人欲說]〉

사람이 태어나서 형기(形氣)가 있으면 인심(人心)이 없을 수 없다. 마치고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싶고, 추우면 옷을 입고 싶고, 피로하면 쉬고 싶

고, 정기(精氣)가 성하면 결혼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이것으로, 형기에 속한 것이다. 기질이 청명한 사람은 위로 천덕(天德)에 도달하기 때문에 인심 또한 도심(道心)이 된다. 형기가 오탁(汚濁)한 사람은 본성이 엄폐(掩蔽)되기 때문에 인심이 사욕(私慾)으로 흐른다.

귀는 소리에 대해서, 눈은 색깔에 대해서, 입은 맛에 대해서, 코는 냄새에 대해서, 몸은 편안함에 대해서 좋아하고 즐기는 쪽으로 치우침이 매우 심하다. 가까이 있는 자기 몸에 겨울 옷을 입고서도 또 껴입는 데에 이르고, 가려워 굽으면서도 또 굽어 몸을 상하게 하기에 이른다. 구역질하고 트림하며 재채기하고 기침하며 하품하고 기지개 켜며 한발로 기울여서거나 기대고 서는 것, 결혼질해 보고 태만한 것 등 나쁘고 편벽된 기를 사체(四體, 사지)에 배운다. 말게는 외물이 그 심지를 방탕하게 하여 한가지로 탐욕과 방자한 생만을 구차하게 구하게 되니, 부귀를 피하고 이록을 경영함에 의리를 돌보지 않게 되어, 작게는 사람을 상하게 하고 동물을 해치며, 크게는 부모와 임금을 죽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겠는가? 배우는 자가 이것을 안다면 항상 외경하며 매양 더 성찰하여 극기복례할 것이니, 그렇다면 거의 이러한 병폐는 없어질 것이다.

#### 人心流於人欲說.

人生而有形氣，則不能無人心。如飢欲食，寒欲衣，勞欲休，精盛思室之類是也，屬於形氣者也。氣質清明者，上達天德，故人心亦爲道心。形氣汚濁者，掩閉本性，故人心流於私欲。耳之於音，目之於色，口之於味，鼻之於臭，身之於逸，好樂之偏太過。近以自身寒衣而又至於襲，痒搔而又至於毀。噦噫嚏咳，欠伸跛倚，睇視怠慢，邪僻之氣，設於四體。遠以外物蕩其心志，一向苟得，貪欲妄生，則謨富貴，營利錄，不顧義理，小則傷人害物，大則弑父弑君，可不畏哉？學者知此，則常常敬畏，每加省察，克己復禮，則庶幾無此病矣。



서암기(棲巖記) -유희적(柳羲迪)

속원도(續原道)

가사 - 해가 뜰 때 지음[日出而作]

가사 - 물을 대다[灌溉]

송자언행록 전도지탁 인음(宋子言行錄傳道之托因吟)



## 〈서암기(棲巖記)〉

선비가 당호를 지어 문楣(門楣)에 걸어 두는 것은 도(道)와는 관계가 없지만, 옛날 현인들은 하지 않은 이가 없었으니, 어찌 그런가? 사람의 일심(一心)은 허령(虛靈)하고 통철(通徹)하여, 수양(守養)에 도가 없으면 물(物)로 인해 방탕하게 움직이고 인욕(人欲)으로 흘러가서 그 본연의 양심을 잃게 되니, 몸이 서지 않고 도(道)가 닦이지 않는다. 수양(守養)에 진실로 그 도가 있다면, 사물을 접할 때에 물(物)로 인해 정밀하게 살피게 되니, 이치에 합당한 것은 취하여 법칙으로 삼고,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버리고 멀리한다.

일사일물(一事一物)과 일동일정(一動一靜)이 내 마음에서 취재(取裁)하지 않음이 없으니, 인욕을 막고[遏人欲]<sup>1</sup> 도심을 확장하면 몸이 설 수 있고 도가 닦일 수 있다. 그러므로 물로 인해 이름을 짓는 것은 진실로 조존성찰(操存省察)의 일도(一道)에 근본한 것이고, 장차 외물(外物)으로써 내 마음을 경계하는 것이다.

김영찬(金永燦)은 필문(華門)의 수재로서, 젊어서는 배우기를 좋아하고, 늙어서도 또 깨우려 하지 않고 오로지 극기의 도에 힘쓰니, 그 성품이 염정(恬靜), 편안하고 고요함)하고 세리(勢利)와 화려한 것에는 담연(淡然)하여 마음을 주지 않았다. 또 세상이 변화되어 왕의 은택이 이미 마르게 되었으나 임금을 그리워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정성을 안고, 주치(州治)의 남쪽인 오룡(五龍)의 궁벽한 골짜기에 자취를 감추고서 날마다 옛 도(古道)를 강의하며 스스로 그 뜻을 깨끗하게 하여 장차 생을 마치려는 듯하였다.

집 주위에 바위가 있었는데, 방박(磅礴, 돌이 크고 단단한 모양)하고 견완(堅頑)하였다. 그 형태가 매우 기이하여 애완(愛玩)하며 보배로 여겨, 그 견완(堅頑)한 것으로써 수심(守心)과 존성(存性)의 법도로 삼았다. 심의(深衣)<sup>2</sup>

- 
- 1 하늘이 ... 없다 : 주희(朱熹)는 <대학장구서>에서 “하늘이 사람을 냄으로부터 이미 인의예지의 성(性)을 부여하지 않음이 없다. [蓋自天降生民, 則既莫不與之以仁義禮智之性矣.]”라고 했다. 일기와는 약간의 글자 출입이 있다.
  - 2 인욕을 막고 : <맹자>에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한다. [遏人欲, 存天理]’라는

에 복건(幅巾)<sup>3</sup>을 하고 날마다 그 바위에 깃들여 시를 짓고 읊조리며, 배회하고 서성이면서 잠시라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문미에다가 '서암(棲巖)'이라고 편액을 걸어, 수심(守心)하고 성신(省身)하는 데 일조(一助)하였다.

대개 고정부자(考亭夫子, 주희)가 암서(巖棲)에서 미효(微效)를 바란 의미를 취한 것이다. 그 고정의 도를 배우기를 위한 까닭에 마음에 성실하게 한 것이지, 입과 귀를 장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대저 고정부자에게는 끝내 미칠 수 없으나, 고정의 옷을 입고, 고정의 도를 공부하며, 고정의 일을 본받아 부지런히 힘쓰고 노력하여 종신토록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거의 고정의 문도(門徒)가 됨을 잃지 않을 것임을 여기에서 그 지상(志尙)의 대략을 볼 수 있다.

아! 세상이 크게 변하여 세속이 투박함을 숭상하니, 선비들이 지켜온 것이 쓸데없는 말과 소용이 없어져버린 곳에 부쳐졌다. 명색이 학자라는 사람들은 거센 물결 가운데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 우리 부자의 정대할 도가 장차 어둡고 캄캄한 곳에 이르게 되어 구제할 수가 없으니, 어진 사람들의 근심이 과연 어떠하겠는가? 나 희적은 그가 분발하여 세속을 돌보지 않고 심지를 굳게 지키며 용감하게 스스로 수신하는 것을 아름답게 여겨서 그 대강을 서술하여 후학에게 고하노라.

경신년(1920) 중춘 초삼일 기묘,

선산 유희적(柳義迪)은 삼가 기록한다.

### 棲巖記.

士之作號揭楯，無與於道，而古之賢人莫不有焉，何者？人之一心，虛靈通徹，守養無道，則緣物動蕩，橫流人欲，失其本然之良，而身不立，而道不修。守養苟有其道，則接乎事物之際，因物精察，當於理者，取而法

말이 있다.

- 3 심의(深衣) : 선비들이 편안하게 거처할 때 입던 편복(便服)으로, 유학자들이 주로 입었다. 주로 백색의 천으로 만드는데, 직령(直領)으로 된 깃과 단, 도련 둘레에 검은색의 가선을 둘렀다. 심의의 각 부분에는 철학적(哲學的)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한다.

焉，不當於理者，舍而遠之。一事一物，一動一靜，無不取裁於吾心，過人欲而擴道心，身可立而道可修矣。故因物名號，固本於操存省察之一道也，而將以外物，守戒於吾心也。金永榮，華門秀才，少而嗜學，老且不倦。專務克己之道，其性恬靜，勢利芬華，淡然無與心。又值世變，王澤既竭，抱戀君憂國之誠，而屏跡於州治之南，五龍窮谷，日講古道，自潔其志，若將終身焉。宅畔有巖，磅礴堅頑。其形甚奇，愛玩寶之，以其堅頑，取法守心，存性之道。深衣幅巾，日棲其岩賦詩，嘯咏徘徊盤旋，不欲暫離，而扁其楣曰‘棲巖’，以備守心，省身之一助焉。蓋取諸考亭夫子巖棲，冀微效之意也。其所以願學朱子，誠於心，而非飾於口耳也。夫考亭夫子，卒不可及，而服考亭之服，學考亭之道，效考亭之事，孜孜勉勉，終身不怠，則庶幾不失，考亭之門徒也。於此可見，其志之大略矣。嗚呼！世否變，俗尚偷薄，儒子所守，付之空言，無所用之地，名為學者，不陷溺於頹波中。吾夫子正大之道，將至於晦盲，莫之救，仁人憂過何如哉？義迪，偉其奮不顧俗，堅守心志，勇於自修。而敘其梗概以諗來者。歲庚申仲春初三日己卯，善山 柳義迪 謹記。

1920년 4월 11일. 병술, 잠깐 비가 옴. 《대학혹문(大學或文)》을 보고, 언은 바가 있어서 기록한다.

총명함을 개발하는 것은 사물을 궁구하여 앎에 이르게 하는 일이요, 진덕(進德)은 성의, 정심, 수신하는 일이요, 수업(修業)은 제가, 치국, 평천하의 일이다.

옥계(玉溪) 노씨(盧氏)는 말하기를, “경이란 것은 뜻과 사려를 정하는 것이고, 정신을 모으는 것이며, 본심을 보존하고 기르는 방도이다.”라고 하였다.

정자는 말하기를 “경이라는 것은 하나에 전념하여 다른 데로 가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주자는 말하기를 “경 한 글자가明明덕(明明德)의 강령이다.”라고 하

였고, 또 말하기를 “일심의 주재이며, 만사의 근본이다.”라고 하였다. 정자는 말하기를 “성(誠)이란 진실무망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건괘(乾卦)의 구이(九二)효에서는 성(誠)을 말하였고, 곤괘(坤卦)의 육이(六二)효에서는 경(敬)을 말하였다.’ 이것에 대해 융산(隆山) 이씨(李氏)는 말하기를, “선유들의 성·경의 학문이 여기에서 일어났다.”라고 하였다.

신안(新安) 진씨(陳氏)는 말하기를 “존덕성은 경을 유지하고 본원을 함양하는 것이며, 도문학(道問學)은 궁리하고 연구하여 총명을 개발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서산(西山) 진씨(眞氏)는 말하기를 “덕성은 천부적으로 얻은 것을 말한 것이니, 인의예지가 이것이다.”라고 하였다.

《근사록(近思錄)》에서는 말하기를 “함양은 바로 인의예지의 성을 함양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함양은 모름지기 경을 해야 하며, 진학(進學)은 치지(致知)에 달려 있다.”라고 하였다.

삼가 생각건대 이 몇 가지 설로 보면 덕성은 곧 본원인 것이다.

四月. 十一日. 丙戌. 乍雨. 看《大學或問》, 有所得而記之. 開發聰明, 格物致知之事. 進德, 誠意正心修身事. 修業, 齊家治國平天下事.

玉溪盧氏曰, “敬者, 定志慮, 攝精神, 存養本心之道也.”

程子曰, “敬者, 主一無適.”

朱子曰, “敬之一字, 明明德綱領” 又曰, “一心之主宰, 萬事之根本.”

程子曰, “誠者, 眞實无妄.”

‘乾九二, 言誠, 坤六二, 言敬’ 隆山李氏曰, “先儒誠敬之學, 起於此.”

新安陳氏曰, “尊德性, 持敬而涵養本源也. 道問學, 窮格而開發聰明也.”

西山眞氏曰, “德性, 謂得之於天者, 仁義禮智是也.”

近思錄曰, “涵養, 卽涵養仁義禮智之性.” 又曰, “涵養, 須用敬. 進學, 在乎致知.”

切想, 以是數說視之, 德性即本源也.

〈속원도(續原道)〉

정자가 이(理)를 논하기를, “지극히 텅빈 가운데에 지극히 차 있는 것이 존재하며, 지극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지극히 있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였다. 주자는 말하기를, “이(理) 한 글자는 유무(有無)로 논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가만히 생각건대, 이(理)가 있으면 도가 있고, 도가 있으면 이가 있는 것이다. 그 진실한 것을 성(誠)이라고 하고, 지극히 미세한 것을 이(理)라고 하며, 그 만가지 이(理)의 본원을 태극이라고 하고, 그 동정을 음양이라고 하며, 그 운행을 오행이라고 한다. 그 원두가 유행하는 것은 소이연지고(所以然之故)이며 무성무취(無聲無臭)하다.

천지 만물이 공유하는 것을 일러 도(道)라고 한다. 〈계사(繫辭)〉전에서 말하기를 “형이상(形而上)인 것을 도라 하고 형이하(形而下)인 것을 기(器)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입천(立天)의 도(道)를 음(陰)과 양(陽)이라 하고, 입지(立地)의 도(道)를 유(柔)와 강(剛)이라 하며, 입인(立人)의 도(道)를 인(仁)과 의(義)라 한다.”라고 하였다. 도라는 것은 형이상인 것이요 도를 싣는 것은 기(器)이다. 기(器)란 형이하인 것이니 도 없는 기란 있지 않고, 기 없는 도 또한 없다. 도 또한 기이고, 기 또한 도이다. 도 또한 천이고, 천 또한 도이다.

천도(天道)는 원(元)하면서 형(亨)하고, 형(亨)하면서 이(利)하며, 이(利)하면서 정(貞)하고, 정(貞)하면서 다시 원(元)하게 된다. 사시(四時)가 유행하여 한번 음(陰)하고 한번 양(陽)하며, 오기(五氣)가 순포(順布)하여 만물을 화생(化生)하는 것이 천도(天道)이다. 기가 형태를 이루어 일신(一身)이 되면, 일신의 가운데 음양오행의 정영(精英)한 기가 모여든 것이 마음이 된다. 마음에 이르러 이(理)가 갖추어지니, 곧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오성(五性)이다.

이 성을 따르는 것이 인도(人道)이다. 하늘이 내게 부여해준 것을 일러 명(命)이라고 하고, 인물에게 품수해준 것을 일러 성(性)이라고 하며, 하늘에서 얻은 것을 일러 덕(德)이라고 한다. 인물(人物)이 각각 그 성의 자연스

리움을 따른다면 각각 마땅히 행할 길이 없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道)라 하고 덕(德)이라 하고 성(性)이라 하고 명(命)이라 하고 천(天)이라 하고 태극(太極)이라 하고 이(理)라고 하는 것들이 말은 비록 다르지만 이치는 하나인 것이다.

대저 도서(圖書)가 나와서 천문(天文)이 드러났고 성인(聖人)이 일어나서 인문(人文)이 드러났으니, 복희(伏羲)의 팔괘(八卦)가 이 이치를 드러냈다. 요(堯)가 ‘윤집궐중(允執厥中)’이라고 말한 것은 이 이치가 불편불의(不偏不倚)한 것이다. 순(舜)이 우(禹)에게 명한 ‘인심유위(人心惟危) 도심유미(道心惟微) 유정유일(惟精惟一)’이라는 것은 이 이치를 밝힌 것이다. 탕(湯)의 ‘강충(降衷)’과 기자(箕子)의 ‘황극(皇極)’ 또한 이 이치를 지적한 것이다.

이윤(伊尹)이 태갑(太甲)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귀신은 일정하게 흠향함이 없이, 지극한 정성을 오직 흠향한다. [鬼神無常享, 極誠惟享]’<sup>4</sup>라고 하였다. 태공(太公)이 무왕(武王)에게 고하여 말하길, ‘공경으로 게으름을 이기는 자는 길하고, 의리로 욕심을 이기는 자는 순리롭다. [敬勝怠者吉, 義勝欲者從]’<sup>5</sup>고 하였다. 부자[공자]는 <건괘(乾卦) 문언(文言)>에서 ‘사특함을 막아 그 성(誠)을 보존한다. [閑邪存其誠]’<sup>6</sup>라고 하여 《서경》의 <함유일덕(咸有一德)>편을 근본으로 하였고, <곤괘(坤卦) 문언(文言)>의 ‘경으로서 안을 곧게 하고, 의로서 밖을 방정하게 한다. [敬以直內, 義以方外]’는 말로 <단서(丹書)>를 이었다. 천지자연의 이치에 질정하고 열성의 바뀌지 않은 도를 고

- 
- 4 복건(幅巾) : 관(冠) 대신 쓰는 두건으로 주로 처사(處士)·은자(隱者)가 쓰는 것이다.
  - 5 귀신은 ... 흠향한다 : 《서경》 <상서(商書) 태갑 하(太甲下)>에 “하늘은 친하게 대하는 사람이 없어 공경하는 사람을 친하게 대하며, 백성은 일정하게 그리워하는 사람이 없어 어진 사람을 그리워하며, 귀신은 일정하게 흠향하는 것이 없어 정성스러운 자의 제물을 흠향한다. [惟天無親, 克敬唯親, 民罔常懷, 懷于有仁, 鬼神無常享, 享于克誠.]”라고 한 데서 인용한 말이다.
  - 6 공경이 ... 순조롭다 : 주 무왕(周武王)이 즉위한 처음에 대사(太師)인 태공망(太公望)이 무왕에게 단서(丹書)를 올렸는데, 거기에 “공경이 게으름을 이기는 자는 길하고, 게으름이 공경을 이기는 자는 멸망하며, 의리가 욕심을 이기는 자는 순리롭고, 욕심이 의리를 이기는 자는 흉하다. [敬勝怠者吉, 怠勝敬者滅, 義勝欲者從, 欲勝義者凶.]” 한 데서 온 말이다.

찰하여 ‘우리 도는 일이관지(吾道一以貫之)’라고 집대성(集大成)<sup>7</sup>하여 말하였다.

증자는 ‘네[唯]’라고 하고 ‘충서(忠恕)<sup>8</sup>’를 말하였으니, 충은 자기에게 있는 이 이치를 극진히 하는 것이고 서는 자기에게 있는 이 이치를 미루어 나가는 것이다. 안자(顏子)가 극기복례(克己復禮)를 물었으니, 자기의 사됨을 이기고 제거하여 이 이치를 회복하여 온전히 하는 것이다. 자사(子思)는 《중용》을 지었으니, 명(命)과 성(性), 도(道), 교(教)<sup>9</sup>는 이 이치를 기술한 것이다. 증자는 《대학》을 서술하여, 지극한 선[至善]은 태극의 좋은 이름으로, ‘치지(致知)라고 말한 것은 이 이치를 아는 것이요, 역행(力行)이란 것은 이 이치를 행하는 것이다.[致知者, 知此理也, 其力行者, 行此理也.]’라고 하였다. 맹자가 성이 선함을 말하면서 말마다 반드시 요순을 일컬었으니<sup>10</sup>, 이 이치를 보존한 것이다. 정자(程子)의 주경(主敬)은 이 이치를 공경한 것이다.

주자는 여러 성인의 말을 절충하여 사서오경(四書五經)을 주석함에 이르러서는 존덕성(存德性)과 도문학(道問學)<sup>11</sup>을 학문하는 준칙으로 삼았

- 
- 7 사특함을 ... 보존한다 : 이 말은 《주역》 〈건괘(乾卦) 문언(文言)〉에, “공자가 말하기를 ‘성인은 용덕(龍德)으로 정중(正中)한 자이니, 평상시의 말을 믿게 하고, 평상시의 행동을 삼가며, 사특함을 막고 참됨을 보존하는 사람이다.’하였다. [子曰, 龍德而正中者也, 庸言之信, 庸行之謹, 閑邪存其誠.]”라는 구절에서 유래하였다.
- 8 집대성(集大成) : 《맹자》 〈만장 하(萬章下)〉에 “공자는 집대성한 분이시다. 집대성이란 종(鍾)과 같은 금의 소리가 먼저 퍼지게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경쇠와 같은 옥의 소리로 거뒀들이는 것을 말한다. [孔子之謂集大成, 集大成也者, 金聲而玉振之也.]”라는 말이 나온다.
- 9 증자는 ... 충서 : 공자(孔子)가 증자를 불러 “나의 도는 하나의 이치로써 모든 일을 꿰뚫고 있다. [吾道一以貫之.]”라고 하자, 증자가 “예, 그렇습니다. [唯]라고 곧장 대답하고는, 다른 문인에게 “부자의 도는 바로 충서이다. [夫子之道, 忠恕而已矣]”라고 설명해 준 내용이 《논어》 〈이인(里仁)〉에 나온다.
- 10 명(命)과 ... 교(教) : 《중용》 제1장에서 “천명을 성이라 하고, 성을 따름을 도라 하고, 도를 닦음을 교라 한다.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라고 하였다.
- 11 맹자가 ... 일컬었으니 : 《맹자》 〈등문공 상(滕文公上)〉에 “맹자가 성이 선함을 말하되 말마다 반드시 요순을 일컬었다. [孟子道性善, 言必稱堯舜]”고 하였다.

다. 도문학은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요, 존덕성은 성(性)을 다하는 것이다. 대개 성(性)이 곧 리(理)이고, 리가 곧 성이다. 이 성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고 하니, 도는 곧 성으로, 그 실체는 하나이다. 이기가 혼융묘합(渾融妙合)하여 물(物)을 이루는데, 이(理)는 본래 순선(純善)하고 기는 청탁(淸濁)이 있다. 기가 맑은 자는 성인(聖人)과 현인(賢人), 선인이 되며, 기가 탁한 자는 우인(愚人)과 불초자(不肖者), 악인이 된다.

그러나 본연지성이 요임금에게만 있고 걸임금에게는 없는 것이 아니다. 울곡이 우계에게 준 편지에서 “물은 그릇을 따라 모나고 둥글며, 공간은 병을 따라 작고 커진다. [水逐方圓器, 空隨大少瓶]”는 말을 인용하여 선악의 구분은 실제로 기의 청탁에 있음을 밝혔다. 기가 있으면 질(質)이 있으니 질은 또한 기의 청탁에 따라 아름답거나 추해진다. 질이 있으면 형(形)이 있고, 형이 있으면 인심과 기질의 성(性)이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순임금은 먼저 인심을 말하고서 정일(精一)의 공부를 더하여 인심이 도심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장자(張子)는 다음으로 기질지성(氣質之性)을 말했는데, 동심인성(動心忍性)<sup>12</sup>하고 기질지성을 변화하여 본연지성을 회복하는 것을 말했다. 위학 공부는 실로 하늘의 명을 듣고 기질을 변화하는 사이에 있다. 여백공(呂伯恭)의 조폭지성(粗暴之性)이 변화하여 끝내는 의(義)가 정밀해지고, 인(仁)이 숙성함에 이르렀으니<sup>13</sup> 어찌 명험(明驗)이 아니겠는가?

나 영찬은 사서오경을 굽어서 읽고 우러러 그 의미를 생각한지 오십여 년이 되었다. 도를 믿는 것이 독실하고 점점 더욱 깊어져서, 어리석고 참람됨을 헤아리지 않고 삼가 말을 한다.

12 존덕성(尊德性)과 도문학(道問學)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7장에 “군자는 덕성을 존중하고 학문을 연구한다. 넓고 큰 것을 끝까지 추구하면서도 정밀하고 은미한 것을 완전히 파악하고, 높고 밝은 최고의 경지를 이루면서도 중용의 길을 걷는다. 옛것을 익히면서 새것을 알고, 돈후한 자세를 견지하며 예를 숭상한다. [君子尊德性而道問學。致廣大而盡精微，極高明而道中庸，溫故而知新，敦厚以崇禮。]”라는 말이 나온다.

13 동심인성(動心忍性) : 《맹자(孟子)》 <고자 하(告子下)>에 보이는 말로, 인의(仁義)의 마음을 움직여 일으키고 기질(氣質)의 성품을 참아 억제하는 것이다.

위대하구나, 도여! 하늘에 있으면 천도(天道)가 되고, 사람에게 있으면 인도(人道)가 된다. 성(誠)은 천도(天道)의 실질 이름이고, 선(善)은 인도(人道)의 좋은 이름이다. 사전(思傳, 중용)에서 ‘성(誠)은 천도이고, 성(誠)이 되고자 하는 것은 인도이다[誠者天道也, 誠之者人道也]’라고 하였는데, 증전(曾傳, 대학)에서 성의(誠意)라는 것은 곧 사전(思傳)의 성(誠)이 되고자 하는 것의 공부이다. 그 뜻이 성실하면 마음이 저절로 바루어지고, 마음이 바르면 몸이 닦여지고, 몸이 닦여지면 도(道)가 저절로 서니, 삼강오상(三綱五常), 백행만사(百行萬事)는 모두 천리자연(天理自然)으로 사람이 안배하는 것이 아니다.

주자께서는 ‘원형이정은 천도의 떳떳함이고, 인의예지는 인성의 버리이다[元亨利貞天道之常 仁義禮知人性之綱]’<sup>14</sup>라고 하였다. 사람의 성강(性綱)을 함양하고 성찰(省察)해서 유에 따라 확장하면 도(道)는 그 가운데 있다. 선유들이 말한 ‘하늘은 일에서 조화를 나누고, 사람은 마음에서 경륜을 일으킨다’<sup>15</sup>고 한 것은 모두 뜻이 있는 말이다. 망령되게도 저 이단을 혹 교(教)라 하기도 하고, 혹 학(學)이라 하기도 하며, 혹 만들었다 혹 없앴다 하니, 혹세무민(惑世誣民)의 대란이 극에 달하였다. 어떻게 한문공(韓文公, 한유)의 건필(健筆, 뛰어난 문장)을 얻어서 깊이 그 그릇됨을 배척하고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만들고, 거처하는 곳을 집으로 만들 것인가. 그들의 책을 불태우고서<sup>16</sup> 선왕의 도를 가지고 다시 후세를 밝혀야 할 것

- 14 여백공 ... 이르렀으니 : 여백공(呂伯恭)이 젊었을 때 성질이 거칠고 난폭하여 음식이 뜻에 맞지 않으면 곧 가사(家事)를 타파(打破)했었는데 《논어》를 읽다가 자신 책하기를 각박하게 하고 남 책하기를 너그럽게 하라고 한 글을 보고서는 의사(意思)가 일시에 평온하여져 드디어 일생동안 불끈 화내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 15 원형이정 ... 버리이다 : 《소학》〈제사(題辭)〉에 나온 말이다.
- 16 하늘은 ... 일으킨다 : 소옹의 시 〈관역음(觀易吟)〉에 나온 말이다. 참고로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 사물에 본디 한 몸이 있고, 한 몸에 다시 한 천지가 있어라. 만물이 내게 구비되어 있다는 걸 안다면, 어찌 삼계를 따로따로 근원 세우리. 하늘은 일에서 조화를 나누고, 사람은 마음에서 경륜을 일으키네. 하늘과 사람이 어찌 뜻이 둘일까? 도가 헛되어 행해지지 않음은 오직 사람에게 달렸네. [一物由來有一身, 一身還有一乾坤. 能知萬物備於我, 肯把三才別立根. 天向一中分

이다.

### 續原道.

程子論理曰, “至虛之中, 有至實者存, 至無之中, 有至有者存.” 朱子曰, “理之一字, 不可以有無論.” 竊想, 有理則有道, 有道則有理, 以其真實謂之誠, 以其至微謂之理, 以其萬理本源謂之太極, 以其動靜謂之陰陽, 以其運行謂之五行. 以其原頭流行, 所以然之故, 無聲無臭. 天地萬物所共由謂之道. 〈繫辭〉曰 “形而上者謂之道, 形而下者, 謂之器.” 又曰 “立天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 道者形而上者, 載是道者器, 器者形而下者也, 未有無道之器, 亦未有無器之道, 道亦器, 器亦道, 道亦天, 天亦道也. 天道元而亨, 亨而利, 利而貞, 貞而復元. 流行四時, 一陰一陽, 五氣順布, 化生萬物者, 天道也. 氣以成形而爲一身則, 一身之中, 陰陽五行精英之氣, 聚焉者爲心. 心具此理, 卽仁義禮智信五性也, 循此性者, 人道也. 以天賦予謂之命也, 以人物稟受謂之性也, 以其得於天謂之德也, 人物各循其性之自然, 則莫不各有當行之路, 是則所謂道也. 然則道也德也性也命也天也太極也理也, 言雖殊, 理則一也. 大抵圖書出而天文著, 聖人作而人文著, 伏羲八卦者, 著此理也. 堯曰允執厥中者, 此理不偏不倚也. 舜命禹曰,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者, 明此理也. 成湯之‘降衷’, 箕子之‘皇極’ 亦指此理也. 伊尹戒太甲曰 ‘鬼神無常享, 極誠惟享’, 太公告武王曰 ‘敬勝怠者吉, 義勝欲者從’, 夫子於〈乾文言〉曰 ‘閑邪存其誠’, 本於〈咸有一德〉也. 於〈坤、文言〉曰 ‘敬以直內, 義以方外’, 繼〈丹書〉者也. 質諸天地自然之理, 考諸列聖不易之道, 集大成曰 ‘吾道一以貫之’ 曾子‘唯’, 曰 ‘忠恕’, 忠者盡己之有此理也, 恕者推己之有此理也. 顏子問克己復禮, 克去己私, 而復全此理也. 子思作《中庸》命、性、道、教者, 述此理也. 曾子述《大學》, 至善者, 大極之好底名, 其曰 ‘致知者, 知此理也, 其力行者, 行此理也.’ 孟子道性善, 言必稱堯舜, 存此理也. 程子主敬, 敬此理也. 至朱子折衷群聖之言, 註四書五經, 而以存德性, 道問學, 爲

學之準。道問學窮理也，尊德性盡性也，蓋性卽理，理卽性，率是性卽道，道卽性，其實一也。理氣渾融妙合，而成物，理本純善，而氣有清濁。氣清者，爲聖爲賢爲善，氣濁者，爲愚爲不肖爲惡。然本然之性，非堯存，而桀亡也。栗谷與牛溪書，引“水逐方圓器，空隨大少瓶”，善惡之分，實在於氣之清濁也。有氣則有質，質亦隨氣之清濁而美惡也，有質則有形，有形則不能無人心氣質之性。故舜先言人心，加精一之工，以人心聽命於道心。張子次言氣質之性，動心忍性，變化質性，以復本然之性。爲學工夫，實在於聽命，變化之間。呂伯恭變化粗暴之性，卒至義精仁熟，豈非明驗乎？永槩，於四書五經，俯而讀，仰而思者，五十有年矣。信道之篤，漸漸益深，不揆愚僭，謹以容喙焉。大哉道也！在天爲天道，在人爲人道。誠是天道之實底名，善是人道之好底名，思傳曰，‘誠者天道也，誠之者人道也’，曾傳誠意者，卽思傳誠之之工夫，誠其意則心自正，心正則身修，身修則道自立，三綱五常，百行萬事，皆天理自然也，非人安排。子朱子曰‘元亨利貞天道之常 仁義禮智人性之綱’。人於性綱，函養而省察，觸類而長之，道在其中矣。先儒所謂，‘天向一中分造化，人於心上起經綸’者 皆有旨而言。妄彼異端，或云教，或云學，或作或撤，惑世誣民，大亂極矣，安得韓文公健筆？深排其非，人其人，廬其居，火其書，以先王之道，復明於來世也。

〈가사〉- 해가 뜰 때 지음 -

친시가 운행하더니 하루가 새로 난다.

어린아이는 누가 보며, 손자들은 누가 가르칠까.

가동아 푸른 대나무 베어라 사립문 옆계.

歌詞.【日出而作】

天時運行하되 나흘리 사립문난다

櫛兒는 누가보며 諸孫은 誰教할고

家僮아 菴竹베라 竹扉옆계

〈물을 대다〉

벽계수 흐르는 물이 창해로 가는구나.  
사이사이 농부의 논두렁 중횡하니 막은들 병이 될까.  
사물을 적심도 또한 덕을 펴는 것이니, 본성조차 변할 것인가.

灌溉.

碧溪水 흐르는 물이 滄海로 간나구나.  
間間農夫 阡陌縱橫 拘碍흔 들 병될올가.  
濡物도 亦能布德이라 本性조차 變할쇼야.

1920년 10월 21일. 옥과 청단리(靑丹里)에 있는 설강정사(雪崗精舍)<sup>17</sup>에서 송자(宋子) 언행록에 있는 전도지탁(傳道之托)을 봉심하고 이어서 읊조렸다.

庚申. 十月. 二十一日. 玉果靑丹里雪崗精舍, 奉審宋子言行錄傳道之托, 因吟.

옛날의 향산옹을 생각하니,	憶昔香山翁
나에게 직자결을 주었었지.	授吾直字訣
이제 송자의 책을 보니,	今看宋子編
곧 도를 전하는 말이었네.	乃是道傳說
당년의 일을 추억해보니,	追感當年事
교분은 깊어 한 자나 쌓인 눈과 같았지.	契深一尺雪
천년이 가도 의리는 잊기 어려우니,	千載難忘義
명심하여 감히 새지 않게 하리.	銘心不敢泄

17 그 사람들을 ... 불태우고서 : 한유(韓愈)의 〈원도(原道)〉에 이단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나오는 말이다.



1921년 4월 7일

마당가의 꿀벌을 보고 느낌이 있어서 읊다[觀庭邊蜂感吟]

손서 이병종의 차운시[孫婿李丙種廣韻]

출유작(出遊作) 2수

어떤 이가 물고기 두 마리를 보내줌에 사례하다[謝人送二魚] -송서백선(宋書百選)

스스로 노패를 말하다[自言老悖] -송서백선(宋書百選)

금산 반남박씨 3세 충의재의 시를 짓다[錦山潘南朴氏三世忠義齋韻]

효부 엄씨 명설[孝婦嚴氏銘說]

삼가 모효정 시에 차운하다[敬次慕孝亭原韻]



1921년 4월 7일. 정축.

崇禎五回甲辛酉四月初七日. 丁丑.

〈마당가의 꿀벌을 보고 느낌이 있어서 읊다〉 觀庭邊蜂感吟

마당가 벌레 중에 벌 있나니,	庭邊虫有蜂
진실로 군신간에 봉해진 것이네. <sup>1</sup>	眞是君臣封
누가 이 속에 의가 있음을 알랴.	誰識此中義
요순과의 만남을 깊이 원하노라.	願深堯舜逢

〈손서 이병종의 차운시〉 孫曙李丙種廣韻

봄이 음에 벌들 저절로 시끄러운데,	春來自喧蜂
그 집안사람들 공손하게 분봉하네.	其家人敬封
천지사방 산수 간에는,	四方山水間
온갖 꽃들 활짝 피 영접하네.	百花多發逢

고공(雇工)이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에 모내기를 하지 못하였다. 수고로이 기록하면서 보내자니 생각나는 것이 있어 전에 본 것을 기록한다.

以雇工逃竄之, 故未得移秧. 勞錄而過, 有所思而記前見.

물(物)에 있는 것은 이(理)가 되고, 물에 처하는 것은 의(義)가 된다. 지금 보건대, 주자가 말한 '성즉리(性卽理)'란 물에 있는 것을 성(性)이라 바꿔 말한 것이고, 일(事)에 있는 것을 이(理)라 바꿔 말한 것이다.

在物爲理, 處物爲義. 今見, 朱子曰 '性卽理' 也, 在物喚做性, 在事喚做

1 설강정사(雪崗精舍) : 김찬식(金燦植)의 정사로 보임. 김찬식의 자는 우경(尤卿)이고, 호는 설강(雪江)이며, 김해인(金海人)이다. 제봉(濟鳳)의 아들로, 일찍이 송사 기우만(奇宇萬)과 운람(雲藍) 정봉현(鄭鳳鉉)을 좇으며 처세의 요체와 학문하는 방법을 얻어듣고, 정성스럽게 복용하였다. 또한 건물을 세워두고서 기술을 가르쳐 생활을 구제한 것이 많았는데 그 값을 받지 않았다. 설산(雪山)과 용성(龍城)의 사이에 기적비가 있다.

理也.

또 전날 놀러 나가서 지은 것을 기록한다.

又記, 前日出遊作.

세상 피해 한가히 사는 자 날마다 뜰 거닐지만,	遯世閑居日涉園
굴러다니는 쭈대의 발걸음은 바람에 뒤집히는 듯.	轉蓬一步若風翻
배를 따라 반곡(盤谷)에서 샘의 근원 살펴보고,	船從盤谷觀泉脉
다시 양강(羊江)을 건너 물줄기 거슬러 올라가네.	更渡羊江泝水源
지나다다 사문(師門)에 들어가니 서책이 상자에 가득하고,	因過師門書滿篋

멀리 시골 주막에 들어서니 술이 술동이에 가득하다.	遠投野店酒盈樽
계림(桂林) <sup>3</sup> 에 돌아오는 길을 봉우가 만류하니,	桂林回路朋相挽
비에 막혀 아득한데 날은 또 저무누나.	滯雨悠然日又昏

<또>	又
우연히 친구가 동산을 방문하니,	偶然來訪故人園
자동 꽃 시들어 밤이슬에 흔들린다.	花老刺桐夕露翻
친구의 흥금은 물처럼 맑고,	才子衿期清許水

- 2 진실로 ...것이네 : 벌과 개미에게는 본디 군신(君臣)의 의리가 있다는 데서 온 말이다. 《중용(中庸)》 상권(上卷)에 “범과 승냥이에게 부자간의 친함이 있고, 벌과 개미에게 군신간의 의리가 있고, 승냥이와 수달이 조상에게 제사할 줄을 알고, 징경이에게 암수의 분별이 있는 것으로 말하자면, 그 형기가 한편으로 치우친 반면에 또 의리의 얻은 바를 보존한 것이 있다. [至於虎狼之父子, 蜂蟻之君臣, 豺獮之報本, 雉鳩之有別, 則其形氣之所偏, 又反有以存其義理之所得。]”라고 하였다.
- 3 반곡(盤谷) : 당(唐)나라 한유(韓愈)의 <송이원귀반곡서(送李愿歸盤谷序)>를 가리킨다. 한유(韓愈)가 태항산(太行山) 남쪽의 반곡으로 돌아가는 벗 이원(李愿)을 전별하는 뜻에서 지은 <송이원귀반곡서(送李愿歸盤谷序)>란 글이 있다.

스승 높이는 교도(敎道)는 근원에서 노닌다.	尊師敎道遊於源
여러 해 쌓인 정은 이제 시를 쓰고,	積歲情懷今用律
덕을 쌓은 가풍은 자주 술잔 든다네.	種德家風數舉樽
비에 막혀 지리한 것은 하늘이 시키는 것,	滯雨支離天使是
은근히 손 맞잡으니 또 해질녘이구나.	慇懃握手又黃昏

1921년 8월 16일. 계미. 순창(淳昌) 남계(南溪)<sup>4</sup>에 사는 유환동(柳煥東)-자는 문호(文浩)- 이 방문하여 함께 서정(西亭)<sup>5</sup>에 사는 이도사(李都事) 사랑에 놀러 갔다. 《송서백선(宋書百選)》 중 <영서연설(郢書燕說)<sup>6</sup>>과 또 송자(宋子)의 서간사(書簡辭)에 대해 토론하였으므로 기록한다.

八月。十六日。癸未。淳昌南溪柳煥東來訪，字文浩，伴遊西亭李都事舍廡。討論《宋書百選》中，〈郢書燕說〉，又及宋子書簡辭，記之。

〈어떤 이가 물고기 두 마리를 보내줌에 사례하다〉 謝人送二魚

두 마리 물고기는 감사하고 감사하네.	二魚荷荷
옛날에 정강성(鄭康成) <sup>7</sup> 이란 이가,	昔鄭康成
‘양이 채소밭을 밟는다.’ 하였으니,	羊踏蔬畦
이것은 기이한 일이었네.	亦是奇事

4 계림(桂林): 문인들의 사회를 비유적으로 지칭한 것이다.

5 순창(淳昌) 남계(南溪):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남계리를 말한다.

6 서정(西亭): 현재는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산정리이다.

7 영서연설(郢書燕說): 천착(穿鑿)하여 억지로 끌어다 붙이는 말을 가리킨다. 초(楚) 나라 사람이 연(燕) 나라 정승에게 국서(國書)를 보내려고 밤에 국서를 쓰다 보니 불이 붙지 않았다. 그러자 촛불을 들고 있는 자에게 “촛불을 들라. [舉燭]” 하고는 그대로 국서 안에 ‘거촉(舉燭)’이란 두 글자를 썼는데 거촉은 물론 국서의 뜻이 아니었다. 그런데 국서를 받은 연 나라 정승은 설명하기를 “거촉은 밝음을 숭상한 것이니 밝음을 숭상하는 자는 어진 이를 천거하여 맡길 것입니다.”고 왕에게 아뢰자, 왕이 크게 기뻐하여 나라가 잘 다스려졌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한비자(韓非子)》 <외저설(外儲說)>)

지금 아우의 물고기가 채소밭에서 뛰고 있으니,                      今弟之魚躍蔬畦  
기이한 중에 더욱 기이하구려.    奇中尤奇

〈스스로 노패(老悖)를 말하다〉 自言老悖

마당을 나가고 들어오며,    庭除出入  
칠전팔도(七顛八倒)하네.    七顛八倒  
아들과 손자, 어린 종들    兒孫僮僕  
간혹 그 이름도 잊어버리니    或失其名  
채찍질해도 일어나지 못하는 늙은 소와 같구나.                      如老牛之鞭不起

〈금산 반남박씨 3세 충의재의 시를 짓다〉 錦山潘南朴氏三世忠義齋韻

만고 강상(綱常)에 의기(義氣) 맑으니,                                      萬古綱常義氣清  
그 원류는 봉영(逢迎)하러 나왔네.                                      其源流出在逢迎  
무릇 일은 마땅히 이치 따라 정해야 하는 법,                              凡事要當循理定  
인(仁)을 어찌 꼭 살신으로만 이룰 것인가.                              惟仁奚特殺身成  
충과 효를 어찌 빈거롭게 나눌 필요 있을까,                              爲忠爲孝分何素  
나라와 집안에서 정밀히 택해야 하리.                                      於國於家擇以精  
한 가문에 세 사람이 충효를 다 했으니,                                      一門三得雙全地  
명교(名教)는 천년이 지나도 명성이 있네.                                      名教千秋亦有聲

〈효부 엄씨(嚴氏) 명설〉

대저 효는 백행(百行)의 근원이고 6행(六行)<sup>8</sup>의 으뜸으로 어린아이도 그 부모를 사랑할 줄 모르는 자가 없으니, 양지양능(良知良能)<sup>9</sup>으로 확충하

8 정강성(鄭康成) : 후한(後漢) 때의 학자인 정현(鄭玄)을 가리킨다. 강성은 그의 자(字)이다. 후한 말기에 덕을 숨긴 채 출사(出仕)하지 않았으며, 《주례》, 《의례》, 《예기》, 《시경》, 《주역》 등을 주석하여 한대(漢代)의 경학(經學)을 집대성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9 육행(六行) : 육행은 효(孝)·우(友)·목(睦)·인(嫻)·임(任)·홀(恤)이다. 《주례(周禮)》 지관(地官) 대사도(大司徒)에, “향(鄉)에서 삼물(三物)로써 만민을 교육

여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위대하고 지극함에도 달한 것이다. 천자(天子)로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자취는 비록 같지 않으나, 부모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하나의 법도로 같아진다. 남자가 이를 확충하여 임금을 섬기면 충신(忠臣)이 되고, 여자가 이를 확충하여 시부모를 섬기면 효부(孝婦)가 된다.

시대가 내려옴에 따라 풍속이 점차 퇴폐하여 이륜(彝倫)이 무너졌으니, 충신과 효자를 들어 보기 힘든데, 신유년 가을 8월 29일 고인(故人) 황모(黃某)가 나를 찾아와 낱낱이 말하길, 그 며느리가 평소 효행이 있는데 불행히 단명해서 죽었다고 하면서 울먹이면서 나에게 한마디 말로 기록해줄 것을 청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어떤 특이한 행실이 있는가?”라고 물으니 말하기를, “사람이 부모와 형제의 말에 끼어들지 않았고, 향당에서는 효부라고 칭송하고 상을 주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생각하기를, ‘대저 민자건(閔子騫)은 성문(聖門)의 고제(高弟)로서 이러한 행실이 있으니 공자께서 아름답게 여겼다. 효부(孝婦)는 한문(寒門)의 소부(少婦)로서 이러한 행실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다. 어찌 그러한가?’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시집은 후로는 집안사람으로서 마땅하여 공봉(供奉)하는 일이나 혼정신성(昏定晨省)하는 예절에 대해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라고 하니, 이것은 자질이 아름답고 학문이 뛰어난 자도 이와 같지 못하는데, 하물며 깊은 규방에 있는 몸으로도 그러하니, 어찌 그러한가? 그 소이연은 자연스럽게 익힌 것이니, 바로 하늘에서 부여한 성품이다.

동해의 효부 시어머니는 효부가 죽자 그 며느리를 위문하고자 했고, 지금 이 효부의 시아버지는 늙어도 그 며느리를 질실히 애통해하니, 고금 인정의 덕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감히 사양하지 않고 드디어 설을 지었다. 또 따라서 명을 하여 이른다.

하여 빈례(賓禮)로 천거한다. 첫째는 육덕(六德)인데 지(知)·인(仁)·성(聖)·의(義)·충(忠)·화(和)요, 둘째는 육행(六行)이다. 셋째는 육예(六藝)인데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이다.”라고 하였다.

**孝婦嚴氏銘說.**

夫孝百行之源, 六行之首, 而自孩提無不知愛其親之, 良知良能擴充, 而善事親者也. 善事親者, 有大達至焉. 自天子至於庶人, 迹雖未同, 自愛親始同一揆也. 男子推之, 事君則忠臣也, 女子推之, 事舅姑則孝婦也. 世降俗末, 彝倫惟斁, 忠臣孝子, 罕有所聞. 而辛酉之秋, 八月小晦, 故人黃某, 叩門歷敘, 其媳婦素有孝行, 而不幸短命死矣. 飲泣請余一言以記之. 余曰, “有何特之行乎?” 曰, “人不聞於父母昆弟之言, 鄉黨以孝婦稱賞. 余思, ‘夫閔子騫, 聖門高弟, 有此之行, 而夫子美之. 孝婦, 寒門少婦, 有此之行, 其然, 豈其然乎? 又曰, “自于歸之後, 宜乎家人, 至於供奉之節, 定省之禮, 一無少違, 此是資質之美, 學問之優, 未能如此. 況深閨幽閒之身其然, 豈其然乎? 其所以然, 自然之習, 卽天賦之性也. 東海孝婦之姑, 死而欲慰其婦. 今茲孝婦之舅, 老而切哀其婦. 古今人情之德, 於此可見, 故不敢辭, 而遂爲之說焉. 又從而銘之曰,

사람의 사람이 되어서는	人之爲人
사람의 이름을 더럽힘이 없었고,	無忝人名
본래의 그 위치에 맞게	故素其位
각기 한 선행을 했네.	各一善行
성정이 발랐으니,	情性之正
이에 떳떳한 도리를 지킨 것이고,	茲守之常
성인의 명교를 준수하였으니,	遵聖名教
영원히 풍성이 세워지리.	永樹風聲

〈삼가 모효정의 시를 차운하다〉 -영암 금정면 효리의 김해김씨는 4대가 봉군되었고 3세에 걸쳐 효가 이어졌다. -

**敬次慕孝亭原韻**【靈巖金井面孝里, 金海金氏, 四代封君, 三世連孝.】

정자 이름과 마을 이름이 효(孝)로서 이뤄졌으니,	亭號里名孝以成
이륜이 이로부터 찬란하게 밝아졌네.	彝倫從此粲然明

조상은 곧 네 분이 군이고 삼대가 덕행 있으니,

백행에서 근원함이라 일가가 유명해졌네.

유래한 자손들도 정성이 어찌 그치랴,

칭송하는 후인의 시 또한 맑기만 하네.

만약 천하 사람들도 이 모효정을 본받게 할 수 있다면,

비단 우리나라만 태평을 누릴 뿐 아니리.

祖乃四君三世德

原乎百行一家聲

由來子姓誠何已

稱述後人韻亦清

若令天下因斯慕

非但青邱樂太平





1922년 2월

시정차운(詩亭次韻)

나주 종인 동수가 시를 청하기에 답함[羅州宗人東洙請韻聊以答之]

취후 평담(醉後平談)

3월 그림에 봄을 전별하는 시[三月晦日餞春韻]

월계재 시[月溪齋韻]

망야정 소작 차운시[次望野亭小酌]

성왕(聖王)이 만이(蠻夷)를 제어하는 상도(常道)(文)

김추사의 연경에 사람을 보내며 서문[金秋史送人燕京序]

아이 가르치는 시운으로 인해 우연히 짓다[因學兒韻偶成]

청화의 작은 술자리[清和和小酌]

다음날 또 읊다[翌日又吟]

양성재의 곡왕치 시를 보고 느낌이 있어[感養性齋哭王峙韻]

또 이어서 찬하기를[又繼而贊曰]

양성재 행장 발(養性齋行狀跋)(文)

금소정 원운시에 차운하다[次琴嘯亭原韻]

간재(良齋)가 족숙(族叔) 봉현(瑋鉉)에게 보내온 편지



1922년 2월 일. 비로소 시골 학숙인 시정에서 차운한 시를 보았다.

壬戌. 二月. 日. 始見村塾詩亭次韻.

공부하는 작은 정자가 들을 끼고 세워지니,	爲學小亭夾野成
올라보면 가슴이 확연하게 밝아지네.	登臨胸次廓然明
추위 끝 술 기운에 봄도 따뜻해지려는데,	寒餘酒氣春將暖
바람결에 시심은 달과 함께 맑아지네.	風便詩心月與清
주역 가운데 성경(誠敬) 글자 즐거이 말하고,	肯道易中誠敬字
앞으로의 시비 소리는 듣기 꺼려하네.	厭聞來後是非聲
이곳에 온 남아는 무슨 한 있어서,	到此男兒何恨有
눈물 흘리며 한양성을 씻으려 하나.	淚流欲洗漢陽城

-며칠이 못가 정자는 넘어져버렸다. -【不數日, 亭乃傾覆】

1922년 3월 일. 나주(羅州) 종인(宗人) 동수(東洙) -자호는 동암(東菴)- 가 시를 청하기에 답하였다.

三月. 日. 羅州宗人東洙, 自號東菴, 請韻聊以答之.

누가 남산의 깎아지른 저 암벽과 같으리,	孰若南山截彼岩
벽류정 뒤에 동암이 있네.	碧流亭後有東菴
진정으로 발한 것은 청렴하고 담박하니,	真情所發廉而淡
기미는 어찌 쓰고 달고를 상관하리.	氣味何移苦與甘
장차 춘풍 가운데 있을 뜻 얻고,	將得春風中在意
가을 달이 차가운 연못 비출 때를 기약하네.	期來秋月照寒潭
은근하고 깊은 취미 아는 사람 적어,	慇懃深趣知人少
밝은 덕 드러날까 앞드려 잠겨 있네.	昭德著乎伏以潛

〈취한 후의 평이한 말〉 醉後平談

성인의 도는 시냇물과 같아서,

聖人道若川

평상이기 전에도 쉬지 않네.  
의리도 이를 벗어나지 않으니,  
능히 호연지기 따르면 현자되리.

不息平常前  
義理非斯外  
能順浩氣賢

1922년 3월 14일. 무신. 맑음. 한 사람이 짐을 지고 왔는데 그의 행색을 물으니 바로 갓 장사[冠商]였다. 그의 이름은 공현숙(孔玆淑)이라고 하기 때문에 만무정(晩舞亭) 공자묘<sup>1</sup>에 대한 일을 물으니 춘추 석채일(釋菜日)의 날짜가 개정되었다고 한다. 때문에 그 까닭을 물으니, 2월 18일은 공자 승하일이고, 8월 27일은 탄신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자의 후예들이 무슨 일로 우리나라에서 침체되었는지를 물으니, 답하기를 ‘임진왜란 때에 왜놈 장수 청정(靑丁)이 공자의 노성묘(魯城廟)를 봉심하려고 하자 방계 선조 희겸(希謙)이 도로를 수리 해주었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壬戌. 三月. 十四日. 戊申. 陽. 有一人擔負而來, 問其行色, 則乃冠商也. 姓名孔玆淑云, 故問晩舞亭夫子廟事, 則春秋釋菜日字改定云. 故問其故, 則二月十八日夫子昇遐日, 八月二十七日夫子誕降日故也. 問以夫子之後裔, 何以沈滯於東國. 答曰 ‘壬亂時倭將靑丁, 欲奉審夫子魯城廟, 旁先希謙, 修繕道路之故’ 云.

1922년 3월 19일. 계축. 맑음. 본향 장동(獐洞)에서 사문(斯文) 이희채(李熙采)가 방문했다고 한다.

三月. 十九日. 癸丑. 陽. 本鄉獐洞李斯文熙采來訪云.

연전에 <간재(良齋)<sup>2</sup>의 성사심제(性師心弟)<sup>3</sup>시에 차운하여>라는 시, 즉

- 1 양지양능(良知良能): 《맹자(孟子)》 <진심 상(盡心上)에 나오는 말로, 배우지 않고도 알고 행할 수 있는 천부적인 지능(知能)을 말한다.
- 2 만무정 공자묘: 장성 만무리에 있는, 공학원 등이 세운 사산사를 말한다.
- 3 간재(良齋): 전우(田愚, 1841~1922)를 말함. 초명은 경륜(慶倫)·경길(慶估),

“성(性)은 명을 받아 사(師)가 되고, 심(心)은 가르침을 받으니 제(弟)가 되네. 생이지지 이하의 자질은 도문학을 해야 하네.”의 구절을 지어 간재에게 여쭙니, 흡연(歛然)하게 칭찬하며 동지로써 허락하였다. 세상에 분명치 못하고 얼버무린 것이 많아 혹 시비가 있을까 싶기 때문에 다시 “성은 명과 합하여 사(師)가 되고, 심은 곧 가르침을 받으니 제(弟)가 된다. 생이지지와 안이행지 이하의 사람은 모두가 배워야 하네.”라고 했다고 하기 때문에 기록한다.

以年前次艮齋性師心弟韻, “性爲受命師, 心是承教弟. 生知以下資, 道問學來底”句, 稟於艮齋, 則歛然稱賞, 以同志許之. 世多含糊, 恐或有是非, 故復以“性爲合命師, 心乃承教弟. 生安以下人, 摠是學來底”云, 故記之.

이희채(李熙采)의 14대조인 양성재(養性齋) -휘는 관식(寬植)- 의 가장(家狀) 안에 임금이 삼종조 효정공(孝靖公) 정간(貞幹)에게 하사한 ‘가전충효 세수인경(家傳忠孝世守仁敬)’이라는 8자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한다.

李熙采十四代祖, 養性齋諱寬植家狀, 有御賜三從祖孝靖公諱貞幹, ‘家傳忠孝世守仁敬’八字, 故特記.

〈3월 그믐에 봄을 전별하는 시〉      三月晦日餞春韻

3월 30일이라,	三月旬爲三
내일 아침은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겠지.	明朝風自南
온갖 꽃은 시들어 곧 떨어지고,	百花殘乃褪
수많은 나무는 푸르기가 쪽빛 같아지리.	萬樹碧如藍
북두의 자루가 진사(辰巳)방 <sup>4</sup> 의 가운데 자리하고,	斗柄中辰巳

자는 자명(子明), 호는 간재(艮齋)·추담(秋潭)·구산(白山), 본관은 담양이다.

4 성사심제(性師心弟) : 간재 전우(田愚)는 성(性)을 리(理)로 파악하고 심(心)을 기(氣)로 파악하는 전통적인 기호학파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심(心)을 리(理)로 파

사계(沙鷄) <sup>5</sup> 는 누에잠 재촉하겠구나.	沙鷄促蠶蚕
천시는 어찌할 수 없으니,	天時無可奈
봄을 전별하는 일 누가 진정 감내하리.	春錢正誰堪

1922년 4월 1일. 을축. 삼가 광주 매월리(梅月里)<sup>6</sup>의 월계재 시에 차운 하였다.

四月. 初一日. 乙丑. 謹次光州梅月里.

〈월계재 시〉 月溪齋韻

본시 내향(內鄉) <sup>7</sup> 인이 고을에 복거하니,	本以內鄉卜是州
달빛 머금은 시냇물은 물소리도 그윽하네.	月涵溪水水聲幽
마음 써서 티끌 없이 맑은 곳 언었으니,	治心期得無塵霽
덕을 쌓으며 쉼 없이 흐르는 물을 보려네.	進德將看不息流
도를 도모해 주나라 법도 전할 수 있고,	謀道能傳周法度
기미를 보아 노나라 춘추 읽을 수 있네.	見機可讀魯春秋
청명한 이곳에서 공부하기 좋아라.	清明茲地工夫好
지극한 이치는 끊임없어 닿는 물건마다 거두네.	至理源源觸物收

〈‘망야정에서의 작은 술자리’시에 차운함〉 - 초닷새날 -

次望野亭小酌【初五日】

때에 합당하면 만사(萬事)가 각기 그러하니,	當時萬事各其然
물고기 뛰고 술개 나는 것 다 천연이라네.	魚躍鳶飛摠是天

악하는 학설에 맞서기 위해 ‘성사심제설(性師心弟說)’, ‘성존심비설(性尊心卑說)’ 등의 독특한 학설을 제기하였다.

5 진사(辰巳)방 : 동남방을 말한다.

6 사계(沙鷄) : 배짱이. 《시경》〈빈풍(邠風)·칠월(七月)〉에서 “6월이 되면 배짱이가 깃을 비벼서 소리를 낸다. [六月莎雞振羽]”라고 하였다.

7 광주 매월리 :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으로, 여기에 광산김씨 집성촌이 있다.

물가 찾고 산에 오르는 오늘의 정취,	臨水登山今日趣
꽃 찾아 버들 따라 앞 시내에서 배우네. <sup>8</sup>	訪花隨柳學前川
관자와 동자 몇 사람과 함께 즐기니,	冠三童五同相樂
백발노인과 젊은이가 상하로 이어지네.	白髮青衿上下連
여러 친구들 혹시 내 뜻을 아는가,	諸友倘知余志否
유유자적한 오늘, 하루를 1년처럼 보내세나.	優遊此日日如年

### 〈성왕(聖王)이 만이(蠻夷)를 제어하는 상도(常道)〉

성왕이 금수(禽獸)를 기름에 더불어 약속을 맺지도 않고, 공격하며 정벌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들과 약속을 하면 비용이 들면서도 기만을 당하고, 그들을 공격하면 군대를 수고롭게 하고 도적을 불러온다. 그 땅은 경작해 먹고 살 수 없으며, 그 백성은 신하로 기를 수도 없다. 이 때문에 밖에 두고 안으로 들이지 않으며,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 정교(政敎)가 그 사람들에게 미치지 않고, 역법[正朔]<sup>9</sup>이 그 나라에 더해지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오면 징치(懲治)하고 제어하며, (그들이) 가면 대비하고 지켜야 한다. 그들이 의(義)를 사모하고 공물을 바치면 맞아들여서 예양(禮讓)으로써 응접해서 기미(羈縻)<sup>10</sup>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 -《주역》에서 기(羈)라고 하고 미(縻)라고 하는 것은 사이(四夷)를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 반고(班固)가 지은 〈한실재기(漢室齋記)〉반고의 주에 보인다. -

#### 聖王制御蠻夷之常道.

聖王禽獸畜之，不與約誓，不就攻伐。約之，則費賂而見欺，攻之，則勞師而招寇。其地不可耕而食也，其民不可臣而畜也。是以，外而不內，而不戚。政敎不及其人，正朔不加其國。來則懲而御之，去則備而守之。

- 8 꽃 ... 배우네 : 송나라 정명도(程明道)의 시에서 인용한 것이다. 송나라 정명도는 시 〈춘일우성(春日偶成)〉에서 “얽은 구름에 살랑 바람 부는 정오 무렵, 꽃 찾아 버들 따라 앞 시내를 왔노라. [雲淡風輕近午天, 訪花隨柳過前川]”라고 하였다.
- 9 정삭(正朔) : 옛날 중국의 제왕이 새로 반포하는 역법(曆法)을 가리킨다.
- 10 기미(羈縻) : 굴레와 고삐라는 뜻으로, 속박(束縛)하거나 견제(牽制)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其慕義而貢獻，則接之，以禮讓羈縻不絕。【《易》曰羈曰縻言，制於四夷。見《漢室齋記》班固註。】

〈김추사(金秋史)의 연경(燕京)에 사람을 보내며 서문〉

강남(江南)의 금릉(金陵, 남경), 연북(燕北, 연경)의 장성(長城), 이는 우리 명나라의 두 서울이다. 금릉이 폐허가 된 것을 나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연북의 장성이 초라해졌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다만 대장부가 한쪽 변방에서 태어나 중국을 유람하니, 또한 하나의 상쾌한 일이다. 그대가 이번엔 가면 심양(溍陽)의 삼절도(三節島) 아래를 지나갈 터인데, 만약 꿈에서라도 삼학사(三學士)<sup>11</sup>의 영령을 만나면, ‘그대는 지금 어찌하여 가는가?’라고 물으실 것이니, 과연 무슨 말로 답하리오? 이번 행차에서는 황하물이 맑게 쏟아지는 것을 알아보고 오게나. 나는 병든 귀머거리가 되어 만리 길 가는 데 함께 할 수도 없고, 도성문 전별연에서 함께 마시지도 못하니, 애석하도다!

〈金秋史送人燕京序〉

江南之金陵，燕北之長城，是我皇明朝兩京，而金陵墟矣，余欲無言，燕北之長城陋矣，復何云哉。但大丈夫生於偏邦，遊於中國，亦一快事，而君今行矣，過溍陽三節島下，如夢遇三學士靈，問君今何之，果何辭答耶？今行認得黃河水清瀉而來也。顧此病聾，未與計萬里行，未與飲都門餞，惜哉！

간들간들 강가의 나무는 멀리 정<sup>2</sup>을 머금고, 裊裊江樹遠含情  
봉황산 아래 구름은 만 리에 펼쳐 있으리. 鳳凰山下雲萬里

11 삼학사(三學士) :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항복하는 것을 반대하고 주전론(主戰論)을 주창한 척화신(斥和臣)으로 그들에게 끌려가 끝끝내 굴하지 않고 죽임을 당한 홍익한(洪翼漢)·윤집(尹集)·오달제(吳達濟)를 가리킨다.

12 간들간들 ... 정 : 송지문(宋之間)이 두심언(杜審言)과 이별하며 지은 〈별두심언(別杜審言)〉에 ‘병들어 누워 인사도 못 하는데, 아 그대 만 리 길 떠나시는가. 하수 다리에서 전송도 못 하다니, 강가의 나무에 멀리 정을 머금네. 臥病人事絕，嗟君萬里行。河橋不相送，江樹遠含情。’라는 구절이 실려 있다.

또 한 편의 시를 주었다. 又贈一編詩.

나에게 십년을 연마한 보검이 있어,	我有寶劍磨十年
용의 빛 두우성 사이로 곧장 솟아오르네. <sup>13</sup>	龍光直射斗牛躔
은근히 주노니 그대 어디에 쓰려나?	慇懃持贈君何用
가서 가을바람 부는 역수가 <sup>14</sup> 에 걸어 놓으라.	去掛秋風易水邊

〈아이 가르치는 시운으로 인해 우연히 짓다〉 困學兒韻偶成

내가 세상에 처해 살면서 나를 잊었으니,	以吾處世却忘吾
심신 일체가 성인의 가르침 배우는 것이네.	一切心神學聖謨
옥을 숨겨 감춰두어 누가 값을 기다릴까? <sup>15</sup>	蘊玉藏之誰待價
잘 지닌 사람 있다면 매양 술을 사리다.	有人護則每酒沽
밝은 낮 세 길의 나무로 바람 소리 듣고,	白晝聞風三丈木
맑은 밤 열 길 오동나무에서 달을 맞는다.	清宵迎月十尋梧
인간의 만사의 경륜도 여기에 있으니,	人間萬事經綸在
범응곡당함이 병을 거꾸로 세우는 것 같으리. <sup>16</sup>	泛應曲當若建壺

- 13 용의 … 솟아오르네 : 용천(龍泉)과 태아(太阿)라는 두 보검이 땅속에 묻힌 채 자기(紫氣)를 하늘의 두우성 사이에 내쏘고 있다가 마침내는 발굴되기에 이르렀다는 전설이 있다. 《진서(晉書)》 권36 <장화열전(張華列傳)〉
- 14 역수(易水) : 중국 허북성(河北省)에 있는 강 이름이다. 형가(荊軻)가 태자 단(太子丹)과 작별한 곳이다. 옛날 중국의 연(燕)나라와 조(趙)나라 땅에는 백질불굴의 기개를 지니고 비분강개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히 연나라 태자 단(丹)을 위해 진시황(秦始皇)을 죽이려고 자객(刺客)인 형가(荊軻)가 떠나면서 역수 가에서 축(筑)의 명인인 고점리(高漸離)의 반주에 맞추어 “바람결 쓸쓸해라 역수 물 차가운데, 장사 한번 떠나가면 다시 오지 않으리. [風蕭蕭兮易水寒, 壯士一去兮不復還.]”라는 노래를 불렀다. 《戰國策 燕策3》)
- 15 옥을 … 기다릴까 : 공자의 제자 자공이 “여기에 아름다운 옥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을 상자 속에 그냥 보관해 두어야 합니까, 아니면 좋은 값을 받고 팔아야 합니까? [有美玉於斯, 韞櫝而藏諸, 求善賈而沽諸?]” 하고 묻자, 공자가 “팔아야지, 팔아야 되고 말고. 나 역시 제값을 주고 살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沽之哉, 沽之哉. 我待賈者也.]”라고 대답하였다. 《논어(論語)》 <자한(子罕)〉
- 16 범응곡당함이 … 같으리 : 범응곡당(泛應曲當)은 “널리 응하고 세세히 들어맞는다.”라는 의미로, 《논어》 <이인(里仁)〉에서 공자는 증삼에게 “삼아! 우리의 도는

〈청화<sup>17</sup>의 작은 술자리〉 清和小酌

때는 사월이라 순양 <sup>18</sup> 의 때이니,	時當四月卽純陽
꽃향기와 풀 향기도 다 해간다네.	已矣花香又草芳
바람에 흩어진 버들개지 흰 눈처럼 날리고,	風散柳綿飛白雪
물 위에 뜬 연잎 방당을 매웠네.	水添荷葉綴方塘
시정의 깊고 열음 말로 다하기 어렵나니,	詩情深淺言難盡
술빚 <sup>19</sup> 의 많고 적음을 어찌 헤아리랴.	酒債小多意豈量
봉우를 불러 손잡고 즐기나니,	喚友招朋攜手樂
언덕은 영원하고 도심은 유장하네.	在阿永矣道心長

〈다음날 또 읊다〉 翌日又吟

청화한 날 산정에서 한잔 술 마시니,	清和一酌在山亭
여흥은 도도하여 다시 언덕 오르네.	餘興陶陶更上阜
고요히 들으니 술바람은 차가운 옛 곡조요,	靜聽松風寒古調
머리를 돌려보니 보리 물결은 파도가 되었구나.	回看麥浪作波濤

한 가지 이치로써 만 가지 일을 꿰뚫고 있다. [參乎, 吾道一以貫之.]”라고 한 구절을 주자가 주석하여 ‘성인의 마음은 한 가지 이치이면서 널리 응하고 세세히 들어맞는다. [聖人之心, 渾然一理而泛應曲當.]’라고 해석하였다. 건호(建壺)는 건령(建瓴)과 같은 말이니, 물병의 물을 거꾸로 쏟는다는 말로 기운이 몹시 세차 막힘이 없다는 뜻이다. 한나라 전궁(田肯)이 고조에게 용병의 유리한 형세에 대해 진언을 하면서, 마치 ‘지붕 꼭대기에 앉아 물병을 거꾸로 들고 아래로 쏟을 때처럼[居高屋之上建瓴水]’ 막힘이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비유한 고사가 《사기》 권8 <고조본기(高祖本紀)>에 나온다.

- 17 청화(淸和) : 음력 4월의 이칭이다.
- 18 순양(純陽) : 음력 4월을 가리킨다. 《주역》의 괘를 12개월에 배치했을 때 11월은 맨 아래에서 양(陽)이 처음 생긴 복괘(復卦)에 해당하고, 12월은 양이 돌인 임괘(臨卦)에 해당하고, 1월은 양이 셋인 태괘(泰卦)에 해당하고, 2월은 양이 넷인 대장괘(大壯卦)에 해당하고, 3월은 양이 다섯인 채괘(夬卦)에 해당하고, 4월은 6효가 모두 양인 건괘(乾卦)에 해당한다.
- 19 술빚(酒債) : 두보(杜甫)의 시 <곡강(曲江)>에 “술빚은 늘상 가는 곳마다 있거니와, 인생의 칠십은 예로부터 드물다네. [酒債尋常行處有, 人生七十古來稀.]”라고 하였다.

내오는 안주는 개천에서 잡은 생선회요, 供肴獵得川魚膾  
 피한 술은 시골 주막에서 불러온 막걸리라. 謀酒喚來野店醪  
 때때로 향연하며 즐거움 수를 기대하는 뜻이니,<sup>20</sup> 宴樂以時需待意  
 옆 사람은 알지 못하고 시호(詩豪)라 말하는구려. 傍人不識謂詩豪

〈양성재의 곡왕치 시를 보고 느낌이 있어〉<sup>21</sup> 感養性齋哭王峙韻

창오<sup>22</sup>의 산색은 오랫동안 아득한데, 蒼梧山色久茫茫  
 양성의 진충(盡忠)은 이 고을에서 드러났지. 養性盡忠著此鄉  
 고을 남쪽 대곡(大谷)의 용두산 정상에, 鄉南大谷龍豆上  
 우뚝한 고개 있어 곡왕이라 부른다네. 有峙崢嶸號哭王

〈또 이어서 찬하기를〉 又縱而贊曰

치지와 역행을 함에 致知力行  
 복숭아로 비유하고 복숭아로 완성했네. 桃譬桃終  
 오성(五性)<sup>23</sup>을 함양(涵養)하며, 涵養五性  
 정성을 다하고 증용 취하였지. 竭誠取中  
 인(仁)에 의지하고 거경(居敬)하여, 依仁居敬  
 집에서는 효도하고 나라엔 충성했네. 家孝國忠  
 이에 월산사(月山祠)에 배향하니, 膾享月山

20 때때로 ... 뜻이니 : <주역> <수괘(需卦)> 상사(象辭)에 “구름이 오르는 것이 수이니, 군자가 이것을 인하여 음식을 먹으며 향연을 즐긴다. [雲上於天需, 君子以飲食宴樂.]”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21 양성재(養性齋) : 양성재는 이관식(李寬植, 1384~1436)의 호이다. 자는 덕후(德厚), 본관은 진의(全義)이다. 정종(定宗)의 일곱째 딸인 인천공주(仁川公主)와 혼인했다. 감호관(監護官)과 용인현감을 거쳐 1406년 담양부사로 부임하였는데 치적과 선정을 많이 쌓고 청렴하여 백성들의 신임을 얻었다고 한다. 1426년 인천옹주가 세상을 떠나자 담양 용두산(龍頭山)으로 들어가 학문을 닦으며 지냈다. 매년 정종의 제삿날에 용두산에 올라 북향하고 곡읍하니, 고을 사람들이 이 산을 곡왕치(哭王峙)라 하였다. 1668년(현종 9) 월산사에 배향되었다.

22 창오(蒼梧) : 순(舜) 임금이 남순(南巡)하던 도중에 죽은 곳이다.

23 오성(五性) :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의 다섯 가지 성(性)을 말한다.

천지인(天地人)이 공평하구나.

天地人公

〈양성재 행장 발문(養性齋行狀跋)〉

-고려태사 삼중대광 통합삼한익찬공신(高麗太師三重大匡統合三韓翊贊功臣)인 이도(李棹)가 전의(全義)에서 살았으므로 전의를 본적으로 하였다. -

공의 성은 이씨로 선계(先系)는 전의(全義)에서 나왔다. 꿈에 구성(奎星), 문장(文章)을 맡은 별(星)을 보고 임신하였으므로 소명이 규석(奎錫)이었다. 어려서부터 총명함이 뛰어났으며, 덕성이 순후(淳厚)하고 중립하여 치우치지 않았으므로 호정(浩亭) -고려 정사공신 하륜(靖社功臣河崙)의 호-이 보고 기이하게 여겨 관식(寬植)이라 명명(命名)하였다. 양성(養性)은 그의 호로, 종숙부(從叔父) 양정공(良靖公)<sup>24</sup> -청백리(清白吏) 이화(李樺)-이 지어준 것이다.

일찍이 여러 아이와 함께 복숭아를 먹고 망치로 씨의 껍질을 깨뜨려서 그 인(仁, 과실(果實) 씨의 흰 알맹이)을 보고 “중심(中心)이 인(仁)이 되니, 마음 바깥의 껍데기[殼, 복숭아 씨앗의 딱딱한 부분]는 의(義)이다. 껍데기의 바깥은 살[膚, 복숭아의 과육]로 예(禮)이고, 과육의 바깥은 껍질[皮]로 지(智)이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으로 보면 사단(四端)중 인의 체[仁之體]가 가장 깊고 절실한 것을 알고서 이와 같이 말한 것이지, 인(仁)은 내면에 속하고 의(義)는 외면에 속한다는 설[仁內義外之說]<sup>25</sup>이 아니다. 이는 인의 예지(仁義禮智)가 동일한 성품이지만 이름만 다르다는 것을 징험하여 체득한 것이다.

24 양정공(良靖公) : 이화(李樺, ? ~1459)의 시호이다. 이화의 본관은 전의(全義)이고, 대호군·충청도수군처치사(水軍處置使)·검판중추원사(檢判中樞院事) 등을 역임하였다.

25 인(仁)은 … 설(仁內義外之說) : 고자는 일찍이 묵자(墨子)의 가르침을 받고 맹자에게 와서 수업하기도 하였는데, 맹자의 성선설(性善說)에 대해 성무선악설(性無善惡說)을 주장하여 토론을 벌였으며, 인(仁)은 내면에 속하고 의(義)는 외면에 속한다는 이른바 인내의외설(仁內義外說)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孟子 告子上》)

정자(程子)는 곡식의 종자으로써 인을 비유<sup>26</sup>하였으니, 이와는 또한 다르다. 다른 의예지(義禮智)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근사록(近思錄)》에서 말하기를 “인은 자애하고 온화하다는 의미가 있고, 의는 참열(慘烈)하고 강단(剛斷)하다는 의미 있으며, 예는 선저(宣著, 드러냄)하고 발휘(發揮)한다는 의미가 있고, 지는 수렴(收斂)하여 흔적이 없다는 의미가 있다. -본래 사덕(四德)<sup>27</sup>이 있으므로 이 네 가지의 질(質)이 있다. 그 질로 인하여 그 성품을 알 수 있다. - 이로서 보건대, 사덕을 비유한 것이 형체와 소리가 없는 것을 징험하여 발(發)한 것이니, 천년을 가도 나올 수 없는 격언이다.

나이 8세에 이르러 삼종조(三從祖) 효정공(孝靖公)<sup>28</sup>에게 소학을 배웠다. 효정공 -휘는 정간(貞幹)- 은 뛰어난게 남다른 효행이 있었다. 태조대 왕이 ‘가정충효 세수인경(家傳忠孝, 世守仁敬)’ 8글자를 손수 써서 내려주시니, 이 8자는 천지가 다하고 만고가 다하도록 위와 아래로 통하는 도인데, 이 8자로서 수업하였다. 또 이어서 수신(修身)의 대법으로 삼아서 본원을 함양하고 덕기를 성취하였다. 그 뒤 숙부 양정공(良靖公)으로부터 대학을 청강하여 성의장에 공진하게 뜻을 다하니, 신독의 공부가 치밀해졌다. 정자가 말하기를 “천덕과 왕도는 단지 신독에 달려 있다.”라고 하였으니, 신독하되 궁리하며, 궁리하되 근독하니, 뜻이 정밀해지고 인이 성숙됨을

- 26 정자(程子)가 ... 비유 : 어떤 사람이 “인과 마음이 어떻게 다릅니까?” 하고 물으니, 이천(伊川) 정이(程頤)가 답하기를 “마음은 비유하자면 곡식의 종자[穀種]와 같다. 생겨나는 성(性)은 곧 인(仁)이고, 양기(陽氣)가 발하는 곳은 곧 정(情)이다.”[伊川曰, 心譬如穀種, 生之性便是仁, 陽氣發處乃情也。]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近思錄集註 卷1》)
- 27 사덕(四德) : 사람의 본성(本性)에 간직되어 있는 네 가지 덕으로, 인(仁)·의(義)·예(禮)·지(智)이다. 사람은 원래 천도(天道)의 원(元)·형(亨)·이(利)·정(貞)을 받아서 이 네 가지 본성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周易 乾卦 卦辭》
- 28 효정공(孝靖公) : 이정간(李貞幹, 1360 ~ 1439)의 시호이다. 자는 고부(固夫)이고, 본관은 전의(全義)이다. 아버지는 원종공신 이구직(李丘直)이다. 아버지의 음덕으로 벼슬에 올라, 사헌부집의를 거쳐 1405년(태종 5) 강화부사가 되었다. 그뒤 내외의 관직을 역임하고 세종 때 강원도관찰사에 이르러 사임하고, 향리에 은거하면서 노모봉양에 정성을 다하였다.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또한 독실하게 행하고 실로 형체대로 실천하는 군자이다.

《역》에 이르기를 “행동을 살펴보아 길흉을 상고하되, 주선한 것이 완벽하면 크게 길하리라. [視履考祥 其旋元吉]”<sup>29</sup>라고 하였는데, 공은 한가로이 거처할 때 엄숙하였고 사람을 접대할 때에 온화하였다. 당시 동료들이 높이 받들고 덕을 우러렀고, 위로는 태조가 불러 크게 쓰일 것을 기약함이 있었다. 정종이 등극한 2년 경진년에 인천군주와 결혼하였는데, 당시 나이 17세였다. 그 후부터 나라에는 충성하고, 집안에는 효도를 다하였다. 대궐을 출입함에 있어서는 잘못을 바로잡고 보좌함이 많았고, 추성(秋城, 담양)을 다스릴 때는 교화하여 백성을 새롭게 하였다. 이는 대개 공이 천리를 따라 실천한 것이 성학 속에서 나와 그 요령을 얻은 것이고, 태조대왕이 효정공에게 내려주신 8자 어서(御書)의 힘에 의지한 것이다. 고어(古語, 정이의 말입)에 이르기를 “제왕의 학문은 그 요체를 얻기에 힘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실로 그 요체를 얻은 것이다.

공자는 《효경(孝經)》에서 말씀하시기를, “선왕(先王)은 지극한 덕과 긴요한 도를 지니고서 천하 사람들의 마음을 따랐으므로 백성들이 화목하게 되어 상하에 원망하는 자가 없어졌다.”<sup>30</sup>[先王有至德要道, 以順天下, 民用和睦, 上下無怨.]”라고 하였고, 또 말씀하기를 “대저 효는 덕의 근본이고, 교화가 말미암은 바이다.”라고 하였으며, 또 말씀하기를 “대저 효는 하늘의 떳떳한 법칙이고, 땅의 도리이며, 사람이 본받아서 행하는 길이다.”<sup>31</sup>라고 하셨다. 《주역(周易)》의 <문언(文言)〉에서는 ‘건괘(乾卦)의 구이(九二)는 인을 말하고, 곤괘(坤卦)의 육이(六二)는 경(敬)을 말한다.’고 했다. 이것은 실로 사람이 사람이 되는 요체이고, 천하 만세에 태평을 열어주는 도이니, 어찌 다만 이씨의 가법에서만 진적으로 아름답겠는가?

나 영찬은 경전과 제자백가를 대략 섭렵하였는데, 공(公)의 행장을 읽고는 8 글자[八字]의 어서(御書)를 가슴에 새기고 산 지가 오래되었다. 공의

29 행동은 ... 길하리라 : 《주역》 이괘(履卦) 상구(上九)의 효사이다.

30 선왕은 ... 없어졌다 : 《효경(孝經)》 <개종명의장(開宗明義章)〉에 나온다.

31 대저 효는 ... 길이다 : 《효경(孝經)》 <삼재(三才)〉에 나온다.

후손 희채(熙采)가 나에게 한마디 말을 기록해주기를 청하였다. 나는 재주가 둔하고 기질이 질박하여, 저서(著書)에 능하지 못하고 문사(文辭)를 터득하지 못했는데, 다시 공의 행장을 살펴보니 세계(世系)와 벌열(閥閱)이 밝게 실려 있기 때문에 대략 그 대강을 엮어서 발문(跋文)으로 삼는다.

**養性齋行狀跋. 【高麗太師三重大匡統合三韓翊贊功臣, 棹居全義, 故因籍焉.】**

公姓李氏, 系出全義. 夢奎星而娠, 故小名奎錫. 幼而穎悟, 德性淳厚, 中立不倚, 故浩亭【麗朝靖社功臣河崙號】見而異之, 命名寬植. 養性乃其號, 從叔良靖公【清白吏樞】所授也. 嘗與羣兒啖桃, 引錘破殼, 而視其仁曰, “中心爲仁, 則心外殼義也, 殼外膚禮也, 膚外皮智也.” 觀此則知四端中仁之體, 最深切如此之言, 非仁內義外之說也. 乃體驗仁義禮智, 同一性而名異者也. 程子以穀種譬仁, 則是亦非, 更無他義禮智也. 《近思錄》云, 仁有慈愛溫和底意思, 義有慘烈剛斷底意思, 禮有宣著發揮底意思, 智有收斂無痕跡底意思. 【本有四德, 故有此四質. 因其質而知其性善.】以此觀譬喻四德之, 無形聲之驗而發, 千載未發之格言也. 年及八歲, 受小學於三從祖孝靖公. 孝靖公【諱貞幹】有卓異之孝行. 太祖大王賜以手書, ‘家傳忠孝, 世守仁敬’八字, 此八字, 窮天地, 亘萬古, 徹上徹下之大道, 以此八字受業. 又從以修身大法, 涵養本源, 德器成就. 厥後從叔良靖公, 聽講大學, 眷眷致意於誠意章, 則慎獨之功密矣. 程子曰, “天德王道, 只在謹獨”, 謹獨而窮理, 窮理而謹獨, 義精仁熟, 豈可量乎? 且篤行實踐形之君子也. 《易》曰, ‘視履考祥, 其旋元吉.’ 公之燕居也嚴, 待人也溫, 時有儕輩之推宗而仰德, 上有太祖之召, 期以大用. 至於定宗臨御二年庚辰, 尚仁川郡主, 時年十七矣. 自後於國盡忠, 於家極孝. 出入禁闈, 多有補闕拾遺, 使爲秋城, 風化新民. 蓋公之循蹈天理, 自聖學中出來而得其要, 賴太祖大王, 賜孝靖公八字御書之力也. 古語云, ‘帝王之學, 務得其要’, 此實得其要也. 孔子於《孝經》曰, “先王有至德要道, 以順天下, 民用和穆, 上下無惡.” 又曰, “夫孝, 德之本, 教之所由生.” 又曰, “夫孝, 天之經, 地之義, 民之行.” 於《易》〈文言〉, ‘乾九二言仁, 坤六二言敬.’ 此實人之所以爲人之要, 天下萬世開太平之道, 豈獨

全美於李氏之家法也哉? 永槩略涉經傳諸子, 奉讀公之行狀, 得見八字御書, 眷眷服膺者, 久矣. 公之後孫熙采, 請余一言記之. 余才鈍質朴, 著書不能, 文辭不得, 更審公之行狀, 則世系與闕閱昭載, 故略以梗槩, 構以爲跋.

1922년 5월 11일. 을사. 망종(芒種)이다. 잠깐 비가 오다가 다시 별이 났다. 《논어집주(論語集註)》〈서설(序說)〉을 보고는 ‘운왈(云曰)’의 뜻을 깨달았다. ‘왈(曰)’자는 ‘곧바로 말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고 ‘운(云)’자는 ‘여차(如此)’와 같다.

五月. 十一日. 乙巳. 芒種. 乍雨復陽. 看《論語集註》〈序說〉, 得云曰之義, 曰者, 謂是恁地直言, 云者, 猶是如此.

1922년 5월 20일. 갑인. 맑음. 최근에 한밭이 하늘까지 닿아 가뭄이 매우 심했다. 근심을 없애기 위해 술을 조금 마셨는데 문득 취한 가운데, 지난봄에 소아(小兒)에게〈권학가(勸學歌)〉한 편을 지어서 준 것을 기억해냈는데, ‘먼저 구용을 배움에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나와서는 공손하네. 행할 것과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한 마리의 용과 돼지 이네[先學九容, 入孝出恭, 行與不行, 一龍豬]’에서 한 구절을 잘못하였기에 다시 고쳐 ‘한 마리의 돼지와 한 마리의 용이라네. [一豬一龍]’로 기록한다.

五月. 二十日. 甲寅. 陽. 近以旱字當天, 日旱滋甚, 以消憂飲少輒醉中, 記前春贈小兒勸學歌一成, ‘先學九容, 入孝出恭, 行與不行, 一龍豬一’句誤, 故更記‘一豬一龍’.

1922년 5월 21일. 을묘. 잠깐 비. 향촌(香村)이 보여주었던 ‘태극이 동정(動靜)을 머금고 있다고 하면 옳지만 동정이 있다고 하면 옳지 않

다.’는 말씀에 홀연히 느끼는 것이 있었다. 대저 태극은 은미하기로는 이보다 은미한 것이 없고, 크기로는 이보다 큰 것이 없지만,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어서 들을 수도 없으니, 생(生)으로써 말 하는 것이 가(可)하겠는가? 인(仁)으로써 말 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도(道)로써 말 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덕(德)으로써 말 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경(敬)으로써 말 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성(誠)으로써 말 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이(理)로써 말 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선(善)으로써 말 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정(精)으로써 말 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진(眞)으로써 말 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그러나 이 이치는 여전히 존재하니, 천지인물(天地人物)이 생겨나기 전에 이것이 있었고, 천지인물이 이미 생겨난 후에도 이것이 있어서, 만 가지 변화의 근원이 된다. 기가 이르면 동정(動靜)을 하게 되고, 동정을 하면 음양(陰陽)이 있게 되고, 음양이 있으면 상(象)이 있게 되고, 상이 있으면 상 가운데 소이연지고(所以然之故)가 있을 것이다.

향촌이 세상에 있지 않으니 어디에 그것을 물을까? 주자(朱子)는 “태극은 이(理)이다.”라고 했으니 참으로 옳다. 이(理)는 무형(無形)이지만, 기(氣)는 자취가 있고, 자취가 있으면 상이 있다. 지극히 드러난 것은 상이고, 지극히 은미한 것은 이이다. 그렇다면 이기(理氣)는 본래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다. 이는 은미하고 기는 드러나니, 드러난 것으로 인하여 은미한 것을 안다. 은미한 것이 앞이고 드러나는 것은 뒤이기 때문에 기가 이르면 동정을 하게 된다. 기도 밖으로부터 이른 것이 아니다. 이가 어찌 지극히 높고 짝이 없지 않겠는가? 이(理)이면 태극(太極)이니, 태극이면 무극(無極)이고, 무극이면 태극이다. 지극함의 본원이요, 만 가지 변화의 추뉴(樞紐)이다.

二十一日。乙卯。乍雨。忽感香村所示，太極含動靜，則可，有動靜，則不可之教。大抵太極微莫微大莫大，無聲臭之可聞，生以言之，可乎？仁以言之，

可乎? 道以言之, 可乎? 德以言之, 可乎? 敬以言之, 可乎? 誠以言之, 可乎? 理以言之, 可乎? 善以言之, 可乎? 精以言之, 可乎? 眞以言之, 可乎? 此理尚存, 天地人物未生之前, 有之, 天地人物已生後, 有之, 爲萬化之原. 氣至則動靜, 動靜則陰陽, 陰陽則有象, 有象則象中所以然之故歟. 香村不在世, 則何處問之哉. 子朱子曰“太極理也.” 信哉. 理無形而氣有迹, 有迹則有象. 至著者象也, 至微者理也. 然則理氣本一而二, 二而一者也. 理微氣著, 因著而知微. 微者先而著者後, 故氣至而動靜. 非氣自外而至者也, 理何不至尊無對乎? 理則太極也, 太極則無極, 無極則太極. 極本窮原, 爲萬化之樞紐也.

1922년 5월 22일. 병진. 맑음. 《주역(周易)》〈복괘(復卦)〉를 보았는데, 단전(象傳)에서 ‘복에서 천지의 마음을 볼 수 있다. [復其見天地之心乎]’의 주석에서

二十二日. 丙辰. 陽. 看《周易》〈復卦〉, 象傳, ‘復其見天地之心乎’. 註邵子之詩曰,

소자(邵子, 소옹)는 시에서 말하기를,	
동짓날 자시의 반에는,	冬至子之半
천심은 움직이지 않으나,	天心無改移
일양이 처음 움직이는 곳이며,	一陽初動處
만물이 아직 생겨나지 않은 때로다.	萬物未生時

현주의 맛은 바야흐로 담박하고,	玄酒味方淡
대음의 소리는 바로 드문 것.	大音聲正希
만약 이 말 믿지 못하겠거든,	此言如不信
다시 복희씨에게 물어보소.	更請問包羲

라고 하였고, 주자는 시<sup>32</sup>에서 말하기를,  
朱子詩曰,

홀연히 한밤중의 한 소리 우레에,  
만호 천문이 차례로 열리네.  
무 속에 유가 있는 곳을 알면,  
그대가 복희씨 만나고 온 것을 인정하겠노라.

忽然半夜一聲雷  
萬戶千門次第開  
識得無中含有處  
許君親見伏羲來

라고 하였다.

〈금소정 원운시에 차운하다〉 次琴嘯亭原韻

대밭 속의 정자가 물과 산에 통해 있으니,  
주인翁의 신세 백 년 동안 한가롭네.  
때로 읊조리는 곳에 3자짜리 가야금 두고,  
생계를 헤아리지 않고 몇 칸 집을 지었네.  
물외에 대한 그윽한 정은 별업[별세]으로 돌리고,  
숲속에서 종일토록 사립문을 잠가두네.  
망천(綱川)<sup>33</sup>의 밝은 달이 이제 서로 비추니,  
옛 가락과 솔바람이 번갈아가며 이어지네.

篁裏亭通水與山  
主翁身勢百年閒  
有時嘯處琴三尺  
不計生涯屋數間  
物外幽情還別業  
林間終日掩柴關  
綱川明月今相照  
古調松風繼復彈

1922년 윤 5월 27일. 경인. 초복날이다. 가뭄이 매우 심했다. 근심을 감추기가 어렵기에 산수에 대해 즐거움을 억제하고 나의 토지 천수답(天授畝) 보 위에 이르러 물에서 목욕하고 바위에서 바람을 쐬고 있는데, 어디선가 우레소리도 아니고 빗소리도 아닌 소리가 문득 들리기 시작하니 곧 벌떼였다. 하늘에서 내려와 머리 위에 떠 있다가 갑

32 주자의 시: 이 시는 주희의 〈원기중이 계몽을 논한 것에 답하여[答袁機仲論啓蒙]〉이다.

33 망천(綱川): 당나라 시인 왕유(王維)가 별장을 세운 곳이다.

자기 옆에 있는 소나무 위로 모여들었다. 적삼으로 그것을 덮고 아들을 불러서 그것을 받아서 뜰 위에다 잘 봉하게 하였다. 이어서 탄식하길, “사사로운 마음에도 응하는 것이 이와 같은데, 공공의 마음에 응하는 것은 과연 어떠하겠는가?”라고 하고, 곧바로 글을 쓰길, “하늘이 벌떼를 내려준 것은 한 바탕 비를 내려준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다. 다음날 9일에는 기쁜 비가 흠족하게 내려서 사람들과 함께 즐겼다.

閏五月. 廿七日. 庚寅. 卽初伏也. 日旱滋甚, 難堪隱憂, 以山水之樂寬抑, 而至於己土天授畚澆上, 浴乎水而風乎岩, 有聲非雷非雨, 而忽至, 審視之乃蜂群. 自天以降, 浮於頭上, 忽集在傍松樹. 以衫覆之, 招家兒, 護封于庭上. 因歎曰, “私心所應如此, 公心所應果何如?” 卽作書曰, “天授群蜂, 不一雨賜.” 翌九日喜雨洽注, 與人同樂.

1922년 8월 18일. 경술. 말복날이다. 닭고기와 술을 대략 준비해 가지고 가서 보청(譜廳)에 있는 사람들의 수고를 위로하였다. 여러 임원들이 종형수(從兄嫂)의 덕행을 극찬하고 보첩에 실었는데, “효와 열이 함께 지극하니 향당에서 칭찬하였다.”라고 썼다.

八月. 十八日. 庚戌. 卽末伏也. 略備鷄酒, 慰勞譜廳下員. 諸任員極贊從兄嫂德行, 因載譜牒曰, “孝烈并至, 鄉黨稱賞”.

1922년 8월 9일. 경신. 신촌(新村)<sup>34</sup>리의 족숙(族叔) 봉현(捧鉉)씨가 찾아왔기에 함께 치관(緇冠)을 만들었다. 이어서 간재(良齋)에게 집지(執摯)<sup>35</sup>한 편지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것을 받들고서 기록했다.

34 신촌(新村): 담양군 무면 반룡리 신촌 마을로, 현재 담양군 담양읍 반룡리 구터 마을에 해당된다.

35 집지(執摯): 숙수(束脩)의 예를 닦고 문인이 되는 일을 말한다.

八月. 初九日. 庚申. 新村族叔璠鉉氏來訪, 同製緇冠, 因言執摯於艮齋書, 摯而記之.

물욕이 성(性)을 해치는 것이지만, 그 작은 기질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성현은 이미 인욕을 막으라(遏慾)는 가르침을 두었습니다. 또 그 기를 검속(檢束)하라는 지결(指訣)이 있었으니, 방비가 지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선(不善)하게 되는 것 또한 혹 스스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반드시 모두가 기가 시켜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자가 남현에게 답한 편지〉와 《어류》의 ‘심성문개경록(心性門蓋卿錄)’에 모두 이 뜻이 있으니, 마땅히 세밀히 고찰할 일이다. - 그렇기 때문에 또 검심(檢心)의 법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방비하지 못하는 곳을 방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저 진실로 검심하고 검기(檢氣)하여 인욕을 막으면 천리(天理)가 어찌 존재하지 않을 것이 있을 것인가요? 이에 학문을 하는 능사가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심공부는 또 ‘경(敬)자’에 있으니 자중(子重)은 힘쓰실 일입니다.

物慾是害性底, 而其苗則生於氣質, 故聖賢既有遏慾之教, 而又有檢束其氣之訣, 可謂防備之至矣. 然心之爲不善, 亦或自思而爲之, 非必皆氣之所使. 【朱子答南軒書, 語類心性門蓋卿錄, 皆有此意, 宜細考之.】故又立檢心之法. 此則可謂防備到人所防備不到處矣. 夫苟檢心檢氣, 以遏慾焉, 則天理安有不存也者? 於是學問之能事畢矣. 然檢心功夫, 又有敬字在, 子重其勉乎哉!

김자중(金子重)군이 계화도를 왕래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하루는 지(贄)를 품고 명(明)을 구하고자 하였다. 돌아보건대 내가 병들고 혼모(昏耗)하여 그 뜻에 부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삼가 들은 바를 글로 써서 교수(交修)의 바탕으로 삼으라고 한다. 무오(1918)년 맹춘(孟春, 음력 정월)에 구산(白山)<sup>36</sup>.

36 구산(白山): 전우(田愚, 1841~1922)를 말한다.

金君子重, 累年往來嶠中. 一日懷贄求明. 顧此病昏, 無以酬其意, 故謹書所聞, 用作交修之資云. 戊午孟春, 白山.

물욕은 기질의 변화에서 생겨나니, 이미 기질을 얻었음에 다시 무슨 물욕(物欲)을 말하겠는가? - 여곤(呂坤)<sup>37</sup>의 말 -  
그기를 검속하여 그기의 본연을 회복해야 한다.

- 율곡선생의 말 -

마음이 불선(不善)해지는 것은 반드시 모두 기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 《주자대전》〈답남헌서(答南軒書)〉-

본심은 원래 선하지 않음이 없는데, 누가 너로 하여금 지금 도리어 불선하게 했느냐? - 《주자어류》〈심성문·개경록〉-

이(理)는 곧 이 마음의 이치니, 이것을 검속(檢束)하여 어지러운 병폐가 없게 한다면, 곧 이 이(理)가 보존된다.

- 《주자어류》〈혹문·우록〉-

경(敬)은 허령지각(虛靈知覺)을 검속하여 머무르게 한다.

- 황면재(黃勉齋, 황간)의 말 -

物欲生於氣質變化, 得氣質了, 更說甚物欲? 【呂氏坤語】

檢束其氣, 復其氣之本然. 【栗谷先生語】

心之爲不善, 未必皆氣使之. 【《大全》〈答南軒書〉】

本心元無不善, 誰教你而今却不善乎? 【《語類》〈心性門·蓋卿錄〉】

理即是此心之理, 檢束此使無紛擾之病, 卽此理存也. 【《語類》〈或問·寓錄〉】

敬是束得箇虛靈知覺住. 【黃勉齋語】

37 여곤: 여곤(呂坤, 1536~1618)은 명나라때의 인물로, 자는 숙간(叔簡), 호는 신오(新吾), 하남성(河南省) 영릉(甯陵) 사람이다. 주자학과 양명학, 그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인 수양에만 노력했다. 기일원(氣一元)의 철학을 가지고 동림학(東林學)과 가까이했다.



1927년 11월 30일

무도(舞蹈)시 -매월당집(梅月堂集)

동지음(冬至吟)

천(天)을 논제로 동연과 글짓기

사자언지(四子言志)에 답함

인론(人論)

도기(道器)의 구분

제석(除夕)시



1927년 11월 30일. 《매월당집》에 있는 시를 적다.

丁卯. 十一月. 晦日. 《梅月堂集》文詩.

〈무도〉<sup>1</sup> (舞蹈)

이미 정밀하게 <sup>2</sup> 의리를 궁구하며,	(既精)究義理
내 덕성을 함양하고,	涵養吾德性
오래오래 스스로 젖어들며,	久久自浹洽
동정(動靜)에 항상 경(敬)을 위주로 하네.	動靜常主敬
환연(渙然) <sup>3</sup> 히 얼음이 별에 풀어지듯,	渙然氷釋陽
이연(怡然) <sup>4</sup> 히 이치가 순정(順正)해지고,	怡然理順正
흔연히 생의(生意)가 있어서,	欣然有生意
온몸이 내 명령을 따르리라.	百體從吾令
이 같은 일을 어찌 그만두겠는가?	若此惡可已
자연히 노래와 시가 되고,	自然形歌詠
자기도 모르게 춤추고 발을 구르며,	不知舞且蹈
대화(大化)의 성인과 함께 돌아가리.	同歸大化聖

1927년 11월 30일. 신묘 -중광단알-. 이 날은 동지(冬至)이다. 날씨가 흐리고 서풍이 크게 불었으며 밤에 눈이 내렸다. 〈동지〉시를 읊었다.

丁卯. 十一月. 三十日. 辛卯【重光單闕】. 是日即冬至也. 日氣陰陰, 西風大吹, 夜雪. 冬至吟.

1 《매월당시집(梅月堂詩集)》 권13 〈무도(舞蹈)〉에 수록되어 있다.

2 《매월당시집》의 원문에는 들어있으나, 김영찬의 일기에는 글자가 빠져 있어 추가하였다.

3 환연(渙然): 얼음 같은 것이 풀리는 모양을 말한다.

4 이연(怡然): 즐겁고 기쁜 모양을 말한다.

일양(一陽) <sup>5</sup> 이 처음 움직이는 해의 벽두,	一陽初動歲之頭
그것의 유래는 박이 떨어지는 때부터지.	其漸由來剝落秋
집집마다 팔죽 끓여먹으니 좋은 계절이고,	豆粥家家時節好
곳곳이 폐관하니 나그네 수심이로다.	閉關處處旅人愁
재계하고 의관 갖춰 엄숙히 제사 받들며,	齊明盛服嚴承祭
목욕하고 몸 가린 후 고요히 그윽한 곳 마주하네.	沐浴掩身靜對幽
기화(氣化) 유행(流行)이 이로부터 시작되니,	氣化流行從此始
춘풍(春風)이 머지않아 신주(神州) <sup>6</sup> 에 당도하리라.	春風不遠到神州

석진(奭鎭)이 맹자(孟子)가 말한 ‘성선(性善)’이라는 말에 대하여 물었다. (내가) 답하여 말하길, “《집주(集註)》에서 이미 말하기를, ‘성(性)이란 사람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아 생겨나는 이(理)로서, 혼연(渾然)하고 지극히 선하여 일찍이 악(惡)이 있지 않았다.’고 했고, 정자(程子)는 말하기를, ‘성은 곧 이[性卽理]이다.’ 고 했으니, 대개 성은 본래 성탕(成湯)<sup>7</sup>의, ‘황상제(皇上帝)가 아랫사람들에게 충(衷)을 내려주시어, 항성(恒性)이 있게 되었다.’<sup>8</sup>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그 후 공자(孔子)가 《역(易)》〈문언(文言)〉전에서 말하기를, ‘일음일양(一陰一陽)을 도(道)라 하고, 그것을 잇는 것이 선(善)이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성(性)

5 일양(一陽) : 음력 10월에 음(陰)이 다하고 11월 동지(冬至)에 생긴다는 일양(一陽)을 말한다.

6 신주(神州) : 도성을 가리킨다. 중국 전국시대 제(齊)나라 추연(鄒衍)이 중원(中原) 지방을 ‘신주적현(神州赤縣)’이라고 일컫는 데에서 유래하였다.

7 성탕(成湯) : 중국 은(殷)나라의 탕왕(湯王). 신하의 신분으로 임금이었던 하(夏)나라의 걸왕(桀王)을 정벌하고 나라를 세웠다. 《서경(書經)》〈중궤지고(仲虺之誥)〉에 “성탕이 걸왕을 남소에 유폐시키고는 마음속으로 부끄럽게 느끼면서 말하기를 ‘나는 후세에 나를 구실로 삼아서 신하가 제멋대로 임금을 정벌할까 두렵다.’라고 했다.”는 내용이 있다.

8 황상제가 ... 되었다 : 《서경》〈탕고(湯誥)〉에 “황상제가 아랫사람들에게 충(衷)을 내려주어, 항성(恒性)이 있게 되었다. [惟皇上帝, 降衷于下民, 若有恒性.]”를 가리킨다.

이다.’고 했고,《논어[魯論]》에서 또 말하기를, ‘성은 서로 가깝지만 습관에 의해 항상 멀어진다.’<sup>9</sup>고 했으며, 한퇴지(韓退之)는 말하기를, ‘성에는 3품이 있으니, 순자(荀子)<sup>10</sup>와 양웅(楊雄)<sup>11</sup>이 혹은 악한 것이라고 하고 혹은 선악이 섞인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횡거선생(橫渠先生)은 ‘본연과 기질의 구분이 있다.’고 했다. 이것과 저것을 절충해보면, 맹자가 ‘성선’이라고 말한 것은 《주역》〈문언〉의 ‘그것을 잇는 것이 선이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성이다’에서 근본하였고, 그 본연인 것을 가리킨 것이니, 그것이 크게 성문(聖門)에 공이 있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爽鎮問，孟子道性善之言。答曰，“《集註》既曰，‘性者，人所稟於天，以生之理也，渾然至善，未嘗有惡。’程子曰，‘性即理也。’蓋性本出於成湯，惟皇上帝降衷於下民，若有恆性之言，而其後孔子《易》〈文言〉曰，‘一陰一陽之謂道，繼之者善，成之者性。’《魯論》又云，‘性相近也，習常遠。’退之曰，‘性有三品，荀與楊也，或云惡或云善惡混。’橫渠先生，‘有本然氣質之分’，以此以彼折衷焉，則孟子‘性善’之言，蓋本於《易》〈文言〉，‘繼之者善，成之者性’，而指其本然者也，其大有功於聖門也，信矣。

- 
- 9 성(性)은 ... 멀어진다: 원문 ‘性相近也, 習常遠’은 《논어(論語)》〈양화(陽貨)〉에 나오는 ‘性相近也, 習相遠也.’를 가리키는 것으로, ‘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관으로 인하여 서로 멀어진다.’라는 뜻이다.
- 10 순자(荀子): 중국 춘추전국시대 조(趙)나라의 유학자 순황(荀況)이다. 그의 사상서도 《순자(荀子)》로 20권인데, 예치주의(禮治主義)를 강조하고 성악설(性惡說)을 담고 있어 유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후에 한비자(韓非子) 등이 계승하여 법가(法家) 사상을 낳았다.
- 11 양웅(楊雄): 양웅은 한(漢)나라 성도(成都) 사람으로 자(字)는 자운(子雲). 성제(成帝) 때에 경전(經典)의 장귀(章句)에 훈고(訓詁)를 찍어 훈고학의 길을 열었다.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에 대하여 양웅은 사람의 본성은 선과 악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서에 《태현경(太玄經)》, 《양자법언(楊子法言)》, 《방언(方言)》, 《훈찬(訓纂)》 등이 있음. 뒤에 신(新)나라의 왕망(王莽) 밑에서 벼슬했다.

1927년 12월 1일. 임진 -현익집서-. 날씨 맑. 혹자가 도(道)를 가르치는 일에 대하여 물었다. (내가) 답하여 말하길, “선유(先儒)가 말씀하기를, ‘가르치는 것 또한 많은 방법이 있다’고 하셨다.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가르침은 등급을 뛰어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순서를 따라 점차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가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끌어주고 곁에서 격려하며 점차 연마하고 성취하도록 하고, 그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성(性)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十二月. 初一日. 壬辰【玄默執徐】. 晴. 或問教道. 答曰, “先儒曰, ‘教亦多術.’ 竊想, 教不可躐等, 卽循序漸進, 而因其固有而導之, 誘掖激勵, 漸摩成就, 擴充其仁義禮智之性也.”

1927년 12월 2일. 기사 -소양대항락-. 흐림. 몇몇의 동연(同研, 동창)과 강학한 뒤에 각자 글을 짓기로 했다. 천(天)을 논제로 해서 선성(先聖)들이 천에 대하여 한 말들을 늘어놓았다.

문왕은 말하기를, “건(乾)은 원(元)하고 형(亨)하며 이(利)하고 정(貞)하다.”고 했다. 공자는 말하기를, “위대하도다, 건원(乾元)이여! 만물이 여기에서 비로소 나오나니.”라고 했다. 자사는 말하기를, “천도(天道)는 한마디 말로 할 수 있으니, 성(誠)을 다할 따름이다.”고 했다. 정자(程子)는 “대저 하늘을 오로지 하여 말하면 도(道)이다. 나누어 말하면 주재의 입장에서는 제(帝)라 하고, 형체의 입장에서는 천(天), 성정(性情)의 입장에서는 건(乾)이라 말하며, 신묘하게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신(神)이라 하고, 공력을 들여 운용(功用)하는 입장에서는 귀신(鬼神)이라 한다. [夫天專言之, 則道也, 分而言之, 則以主宰謂之帝, 以形體謂之天, 以性情謂之乾, 妙用謂之神, 功用謂之鬼神.]”<sup>12</sup>고 하였

12 대저 ... 한다: 《주역》〈건괘 폐사(卦辭)〉의 정전(程傳)에 나온 말이다.

다. 주자는 ‘천이 곧 이[天卽理]’라고 하였고, 《시경》에서는 ‘높이 계신 저 하늘[於皇上帝]’이라고 했으며, 《중용》에서는 말장(末章)에서 또 이르기를 ‘상천의 일은 소리도 냄새도 없다. [上天之載, 無聲無臭]’라고 하였다.

한 동자(童子)가 갑자기 묻기를, “그렇다면 뇌정(雷霆)의 소리는 하늘의 소리가 아납니까?”라고 하기에, 내가 잘 답하지 못하고 문득 동중서(董仲舒)가 말한 “천을 잘 말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에게 징험할 수 있어야 한다. 천도(天道)는 형체가 없어 알기 어렵지만, 인사(人事)는 흔적이 있어 알기 쉽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생각했다.

성인에게서 징험해 보면 높다높고[巍巍蕩蕩] 심원하여 그치지 않아[於穆不已]<sup>13</sup> 무성무취(無聲無臭)를 본받을 만하다. 무성과 유성은 분명히 밝히기 어렵지만, 가까이 몸에서 취해 보면, 마음이 허령(虛靈)하여 평단(平坦)<sup>14</sup>에 물(物)과 접하지 않았을 때는 담연허정(湛然虛靜)하고 확연대공(廓然大公)하여 거의 대월상제(對越上帝)<sup>15</sup>의 상태에 가깝고, 또한 무성무취의 상태이지만 홀연히 일과 물을 접음하면 음성과 웃는 얼굴<sup>16</sup>이 없을 수 없게 된다. 이로써 미루어 궁구해 보면, 상천(上

- 
- 13 심원하여 그치지 않아[於穆不已] : 《시경》〈주송(周頌) 유천지명편(維天之命篇)에, “하늘의 명이여, 심원하여 그치지 않는다. [維天之命, 於穆不已.]”라고 하였다.
- 14 평단(平坦) : 새벽의 청명한 기운을 의미한 말로, 유가(儒家)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야기(夜氣)를 말한다. 야기는 밤사이엔 생겨나는 천지의 맑은 기운으로, 유가에서는 이를 흔히 사람의 양심에 비겨서 중하게 여기는데, 《맹자》〈고자 상(告子上)〉에 우산자목(牛山之木)의 비유로 자세히 나온다. 이 시에서 태양은 양심을, 바람과 구름은 번뇌를 상징한다.
- 15 대월상제(對越上帝) : 상제를 마주한 듯 경건한 자세를 말함. 주자의 〈경재잠(敬齋箴)〉에 “그 의관을 바르게 하고 그 시선을 존엄하게 하며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거처하고 상제를 마주한 듯 경건한 자세를 가져라. [正其衣冠, 尊其瞻視, 潛心以居, 對越上帝.]”라고 하였다.
- 16 음성 … 얼굴 : 《맹자》〈이루 상(離婁上)〉에 “공손함과 검소함을 어찌 음성이냐 웃는 얼굴로 꾸며서 할 수 있겠는가. [恭儉, 豈可以聲音笑貌爲哉.]”라고 하였다.

天)의 일은 소리가 없는 형이상(形而上)의 도(道)이고, 뇌정의 소리는 형이하(形而下)의 기(器)이다. 정자는 형체를 가지고 하늘이라 했으니, 형체가 있으면 기가 있고, 기가 있으면 소리가 있다. 뇌정의 소리는 음양의 기와 박진(薄震, 요동치는 소리)의 소리인 것이다. 소리가 없다는 것이 도리어 소리가 있음을 이로써 가히 증험할 수 있으니, 오묘하도다!

사람 또한 하늘이 낳은 물(物)로서, 대개의 사람이 말한 ‘모두 천기(天機)가 저절로 발동한 것’이니, 어찌 행하는 것으로 하늘에 증험해 볼 수 있는 것이 불가하겠는가? 하늘에는 원(元)의 도가 있어서 봄이 되니, 온화하며 자애로운 의사(意思)가 있는 것으로, 사람이 가지는 측은지심(惻隱之心)과 유사한 것이다. 또 하늘에는 형(亨)의 도가 있어 여름이 되니, 선저(宣著)하고 발휘(發揮)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사람에게 있는 공경지심(恭敬之心)과 유사하다. 또 이(利)의 도가 있어서 가을이 되니, 참열(慘烈)하고 강단(強斷)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사람에게 있는 수오지심(羞惡之心)과 유사하다. 정(貞)의 도가 있어 겨울이 되니, 수렴하고 흔적을 없애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사람에게 있는 시비지심(是非之心)과 유사하다. 그렇다면 하늘이 만물(萬物)과 만사(萬事)를 낼 때 모두 하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것이다. 크구나, 하늘이여! 누가 이를 주관하는가? 오호라, 태극이로다!

初二日. 癸巳【昭陽大荒落】. 陰. 與二三同研, 講學之餘, 各爲作文. 以天爲論題, 陳先聖言天之辭. 文王曰, “乾元亨利貞.” 孔子曰, “大哉, 乾元! 萬物資始.” 子思曰, “天道, 可以一言, 而盡誠而已.” 程子曰, “夫天專言之, 則道也, 分而言之, 則以主宰謂之帝, 以形體謂之天, 以性情謂之乾, 以妙用謂之神, 以功用謂之鬼神.” 朱子曰 ‘天卽理也’, 《詩》曰 ‘於皇上帝’, 《中庸》末章, 又曰 ‘上天之載, 無聲無臭’. 一童子, 猝然問曰 “然則雷霆之聲, 非天之聲歟?”, 余未能答, 而輒思董子云, “善言天者, 必徵於人, 天道無形而難知, 人事有迹而易知故也” 之言. 以聖人徵之, 巍巍蕩蕩, 於穆不已, 可

法無聲無臭. 無聲有聲, 難得分明, 近取諸身, 則心之虛靈平坦, 未與物接之時, 湛然虛靜, 廓然大公, 庶幾對越上帝. 亦無聲無臭, 忽然應事接物, 則不無聲音笑貌. 以此推究, 則上天之載, 無聲, 形而上之道也, 雷霆之聲, 形而下之器也. 程子以形體謂之天, 有形則有氣, 有氣則有聲, 雷霆之聲, 陰陽之氣, 薄震之聲也. 無聲還有聲, 於此可驗, 妙哉! 人亦天生之物也, 凡所云爲皆天機自動, 安不可以所爲驗得於天乎? 天有元之道爲春, 則有溫和慈愛底意思, 而人之惻隱之心似之. 有亨之道而爲夏, 則有宣著發揮意思, 而人之恭敬之心似之. 有利之道而爲秋, 則有慘烈強斷意思, 而人之羞惡之心似之. 有貞之道而爲冬, 則有收斂無痕跡意思, 而人之是非之心似之. 然則天生萬物萬事, 皆天之所使. 大哉, 天乎! 孰其尸之? 嗚呼, 太極!

1927년 12월 3일. 갑오 알봉돈장-. 맑고 바람. 어제 하늘에 대해 논의한 것이 미진한 뜻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한다.

《맹자》 3권 끝부분에서 “범씨가 말하기를 ‘하늘이 낳고 땅이 기르는 것 중에 오직 사람이 위대하다. -《예기》 제의(祭義)편에, ‘사람이 있으면 천지에 참가하여 삼재(三才)가 되지만, 사람이 없으면 곧 천지 또한 스스로 설 수 없다.’라고 하였다. - 사람이 위대한 까닭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初三日. 甲午【關逢敦詳】. 陽而風. 前日論天有未盡意, 故特記. 《孟子》三卷末, “范氏曰 天之所生, 地之所養, 惟人爲大. 【《記》祭義, ‘有人則可參天地而爲三才, 無人則天地亦不能以自立矣’】 人之所以爲大者, 以其有人倫也.”

1927년 12월 4일. 을미 -진몽협흡-. 흐림. 어떤 사람이 ‘사자언지(四子言志)’<sup>17</sup>에 대해 물어서 답하였다.

17 사자언지(四子言志) : 네 명(자로, 증점, 염유, 공서화)에게 각 자신의 뜻을 말하라고 한 《논어》〈선진〉 26장을 말한다.

대개 사자(四子, 자로·증점·염유·공서화)가 각각 그 뜻을 말했으나, 집주(集註)와 여러 학자들의 설이 조목조목 마다 논리를 전개하고 밝게 드러내었으니, 다시는 여운(餘蘊, 미진(未盡)함)이 없다. 그러나 말이 심오하여 천견(淺見)이나 박식(博識)도 쉽게 헤아릴 수 없어서 그 형체나 소리와 같이 징험하기에 이르기는 어려웠다.

간절히 생각해보니, 삼자(三子, 자로·염유·공서화)의 말은 아래로 인사(人事)를 배운다는 의미가 많고, 증점(曾點)의 말은 유독 위로 하늘의 이치를 터득하려고 했다는 의미가 많다. 그러나 이치가 있으면 일이 있고[有理則有事], 일이 있으면 이치가 있다[有事則有理]. 다만 표리(表裏)·정조(精粗)·본말(本末)·체용(體用)의 구별이 있을 뿐이다. 쇄소응대(灑掃應對)<sup>18</sup>에서 애경(愛敬)·효제(孝悌)·충신(忠信)에 이르기까지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하며, 형은 형다워야 하고, 동생은 동생다워야 하며,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남편은 남편답고, 아내는 아내다워야 한다. 늙은이는 편안하게 해 주고, 젊은이는 감싸 주며, 붕우에게는 미답게 해주어야 하는 등의 일 일체 모두에 이 이치가 깃들지 않은 것이 없다.

성문(聖門)의 강학(講學)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천덕(天德)과 왕도(王道)는 단지 근독(謹獨)에 있다.”고 하였다. 근독 공부에 어찌 귀천(貴賤)의 차이가 있겠는가? 다만 그것을 행함에 그 지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데, 범인(凡人)의 자질은 같지 않고 학력(學力)도 고르지 않다. 삼자(三子)의 말은 사위(事爲)의 말단에 대한 자질구레한 것만 말했으나, 증점(曾點)만은 천리(天理)의 유행( 유행(悠然)하였으니, 그 기상이 같지 않았다. 그래서 공자가 깊이 허여하였다.

18 쇄소응대(灑掃應對) : 땅바닥에 물을 뿌려 쓸고서 빈객을 접대하는 것으로, 유가(儒家)에서 교육하고 학습하는 기본 내용 중의 하나이다.

후세 군자들도 각기 소견으로서 찬미하였는데, 유독 주자는 말씀하기를, “바야흐로 봉황이 천길 날아오르는 기상이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그 일용의 일에 모두 자기를 버리고 남을 위하는 뜻이 없다. 천지만물과 더불어 상하가 함께 흘러서 각기 그 방소를 얻는다.”라고 하였다. 정자는 말하기를, “성인의 뜻과 같으니 곧 요순의 기상이다.”라고 했다. 대저 그 뜻의 보존된 것이 일찍이 조금이라도 그 지위를 벗어나지 않아서, 답답하게 장차 몸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 인욕이 깨끗이 없어지고 천리가 유행하여 천지를 위치지어 주고, 만물을 길러주는 기상을 누가 우리러 사모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일을 행하는 사이에 제재할 바를 알지 못하고 힘쓰기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면, 노장(老莊)에 멋대로 흘러갈까 두렵다. 학자는 마땅히 인사(人事)상에서 천리를 살피고 순서대로 점차 앞으로 나아가고 오래오래 익숙하게 한다면, 이 장의 묘미를 묵묵히 알 수 있을 것이다.

初四日. 乙未【旃蒙協洽】. 陰. 答或問‘四子言志’.

蓋四子各言其志, 集註與諸家說, 逐條發明, 更無餘蘊. 言之深奧, 以淺見博識, 未易窺測, 難以致形聲之驗矣. 切想, 三子下學人事底意味多, 點獨上達天理底意味多. 然有理則有事, 有事則有理. 但表裏、精粗、本末、體用之別, 自灑掃應對, 至於愛敬、孝悌、忠信, 父父子子, 兄兄弟弟, 君君臣臣, 夫夫婦婦, 老者安之, 少者懷之, 朋友信之. 事一切無非是理所寓也, 聖門講學, 不出此理. 程子曰, “天德, 王道, 只在謹獨.” 謹獨工夫, 安有貴賤之殊乎? 但行之不出其位矣, 凡人之資質不同, 學力不齊. 三子之言規規於事爲之末, 點之言悠然於天理之流行, 其氣像不侔矣. 故夫子深許之. 後之君子, 各以所見, 贊美之. 獨朱夫子曰, “方鳳凰翔于千仞底氣像”. 又曰, “其日用之事都無舍己爲人之意. 與天地萬物, 上下同流, 各得其所.” 程子以爲, 與聖人之志同, 便是堯舜氣像. 大抵其志之所存, 未嘗少出其位, 澹然若將終身, 人欲淨盡, 天理流行, 位天地, 育萬物之氣像, 孰不仰慕哉? 然不知所以裁之於事爲之

間, 不屑用力, 則恐橫流於老莊矣. 學者, 當於人事上, 察乎天理, 循序漸進, 久久成熟, 可以默契此章之妙矣.

1927년 12월 5일. 병신 -유조군탄-. 흐리고 바람이 봄. 바람 불어 추웠고 눈이 내림. 사람을 논했다.

사람이 천지에 참여하여 삼재(三才)가 되니, 그 인의(仁義)의 도이기 때 문이다. 공자는 말씀하기를, “천도(天道)는 음양이고, 지도(地道)는 강유이며, 인도(人道)는 인의이다.”라고 했다. 이것으로서 보면 삼재에 참여한 도리가 인의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인(仁)은 생생지리(生生之理)이다. 증자는 말하기를, “부모가 온전하게 낳아주셨다.”라고 하였는데, 신체와 머리털, 피부뿐 만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에 갖추고 있는 천리를 겸해서 말한 것이다. 심의 허령은 오성(五性)을 갖추고 있으니, 오성은 바로 이(理)이고, 이가 곧 태극이다. 태극은 곧 천지조화의 추뉴(樞紐)이고 근저(根柢)이다. 사람이 생겨나는 이치이자 천지 자연의 이치로서 상하가 유통하여 변화하는 것이다.

장사숙(張思叔)<sup>19</sup>은 말하기를 “천지는 대부모요, 부모는 소천지이다.”라고 하였으니, 어찌 공경하게 하늘을 섬기지 않고, 공경하게 부모를 섬기지 않으리오? 공경하게 부모를 섬기는 것이 공경하게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시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천리의 유통이니, 추모하는 정성이 유연히 절로 생길 것이다. 대개 일찍이 논해보건대,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사랑할 줄 알지 못하는 자가 없고, 어른이 되어서는 그 형을 공경할 줄 알지 못하는 자가 없으니, 이는 천기(天機)가 절로 움직이는 것으로, 양지(良知) 양능(良能)한 효제(孝悌)이다.

장남헌(張南軒)<sup>20</sup>의 <장천리명(長天理銘)>에 이르기를, “천리의 지극함

19 장사숙(張思叔): 북송(北宋) 사람으로 이름은 역(繹). 정이천(程伊川)의 제자이다.

20 장남헌(張南軒): 남송(南宋)의 성리학자인 장식(張栻, 1133~1180)으로, 자는

은 오직 인과 의이다. 인은 단지 효(孝)에 달려 있고, 의는 단지 제(悌)에 달려 있으니, 요순(堯舜)같이 인륜이 지극한 사람으로서도 그 말한 것은 ‘효제일 따름이다.’라고 했으니, 인의효제(仁義孝悌)가 바로 하늘과 인간이 서로 통하는 의리이다. 삼재(三才)<sup>21</sup>에 참여하는 것이 기약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품(人品)에는 상하(上下)가 있으니, 어떻게 된 것인가? 태극(太極)의 이(理)는 음양(陰陽)을 낳고, 음양의 기(氣)는 천 가지 만 가지로 변화하여 만물을 낳으니, 인품에 어찌 상하가 없겠는가?

성인(聖人)이 가벼운 것(輕)과 맑은 것(淸)이 위로 가서 하늘이 되고 무거운 것(重)과 흐린 것(濁)이 아래로 가서 땅이 되는 것을 보고, 도(道)와 기(器)의 나뉘름을 내게 되었으니, 도(道)는 곧 형이상자(形而上者)요, 기(器)는 곧 형이하자(形而下者)이다. 도는 그렇게 된 까닭(所以然之故)이며, 기는 음양(陰陽)의 기(氣)이다. 도가 없는 기(器)가 있지 않고, 기가 없는 도 또한 있지 않다. 물(物)마다 존재하지 않음이 없고, 때(時)마다 그렇지 않음이 없으니, 하늘에는 하늘의 도기(道器)가 있고, 땅에는 땅의 도기가 있다. 사람에게에는 사람의 도기가 있고, 물에는 물의 도기가 있다.

도는 양이니 강건하여 쉽이 없고 만고토록 쉬지 않는다. 기는 음이니 영허(盈虛)하고 소식(消息)함이 만년토록 항상 같다. 해와 달을 보면 해는 차 있고 달은 차있지 않다. 때문에 도(道)는 변함이 없고 기(器)는 변함이 있는 것이다. 도(道)는 이(理)이고 기(器)는 기(氣)이니, 나뉘

경부(敬夫)·흠부(欽夫) 또는 낙재(樂齋), 호는 남헌이다. 주희, 여조겸(呂祖謙)과 함께 ‘남송삼현(南宋三賢)’으로 불린다.

- 21 삼재(三才): 천(天)·지(地)·인(人)을 가리키는 말로, 《주역》〈설괘전(說卦傳)〉에 “하늘의 도(道)를 세움은 음(陰)과 양(陽)이요, 땅의 도를 세움은 유(柔)와 강(剛)이요, 사람의 도를 세움은 인(仁)과 의(義)이니, 삼재를 겸하여 두 번 하였기 때문에 역(易)이 여섯 번 그어서 괘(卦)가 이루어진다. [立天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 兼三才而兩之, 故易六畫而成卦.]”라고 보인다.

어져서 둘이 되고 합하여져서 하나가 되며,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다.

사람에게서 관찰해보면 심(心)은 기(器)이고 성(性)은 도이다. 인의(仁義)를 인도(人道)로 삼으면 예(禮)는 이 두 가지 것에 대한 절문(節文)이다. 지(智)는 이 한 가지 것과 이 두 가지 것을 아는 것이니, 천지의 삼재에 참여하는 것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 천지의 삼재에 참여하면 인도가 세워지게 된다.

初五日. 丙申【柔兆汭灘】. 陰而風. 風寒雪. 人論.

人參天地爲三才，以其仁義之道也。孔子曰，“天道陰陽，地道剛柔，人道仁義也”。以此觀之，參三之道，非仁義乎？然則仁是生生之理也。曾子曰，“父母，全而生之。”不但身體髮膚，兼以心中所具之天理也。心之虛靈，具五性，五性即理也，理即太極也，太極即天地造化樞紐根柢，而人之生理，天地自然之理，上下流通之化也。張思繹云，“天地大父母，父母小天地”豈不以敬事天，敬事父母？敬事父母，敬事天。自父母以至始祖，皆天理之流通，追慕之誠，油然而生矣。蓋嘗論之，孩提之童，無不知愛其親，及其長也，無不知敬其兄，是天機自動，良知良能之孝悌也。張南軒長天理銘曰，“天理之至，惟仁與義。仁只在孝，義只在悌，以堯舜人倫之至，其爲道孝悌而已。”則仁義孝悌，即天人相通之義。參於三才，不期然而自然。然人品有上下，何爲也？太極之理生陰陽，陰陽之氣，千變萬化而生萬物，則人品豈無上下乎？聖人觀輕清上爲天，重濁下爲地，做出道器之分。道即形而上者也，器即形而下者也，道則所以然之故也，器即陰陽之氣也。未有無道之器，亦未有無器之道也。無物不在，無時不然，在天有天之道器，在地有地之道器。在人有人之道器，在物有物之道器。道陽也，剛健不息，亘萬古不息，器陰也，盈虛消息，亘萬古如常。觀日月，日實也，月闕也，故道不變器有變。道是理，器是氣，分而爲二，合而爲一，一而二，二而一者也。觀於人，心是器也，性是道也。仁義爲人道，則禮是節文，斯二者。智是知斯一者斯二者，

參天地三才, 不亦宜乎? 參天地三才, 人道立矣.

1927년 12월 6일. 정유 -강이작약-. 맑음. 밤에 눈이 내렸다. 혹자가 “부자유친(父子有親)에서 ‘친’자의 뜻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내가 답하기를, “부모는 자애롭고 자식은 효도하여 각기 그 도리를 다 하면, 마음이 그와 더불어 하나가 될 것이다. 부모가 혹시 잘못이 있으면, 직간(直諫)하여 도(道)로 인도하면 기쁨에 이를 것이다. 자식이 혹시 허물이 있으면, 훈계하여 도로 향하게 하면 항상 기쁨 낮빛이 되게 한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 것을 ‘친(親)’이라 한다.”고 하였다.

“군신유의(君臣有義)의 의(義)자의 뜻은 무엇입니까?”라고 묻기에 답하여 말하기를, “임금은 의롭고 신하는 충성해서,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운 것이다. 임금이 신하를 수족(手足)처럼 보고, 신하는 임금을 복심(腹心)처럼 봐서,<sup>22</sup> 동인협공(同寅協恭)<sup>23</sup>하여 지극한 정치에 이르는 것, 이것이 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부부유별(夫婦有別)의 별(別)자의 뜻은 무엇입니까?”라고 묻기에 답하여 말하기를, “별(別)은 분별의 의미이다. 부부는 일체동지(一體同志)로 만약 분별이 없으면 남편이 혹시 정욕(情慾)에 끌려 그 군셈을 잃고, 아내가 혹시 친압에 끌려 그 순종함을 잃는다면 곧 몸을 상하게 하고 덕을 그르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분별을 두텁게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22 임금이 ... 된다 : 맹자가 일찍이 제 선왕(齊宣王)에게 고하기를 “군주가 신하 보기를 수족같이 하면 신하는 군주 보기를 복심같이 하고, 군주가 신하 보기를 견마같이 하면 신하는 군주 보기를 길 가는 사람 보듯 하고, 군주가 신하 보기를 토 개같이 하면 신하는 군주 보기를 원수같이 하는 것입니다. [君之視臣如手足, 則臣視君如腹心. 君之視臣如犬馬, 則臣視君如國人. 君之視臣如土芥, 則臣視君如寇讐.]”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맹자》〈이루 하(離婁下)〉)

23 동인협공(同寅協恭) : 임금과 신하가 삼가고 두려워함을 같이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협력한다는 말이다. (《서경》〈고요모(皋陶謨)〉)

묻기를, “장유유서(長幼有序)에서 서(序)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라고 하기에, 답하여 말하기를, “서(序)는 존비(尊卑)와 선후(先後)의 차례로서, 천서(天序)의 법전이다. 양지(良知) 애경지심(愛敬之心)을 미루어 어른을 섬기는 것이고, 선각(先覺) 자애지심(慈愛之心)을 미루어 어린이를 인도하는 것이다. 이른바 ‘우리 어른을 어른으로 섬겨서 남의 어른에게 미치며, 우리 어린이를 어린이로 사랑해서 남의 어린이에게 미치게 한다’면<sup>24</sup> 자연스럽게 차례가 있게 된다.”라고 하였다.

묻기를, “붕우유신(朋友有信)에서 신(信)자의 뜻은 무엇입니까?”라고 하기에, 답하기를, “신(信)은 실제로 붕우를 말하는 것으로써, 그 덕을 벗한다는 것이다. 책선보인(責善輔仁)<sup>25</sup>하고 절절시시(切切偲偲)<sup>26</sup>하여 심로(心路)가 이미 익숙해져서 서로 (마음)둔 곳을 아는 것이다. 서로 아래에 있어도 싫어하지 않으며, 작위(爵位)가 서로 같을 때에도 시기하지 않는다. 같은 도로 같이 도모하며[同道而同謀] 유언(流言)의 험뜯음

24 우리 ... 미친다면 : 《맹자》〈양혜왕 상(梁惠王上)〉에 “우리 어른을 어른으로 섬겨서 남의 어른에게 미치며, 우리 어린이를 어린이로 사랑해서 남의 어린이에게 미친다면 천하를 손바닥에 놓고 움직일 수 있다. 《시경》에 ‘처에게 모범이 되어서 형제에 이르고 집과 나라를 다스린다.’ 하였으니, 이 마음을 들어서 저기에 놓을 뿐임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를 미루면 죽히 사해를 보호할 수 있고 은혜를 미루지 못하면 처자식도 보호할 수 없는 것이다. 옛사람이 일반인보다 크게 뛰어난 까닭은 다른 것이 없으니, 그 하는 바를 잘 미루었을 뿐이다. [老吾老以及人之老, 幼吾幼以及人之幼, 天下可運於掌。詩云, 刑于寡妻, 至于兄弟, 以御于家邦。言舉斯心, 加諸彼而已。故推恩, 足以保四海, 不推恩, 無以保妻子。古之人所以大過人者, 無他焉, 善推其所爲而已矣。]”라고 하였다.

25 책선보인(責善輔仁) : 선한 행동을 권하고 어진 품성을 돕는다는 말로 친구 사이의 바른 도리를 말한다. 《맹자》〈이루 상(離婁上)〉에 “아비와 자식 사이에는 선을 권하지 않는다. [父子之間不責善] 하였는데, 전용하여 붕우 간의 의리로 쓰인다. 《논어》〈안연(顔淵)〉에 “군자는 글로 벗을 모으고, 벗으로 어짙을 돕는다. [君子, 以文會友, 以友輔仁。]” 하여, 역시 벗의 도리를 행하는 뜻으로 쓰였다.

26 절절시시(切切偲偲) : 간곡하게 충고하고 자상하게 권면하는 것으로, 친구 간에 책선(責善)하는 것을 말한다. 《논어》〈자로(子路)〉에 “붕우는 절절(切切)하고 시시(偲偲)하게 대해야 하고, 형제는 이이(怡怡)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공자(孔子)의 말이 나온다.

을 들어도 믿지 않는다. 이것을 신이라 할 만하다.”라고 하였다.

初六日. 丁酉【強圉作噩】. 陽. 夜雪. 或問, “父子有親, 親字之義, 可得聞歟?” 答曰, “父慈子孝, 各盡其道, 心與之爲一. 父或有過, 則諫而諭於道, 底於悅豫. 子或有過, 則戒之向於道, 常爲怡愉. 父子不相違, 乃所謂親也.” “君臣有義, 義字之義, 何也?” 答曰, “君義臣忠, 君君臣臣. 君視臣如手足, 臣視君如腹心, 同寅協恭, 以臻至治, 此有義也.” “夫婦有別, 別字之義, 何也?” 答曰, “別, 分別之義. 夫婦一體同志, 若不分別, 則夫或牽於情慾, 失其剛. 婦或牽於狎暱, 失其順, 則傷身敗德. 故不得不厚別也.” 問, “長幼有序, 序字之何也?” 答曰, “序, 是尊卑先後之序, 天序之典也. 推良知, 愛敬之心事長, 推先覺, 慈愛之心導幼. 所謂老吾老以及人之老, 幼吾幼以及人之幼, 自然有序.” 問, “朋友有信, 信字之義, 何也?” 答曰, “信, 是以實之謂朋友, 友其德也. 責善輔仁, 切切偲偲, 心路已熟, 相知所存, 而相下不厭, 并立而不忌, 同道而同謀, 聞流言之毀不信. 此可謂信也.”

1927년 12월 7일. 무술 -저옹엄무-. 겐. 어떤 사람이 “《논어》의 ‘팔도문(八道門)’과 《대학》의 ‘입덕문(入德門)’은 다른가?” 라고 물었다. “《대학》은 지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고, 《논어》는 행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初七日. 戊戌【著雍闞茂】. 晴. 或問, “《論語》‘八道門’, 與《大學》‘入德門’之別?” 答曰, “《大學》以知上言之, 《論語》以行上言之.”

1927년 12월 8일. 기해 -도유대연현-. 겐.

初八日. 己亥【屠維大淵獻】. 晴.

1927년 12월 9일. 경자 -상장곤돈-. 집으로 돌아왔다. 낮에는 따뜻하였으나 밤에 눈이 왔다. 어린 아이와 처마 끝에서 얼음 죽순이 거꾸로

몇 자나 자란 것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初九日. 庚子【上章困敦】. 還巢. 日溫而夜雪. 小兒相言, 簷端冰筍, 倒生數尺.

1927년 12월 10일. 신축 -중광적분약-. 맑. 밤에 눈이 내렸다.

初十日. 辛丑【重光赤奮若】. 晴. 夜雪.

1927년 12월 11일. 임인 -현익섭제-. 밤에 눈이 내렸다.

十一日. 壬寅【玄默攝提】. 夜雪.

1927년 12월 12일. 계묘 -소양단알-. 흐림.

十二日. 癸卯【昭陽單闕】. 陰.

1927년 12월 13일. 갑진 -알봉집서-. 흐림

十三日. 甲辰【闕逢執徐】. 陰.

1927년 12월 14일. 을사 -진몽대황락-. 맑음.

十四日. 乙巳【旃蒙大荒落】. 陽.

1927년 12월 15일. 병오 -유조돈장-. 맑음.

十五日. 丙午【柔兆敦牂】. 陽.

1927년 12월 16일. 정미 -강어협흡-. 흐림. 극히 춥고, 밤에 비움.

十六日. 丁未【強圉協洽】. 陰. 極寒夜雨.

1927년 12월 17일. 무신 -저옹군탄-. 흐림. 종일 비가 내림

十七日. 戊申【著雍涇灘】. 陰. 終日雨.

1927년 12월 18일. 기유 도유작약-. 껌. 성이 발현되어 정이 되고, 심이 발현되어 의가 된다는 것을 변론했다.

율곡선생이 심성정(心性情)론에 이르기를, “심이 발현하여 의(意)가 되고, 성이 발현하여 정이 된다. 선유들은 심성을 나누어서 두 가지 작용으로 삼지 않았는데, 후인들이 망령되게 말에 집착하여 정과 의를 두 가지로 여겼다.”라고 하였다. 이에 풀이하기를, “성이 발현되어 정이 될 때 심이 없지 않고, 심이 발현되어 의가 될 때 성이 없지 않다. 단지 심이 능히 성을 다하는 것이지 성이 마음을 검속하는 것이 아니다. 의가 능히 정을 운용하는 것이지, 정이 의를 운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을 주로 하여 말하면 성에 속하고, 의를 주로 하여 말하면 심에 속한다. 그 실상은 성은 심이 미발(未發)한 것이요, 정(情意)는 심이 이발(已發)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十八日. 己酉【屠維作噩】. 晴. 性發爲情, 心發爲意之辨. 栗谷先生心性論曰, “心發爲意, 性發爲情, 先儒非分心性爲二用, 後人妄以執言, 以情意爲二枝云爾.” 解之曰, “性發爲情, 非無心也, 心發爲意, 非無性也, 只是心能盡性, 性不能檢心, 意能運情, 情不能運意. 故主情言, 則屬乎性. 主意言, 則屬乎心. 其實則性是心之未發者也, 情意是心之已發者也.”

1927년 12월 19일. 경술 -상장엄무-. 흐림. 비가 오고 바람이 불. 한밤중에 지진이 났다.

十九日. 庚戌【上章闡茂】. 陰. 雨風, 夜半地震.

1927년 12월 20일. 신해 -중광대연헌-. 맑음. 도기(道器)의 구분.

二十日. 辛亥【重光大淵獻】. 陽. 道器之分.

형이상 : 형체로 위이니 형체가 있기 전에는 단지 이(理)만 있을 뿐이다.

형이하 : 형체로 아래에 이미 형체가 있는 뒤이니 기(器)의 명칭이 있다.

-어룩에 보인다-

形而上 : 形으로 상이니 未有形之前, 只有理而已.

形而下 : 形인 下에 既有形之後, 有器之名. 【見語錄】

1927년 12월 21일. 임자 -현익곤돈-. 맑음.

二十一日. 壬子【玄默困敦】. 陽.

1927년 12월 22일. 계축 -소양적분약-. 맑음.

二十二日. 癸丑【昭陽赤奮若】. 陽.

1927년 12월 23일. 갑인 -알봉섭제-. 맑음.

二十三日. 甲寅【闕逢攝提】. 陽.

1927년 12월 24일. 을묘 -전몽단알-. 맑음. 밤에 비가 음.

二十四日. 乙卯【旃蒙單闕】. 陽. 夜雨.

1927년 12월 25일. 병진 -유조집서-. 맑음.

二十五日. 丙辰【柔兆執徐】. 陽.

1927년 12월 26일. 정사 -강어대황락-. 맑음.

二十六日. 丁巳【強圉大荒落】. 陽.

1927년 12월 27일. 무오 -저옹돈장-. 맑음.

二十七日. 戊午【著雍敦牂】. 陽.

1927년 12월 28일. 기미 -도유협흡-.

二十八日. 己未【屠維協洽】.

1927년 12월 29일. 경신 -상장군탄-. 일가인 영철(永哲)·규수(圭洙)·용주(容柱)와 함께 짝을 지어 과세(過歲)를 하기 위해 관음사(觀音寺)<sup>27</sup>로 향했다. 단산(丹山)<sup>28</sup>에 겨우 도착했을 때 비에 막혀서 가지 못하고, 김택제(金宅濟) 치보(致甫)의 집에서 유숙하고 다음 날에야 절에 도착했다.

二十九日. 庚申【上章涖灘】. 與一家永哲圭洙容柱, 作伴過歲次, 向觀音寺. 纔到丹山, 滯雨留宿於金宅濟致甫宅, 翌日到寺.

1927년 12월 30일. 신유 -중광작악-. 맑은 후 흐림, 밤새도록 비가 내렸다. 제석(除夕)<sup>29</sup>일이다.

三十日. 辛酉【重光作噩】. 陽而陰, 終夜雨. 是日除夕也.

### 〈제석〉除夕

오늘은 제석인데 홀로 처연하구나,	於今除夕獨淒然
내일 아침이면 칠십 살에 가깝다네.	切近明朝七十年
송구영신을 사양할 수 없으나,	送舊迎新辭不得
덕업이 없는 것 부끄러워 잠 못 이루네.	愧無德業未成眠

27 관음사(觀音寺):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 성덕산에 있는 사찰로, 백제 분서왕 3년(300)에 성덕보살이 세웠다고 한다.

28 단산(丹山): 곡성군 화면 단산리로, 현재 곡성군 오산면 단사리에 해당된다.

29 제석(除夕): 1년의 마지막 날인 설날 그믐밤. 제야(除夜)라고도 한다.





1928년 1월 1일

곡(穀)에 대한 답

제봉시(霽峰詩)

야정시(野亭詩)

본전(本傳) -매월당집(梅月堂集)

고문진보(古文眞寶)를 얻고서 매월당집(梅月堂集)

성리군서(性理群書)를 얻다 2수 매월당집(梅月堂集)

의천문(擬天問) 등 16수 -매월당집(梅月堂集)

약제 처방법

의복(衣服) 등 5수 -매월당집(梅月堂集)

동오재운(東吾齋韻)

삼가 안분재 시에 차운하다[謹次安分齋韻]

식소구헌(式昭舊憲) 4자 써서 함경도향약소(咸鏡道鄉約所)에 내린 글 고종

포은선생백양쌍계루시[圃隱先生白羊雙溪樓韻] -정몽주

이석형(李石亨)의 시

동계선생 팔계정씨세계도(桐溪先生八溪鄭氏世係圖)

우성(偶成)

의성인양현이급만민(義聖人養賢以及萬民) -삼두집(三斗集)

둔재행장 -둔재정선생문집(遜齋鄭先生文集)

제벽란정(題碧瀾亭) -둔재정선생문집(遜齋鄭先生文集)

차주부자무이구곡운(次朱夫子武夷九曲韻) 등 16수 -둔재정선생문집(遜齋鄭先生文集)

무오사화의 여러 현인들을 친구하는 소[仲救戊午諸賢疏] -둔재정선생문집(遜齋鄭先生文集)

괴화을 줌다[捨槐花]

두보(杜甫)가 소혜(蘇溪)에게 준 시

소학제사(小學題辭) -소학집주

지송옥이 저술한 척독대방의 난진설에 변론한다[辨池松旭所著尺牘大方亂真之說]

또 이른바 유학가는 벗을 보내며를 변론한다[又辨所謂送友遊學]

명분설(名分說)

남전여씨향약(藍田呂氏鄉約)

서암기(棲岩記)

박재연 부친상 만사에 차운하다[次朴在演親喪挽]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약기(略記)

만이승학청고(輓李承鶴靑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짓다(代人作)

1928년 1월 1일. 임술 -현익업무-. 흐리고 비가 내린 후 갬.

戊辰 正月 初一日 壬戌【玄默闇茂】. 陰雨而晴.

1928년 1월 2일. 계해 -소양대연헌-. 갬.

初二日 癸亥【昭陽大淵獻】. 晴.

1928년 1월 3일. 갑자 -알봉곤돈-. 맑음. 집에 돌아왔다.

初三日 甲子【闕逢困敦】. 陽 還巢.

1928년 1월 4일. 을축. 흐리고 비. -전몽적분약-.  
 初四日 乙丑 陰雨【旃蒙赤奮若】.

1928년 1월 5일. 병인 -유조섭제-. 흐림.

初五日 丙寅【柔兆攝提】. 陰.

1928년 1월 6일. 정묘 -강어단알-. 흐림.

初六日 丁卯【強圉單闕】. 陰.

1928년 1월 7일. 무진 -저응집서-. 맑음. 혹자가 면재황씨(勉齋黃氏, 黃榦)가 주자의 행장을 찬술하면서 ‘사려가 싹트기 전에는 지각이 어둡지 않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물었다. 답하길, “이것은 성인은 힘쓰지 않아도 도에 맞고, 생각하지 않아도 터득하게 된다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날은 인일(人日)이다. 혹자가 ‘인도(人道)’에 대해서 묻기에 “인도는 인의(仁義)일 따름이다.”라고 답했다.

1 인일(人日): 음력 1월 7일의 별칭이다.

初七日. 戊辰【著雍執徐】. 陽. 或問, 勉齋黃氏, 撰朱子行狀曰, ‘思慮未萌, 知覺不昧’, 答曰, “此聖人不勉而中, 不思而得.” 是日人日也, 或問‘人道’, 答曰, “人道, 仁義而已矣.”

1928년 1월 8일. 기사 -도유대황락-. 맑음. 이날은 곡일이다. 혹자가 ‘곡(穀)’에 대해 묻기에 답하길, “곡이란 육부(六府) 중의 하나이다. 오곡 백곡 중에 기장이 최고이다. 옛날에 기(棄)를 농관(農官)으로 삼고 후직(后稷)이라고 불렀으며, 이어서 곡신(穀神)이 되었고, 사직(社稷)의 주가 되었다. 백성들이 하늘이라고 여긴 사(社)는 곧 토신(土神) 구룡(句龍)<sup>2</sup>을 말한다. 《창려집(昌黎集)》<sup>3</sup>에서 말하기를, ‘구룡과 기(棄)<sup>4</sup>가 공이 크고, 공맹(孔孟)은 덕이 크다’고 했다. 구룡은 토지신이고, 기는 곡신이다. 나라에 사직(社稷)<sup>5</sup>이 있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했다.

初八日. 己巳【屠維大荒落】. 暘. 是日穀日也, 或問‘穀’, 答曰, “穀者六府

- 2 구룡(句龍) : 토지신을 말한다. 공공씨(共工氏)의 아들 구룡이 수토(水土)를 평정하였는데, 후세에 그를 후토(后土)의 신(神)으로 제사 지냈으니, 곧 사직(社稷)에서 사(社)에 해당한다. (《춘추(春秋)》〈좌씨전(左氏傳)〉 소공(昭公) 29년)
- 3 창려집(昌黎集) : 당(唐) 문인 한유(韓愈)의 문집이다.
- 4 기(棄) : 곡신을 말한다. 기(棄)는 주(周)나라 시조인 후직(后稷)으로, 제곡(帝嚳)의 아들이다. 요(堯) 임금 때 농정(農政)을 담당하는 관리였다. 뒤에 곡식을 주관하는 신이 되었으니, 곧 사직(社稷)에서 직(稷)에 해당한다. (《춘추(春秋)》〈좌씨전(左氏傳)〉 소공(昭公) 29년)
- 5 사직(社稷) : 사(社)는 토지의 신 또는 토지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곳을 이르며, 직(稷)은 오곡의 신 또는 오곡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곳을 이른다. 국토(國土)와 곡식이 없이는 백성이 살 수 없으므로 옛날부터 중국의 천자(天子)나 기타 제후(諸侯)가 나라를 세우면 사직단(社稷壇)을 세워 국가와 백성을 위해 복을 비는 제사를 지냈는데, 천자의 사직을 태사(太社)·태직(太稷)이라 하고 제후의 사직을 국사(國社)·국직(國稷)이라 했다. 우리나라는 신라(新羅) 선덕왕(宣德王) 4년(783)에 처음으로 사직단을 세웠으며, 그 뒤 고려(高麗)는 성종(成宗) 10년(991)에, 조선(朝鮮)은 태조(太祖) 3년(1394)에 각각 사직단을 세워 제사를 지냈다. 그 뒤 광무(光武) 1년(1897)에 대한제국(大韓帝國)의 탄생과 함께 사직도 승격되어 태사·태직이라 칭했다.

之一也. 五穀百穀稷爲長. 昔棄爲農官, 號后稷, 因爲穀神, 爲社稷之主. 民以爲天者社, 卽土神句龍也.”《昌黎集》云, “句龍棄以功, 孔孟以德. 句龍土神, 棄穀神. 國有社稷, 是也.”

1928년 1월 9일. 경오 -상장둔장-. 맑음. 손녀딸이 왔다.

初九日. 庚午【上章敦牂】. 陽. 孫女來.

1928년 1월 10일. 신미 -중광협합-. 맑음. 삼종질 득수(得洙)가 난을 피해 떠난 지 십여 년 만에 처음으로 만났다. 그 말을 들으니 전주 삼리면(三里面) 벽산리(碧山里)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

十日. 辛未【重光協洽】. 陽. 三從姪得洙, 離亂後十餘年始逢. 聞其言, 則寓居于全州三里面碧山里云.

1928년 1월 11일. 임신 -현익군탄-. 흐리다가 맑음. 이희채(李熙采)와 더불어 예절(禮節)에 대하여 논하다가 문득 《주역》을 펴니 절괘(節卦)가 보이는 고로 기록해둔다. “절의(節義)는 형통(亨通)하는 것으로, 힘겹게 지키는 절의는 오래 가지 못한다.” 수성(水城)리의 딸이 아들을 데리고 왔다.

十一日. 壬申【玄默涒灘】. 陰而陽. 與李熙采論禮節, 居然披《易》, 則節見. 故記之. “節亨, 苦節不可貞.” 水城女息率子來.

1928년 1월 12일. 계유 -소양작악-. 흐리고 눈.

十二日. 癸酉【昭陽作噩】. 陰雪.

1928년 1월 13일. 갑술 -알봉엄무-. 맑음.

十三日. 甲戌【闕逢闍茂】. 陽.

1928년 1월 14일. 을해 -진몽대연헌-. 흐리고 눈.

十四日. 乙亥【旃蒙大淵獻】. 陰雪.

1928년 1월 15일. 병자 -유조곤돈-. 흐림. 밤새도록 찬바람이 크게 불어 사람들이 보름달을 볼 수 없었다.

十五日. 丙子【柔兆困敦】. 陰. 終夜寒風大吹, 人不得望月.

1928년 1월 16일. 정축 -강어적분약-. 매우 추움. 보름달을 보지 못했다.

十六日. 丁丑【疆圉赤奮若】. 極寒. 人不得望月.

1928년 1월 17일. 무인 -저옹섭제-. 맑음.

十七日. 戊寅【著雍攝提】. 陽.

1928년 1월 18일. 기묘 -도유단알-. 맑음.

十八日. 己卯【屠維單闕】. 陽.

1928년 1월 19일. 경진 -상장집서. 흐리고 밤에 눈.

十九日. 庚辰【上章執徐】. 陰夜雪.

1928년 1월 20일. 신사 -중광대황락-. 흐리고 눈.

二十日. 辛巳【重光大荒落】. 陰雪.

1928년 1월 21일. 임오 -현익둔장-. 맑음.

二十一日. 壬午【玄默敦牂】. 陽.

1928년 1월 22일. 계미 -소양협흡-. 손녀가 갔다.

二十二日. 癸未【昭陽協洽】. 孫女去.

1928년 1월 23일. 갑신 -알봉군탄-. 흐리고 눈.

二十三日. 甲申【閔逢涓灘】. 陰雪.

1928년 1월 24일. 을유 -전몽작악-. 맑.

二十四日. 乙酉【旃蒙作噩】. 晴.

1928년 1월 25일. 병술 -유조엄무-. 흐리고 매우 추움.

二十五日. 丙戌【柔兆闔茂】. 陰極寒.

1928년 1월 26일. 정해 -강어대연헌-. 매우 추움.

二十六日. 丁亥【疆圉大淵獻】. 極寒.

1928년 1월 27일. 무자 -저옹곤돈-. 맑음. 위문차 사창리(社倉里)에서 부터 당촌(堂村)에 이르렀는데, 금장(錦丈)이 자기 선조 제봉(霽峰)<sup>6</sup>의 시를 읊었다. 집에 돌아와 기록해 둔다.

二十七日. 戊子【著雍困敦】. 陽. 慰問次, 自社倉里至于堂村, 錦丈誦自家先祖霽峰詩. 還巢記之.

6 제봉(霽峰) : 조선시대 유학자이자 의병장인 고경명(高敬命)을 가리킨다. 자는 이순(而順), 호는 제봉(霽峰), 본관은 장흥(長興),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광주 압보촌(鴨保村) 출생으로 부친은 대사간 고맹영(高孟英)이다. 시와 글씨와 그림에 모두 능하였다. 고경명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광주(光州)의 의병 6천여 명을 이끌고 금산(錦山)에서 싸우다 전사하였다. 금산의 성곡서원(星谷書院)과 종용사(從容祠), 순창의 화산서원(花山書院)에 배향되었다. 저서에 《제봉집》과 각처에 보낸 격문을 모은 《정기록(正氣錄)》이 있다.

세상사 참으로 같아 늙으면 인적 끊기니,	閱世眞同老斷輪
서호의 달빛 아래 홀로 뉘싯줄 드리우네.	西湖烟月獨垂綸
옹의 말에 수양은 다른 기술 없다하니,	翁言修養無他術
한밤중에도 신묘한 기운 여전히 보존한다네.	中夜尙存一氣神

1928년 1월 28일. 기축 -도유적분약-. 맑음.

二十八日. 己丑【屠維赤奮若】. 陽.

1928년 1월 29일. 경인 -상장섭제-. 맑음. 문득 임술년(壬戌年, 1922) 2월에 야정(野亭)에서 지었던 시가 생각나 기록해 둔다.

二十九日. 庚寅【上章攝提】. 陽. 輒思壬戌二月野亭詩, 記之.

공부하는 작은 정자가 들을 끼고 세워지니,	爲學小亭夾野成
올라보면 가슴이 확연하게 밝아지네.	登臨胸次廓然明
추위 끝 술 기운에 봄도 따뜻해지려는데,	寒餘酒氣春將暖
바람결에 시심은 달과 함께 맑아지네.	風便詩心月與清
주역 가운데 성경(誠敬) 글자 즐거이 말하고,	肯道易中誠敬字
세상의 시비 소리는 듣기 꺼려하네.	厭聞世上是非聲
이곳에 온 남아는 무슨 한 있어서,	到此男兒何恨有
눈물 흘리며 한양성을 씻으려 하나.	淚流欲洗漢陽城

1928년 2월 1일. 신묘 -중광단알-. 맑음. 비괘(比卦) 육삼(六三)효의 ‘비지비인(比之匪人, 좋지 못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다)’을 얻었다. 상(象)에 이르기를 “좋지 못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니 또한 해롭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그 주석에 “좋지 못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니 그 잘못을 알 수 있다. 사람이 나란하게 지내면 편안함을 구하는 것이 길하다.”라고 하였다. 그러니 좋지 못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니 또한

해롭지 않겠는가?

二月. 初一日. 辛卯【重光單闕】. 陽. 得比卦六三, ‘比之匪人’ 象曰, “比之匪人, 不亦傷乎? 註, “比之匪人, 其失可知. 人之相比, 求安吉也.” 比之匪人, 不亦傷乎?

1928년 2월 2일. 임진 -현익집서-. 흐림.

初二日. 壬辰【玄默執徐】. 陰.

1928년 2월 3일. 계사 -소양대항락-. 흐림. 폭풍이 불고 지붕이 날렸다. 밤에 눈이 내렸다.

初三日. 癸巳【昭陽大荒落】. 陰. 暴風發屋, 夜雪.

1928년 2월 4일. 갑오, -알봉돈장-. 맑음. 본읍의 월산(月山) 손부 집에 오면서 읍내를 지나 강의관(姜議官)을 방문하고서 월산에 이르렀다. 다음날 동오재(東吾齋)<sup>7</sup>에 들어갔다.

初四日. 甲午【闕逢敦牂】. 陽. 來本邑月山孫婦家, 歷邑內, 訪姜議官, 而到月山. 翌日入東吾齋.

1928년 2월 5일. 을미 -전몽협흡-. 맑음. 동몽들을 모아서 학당을 설치했다.

初五日. 乙未【旃蒙協洽】. 陽. 召集童蒙設學.

1928년 2월 6일. 병신 -유조군탄-. 맑음. 어린 아이들을 인도하고 도와주었다. 해 질녘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기에 거주지와 성명을

7 동오재(東吾齋): 담양군 월산면 월산리에 있었던 서당을 일컫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성인이 아닌 동몽입니다. 본래 순창(淳昌) 구수곡(九水谷)에 거주하였는데, 횃배로 운신하지 못하고 몸을 절에 맡긴 지 지금까지 49년입니다.”라고 하였다. 그 성은 박가라고 한다. 그 정상을 가련하게 여겨 능히 거절하지 못하였다. 밤새 기침하고 객객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初六日. 丙申【柔兆涓灘】. 陽. 誘掖小兒. 薄暮有一人, 猝入, 問居住姓名. 答曰, “非成人之童蒙, 本居淳昌九水谷. 以蚓腹, 不能振, 而託身於寺刹, 至今四十九.” 其姓朴哥云. 可憐其情狀, 未能拒出. 經夜咳嗽嚕嚕之聲未絕.

1928년 2월 7일, 정유 -강어작악-. 맑음. 이른 아침에 어제 저녁 온 객동이 나갔다. 정오에 또 왔는데, 거의 죽어가려고 하자, 재지기(齎直)를 붙여서 경찰서 옆 약국에 보냈다. 이준영(李俊榮) -호 농암(龔菴)- 노인과 담화했다.

初七日. 丁酉【強圉作噩】. 陽. 早朝, 昨暮客童出去. 晌午又來, 幾死命. 齎直付送警察所傍藥局. 與李俊榮號龔菴老人談話.

1928년 2월 8일. 무술 -저용엄무-. 맑았다가 흐림. 석양에 어린애들이 서로 한쪽 다리로 다녔다. 이것은 장차 비올 조짐이다. 밤에 과연 비가 와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初八日. 戊戌【著雍闓茂】. 陽而陰. 夕陽, 小兒輩相一脚行, 此將雨之兆也. 夜果雨來至朝.

1928년 2월 9일. 기해 -도유대연현-.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흐림.

初九日. 己亥【屠維大淵獻】. 朝雨而陰.

1928년 2월 10일. 경자 -상장근돈-. 흐림.

初十日. 庚子【上章困敦】. 陰.

1928년 2월 11일. 신축 -중광적분약-. 흐리다가 비. 또 맑다가 바람이 불었다.

十一日. 辛丑【重光赤奮若】. 陰而雨. 又陽而風.

1928년 2월 12일. 임인 -현익섭제-. 맑음.

十二日. 壬寅【玄默攝提】. 陽.

1928년 2월 13일. 계묘 -소양단알-.

十三日. 癸卯【昭陽單闕】.

1928년 2월 14일. 갑진 -알봉집서-. 맑음.

十四日. 甲辰【闕逢執徐】. 陽.

1928년 2월 15일. 맑음. 을사 -진몽대황락-.

十五日. 陽. 乙巳【旃蒙大荒落】.

1928년 2월 16일. 병오 -유조돈장-. 맑음. <추구(推句)>를 베껴 썼다.

十六日. 丙午【柔兆敦牂】. 陽. 抄<推句>.

1928년 2월 17일. 정미 -강어협흡-. 흐리고 비.

十七日. 丁未【彊圉協洽】. 陰雨.

1928년 2월 18일. 무신 -저옹군탄-. 개었다가 흐려짐.

十八日. 戊申【著雍涿灘】. 晴陰.

1928년 2월 19일. 기유 -도유작악-. 흐림.

十九日. 己酉【屠維作噩】. 陰.

1928년 2월 20일. 경술 -상장엄무-. 흐림. 춥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었다. 《매월당집(梅月堂集)》〈본전(本傳)〉을 보았다. 선조 조에 율곡(栗谷)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珣)가 교지(教旨)를 받들어 찬술한 것이다.

二十日. 庚戌【上章閼茂】. 陰. 寒雪風. 看《梅月堂集》〈本傳〉. 宣廟朝栗谷李文成公珣奉教撰.

#### 〈본전(本傳)〉

김시습(金時習)의 자(字)는 열경(悅卿)이고 본관은 강릉인(江陵人)으로 신라 알지왕(闕智王)의 후예이다. 셋째 아들 주원(周元)이 강릉의 읍재가 되었으므로 자손들이 그곳을 본적으로 삼았다. 그 후손에 연(淵)과 태현(台鉉)이 있었는데, 모두 고려 시중(侍中)이 되었다.

#### 本傳.

金時習, 字悅卿, 江陵人, 新羅闕智王之裔. 有三子周元, 邑于江陵, 子孫仍籍焉. 厥後有淵有台鉉, 皆爲高麗侍中.

1928년 2월 21일. 신해 -중광대연헌-. 흐림.

二十一日. 辛亥【重光大淵獻】. 陰.

1928년 2월 22일. 임자 -현익곤돈-. 맑. 기쁘게도 손자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름을 출중(出中)이라 지었다.

二十二日. 壬子【玄默困敦】. 晴. 喜聞孫婦生男, 名出中.

1928년 2월 23일. 계축 -소양적분약-. 흐림.

二十三日. 癸丑【昭陽赤奮若】. 陰.

1928년 2월 24일. -알봉섭제-. 맑음.

二十四日. 【闕逢攝提】. 陽.

1928년 2월 25일. 을묘 -전몽단알-. 맑음.

二十五日. 乙卯【旃蒙單闕】. 陽.

1928년 2월 26일. 병진 -유조집서-. 맑음.

二十六日. 丙辰【柔兆執徐】. 陽.

1928년 2월 27일. 정사 -강어대황락-. 맑음.

二十七日. 丁巳【疆圉大荒落】. 陽.

1928년 2월 28일. 무오 -저옹돈장-. 맑음. 여수(麗水) 안기택(安奇宅)이 와서 이종기(李鍾琪) 댁에서 기식(寄食)하다가 여기에 와서 자고 갔다.

二十八日. 戊午【著雍敦牂】. 陽. 麗水安奇宅來, 寄食於李鍾琪宅, 留宿於此而去.

1928년 2월 29일. 기미 -도유협흡-. 맑음. 《매월당집(梅月堂集)》의 <고문진보(古文眞寶)를 얻고서>를 보았다.

二十九日. 己未【屠維協洽】. 陽. 看《梅月堂集》〈得古文眞寶〉.

세상사람 옥구슬 부질없이 다투지만,  
써버리고 나면 끝내 하나도 남지 않네.

世間珠璧謾相爭  
用盡終無一介贏

이 보배를 뱃속에 간직할 수 있다면, 此寶若能藏空洞  
달랑대는 옥소리 가슴 가득 울리겠지. 滿腔渾是玉琤琤

〈성리군서(性理群書)를 얻다〉<sup>8</sup> 得性理群書

일천 성인 서로 전한 것은 다만 이 마음일 뿐, 千聖相傳只此心  
이 마음 밖에서 다시 무엇을 찾으리. 此心之外更何尋  
사단(四端)<sup>9</sup>을 붙들고 버림은 밖에서 이룬 것 아니요, 四端操舍非由外  
만고의 천지가 모두 지금에 있다네. 萬古乾坤儘在今  
힘써 공부하지 않을 때는 선후가 있지만, 未喫力時有先後  
궁극처에 도달하면 얕고 깊음도 없다네. 到窮源處無淺深  
수신제가하여 치국평천하하는 것은 修齊治國平天下  
오직 성(誠)을 보존하는 데 있나니 공경치 않으랴. 惟在存誠罔不欽

복희씨가 역을 지어 백성을 깨우쳐주니, 羲皇作易牖斯民  
성인마다 서로 전해 차례차례 퍼 왔다네. 聖聖相傳次第陳  
천 년 동안 도를 잃어 이설에 빠지자, 道喪千年淪異說  
하늘이 칠자<sup>10</sup>내어 함께 인을 구했다네. 天生七子濟同仁  
비갠 뒤의 맑은 바람과 달에 흥금이 상쾌하고, 光風霽月胸襟爽  
옥빛에 쇠소리라<sup>11</sup> 도덕도 순수하다네. 玉色金聲道德純

- 8 성리군서(性理群書)를 얻다 : 《매월당시집(梅月堂詩集)》 권9에 나온다. 《성리군서(性理群書)》란 송나라 옹절(熊節)이 편찬하고 옹강대(熊剛大)가 주를 단 책이다. 주돈이(周敦頤), 정자(程子), 장재(張載), 소옹(邵雍), 사마광(司馬光), 주자(朱子) 등 송대 유자(儒者)들의 글을 모아 유편(類編)한 것이다.
- 9 사단(四端) : 사람의 천성 속에 날 때부터 갖춰 있다는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마음을 말한다.
- 10 칠자(七子) : 송나라 일곱 유학자로, 주연계(周濂溪)·정명도(程明道)·정이천(程伊川)·소강절(邵康節)·장횡거(張橫渠)·주희암(朱晦庵)을 말한다.
- 11 옥빛에 쇠소리라[玉色金聲] : 행동에 절조가 있고 정절이 굳은 것을 비유한 말이다

공씨 벽<sup>12</sup>과 진나라 재<sup>13</sup>에도 사라지지 않아,  
고개드니 별과 해처럼 맑은 하늘 비추네.

孔壁秦灰文未喪  
舉頭星日曠清旻

1928년 2월 30일. 경신 -상장군탄-. 이날은 춘분이다. 맑음.

三十日. 庚申【上章涪灘】. 是日春分也, 陽.

〈천문(天間)을 모방해서〉<sup>14</sup> 擬天間

첫 번째 문건대 하늘은 무슨 이유로  
재앙과 상서가 고르지 못하나?  
상제 말하길 난 순리대로 하는데,  
너의 말이 너무 무례하구나.  
운수가 비색(否塞)하면 간사함이 횡횡하고,  
시대가 어긋나면 성철(聖哲)도 몰락하네.  
왕성하고 쇠함이 모두 운수에 있는 것이,  
마치 겨울과 봄 있는 것과 같느니라.

一問天何故  
殃祥或不均  
帝言子順理  
汝語太無倫  
運否姦邪縱  
時乖聖哲淪  
旺衰皆有數  
如歲有冬春

〈굽어보고 쳐다보며〉<sup>15</sup> 俯仰

굽어보고 쳐다봐도 아득해 한이 없는데,  
그 가운데 이 한 몸 존재한다네.  
삼재<sup>16</sup>에 참여하여 나란히 서고,

俯仰杳無垠  
其中有此身  
三才參竝立

다.

- 12 공씨 벽[孔壁] : 한나라 노공왕(魯恭王)이 공자의 집을 수리하다가 벽 속에서 칠서(七書)를 얻은 고사를 말한다.
- 13 진나라 재[秦灰] : 진시황제가 천하의 서적을 모아다 불살라 버린 고사를 말한다.
- 14 천문(天間)을 모방해서 : 《매월당시집(梅月堂詩集)》권14에 나온다. 〈천문(天間)〉은 굴원이 지은 《초사(楚辭)》의 편명(篇名)이다.
- 15 굽어보고 쳐다보며 : 《매월당시집(梅月堂詩集)》권13에 나온다.
- 16 삼재(三才) : 하늘·땅·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주역》〈설괘전(說卦傳)〉에 “천지의 도를 세워 ‘음양(陰陽)’이라 하고, 땅의 도를 세워 ‘강유(剛柔)’라 하고, 사

한 가지 이치를 스스로 나누었네.	一理自相分
육체에 부러지면 미물이지만,	形役爲微物
몸소 행한다면 큰 군자라네.	躬行卽大君
고금(古今)이 어찌 간단(間斷)이 있으랴?	古今何間斷
요 임금 순 임금도 나와 한 무리니라.	堯舜我同群

〈실리〉<sup>17</sup> 實理

실리는 항상 다함이 없어,	實理常無盡
계속해서 나옴에 써도 한이 없구나.	源源用不窮
소삼(昭森) <sup>18</sup> 하게 벌려 놓기를,	昭森兼布列
상하와 동서로 닿아있다네.	上下及西東
부자는 사랑하고 효도하며,	父子慈而孝
군신은 예절과 충성으로 하네.	君臣禮與忠
다만 잘 미루어서 넓혀 간다면,	但能推類廣
사물은 저절로 서로 통하리.	事物自相通

〈일기〉<sup>19</sup> 一氣

한 기운이 스스로 한정 없어서,	一氣自垓圯
돌고 돌아 서로 시종이 되네.	循環相始終
어둡고 밝음, 주야가 그렇고,	幽明及晝夜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이 그러하네.	春夏與秋冬
강대하면 충족되어 위축됨이 없고,	剛大充無餒
청명하면 회린(悔吝)이 공격치 않는다.	清明吝不攻
정성 보존하여 만일 사납지 않다면,	存誠如勿暴

람의 도를 세워 '인의(仁義)라 하고, 삼재를 겸하여 두 곱을 한 까닭에 역은 6획으로서 괘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17 실리: 《매월당시집(梅月堂詩集)》 권13에 나온다.

18 소삼(昭森): 삼라만상이 천지간에 빛나게 흠어져 있는 모양을 말한다.

19 일기: 《매월당시집(梅月堂詩集)》 권13에 나온다.

성역(聖域)에 조용히 이르게 되리.

聖域可從容

### 〈지극한 정성〉 至誠

정성이란 스스로 쉬이 없는 것,  
모든 것이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네.  
하늘은 높고 땅은 넓고 두터우며,  
바다는 광활하고 산은 드높다네.  
두 마음 없어 생하는 것 헤아리기 어려우나,  
순진하면 도가 절로 행통한다네.  
하늘을 법 삼아 능히 생각한다면,  
신명과 통함을 얻을 것이리.

誠者自無息  
品形由此成  
天高地博厚  
海關山崢嶸  
不貳生難測  
純真道自亨  
法天如克念  
可以通神明

### 〈주경〉 主敬

아름답구나 경이란 한 글자여,  
성학의 처음과 끝을 이루네.  
다른 생각이 간섭함을 허용치 않으니,  
어찌 게으른 모습 지을 수 있으랴.  
또렷또렷 항상 근신을 하고,  
조심조심 어지럽게 말아야 하리.  
완전한 곳에 다 이르면,  
거처 음이 성인을 좇음 되리라.

猗歟敬一字  
聖學成始終  
不許干他念  
那能設慢容  
惺惺常謹慎  
整整勿蒙茸  
到盡十分處  
由來爲聖蹤

### 〈존심〉 存心

텅비어 신령한 것은 오직 이 마음이라,  
사물에 응함에 또 자취 없네.  
잘 거두면 천만의 차이도 정돈이 되고,  
교만 방자하면 모든 물욕이 공격해오리라.  
위태롭고 은미한 기미를 항상 살핀다면,

虛靈只此心  
應物且無蹤  
收斂千差整  
驕邪眾欲攻  
危微常省察

하는 일은 반드시 화평하리라.  
이것이 바로 심지를 붙잡는 방법이 되니,  
정성스레 밟아가서 절로 공손하리라.

事業必雍容  
介是操存樣  
誠之履自恭

〈양성〉 養性

하늘이 속마음을 고루 내리니,  
인과 물이 품수받은 것 모두 같아라.  
순선함은 처음부터 악이 없지만,  
사욕을 따르면 발하여 중이 안 되네.  
위의는 읍손(揖遜)에서 바탕이 되고,  
성악은 화기로운 곳으로 인도한다네.  
변화는 함양하여 기른 것으로 말미암으니,  
근원을 만나면 도가 절로 통하리라.

皇天均降衷  
人物稟皆同  
純善初無惡  
循邪發不中  
威儀資揖遜  
聲樂導冲融  
變化由涵育  
逢源道自通

〈궁리〉 窮理

이치는 하나라서 본래 편당이 없으니,  
궁구하면 모든 이치 통하게 되네.  
정밀하고 복잡한 것 망라하고,  
작은 것과 넓은 것 융회 관통한다네.  
나에게 있어 앎이 다함없으니,  
그것에 대해 지극히 하면 궁구하지 못하랴.  
정밀하게 연마하면 신묘한 데 들어가니,  
커다란 틈에 칼 놀리는 것 같으리.

一理無偏黨  
窮之萬理通  
包羅精與雜  
融貫細兼洪  
在我知無盡  
於他格不窮  
精研入神妙  
游刃大窾空

〈정심〉 正心

이와 사가 밝게 벌려 있지만,  
텅비고 신령한 것은 바로 이 마음이라.  
거울은 비어있어 모든 형상을 용납하고,

理事布昭森  
虛靈只此心  
鏡空涵萬象

좋은 달아매져 모든 소리 갖춘 듯하네.  
 내가 응당 정밀하게 살펴야 하니,  
 남에게 던지면 반드시 다 공경하리.  
 존재 여부를 살피고 싶거든,  
 범준(范浚)의 심잠(心箴)<sup>20</sup>을 세 번 읽으라.

鍾設備諸音  
 我應須精察  
 他投必盡欽  
 欲詳存與否  
 三復范公箴

### 〈성의〉 誠意

영대(靈臺)<sup>21</sup>가 만물을 주재하는데,  
 출입에 뜻이 먼저 달려간다네.  
 기미가 있는 곳에서 드러나서,  
 선과 악의 길 위로 내달는구나.  
 속임 없으면 마음 절로 만족해지고,  
 부끄러움 없으면 몸이 항상 펴게 된다네.  
 이것이 바로 정성 속의 징험이니,  
 그대는 혼자일 때를 조심하는가?

靈臺宰萬物  
 出入意先馳  
 發於幾微處  
 奔乎善惡途  
 毋欺心自慊  
 不愧體常舒  
 此是誠中驗  
 君其慎獨無

### 〈수기〉 修己

군자는 반드시 몸을 닦으니,  
 몸 닦으면 반드시 단속해지리.  
 애오와 경애에 게을리 하여,  
 살피지 않으면 문득 편벽된다네.  
 그러므로 군자의 마음 둠이란,  
 물이 가득한 옥잔을 받들 듯 하네.  
 바깥으로는 의방(義方)<sup>22</sup>으로써 하고,  
 안으로는 경직(敬直)으로 말미암네.

君子必修己  
 修己必端肅  
 愛惡敬哀惰  
 不察便成僻  
 所以君子心  
 如奉盈執玉  
 外之以義方  
 內由以敬直

20 범준(范浚)의 심잠(心箴): 범준이 지은 마음가짐에 대한 경계서이다. 잠은 문체의 하나이다.

21 영대(靈臺): 사람의 마음 또는 정신을 말한다.

22 의방(義方): 가정 내에서 도의에 맞는 교훈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공경으로 정성을 붙들어도,  
사욕 이겨 그 욕심 막으리라.  
행동거지와 위외에 이르러서도  
조심조심 스스로 수척하네.

克敬以存誠  
勝私窒其欲  
動止及威儀  
整整自修飭

〈치인〉 治人

치인을 하려면 반드시 내 몸이 발라야 하니,  
내 몸이 바르면 남들은 절로 따르리.  
삼발 속의 쭉대를 보지 못했다.  
붙들지 않아도 절로 곧다네.  
몸소 행하고 이끌어 간다면,  
마음과 힘을 애써 소비할 것 없다네.  
형벌로써 사람을 제재한다면,  
비록 면하여도 또 저촉되나니,  
더군다나 사람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데에서,  
대저 어찌 파괴하고 죽임이 있을 것인가.  
점점 연마하여 감화하는 사이에,  
자연이 옛 습속 고치게 되리라.

治人必正己  
正己人自服  
不見麻中蓬  
不扶而自直  
躬行而率之  
不勞費心力  
刑政以制人  
雖免且扞格  
況以人治人  
夫豈有戕賊  
漸磨感化間  
自然革舊俗

〈어린이 교육〉 教兒

어른이 어린이 가르치려면,  
반드시 어릴 적부터라야 하네.  
가장 먼저 안온하고 자상해야 하니,  
공경함이 진실로 마땅하다네.  
희롱하되 속임을 보이지 말고,  
장난삼아 음란한 말 하지 말며.  
사랑하되 법도 가르치고,  
보호하되 위외(威儀)를 따르라.

大人教小兒  
必自嬰孩時  
最先要安詳  
恭敬固其宜  
弄之勿視誑  
戲之勿淫辭  
愛之教規矩  
保之順威儀

차근차근 하는 것도 순서가 있어야지,	因循有次序
차레를 뛰어넘어선 안 되네.	不可躡等爲
뒷날 의젓한 성인 되면,	他日巍成人
바야흐로 어버이 은혜와 자애로움 깨닫게 되리.	方覺親恩慈

### 〈마음 다스리기〉 心術

마음씨는 바르고 곧아야지,	心術要正直
결코 간사함에 빠지지 말지라.	切勿狎姦邪
앞어지고 자빠지며 당황할 때라도,	顛沛造次頃
보고 들음 요사하거나 음란케 말라.	視聽勿妖哇
순식간에 경황없는 사이라도,	瞬息芒芴間
말과 행동 어긋남 없이.	言動莫舛差
안의 지킴 이미 견고하면,	內守旣堅固
밖의 위의(威儀) 고요하고 아름답네.	外儀維靜嘉
온 몸으로 바른 길 따라간다면,	百體順正路
평탄하여 기울어짐 멀어지리.	坦蕩遠欹斜
그러면 군자의 덕은,	所以君子德
오랠수록 더욱 더 찬탄할 밖에.	愈久愈咨嗟

### 〈위의〉 威儀

사람이 금수(禽獸)와 다른 것은,	人之異禽獸
그 위의(威儀)가 있음이라.	以其有威儀
물수리는 다정하되 분별이 있고 <sup>23</sup> ,	鷓鳩摯有別

23 물수리는 ... 있고 : 《시경》〈국풍(國風)〉 관저(關雎) 장에 있는 말로서, 문왕(文王)과 후비(后妃)의 덕을 물수리에 비유한 것이다. 물수리[鷓鳩]라는 새는 원앙(鴛鴦) 종류인데, 떼를 지어 날아다니면서도 처음 생겨날 때부터 정해진 짝이 있어 서로 난잡한 짓을 하지 않고, 암컷이나 수컷이나 하나가 먼저 죽으면 한결 같이 절개를 지키다가 죽게 된다.

쥐들 또한 가죽이 있다네 <sup>24</sup> .	相鼠亦有皮
영운은 끝까지 면치 못할 걸,	令尹終不免
문자는 이미 먼저 알았지. <sup>25</sup>	文子已先知
더벅머리에 또 맨발 하니,	蓬頭又跣足
강좌(江左)의 선비 기풍 떨어졌다네. <sup>26</sup>	江左士風墜
어긋나지 않으려 시구편(鳴鳩篇) 읊고, <sup>27</sup>	不忒詠鳴鳩
덕의 기틀 힘써 억시(抑詩) 지으니. <sup>28</sup>	德基稱抑詩
군자는 보는 것 많아도,	君子視瞻多
거동은 천천히 해야 마땅하다네.	動止宜舒遲

- 24 쥐를 ... 있다네 : 《시경》 〈국풍(國風) 상서(相鼠)〉장에 “쥐를 보아도 가죽이 있는데, 사람으로서 예의가 없단 말인가. 사람으로서 예의가 없다면, 죽지 않고 또 무엇하리오. [相鼠有皮, 人而無儀, 人而無儀, 不死何爲.]”라는 고사에서 유래했다.
- 25 영운은 ... 알았지 : 영운(令尹)은 재상이나 지방의 장관을 이르는 말로, 공자위(公子圍)라는 사람이 초(楚)의 영운으로 있으면서 임금과 같은 위의를 차렸는데, 위(衛)의 북궁문자(北宮文子)가 그것을 보고 공자위가 악역(惡逆)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말하였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춘추좌전(春秋左傳)》 노양공(魯襄公) 31년에서 유래한 말이다. 위의에 대하여 북궁문자(北宮文子)는 “위엄이 있어 두려울 만한 것을 위(威)라 하고, 법도가 있어 본받을 만한 것을 의(儀)라 한다.”고 말했다.
- 26 강좌(江左)의 ... 떨어졌다네 : 강좌는 강동(江東) 지방, 즉 장강(長江) 하류의 남안으로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등지를 말한다. 노장(老莊) 학설이 행해지면서 선비들 사이에 청담(淸談)을 즐기는 습관이 생겨 예법으로 몸단속을 하지 않게 된 일을 가리킨다. - 허무한 학설이 조위(曹魏)의 하안(何晏)으로부터 시작되어 강좌(江左)에서 극치를 이루었다. (백호전서(白湖全書) 제30권 잡저(雜著) 임금께 지어 올린 글)
- 27 어긋지 ... 읊고 : 시구(鳴鳩)란 《시경》 〈조풍(曹風)〉 시구(鳴鳩)의 “그 예절 어긋남이 없으니, 천하를 바로 잡으시라. [其儀不忒, 正是四國]” 한 것을 가리키는 데, 이것은 곧 부자 형제가 서로 잘하여 백성의 본보기가 됨을 뜻한다.
- 28 덕의 ... 지으니 : 억시(抑詩)는 《시경》 〈대아(大雅)〉 억편(抑篇)의 “공근한 위의(威儀)는 덕(德)의 한 모퉁이니라.”를 가리킨다. 이는 덕이 성(盛)하여 광휘(光輝)가 나타남을 뜻하는데, 위 무공(衛武公)이 주 여왕(周厲王)을 풍자하고 또 스스로 경계하기 위하여 지었다. 위 무공은 나태해지려는 마음을 경계하기 위해 시를 지어 날마다 사람을 시켜 자신의 곁에서 외계 해 스스로를 경계하였다.

### 〈어린이 경풍(驚風)<sup>29)</sup>〉

백회(百會)<sup>30</sup>에 침 3분(分), 인중(人中)<sup>31</sup>에 2분, 두 젓 사이 한가운데 당심처(當心處)에 침 2분짜리를 놓는다. 뜸 3장(壯)을 뜬다. 용안육(龍眼肉)<sup>32</sup> 1돈을 넣고 물이 끓어갈 때까지 끓여서 5분쯤 복용하면 신통한 효험이 있다.

#### 小兒驚風.

百會針三分, 人中二分, 兩乳間正中當心處, 針二分. 灸三壯. 龍眼肉一錢, 煎水和朱, 五分重服之神效.

### 〈젖을 체했을 때〉

모과[木果] 5조각, 생강[生干] 3조각, 산사육(山査肉)<sup>33</sup> 1돈, 엿기름[麥芽] 3돈, 신곡(神曲)<sup>34</sup> 1돈, 파밑등[蔥白, 파의 흰 부분] 3뿌리를 합하여 끓여서 복용하면 신통한 효험이 있다.

#### 乳滯.

木果五片, 生干三片, 山査肉一錢, 麥芽三錢, 神曲一錢, 蔥白三根, 合煎服之, 則神效.

### 〈산후 설사로 기가 빠졌을 때〉

생꿀[生淸] 한 손가락을 복용하면 신통한 효험이 있다.

- 
- 29 경풍(驚風) : 한의학(韓醫學)에서 어린이들의 경련(痙攣)을 일컫는 말로 회충(蛔蟲), 뇌척수, 질환(疾患), 발열(發熱) 등으로 놀라는 병이다. 급경풍(急驚風), 만경풍(慢驚風), 만비풍(慢脾風) 등으로 구별한다.
- 30 백회(百會) : 정수리의 숨구멍 자리로 '백회혈(百會穴)'이라고도 한다.
- 31 인중(人中) : 코의 밑과 윗입술 사이의 우묵한 곳을 가리킨다.
- 32 용안육(龍眼肉) : 용안의 가종피(假種皮). 말려서 식용(食用)하며 완화(緩和) 자양제(滋養劑)로 쓴다.
- 33 산사육(山査肉) : 씨를 바른 산사자(山査子). 건위(健胃) 소화제로서 탄산(呑酸), 두진(痘疹), 산증(疝症) 등(等)에 쓴다.
- 34 신곡(神曲, 神糲) : 약누룩. 밀가루에 다른 한약제(행인, 팔, 청호, 창이자, 여뀌알 등)를 섞어서 발효시켜 말려 만든다.

産後泄瀉氣盡.

生清一匙, 服之神效.

〈괴질(怪疾)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사군자(使君子)<sup>35</sup> 약간을 그 부모가 씹어주어서 먹게 하면 신통한 효험이 있다.

怪疾垂死.

使君子小許, 其父母嚙嚙, 服之神效.

〈의복〉-매월당- 衣服【梅月堂】

갓과 신발은 천지를 본뵈고,	冠履象天地
의상은 준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네.	衣裳定尊卑
띠로서 스스로를 검속하고,	帶以自檢束
패옥으로서 감추고 때를 기다리네.	佩以藏待時
날날이 장식을 하고 나면,	一一裝飾了
마음 씬을 사람들이 먼저 아네.	心術人先知
고을 사람들 관이 바르지 못하면,	鄉人冠不正
뒤도 돌아보지 않았으니 <sup>36</sup> 백이었다네.	望望稱伯夷
삼베옷과 붉은 덮개는,	麻衣與赤芾
조나라 사람 시에서 풍자되었지.	被刺曹人詩
원래 의복이 맞지 않으면,	由來不稱服
몸이 위험 당함을 면치 못하네.	未免遭身危

35 사군자(使君子): 쌍자엽 식물의 이관화류(離瓣花類)에 속하는 한 과(科)이다.  
 36 뒤도 ... 않았으니: 백이는 고을 사람들이 쓰고 있는 관(冠)이 바르지 않으면 마치 그가 자신을 더럽히기라도 할 것처럼 생각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행하니 떠나가 버렸다. (《맹자》 공손추상(公孫丑上))

## 〈음식〉 飲食

음식은 성명을 지탱하는 것이니,	飲食支性命
입과 배 때문에 누가 되지 말라.	無爲口腹累
작은 것 기르다가 큰 것 잃으니,	養小以失大
예로부터 식자들이 비천하게 여겼네.	從來識者鄙
하증이 만전을 먹으니, <sup>37</sup>	何曾食萬錢
천년토록 그 사치를 조롱하였고,	千載譏其侈
신민이 나무뿌리를 씹으니,	信民咬菜根
강후가 탄식함을 마지않았네. <sup>38</sup>	康侯歎不已
술이 사치를 퍼지게 하고,	酒可和四體
고기는 살갓과 뼈를 채워준다네.	肉可充飢飢
이미 취하고 또 배부른 사이에,	既醉既飽間
기르는 것은 인과 의일 뿐이네.	所養仁義耳

## 〈언어〉 言語

입은 모든 것의 중추이니,	惟口乃樞機
내뱉으면 군사를 일으키기도 하네.	好出興戎師
막지를 앓는다면 네 필 말도 미치지 못하니,	莫捫駟不及
혀는 화복의 기틀이라네.	舌是禍福基
발하지 않을 때는 조급함과 망녕됨을 막을 수 있지만,	未發閑躁妄

37 하증이 만전을 먹으니 : 진 무제(晉武帝) 때의 태위(太尉) 하증(何曾)이 호사하기를 좋아하여 궁실·거마·의복·음식 등을 왕보다도 사치스럽게 하였는데, 특히 끼니때마다 만전(萬錢)의 값이 나가는 음식상을 받았는데도 “젓가락으로 집어 먹을 것이 없다. [無下箸處]”고 투정을 부렸다는 고사가 전한다. (《晉書 卷33 何曾傳》)

38 신민이 ... 마지않았네 : 왕신민(汪信民)이 “사람이 항상 나물 뿌리를 캐 먹고 살 줄만 알면, 어떤 일이라도 모두 행할 수 있다. [人常咬得菜根, 則百事可做]”라고 한 말을 듣고는 강후(康侯) 호안국(胡安國)이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는 말이 송(宋)나라 여본중(呂本中)의 《동래여자미사우잡지(東萊呂紫微師友雜志)》에 나온다.

발하면 번잡함과 지리함에 손상되네.	已發傷煩支
주나라 묘당에는 금인이 있었으니,	周廟有金人
입 께메고 등에다 명을 새겼네.	緘口背銘辭
대아에 백규장이 있으니,	雅有白圭章
남용이 세 번을 읽자,	南容三復之
공자께서는 형님의 딸을 시집보냈으니,	孔聖妻兄子
후학들은 마땅히 깊이 생각하여야 하네.	後學宜繹思

〈진퇴〉 進退

어린아이는 두 손 맞잡는 법 가르치고,	小兒教叉手
어른은 마땅히 읊을 해야 하네.	大人當拱揖
때를 당해서는 천천히 하여야 하나,	當時要舒遲
어른을 보면 반드시 공손해야 하네.	具尊必齊遯
빨리 나아가갈 때에는 반드시 날개 퍼듯 하고,	趨進必翼如
절하고 꿇어앉을 때엔 단정하고 엄숙해야 하네.	拜跪必端肅
읍하고 섰을 때엔 좌우 손으로,	揖立左右手
오르며 내릴 때는 좌우 발로 하네.	昇降左右足
거처할 때는 일정한 곳이 있고,	居止有常處
돌고 꺾을 때에는 일정한 법도가 있네.	周旋有常法
듣지 못했는가. 한나라 곽광 <sup>39</sup> 은,	不聞漢藿光
나아가고 머무름에 척도가 있었다하네.	進止有寸尺

〈송독〉 誦讀

옛 사람의 글을 외고 읽을 때는,	誦讀古人書
세대가 멀다고 말하지 말라.	莫道世遠曠
강론하는 말에서 나는 스승을 취하고,	講言吾取師

39 곽광(藿光): 자가 자맹(子孟)인데, 무제(武帝)를 섬기는 20여 년 동안 근신(謹慎)하여 한 번도 과실이 없었다고 한다.

세상을 논한 것에서 나는 상우(尙友)를 취하리.	論世我取向
서로 거리가 천년을 떨어졌으나,	相去雖千載
완연히 서로 마주하는 것 같이 하라.	宛如相對狀
대체로 할난하고 변론할 곳 있으면,	凡有詰辨處
곧바로 친히 수창해보아야 하리.	卽是親酬唱
비록 한 구절이나 반 구절 기억하더라도,	雖記一半句
힘써 실천하고 법으로 삼아야 하리.	力行且依樣
정밀히 궁구하면 외경할만 하니,	精究爲可畏
밝은 도를 너희들은 잊지말도록 하라.	明道不汝廷

1928년 2월 30일. 경신 -상장군탄-. 맑음.

三十日. 庚申【上章涿灘】. 陽.

1928년 윤2월 1일. 신유 -중광작악-. 맑음.

初一日. 【重光作噩】. 陽. 辛酉.

1928년 윤2월 2일. 임술 -현익엄무-. 흐리고 비.

初二日. 壬戌【玄默闡茂】. 陰雨.

1928년 윤2월 3일. 계해 -소양대연헌-. 흐리고 비.

初三日. 癸亥【昭陽大淵獻】. 陰雨.

1928년 윤2월 4일. 갑자 -알봉곤돈-. 맑음.

初四日. 甲子【闕逢困敦】. 陽.

1928년 윤2월 5일. 을축 -전몽적분약-.

初五日. 乙丑【旃蒙赤奮若】.

1928년 윤2월 6일. 병인 -유조섭제-. 맑음.

初六日. 丙寅【柔兆攝提】. 陽.

1928년 윤2월 7일. 정묘 -강어단알-. 맑음.

初七日. 丁卯【疆圍單闕】. 陽.

1928년 윤2월 8일. 무진 -저용집서-. 맑음.

初八日. 戊辰【著雍執徐】. 陽.

1928년 윤2월 9일. 기사 -도유대황락-. 맑음.

初九日. 己巳【屠維大荒落】. 陽.

1928년 윤2월 10일. 경오 -상장돈장-. 맑음. 요사이 연일 황사가 있었다. 이덕행(李德行)과 이야기를 하였다.

初十日. 庚午【上章敦牂】. 陽. 近日連霾. 與李德行談話.

1928년 윤2월 11일. 신미 -중광협합-. 맑음.

十一日. 辛未【重光協洽】. 陽.

1928년 윤2월 12일. 임신 -현익군탄-. 흐리고 비.

十二日. 壬申【玄默涒灘】. 陰雨.

1928년 윤2월 13일. 계유 -소양작악-. 맑음.

十三日. 癸酉【昭陽作噩】. 陽.

1928년 윤2월 14일. 갑술 -알봉엄무-. 맑음.

十四日. 甲戌【闕逢闍茂】. 陽.

1928년 윤2월 15일. 을해 -전몽대연헌-. 맑음.

十五日. 乙亥【旃蒙大淵獻】. 陽.

1928년 윤2월 16일. 병자 -유조근돈-. 오늘은 기망(既望)이다. 동오재(東吾齋) 시를 완성했다.

十六日. 丙子【柔兆困敦】. 是日既望也. 東吾齋韻成.

사문의 일맥이 우리 동방에 미치니,	斯文一脉暨吾東
맑음은 태양이 바다에서 붉게 솟는 듯.	明似太陽出海紅
철인(哲人)의 간절한 마음 삼강(三綱) 위에 있고,	哲人心切三綱上
지사(志士)의 깊은 정성 오교(五教) 안에 있네.	志士誠深五教中
경전과 제가의 말 비록 다를지라도,	經傳諸子言雖異
고성(古聖)과 후현(後賢)의 성정은 같다네.	古聖後賢性則同
어리석음을 일깨우고 때때로 익히는 곳인 까닭에,	所以發蒙時習所
이름을 돌아보고 의리 생각하니 그 편액의 뜻 웅대하구나.	顧名思義扁其雄

1928년 윤2월 17일. 정축 -강어적분약-. 맑음.

十七日. 丁丑【疆圉赤奮若】. 陽.

1928년 윤2월 18일. 무인 -저옹섭제-. 맑음.

十八日. 戊寅【著雍攝提】. 陽.

1928년 윤2월 19일. 기묘 -도유단알-. 흐리고 비.

十九日. 己卯【屠維單闕】. 陰雨.

1928년 윤2월 20일. 경진 -상장집서-. 맑음.

二十日. 庚辰【上章執徐】. 陽.

1928년 윤2월 21일. 신사 -중광대황락-. 맑음.

二十一日. 辛巳【重光大荒落】. 陽.

1928년 윤2월 22일. 임오 -현익돈장-. 맑음.

二十二. 壬午【玄默敦牂】. 陽.

1928년 윤2월 23일. 계미 -소양협흡-. 맑음.

二十三日. 癸未【昭陽協洽】. 陽.

1928년 윤2월 24일. 갑신 -알봉군탄-. 흐리고 비.

二十四日. 甲申【闕逢涪灘】. 陰雨.

1928년 윤2월 25일. 을유 -전몽작악-.

二十五日. 乙酉【旃蒙作噩】.

1928년 윤2월 26일. 병술 -유조엄무-. 맑음.

二十六日. 丙戌【柔兆闓茂】. 陽.

〈삼가 안분재(安分齋) 시에 차운하다〉 謹次安分齋韻

안분재를 오십세에 이뤘으니,

모두 잊으니 그 덕이 이 가운데 새롭구나.

해를 따라도는 해바라기를 한가로이 바라보고,

속세에 물들지 않은 연꽃 유난히 사랑했지.

배워온 것은 모두 요부(堯夫)의 가르침,

安分齋成五十春

渾忘厥德這中新

閒看葵藿傾隨日

偏愛芙蓉不染塵

學來一切堯夫訓

잘 계승한 것은 맹모(孟母) 어진 마음이라.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 보기 드무니,  
 자손들은 하물며 천진(天真)을 다함에라.

善繼三遷孟母親  
 今世伊人稀罕見  
 子孫況復盡天真

1928년 윤2월 27일. 정해 -강어대연헌-. 맑음.

二十七日. 丁亥【疆圉大淵獻】. 陽.

1928년 윤2월 28일. 무자 -저옹곤돈-. 맑음.

二十八日. 戊子【著雍困頓】. 陽.

1928년 윤2월 29일. 기축 -도유적분약-. 흐리고 비가 하루 종일 내렸다.

二十九日. 己丑【屠維赤奮若】. 陰雨終日.

1928년 3월 1일. 경인 -상장섭제-. 맑. 황혼 무렵 늙은 아내<sup>40</sup>의 부음이 갑자기 이르렀기에 밤을 타고 분상(奔喪)<sup>41</sup>하여 집에 도착했다.

三月. 初一日. 庚寅【上章攝提】. 晴. 黃昏老妻訃音忽到, 乘夜奔喪至家.

1928년 3월 2일. 신묘 -중광단알-. 맑음. 나씨(羅氏)<sup>42</sup>에게 시집간 딸이 급히 달려와서 소렴(小斂)<sup>43</sup> 할 때 도착했다.

初二日. 辛卯【重光單闕】. 陽. 羅氏女奔到小斂.

40 늙은 아내 : 단양인 허징(許澄)의 딸로, 1857년 11월 24일에 태어나서 1928년 3월 1일에 사망한 것이다. 아들 1명과 딸 2명을 두었다.

41 분상 : 먼 곳에서 친상(親喪)의 소식을 듣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42 나씨 : 금성인 나기주(羅基柱)에게 시집간 둘째딸을 말한다.

43 소렴(小斂) : 시체에 옷을 입혀 이불로 싸는 일을 말한다.

1928년 3월 3일. 임진 -현익집서-. 이씨<sup>44</sup>에게 시집간 딸이 급히 와 대렴(大斂)<sup>45</sup>할 때 도착했다. 이날 후원(後園)에 장사지냈다.

初三日. 壬辰【玄默執徐】. 陽. 李氏女奔到大斂. 是日葬于後園.

1928년 3월 4일. 계사 -소양대황락-. 맑음.

四日. 癸巳【昭陽大荒落】. 陽.

1928년 3월 5일. 갑오 -알봉돈장-. 맑음.

五日. 甲午【闕逢敦牂】. 陽.

1928년 3월 6일. 을미 -전몽협흡-. 흐리고 비.

六日. 乙未【旃蒙協洽】. 陰雨.

1928년 3월 7일. 병신 -유조군탄-. 맑음.

七日. 丙申【柔兆涇灘】. 陽.

1928년 3월 8일. 정유 -강어작악-.

八日. 丁酉【疆圉作噩】.

1928년 3월 9일. 무술 -저옹엄무-. 맑음. 다시 출타하여 동오재(東吾齋)에 도착하였다.

九日. 戊戌【著雍闓茂】. 陽. 復出到東吾齋.

44 이씨 : 함평인李大洙(李大洙)에게 시집간 첫째딸을 말함.

45 대렴(大斂) : 소렴이 끝난 다음 날 이불로 싸서 베로 묶는 일, 또는 그 의식을 말한다.

1928년 3월 10일. 기해 -도유대연헌-. 맑음.

十日. 己亥【屠維大淵獻】. 陽.

1928년 3월 11일. 흐리고 비. 경자 -상장곤돈-.

十一日. 陰雨. 庚子【上章困敦】.

1928년 3월 12일. 신축 -중광적분약-. 맑음.

十二日. 辛丑【重光赤奮若】. 陽.

1928년 3월 13일. 임인 -현익섭제-. 맑음. 황사가 있었다.

十三日. 壬寅【玄默攝提】. 陽. 霾.

1928년 3월 14일. 계묘 -소양단알-. 종일 바람이 불고 또 황사가 있었다.

十四日. 癸卯【昭陽單闕】. 終風且霾.

1928년 3월 15일. 갑진 -알봉집서-. 맑음. 바람이 불고 또 황사가 있었다.

十五日. 甲辰【闕逢執徐】. 陽. 風且霾.

1928년 3월 16일. 을사 -전몽대황락-. 맑음. 바람이 불고 황사가 있었다.

十六日. 乙巳【旃蒙大荒落】. 陽. 風霾.

1928년 3월 17일. 병오 -유조돈장-. 맑음.

十七日. 丙午【柔兆敦牂】. 陽.

1928년 3월 18일. 정미-강어협흡-. 비가 오려다가 오지 않았다.

十八日. 丁未【彊圉協洽】. 欲雨未雨.

1928년 3월 19일. 무신-저옹군탄-. 맑음.

十九日. 戊申【著雍涇灘】. 陽.

1928년 3월 20일. 기유-도유작악-. 맑음.

二十日. 己酉【屠維作噩】. 陽.

1928년 3월 21일. 경술-상장엄무-. 맑음.

二十一日. 庚戌【上章闔茂】. 陽.

1928년 3월 22일. 신해 중광대연무-. 흐림. 상왕(上王)이 계묘년에 ‘식소구헌(式昭舊憲)’ 네 글자를 써서 함경도(咸鏡道) 향약소(鄉約所)에 하사한 글을 살펴보았다.

二十二日. 辛亥【重光大淵獻】. 陰. 奉審上王癸卯書, ‘式昭舊憲’四字, 賜咸鏡道鄉約所.

함경도는 곧 우리 가문이 터를 잡아 왕조를 일으킨 땅이다.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께서 친히 향헌(鄉憲) 41조를 지었으며, 효령대군(孝寧大君)은 성지를 받들어 헌목(憲目) 56조를 기술했고, 세종대왕(世宗大王) 10년에는 다시 유향소(留鄉所)를 설치하여 절목(節目) 12조를 마련했으며, 정조(正祖) 21년에는 향약(鄉約) 윤음(綸音)을 반포하였으니, 아름답고 성대하도다.

열성조(列聖朝)께서 근본을 돈독히 하고 세속을 교화하려는 지극한 뜻은 실로 만 대에 몇몇한 법이다. 금년에 친히 ‘식소구헌(式昭舊憲)’ 네 글자를 써서 내림은 선대의 뜻을 밝히고 또한 사민(士民)을 면려(勉勵)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혹시 오래되면 폐단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증보해서 바로 잡는 것이 옳다. 장례원(掌隸院)으로 하여금 시의(時宜)를 참작해 절목(節目)을 만든 다음 간행하여 남북도(南北道) 관찰부(觀察府)에 반포하고 여러 군의 향교에 두어 춘추로 강마(講磨)하게 하여 공경히 옛법을 지키도록 하라.

咸鏡道卽，我家肇基龍興之地也。太祖高皇帝，親製鄉憲四十一條，孝寧大君奉旨述憲目五十六條，世宗大王十年，復設留鄉所，磨鍊節目十二條，正祖二十一年頒下鄉約繪音。猗歟盛矣，列聖朝敦本化俗之至意，寔是萬世常憲也。今年親書‘式昭舊憲’四字以下，式昭先旨，亦勉勵士民者，而其或久未必無弊，今可以增補而矯救者。令掌隸院，參酌時宜成給節目，刊模頒下南北道觀察府，使之置諸列郡鄉校，春秋講磨，欽守舊憲。

1928년 3월 23일. 임자 -현익곤돈-. 맑음.

二十三日. 壬子【玄默困敦】. 陽.

179

1928년 3월 24일. 계축 -소양적분약-. 흐리고 비.

二十四日. 癸丑【昭陽赤奮若】. 陰雨.

1928년 3월 25일. 갑인 -알봉섭제-. 맑.

二十五日. 甲寅【闕逢攝提】. 晴.

1928년 3월 26일. 을묘 -전몽단알-. 바람 불고 황사가 있었다. 맑음.

二十六日. 乙卯【旃蒙單闕】. 風霾. 陽.

1928년 3월 27일. 병진 -유조집서-. 맑음. 바람이 불고 황사가 있어서 산의 형태를 구분할 수 없었다.

二十七日. 丙辰【柔兆執徐】. 陽. 風霾不辨山容.

1928년 3월 28일. 정사 -강어대황락-. 맑음. 바람이 불고 황사가 있었다.

二十八日. 丁巳【疆圉大荒落】. 陽. 風霾.

1928년 3월 29일. 무오 -저옹둔장-.

二十九日. 戊午【著雍敦牂】.

1928년 4월 1일. 기미 -저옹협흡-. 맑음.

四月. 初一日. 己未【屠維協洽】. 陽.

1928년 4월 2일. 경신 -상장군탄-. 맑음.

二日. 庚申【上章涒灘】. 陽.

1928년 4월 3일. 신유 -중광작악-. 맑음.

三日. 辛酉【重光作噩】. 陽.

1928년 4월 4일. 임술 -현익엄무-. 맑음.

四日. 壬戌【玄默闞茂】. 陽.

1928년 4월 5일. 계해 -소양대연헌-. 흐리고 비.

五日. 癸亥【昭陽大淵獻】. 陰雨.

1928년 4월 6일. 갑자 -알봉곤돈-. 맑.

六日. 甲子【闕逢困敦】. 晴.

1928년 4월 7일. 을축 -전몽적분약-. 흐림.

일찍이 듣건대, 구산(龜山, 양시(楊時))이 명도(明道, 정호) 선생에게 배우다 떠나자, 명도가 이르기를 ‘우리 도가 남으로 가는 구나. [吾道南矣]’라고 하였다. 이제 두보의 <소혜(蘇溪)에게 주다[贈蘇溪]’라는 시를 보니, “이 사람이 몸을 빼서 왔으니, 어찌 우리 도가 동쪽으로 옮겨감이 아니겠는가?[斯人脫身來, 豈非吾道東?]”라는 구절은 정현(鄭玄)이 마융(馬融)에게서 배우고 하직하자, 마융이 “정생이 지금 가니, 우리 도가 동으로 옮겨가는구나!”라고 했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록한다.

七日. 乙丑【旃蒙赤奮若】. 陰. 嘗聞龜山學於明道先生而去, 明道曰, ‘吾道南矣’. 今見杜子<贈蘇溪詩>曰, “斯人脫身來, 豈非吾道東”之句, 引鄭玄學於馬融, 辭歸, 融曰, “鄭生今去, 吾道東矣”之語也, 故記之.

1928년 4월 8일. 병인 -유조섭제-. 맑음.

八日. 丙寅【柔兆攝提】. 陽.

1928년 4월 9일. 정묘 -강어단알-. 맑음.

九日. 丁卯【疆圉單闕】. 陽.

1928년 4월 10일. 무진 -저옹집서-. 맑음.

두보의 시를 보다가 <겨울날 낙성 북쪽에서 현원황제묘를 참배하다 [冬日洛城北, 謁玄元皇帝廟]>에 이르렀다. -두보는 자주(自註)에서, “묘에 오도자(吳道子)가 그린 오성도(五聖圖)가 있다.”고 하였다. 오성이란 곧 고조·태종·고종·중종·예종으로, 묘에 그려져 있다. - 끝 구절의 “곡신이 만일 죽지 않았다면, 즐박함을 기르며 또 어느 곳에 가 있을까[谷神如不死, 養拙更何鄉]”에 이르렀는데, “《노자(老子)》

에 ‘곡신불사(谷神不死)<sup>46</sup>라 하였으니,谷은 허(虛)이니, 사람의 신(神)이 허중(虛中)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항상 존재하여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향(何鄉)은 하방(何方)과 같은 말이니, 곡신불사가 진실로 노자의 말과 같다면 내가 즐박함을 기르는 것을 다시 어느 곳에서 하리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마땅히 노자의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혹자는 이르기를 ‘장자(莊子)의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鄉)<sup>47</sup>이 있다.’고 하고, 주(註)에 ‘지극한 도 가운데 가히 즐길만한 곳이 있다.’라고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十日 戊辰【著雍執徐】陽. 看杜至律, 至<冬日洛城北謁玄元皇帝廟>【甫自註 “廟有吳道子○ | 畫五聖圖○니라 五聖即高祖、太宗、高宗、中宗、睿宗像於廟”】至於末句, “谷神如不死, 養拙更何鄉.” “《老子》에 谷神不死 | 라○니 谷은 虛也 | 니 言人之神이 自虛中而出故로 常存不死 | 니라 何鄉은 猶云何方이니 言谷神不死 信如老子之言 則吾之養拙을 更向何方 이리요 當依老子之教也 | 라 一云 ‘莊子有無何有之鄉’ ○니 註云 ‘至道之中에 有可樂之地也’ ”

논하여 말하기를 “어리석고 어리석도다, 노자라는 사람이여. 허(虛)는 알지만 실(實)은 모르며, 무(無)는 알지만 유(有)는 알지 못하고, 편(偏)은 알지만 주(周)는 알지 못하는구나. 스스로 ‘사람의 태어남은 허중(虛中)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곡신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으니, 인간의 일을 버린 것이다.

46 곡신불사(谷神不死) : 《노자(老子)》 제6장에 이르기를, “곡신은 죽지 않는데, 이것을 일러 현빈이라고 한다. [谷神不死, 是謂玄牝.]”라고 하였다.

47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鄉) : 《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의 “지금 자네가 큰 나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쓸모가 없다고 걱정한다면, 어찌하여 아무것도 없는 시골 마을[無何有之鄉]의 광막한 들판에다 심어 놓으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리석고 어리석도다! 지극히 빈 곳[至虛] 가운데 지극히 찬 것[至實]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태어남에 실리(實理)를 품부 받아 실리를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로지 허무를 위주로 하고 윤리를 모두 폐하니, 슬프도다!”

자신의 생겨남도 또 비어있는 가운데에서 나온 것이다. 실심으로 주(周)나라 주하사(柱下史)<sup>48</sup>가 되어 만체(萬體)에 밝았는데, 어찌하여 한쪽으로 빠져들어 곡신불사(谷神不死)라고 하면서 청우를 타고 가게 되었는가?

옛 성인들은 가까운 몸에서 취했으니, 온갖 이치가 모두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어서, 비어있지만 능히 느낄 수 있고, 없지만 능히 있을 수 있어서 유무를 하나로 삼고 허실을 하나로 삼았다.

오성이 발하여 중절(中節)하고, 생사에 이르러서도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다. 생사를 천리의 공도(公道)에 부쳐두고 천리를 따른다. 어찌 다만 생사를 둘로 보고 허실을 둘로 보며 유무를 둘로 보고, 치우쳐서 허로 주를 삼고, 곡신불사로 후세에 전하여 천리를 거역할 것인가?

論曰, “愚哉愚哉, 老子之爲人也! 知虛而不知實, 知無而不知有, 知偏而不知周. 自言曰, ‘人之生自虛中出來, 故谷神不死’, 棄人間事. 愚哉愚哉. 至虛之中, 有至實者存焉, 故人之生也, 稟實理而行實理也, 全以虛無爲主, 全廢倫理, 哀哉!”

自家之生, 亦自虛中出來. 實心爲周柱下史, 明於萬體, 如何淪爲一偏, 謂其谷神不死, 翻乘青牛? 古之聖人, 近取諸身, 萬理具於心中, 虛而能感, 無而能有, 以有無爲一, 以虛實爲一. 五性發而中節, 至於死生, 生則生, 死則死. 以死生付於天理之公道, 以順天理也. 奚獨以死生爲二, 虛實爲二,

48 주하사(柱下史) : 중국 주(周)나라 때 장서실(藏書室)을 맡아보던 관리, 여기에서는 노자를 가리킨다.

有無爲二, 偏以虛爲主, 以谷神不死, 傳於後世, 以逆天理也?

1928년 4월 11일. 기사 -도유대황락-. 맑음.

十一日. 己巳【屠維大荒落】. 陽.

1928년 4월 12일. 경오 -상장둔장-. 맑음.

十二日. 庚午【上章敦牂】. 陽.

1928년 4월 13일. 신미 -중광협합-. 맑음. 저녁에 흐렸다.

十三日. 辛未【重光協洽】. 陽. 夕陰.

증손주의 사주는 2월 17일 미시이니, 즉 무진, 을묘, 정미, 정미이다.

손자 육남의 사주는 무진년 8월 18일 사시이다.

曾孫四柱, 二月十七日, 未時. 戊辰, 乙卯, 丁未, 丁未. 孫六男, 戊辰, 八月十八日, 巳時.

박인섭(朴寅燮)이 “성학(聖學)과 이단(異端)을 왜 방패와 창[盾矛], 얼음과 숯[氷炭]<sup>49</sup>과 같다고 하는가?”라고 물었다. 답하여 말하기를, “전시대 사람들이 말한 것이 있으니, 이단(異端)의 화(禍)는 홍수(洪水)보다도 심하다. 홍수의 화는 사람의 몸을 빠지게 하지만, 이단의 화는 사람의 마음을 빠지게 한다. 사람의 몸이 빠지면 혹시 구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 빠진 것은 구할 수 없다.”라고 했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경전에서 혹 명(命)을 말하고, 혹 성(性)을 말하고, 혹 교(教)를 말하고, 혹 덕(德)을 말하고, 혹 도(道)를 말하고,

49 얼음과 석탄[氷炭]: 얼음과 숯이라는 뜻으로, 둘이 서로 조화(調和)를 이루지 못하거나 화합(和合)하지 못하는 관계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혹 이(理)를 말하고, 혹 성(誠)을 말하고, 혹 경(敬)을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

답하여 가로되, “다 하나의 이치이다. 하늘이 부여한 것을 명(命)이라 하고, 인(人)과 물(物)이 품수받은 것을 성(性)이라 하며, 각기 그 성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 하고, 그 도를 닦아가는 것을 교(教)라 하며, 인과 물이 천리(天理)를 얻은 것을 덕(德)이라 한다. 만물에 있는 것을 이(理)라 하는데, 이(理)는 실(實)을 근본으로 하는 까닭에 성(誠)이라고 하고, 이 이(理)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을 경(敬)이라 한다. 말은 비록 다르지만 이치는 하나이다.”라고 했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다. 답하기를, “앞 시대의 사람들이 이미 말했으니, 초계(草溪) 정씨(鄭氏) -이름은 문(文)이고, 호(號)는 삼두(三斗)- 가 <군위민천부(君爲民天賦)>에서 말하기를, ‘만물이 만약 초취하면 나는 곧 우로(雨露)의 은혜를 베풀 것이고, 풍속이 만일 완흉(頑兇)하면 나는 곧 뇌정(雷霆)의 노여움을 펼칠 것이다.’라고 했다.”라고 대답했다.

朴寅燮問, “聖學與異端, 何謂如盾矛冰炭也?” 答曰, “前輩有言曰, 異端之禍, 甚於洪水. 洪水之禍, 溺人之身, 異端之禍, 溺人之心. 溺人之身, 或可救也, 溺人之心, 不可救也.”

或問, “經傳, 或言命, 或言性, 或言教, 或言德, 或言道, 或言理, 或言誠, 或言敬, 何也?”

答曰, “皆一理也. 以天賦予謂命, 以人物稟受謂性, 以各率其性謂道, 以修其道謂教, 以人物所得天理謂德. 在物謂理, 理本實故謂誠, 恐失此理謂敬也. 言雖殊, 理則一也.”

或問, “君爲民天, 何也?” 答曰, “前輩已言之, 草溪鄭氏, 諱文號三斗, <君爲民天賦>曰, ‘物如憮悴, 我則加雨露之恩, 俗若頑兇, 我則布雷霆之怒.’”

1928년 4월 14일. 임신 -현익군탄-. 맑다가 흐림. 집으로 돌아왔다.  
가족들이 별탈이 없었다.

十四日. 壬申【玄默涸灘】. 陽而陰. 還家, 家幸無警.

1928년 4월 15일. 계유 -소양작악-. 흐리다 비. 동오재(東吾齋)로 돌아왔다.

十五日. 癸酉【昭陽作噩】. 陰而雨. 還東吾齋.

〈포은선생백양쌍계루시〉 圃隱先生白羊雙溪樓韻

시를 칭하는 백양사 승려를 이제 보고서,	求詩今見白羊僧
붓 잡고 읊조려도 되지 않으니 부끄럽네.	把筆沉吟愧不能
청수(淸叟) 스님 누각 세우니 명성이 처음 중해지고,	淸叟起樓名始重
목은(牧隱) 선생 기문 지으시니 가치 도리어 더해졌다네.	牧翁作記價還增
풍광이 아득한 저문 산의 노을은 붉고,	烟光漂渺暮山紫
달그림자 배회하는 가을 물은 맑구나.	月影徘徊秋水澄
오래도록 인간세상을 향해 골몰한 일 많으니,	久向人間多汨事
구름 헤치고서 언제나 그대와 함께 오를거나?	披雲何日共君登

1928년 4월 16일. 갑술 -알봉엄무-. 맑음.

十六日. 甲戌【闕逢闕茂】. 陽.

1928년 4월 17일. 을해 -전몽대연헌-. 맑음.

十七日. 乙亥【旃蒙大淵獻】. 陽.

1928년 4월 18일. 병자 -유조곤돈-. 맑음. 《두율(杜律)》<sup>50</sup>에서 ‘감희를

50 두율(杜律) : 당(唐)나라의 시성(詩聖) 두보(杜甫)의 칠언율시를 모아놓은 책이다.

써서 친우에게 올린 시 몇 구를 보고 기록해 둔다.

十八日。丙子【柔兆困敦】。陽。看《杜律》書懷呈親友詩數句，記之。

옷자락을 잡아당겨 위(魏)의 문제(文帝)를 경계하니,<sup>51</sup> 牽裾警魏帝  
 천록각에서 투신하여<sup>52</sup> 유흠(劉歆)<sup>53</sup>처럼 될 뻔하였구나. 投閣爲劉歆

- 위나라 사람 신비(辛毗)가 나아가 간언을 하였는데, 문제가 노하여 일어나자 신비가 옷자락을 잡아당겨 간하였다. 양자운(楊子雲)의 말이 유흠(劉歆)의 죄에 연루되어 그를 잡으려 하니 천록각(天祿閣) 아래로 투신하였다.<sup>54</sup>-

【魏人辛毗進諫，文帝怒起，毗牽裾而諫。楊子雲辭連劉歆之罪，有欲捕之，投天祿閣而下。】

- 
- 51 옷자락을 ... 경계하니 : 위(魏)나라의 시중(侍中) 신비(辛毗)가 간언을 듣지 않고 내전으로 들어가려는 위 문제(魏文帝)의 옷자락을 끌어당겨 간한 고사(《삼국지(三國志)》〈위지(魏志) 신비전(辛毗傳)〉)를 비유한 것이다.
- 52 천록각에서 투신하여 : 한(漢) 나라 양자운(楊子雲, 양웅(揚雄))이 태현경(太玄經)을 저술하며 숨어 살면서, “적막(寂寞)으로 덕을 지킨다.”고 자칭하더니. 뒤에 왕망(王莽)에게 벼슬하다가 죄에 걸려 체포를 당하게 되자 높은 누각에서 몸을 던져 떨어졌다. 사람들이, “적막(寂寞)은 투각(投閣)이로다.”라고 하였다.
- 53 유흠(劉歆, 기원전 53?~25) : 유흠의 자는 자준(子駿)이었으나, 나중에 이름을 수(秀). 자를 영숙(穎叔)으로 고쳤다. 아버지 유향(劉向)과 궁정의 장서(藏書)를 정리하고 육예(六藝)의 군서(群書)를 7종으로 분류하여 최초의 서적 목록인 《칠략(七略)》을 저술하였다. 후에 왕망(王莽)이 한왕조(漢王朝)를 찬탈하자 국사(國師)가 되어 국정에 협력하였으나, 만년에 왕망의 포악함에 반대하여 모반을 기도하다가 자살하였다.
- 54 양자운이 ... 투신하였다 : 한(漢) 나라 양웅(揚雄)의 고사인데, 《한서(漢書)》〈양웅전(揚雄傳)〉에는 유흠이 아니라 유분(劉棻)과 관련된 고사로 기록되어 있다. 즉 ‘양웅이 천록각(天祿閣)에서 책을 교정하고 있을 때 유분(劉棻)이 양웅에게 기이한 글자를 배운 일이 있었다. 후에 유분이 왕망(王莽)에게 죄를 받게 되었을 때 양웅이 이에 함께 연좌되어 옥리가 양웅을 잡으려 하자 양웅이 죄를 면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천록각 위에서 뛰어내려 거의 죽을 뻔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십년을 민산(岷山)<sup>55</sup>에서 갈포옷 입고, 十暑岷山葛  
삼년 동안 초호(楚戶)의 다듬이 소리 들었네. 三霜楚戶砧

-이것은 두보가 십년간 민산에 살면서 갈포옷 입었고, 삼년동안 초나라에 살면서 다듬이 소리를 들은 것을 말한다. -

【此言甫十年在岷而着葛，三年在楚而聞砧。】

몇 개의 쌀알 먹는 것에 응당 불과한데, 應過數粒食  
사지금(四知金)<sup>56</sup>을 가까이 할 수 있으랴. 得近四知金

-장화(張華)의 <초료부(鷓鴣賦)>에 “매양 먹을 때면 몇 개의 쌀알에 불과한데, 왕밀(王密)이 금을 보내니 양진이 물리쳤다는 내용이 있다.”<sup>57</sup> -

【張華〈鷓鴣賦〉，“每食不過數粒，沃王密遺金，楊震却。”】

비틀비틀 엮어지며 한단의 걸음걸이 배우지만, 蹉跎翻學步  
참된 친구 있어 감격스럽네. 感激在知音

- 55 민산(岷山) : 중국 촉 지방에 위치한 산이다. 사물의 시초를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강이 처음 민산에서 시작될 때 그 근원은 잔에 넘칠 만큼이다. [江始出於岷山，其源可以濫觴]”란 말이 있다. 《공자가어(孔子家語) <삼서(三恕)>》
- 56 사지금(四知金) : 후한(後漢) 때의 학자 양진(楊震)이 일찍이 동래 태수(東萊太守)로 부임하던 도중 창읍(昌邑)에 이르렀을 때, 일찍이 양진에게서 무재(茂才)로 천거를 받았던 창읍 영(昌邑令) 왕밀(王密)이 밤중에 양진을 찾아가서 금(金) 10근을 바치자, 양진이 말하기를, “그대의 친구인 나는 그대를 아는데, 그대를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故人知君，君不知故人，何也? ]”라고 하니, 왕밀이 말하기를, “밤이라 아무도 알 자가 없습니다.”라고 하므로, 양진이 말하기를,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자네가 알거니, 어찌 알 자가 없다고 하는가. [天知神知我知子知，何謂無知? ]”라고 하고 금을 물리쳤던 데서 온 말이다.
- 57 장화(張華)의 ... 있다 : 진(晉)나라 장화(張華)의 <초료부(鷓鴣賦)>에 “숲 속에 등지를 틀어도 하나의 가지에 불과하고. 매양 먹을 때면 몇 개의 쌀알에 불과하다. [巢林不過一枝，每食不過數粒]”라는 말을 인용한 것이다. 《전서(晉書) 권36 <장화열전(張華列傳)>》

- 《장자(莊子)》에 “수릉(壽陵) 땅의 여자(餘子)가 한단(邯鄲)에 가서 걸음걸이를 배우러다가, 본래의 자기 걸음걸이마저 잊어버려 엉금엉금 기어올 수밖에 없었다.”<sup>58</sup>는 이야기가 있다. 지음은 자기(知己)를 말한다. -

【《莊子》壽陵餘子學步於邯鄲，失其古步，匍匐而還。知音即知己。】

천리밖에서 남이 우물물 마실까 두려워하고, 畏人千里井  
 풍속을 물어 구주잠을 지었네. 問俗九州箴

-옛날 어떤 사람이 떠나기에 앞서 말 먹이고 남은 풀을 우물에 쏟아버렸다. 다시 와서 이 우물의 물을 마시자 잔초(殘草)가 목구멍을 찢어 죽게 되었다. 양웅(楊雄)<sup>59</sup>이 구주잠(九州箴)을 지었고 두보가 이를 인용한 것이다. -

【古有人臨行，瀉馬殘草於井中，復來飲此井，爲殘草所刺喉而死。楊雄作九州箴，甫引之。】

1928년 4월 19일. 정축 -강어적분약-. 안개가 자욱하여 산촌이 가리워졌다.

十九日。丁丑【彊圉赤奮若】。霧擁失山村。

1928년 4월 20일. 무인 -저옹섭제-. 맑음.

二十日。戊寅【著雍攝提】。陽。

1928년 4월 21일. 기묘 -도유단알-. 맑음. 태조대왕(太祖大王)이 포은

58 수릉(壽陵) … 없었다 : 《장자(莊子)》〈추수(秋水)〉에 나오는 ‘한단학보(邯鄲學步)의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다.

59 양웅(楊雄, 기원전 53~18) : 한(漢)나라 성도(成都) 사람으로, 자는 자운(子雲)이다. 문장으로 이름이 났으며, 《태현경》과 《법안》 등의 저서를 남겼다. 《한서(漢書)》 권87 〈양웅전(楊雄傳)〉

선생(圃隱先生)을 쳐서 죽인 일에 대해 조정에서 시비를 분별하라고 하자, 신이 애오라지 답하였다.<sup>60</sup>

二十一日. 己卯【屠維單閼】. 陽. 太祖大王加兵圃隱先生, 辨是非於廷, 臣聊以答之.

주나라에서는 백이의 청절을 포용해,	聖周容得伯夷清
해치지 않고 수양산에서 굶어죽게 하였지.	餓死首陽不死兵
그러나 그날 선죽교에서는, <sup>61</sup>	善竹橋過當日事
정선생을 모신 이 아무도 없었네.	無人扶去鄭先生

1928년 4월 22일. 경진 -상장집서-. 맑음.

二十二日. 庚辰【上章執徐】. 陽.

1928년 4월 23일. 신사 -중광대황락-. 맑음.

二十三日. 辛巳【重光大荒落】. 陽.

1928년 4월 24일. 임신 -현익돈장-. 맑음.

二十四日. 壬申【玄默敦牂】. 陽.

60 태조대왕(太祖大王)이 ... 답하였다 : 연안 이씨 가승보에 이석형(李石亨, 1415~1477)이 지은 시로 나온다. 세조 2년에 전라도관찰사로 있던 이석형(李石亨)이 익산을 순시하던 중 사육신이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착잡한 심경을 중국 고사를 빌어 <이녀죽(二女竹)과 대부송(大夫松)>이라는 시 한 수를 지었는데, 이 시 때문에 이석형은 고변을 당하여 세조 앞에 끌려와서 국문을 받게 되었다. 세조는 “경은 정몽주가 고려에서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 조선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석형은 왕이 하문한 것을 시로써 올리겠다 하고 이 시로 답하였다 한다.

61 그러나 그날 선죽교에서는 : 1916년 3월 27일 일기에는 ‘善竹橋過當日事’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善竹橋當日事’로 ‘過’자가 빠져 있다.

1928년 4월 25일. 계미 -소양협흡-. 맑음.

二十五日. 癸未【昭陽協洽】. 陽.

1928년 4월 26일. 갑신 -알봉군탄-. 비.

二十六日. 甲申【閼逢涸灘】. 雨.

1928년 4월 27일. 을유 -전몽작악-. 흐리고 비.

二十七日. 乙酉【旃蒙作噩】. 陰雨.

1928년 4월 28일. 병술 -유조엄무-. 전경(前景)이 맑음.

二十八日. 丙戌【柔兆闍茂】. 前景晴.

1928년 4월 29일. 정해 -강어대연현-. 맑음. 두보시를 보았다.

二十九日. 丁亥【疆圉大淵獻】. 陽. 看杜詩.

191

나의 본성은 방탄하여,

我生性放誕

평소 절로 그렇게 되는 대로 맡겼네.

雅欲逃自然

- 자연(自然)은 도(道)이다. 석씨(釋氏)는 선(禪)으로 도피함을 말하고,

유자(儒者)는 자연으로 도피함을 말한다. -

【自然은 道也 | 라 釋氏는 謂逃禪이요 儒者는 謂逃自然】

1928년 4월 30일. 무자 -저옹곤돈-. 맑음.

三十日. 戊子【著雍困敦】. 陽.

1928년 5월 1일. 기축 -도유적분약-. 맑음.

五月. 一日. 己丑【屠維赤奮若】. 陽.

1928년 5월 2일. 경인 -상장섭제-. 맑음.

五月. 初二日. 庚寅【上章攝提】. 陽.

1928년 5월 3일. 신묘. 흐리고 비.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병자년에 흥양에서 소가 머리가 둘 달린 송아지를 낳아서 사방에서 보러오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 때문에 주인이 그 머리를 베어, 그 고을 태수인 김홍집(金弘集)에게 헌납하여 보였다. 이후로 주인은 온 집안사람이 몰사하였고, 홍집은 후에 재상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三日. 辛卯. 陰雨. 有人言, “丙子年, 興陽牛生兩頭犢, 四方來觀者眾多, 故主人斬其頭, 其州太守金弘集納觀. 自後主人渾家沒死, 弘集后爲宰相.”

1928년 5월 4일. 임진 -현익집서-. 갬. 흐림. 《초계정씨보첩》을 보았는데, 제목을 ‘동계선생 팔계정씨세계도(桐溪先生八溪鄭氏世係圖)’라고 했다. 전3세, 후18세가 있다.

전3세 배걸(倍傑)은 문과에서 장원급제하였으며, 예부상서 중추사를 지냈다. 홍문광학추성찬화공신(弘文廣學推誠贊化功臣)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수 태위 문하시중(守太尉門下侍中) 상주국(上柱國) 광유후(光儒侯)에 증직되었다. 부인은 최씨이다. 아들 문(文)은 자(字)가 의덕(懿德)으로, 문과에 급제하고 예부상서 정당문학 태자빈객을 지냈다. 좌복야 참지정사에 증직되고 시호는 정간공(貞簡公)이다. 부인은 김씨로, 윤의(允義)의 딸이다. 아들에는 복공(福公) -형부 원외랑-, 복경(福卿), 복유(福儒)가 있다.

11세에 온(蘊)이 있는데, 자는 휘원(輝遠)이니 바로 동계선생이다. 부친 유명(惟明)은 진사이니,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호는 역양(嶧陽)이다. 조부 숙(淑)은 좌승지에 증직되었다. 증조 옥견(玉堅)은 사포서 별제이고 사헌부 집의에 증직되었다. 호는 학계(蠶溪)이다.

10세조 승(丞)은 국자박사이니, 곧 후1세이다.

四月. 壬辰【玄默執徐】. 晴. 陰. 看《草溪鄭氏譜牒》, 題目云 ‘桐溪先生八溪鄭氏世係圖’. 有前三世, 後十八世. 前三世, 倍傑, 文科壯元, 禮部尚書中樞使, 贈弘文廣學推誠贊化功臣 開府儀同三司 守太尉 門下侍中 上柱國 光儒侯. 夫人崔氏. 子, 文, 字懿德, 文科, 禮部尚書 政堂文學 太子賓客, 贈左僕射參知政事, 諡貞簡公. 夫人金氏, 允義女. 子, 福公, 刑部員外郎, 福卿, 福儒.

十一世有蘊, 字輝遠, 卽桐溪先生. 父惟明, 進士, 贈吏曹參判, 號嶧陽. 祖淑, 贈左承旨. 曾祖玉堅, 司圃署別提, 贈司憲府執義, 號蠖溪. 十世祖丞, 國子博士, 卽後一世也.

#### 《동사찬요(東史纂要)》<sup>62</sup>

정문(鄭文)의 자(字)는 의덕(懿德)이고 초계인이며, 시중 배걸의 아들이다. 처 최씨는 현숙하였지만 아들이 없어서 그 족친의 딸을 키워서 배걸의 첩으로 삼았다. 얼마 안가서 배걸이 죽고, 유복자 문(文)이 태어났다. 문은 나이가 겨우 15~6세에 숙성하기가 마치 노성인(老成人) 같았다. 국자감시(國子監試)에 나아가 <군위민천부(君爲民天賦)>를 지었는데, 그 부에 이르기를, “만물이 만약 초취하면 나는 곧 우로의 은혜를 베풀 것이고, 풍속이 만일 완흉하면 나는 곧 뇌정의 노여움을 펼칠 것이다. [物如樵悴, 我則施雨露之恩. 俗若頑兇, 我則布雷霆之怒.]”하니, 문종이 듣고 칭탄하였다.

문과에 급제하여 직한림(直翰林)에 발탁되었고, 좌승유(左拾遺)로 옮겼다. 대간이 “문(文)의 외가는 처인부곡(處仁部曲) 출신이니, 간관(諫官)으로 마땅하지 않습니다.”라고 논박하여 내급사(內給事)로 고쳐 제수하였다. 관직은 정당문학(政堂文學) 예부상서(禮部尙書)에 이르렀다.

62 동사찬요(東史纂要) : 1606년(선조 39)에 문신 오윤(吳澐)이 지은 역사책이다. 8권 8책이며, 목판본이다.

사람됨이 공검(恭儉)하고 박눌(朴訥)하였으며, 생업에 종사하지 않아 거처하는 집은 겨우 풍우(風雨)만 가릴 정도였다. 관직에 있을 때는 청신(淸慎)하여 형조를 맡은 10여 년 동안 일찍이 함부로 남의 죄를 잘못 출입<sup>63</sup>시키지 않았다. 일찍이 서경에 호종하였을 때 기사사(箕子祠)를 세울 것을 청하였다. 사신으로 송에 들어갔는데, 이때 하사받은 돈과 비단을 따라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로 는 다 서적(書籍)을 구입하였으며, 달리 구하는 바가 없었다. 송나라 사람들이 이를 칭찬하였다. 졸(卒)함에 시호를 정간(貞簡)이라 하고, 좌복야 참지정사(左僕射參知政事)에 추증하였다.

### 東史纂要.

鄭文, 字懿德, 草溪人, 侍中倍傑之子. 妻崔氏, 賢而無子, 養其族女, 以爲倍傑妾. 未幾, 倍傑死, 遺腹生. 文年甫十五六, 巖然若老成人. 赴試作〈君爲民天賦〉曰, “物如憫悴, 我則施雨露之恩. 俗若頑兇, 我則布雷霆之怒.” 文宗聞之稱歎. 登第, 擢直翰林, 轉左拾遺. 臺諫駁奏, “文外系出處仁部曲, 不宜諫官.” 乃改授內給事. 官至政堂文學禮部尚書. 爲人恭儉朴訥, 不事生業, 居室僅庇風雨. 莅官淸慎, 典刑曹十餘年, 未嘗妄出入罪人. 嘗扈駕西京, 請立箕子祠. 奉使入宋, 所賜金帛, 分與從者, 餘悉買書籍, 他無所求. 宋人多之. 卒謚貞簡, 贈左僕射參知政事.

1928년 5월 5일. 기사 -소양대황락-. 오늘은 천중절(天中節, 단오)이며, 또 하지(夏至)이다. 동계선생(洞溪先生)은 갑인년(1614) 2월에 봉사(封事)를 올려 정항(鄭沆)을 참수하고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위호(位號)를 추복(追復)할 것을 청하였다. 양사(兩司)가 죄를 의논하고자 일제히 발론하자, 선생이 동대문 밖에서 대명(待命)하였다. 합사가 안율(按律)하기를 청하였다. 3월 3일에 옥사에 나아갔다. 6월 임

63 출입: 법관(法官)이 형벌 쓰는 데 '출(出)'과 '입(入)'이 있으니, 두 가지가 다 정당하지 못한 것이다. 출은 중죄(重罪)를 경형(輕刑)에 처하는 것이요, 입은 경죄(輕罪)를 중형에 처하는 것이다.

오일에 국청(鞠廳)을 대하였다. 7월 신해일에 다시 공초하였다. 광해군이 특별히 대정현(大靜縣)<sup>64</sup>에 위리안치하라고 명하였다. <우연히 짓다>

五月. 五日. 癸巳【昭陽大荒落】. 是日天中節, 又逢夏至也. 洞溪先生, 甲寅二月上封事, 請斬鄭沆, 追復永昌大君位號. 兩司齊發議罪, 先生待命東門外. 合司請按律. 三月三日就獄. 六月壬午對鞠廳. 七月辛亥再供. 光海特命大靜安置圍籬所. 偶成

성역이 고원하지 않아 한 갈래 길이 통하니,	聖域非高一經通
성성하게 경을 잡아 지키는 것이 요체일세.	惺惺持敬是要功
천만 가지 사악함과 욕심 모두 대적할 만하니,	千邪萬欲皆堪敵
천리의 유행은 절로 다함이 없는 법이랴오.	天理流行自不窮

구중설(求中說)<sup>65</sup>을 짓다. 대개 이천(伊川)의 ‘이미 구함이 있으면 중(中)이 아니다’는 설과, 연평(延平, 이동(李侗))의 ‘고요히 앉아서 중을 구한다’는 설을 합하여 논해보고 그 다른점을 변별해 보니 하나로 귀결된다.

作求中說. 蓋以伊川‘既求非中’, 延平‘靜坐求中’之說, 合而論之, 卞其異同, 而一其歸也.

1978. 5월 6일. 갑오 -알봉돈장-. 맑음. 《삼두집(三斗集)》<sup>66</sup>을 보았다.

- 64 대정현(大靜縣)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던 조선시대의 지명이다.
- 65 구중설(求中說) : 미발시(未發時)에 중(中)을 구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다. 정자, 주자의 의견과 나훈순(羅欽順), 여조겸(呂祖謙) 등의 의견이 같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자들 간에도 논쟁거리가 되었다.
- 66 삼두집(三斗集) : 삼두집은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인 정동윤(鄭東潤, 1682~1746)의 문집이다. 정동윤은 권상하(權尙夏)·홍중하(洪重夏)의 문인이다. 1711년(숙종 37)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이듬해 부사정(副司正)에 제수되었다. 그때 왕을 배알하였는데, 용모·문장·문벌이 다 갖추었다는 뜻으로 숙종이 ‘삼두(三斗)’라는 호를 내렸다. 여러 벼슬을 거쳐 1728년(영조 4) 괴산군

숙종대왕 8년 임술(1682) 8월 19일 기사일에 선생은 보성군 미력면 두산리에서 태어났다. 성은 정씨이고, 휘는 동윤(東潤)이며, 자는 화국(華國), 호는 삼두(三斗)이며, 본관은 하동(河東)이다. 시조 휘 도정(道正)은 고을의 병사들을 단련하여 삼국시대 말에 이름이 났다. 휘 국용(國龍)에 이르러서 고려 고종(高宗)조에 벼슬을 했다. 지연(芝衍)을 낳았는데, 시호가 문충공(文忠公)이다. 전하여 휘 인귀(仁貴)는 우리 조선 태종(太宗) 때 원종공신(原從功臣)이다.

선생은 30세에 문과에 장원(壯元) 급제하고, 31세에 주서(擬書)에 임명되었다가 정원(政院)에서 출패(出牌)하여 그대로 부사정(副司正)을 제수되었다. 상이 불러서 보고 칭찬하여 말하기를 “너의 용모(容貌)와 문장(文章) 그리고 지벌(地闊)은 각각 한 말이 된다.”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호를 ‘삼두(三斗)’라고 하였다.

五月. 初六日. 甲午【閏逢敦牂】. 陽. 看《三斗集》. 肅宗大王八年壬戌八月十九日己巳, 先生生于寶城彌力面斗山里第. 姓鄭, 諱東潤, 字華國, 號三斗, 系出河東. 始祖諱道正, 團鍊鄉兵, 名於三國之季. 至諱國龍, 仕高麗高宗朝, 生芝衍, 諡文忠公. 傳諱仁貴, 我朝太宗原從功臣. 先生三十文科壯元, 三十一歲擬注書, 自政院出牌, 仍教除副司正. 上引見贊賞曰“汝之容貌文章地闊, 各滿一斗.” 因號以三斗.

〈성인이 현인을 길러 만민(萬民)에까지 미치게 한다는 의(義)〉

저는 예전에 들건대 소상국(蕭相國)<sup>67</sup>이 한나라 왕에게 말하기를 “만민

수로 있을 때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부원수로 임명되어 반란을 진압하는데 앞장섰다. 이 문집은 5세손 순신(淳信)이 남은 유고를 수집, 편집하여 1923년에 간행한 것이다.

67 소상국(蕭相國) : 소하(蕭河)로, 한나라 고조(高祖)의 신하로서 장량(張良)·한신(韓信)과 함께 삼걸(三傑) 가운데 한 사람이다. 초·한(楚漢)이 서로 대결할 때 항상 관중(關中)에 남아 지켜서 군량을 보급하는 일이 중단되지 않았고, 고조가 자주 산둥(山東)에서 패하였으나 항상 관중을 온전히 하여 고조가 제위(帝

(萬民)을 길러서 현인이 되게 한다.”라고 하였는데, 저는 일찍이 마음속으로 의심하여 ‘이 무슨 뒤집어 말하고 거꾸로 베푸는 일인가?’라고 말하고, 깊이 잠겨서 반복 생각해보아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날이 여러 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복희의 역(易)을 보고서 근거가 없는 독자적 견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저 현자(賢者)는 나라의 중기(重器)이니, 기강(綱紀)이 문란해지면 현자가 바로잡고, 군주의 덕이 비게 되면 현자가 보충해주며, 백성이 위태로우면 현자가 편안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천하가 태평하고 일국이 다스려지는 것에 현자의 쓰임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성스런 황제와 밝은 군왕은 굽어모으고 발라내어[爬羅剔抉] 예로써 초치하고 그 녹봉을 풍부하게 하여 존양해주며, 그의 관작을 높여주어 영광되게 합니다. 그에게 일을 맡긴 뒤에는 소인이 이간질 하지 못하게 하고, 그를 공경하길 한결같고 두 마음을 갖지 않기[不以一而慢二] 때문에, 현인과 군자는 등용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경륜의 큰 뜻을 펼치게 됩니다.

나라를 빛낸 대가를 안배하여 그의 군주를 요순과 같이 만들고 한 세대를 풍동하게 할 것입니다. 만민을 춘대(春臺)<sup>68</sup>의 위에 모이게 하고 천하에 태산과 같은 편안함을 시행한다면 현자의 공이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이 《주역》의 단전(象傳)에서 드러내어 말하는 까닭이니, 만세토록 인군의 가치(柯則)<sup>69</sup>이 될 것입니다.

오호라! 인군이 된 자는 대역(大易)에서 보여준 의리를 체인하여 한 시대의 현자를 공경히 기르고, 묘당(廟堂)의 위에 공경(公卿)으로 등용하여 조정에서 높은 자리에 나열하면, 군읍(郡邑)의 지방관[守牧]이 된 자와 변방

위에 오르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후에 벼슬이 승상에 이르렀다. (《사기》 권53 <소상국세가(蕭相國世家)>)

68 춘대(春臺) : 《노자(老子)》 제12장에, “세속의 중인들은 화락하여 마치 푸짐한 잔칫상을 받은 듯, 다스운 봄날 높은 누대에 올라서 사망을 조망한 듯 즐거워한다. [衆人熙熙, 如享太牢, 如登春臺.]”라고 한 데서 온 말로, 태평성대를 의미한다.

69 가치(柯則) : 《시경》 <벌가(伐柯)>에 “도끼 자루를 뺀이여 도끼 자루를 뺀이여, 그 법칙이 멀지 않네. [伐柯伐柯, 其則不遠]”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의 장수된 자가 현자가 아님이 없을 것이니, 필부필부가 어찌 그 은택을 받지 않은 자가 있을 것입니까?

현자가 나라에 유익하다는 것은 얼마나 그 연유가 분명합니까? 옛날 성탕(成湯)은 3번이나 초빙하는 예를 갖추었으며 이윤(伊尹)이 변연히 생각을 바꾼 까닭에 은나라 백성이 편안해졌습니다.<sup>70</sup> 문왕(文王)은 이로(二老)를 잘 봉양한 까닭에 주나라 백성이 다스려졌습니다.<sup>71</sup> 삼대(三代)의 정치가 위에서 융성하고 풍속이 아래에서 아름다웠던 까닭이<sup>72</sup> 이것입니다.

### 義聖人養賢以及萬民.

愚聞昔者，蕭相國言於漢王曰，“養萬民以致賢人”，愚嘗切疑於心曰，‘是何倒言而逆施之耶?’ 沈潛反覆，未得其旨者，日多矣。及觀義易，乃知獨見無據之言也。夫賢者，國之重器也，綱紀之紊，賢者繩之，君德之闕，賢者補之，生民之危，賢者安之，至於天下之平，一國之治，無不係於賢者之用也。是故聖帝明王爬羅剔抉，禮以致之，豐其祿而養之，尊其爵而榮之，任之而不以小人間之，敬之而不以一而慢二，故賢人君子樂於爲用，而施其經綸之大志。措其華國之巨手，堯舜乎其君，風動乎一世。圍萬民於春坵之上，措天下於泰山之安，則賢者之用功，爲如何哉? 此易象之所以表而言之，而爲萬世人君之柯則也，嗚呼，爲人君者體大易

- 70 옛날 ... 편안해졌습니다 : 은(殷)나라 성탕(成湯)이 세 번 사람을 시켜 이윤(伊尹)을 초빙한 고사를 말한다. 이윤은 탕왕(湯王)을 도와 하(夏)나라 걸왕(桀王)을 멸망시키고 난세를 평정한 뒤에 선정을 베푼 상(商)나라의 명재상이다.
- 71 문왕(文王) ... 다스려졌습니다 : 《맹자》〈이루(離婁) 상(上)〉에, “백이(伯夷)와 태공(太公) 두 노인은 천하의 대로인데 문왕(文王)에게 돌아갔으니, 이는 천하의 아버지가 문왕에게 돌아간 것이다. 천하의 아버지가 돌아갔으니, 그 자제들이 문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가겠는가. [二老者，天下之大老也，而歸之，是天下之父歸之也。天下之父歸之，其子焉往?]”라는 내용에서 나온 말이다.
- 72 삼대(三代)의 ... 까닭이 : 위에서 치세(治世)가 융성하고 아래에서 풍속이 아름답다는 말은《대학》의 서문(序文)에 나오는 말이다. 옛날 하(夏)·은(殷)·주(周) 삼대(三代) 때에는 학교의 제도가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고 심신 수양을 위주로 한 교육 방법이 분명하게 실현되고 있었기 때문에 배움을 통해서 상하가 모두 자신의 인격을 연마함으로써 집안을 다스리고 국가와 천하를 통치하며, 풍속을 교화해 가는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었다.

垂示之義，而敬養一時之賢者，公卿乎廟堂之上，布列于朝著之右，守牧于郡邑，杖鉞乎邊圉者，無非賢者，則匹夫匹婦，安有不被其澤者乎有是哉？賢者之有益於國也，何以明其然也？昔者成湯，三聘禮勤，伊尹幡然，故殷民安焉。文王，善養二老之，故周民治焉。三代之所以治隆於上俗美於下者，此也。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갖추었기를 바라지 말라[與人不求備]〉

대저 그 단점을 단점이라고 하여 그것을 잘라가면 만물에는 단점 아닌 것이 없다. 그 장점을 장점이라고 하여 그것을 길러가면 만물에는 장점 아닌 것이 없다. 완전한 선[盡善]과 완전한 미[盡美]는 요순(堯舜)도 병통(病痛)으로 여겼다. 한 가지 기예와 하나의 재주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사내도 능한 것이 있으니, 다른 사람을 책(責, 권함)하여 갖추도록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다른 사람에게 모두 갖추었기를 바라지 말라’<sup>73</sup>고 했으니, 좋은 말이다. 무릇 사람에게는 이 덕(德)이 있는 자는 이 병(病)이 없지 않고, 이 병이 있는 자는 이 덕이 없지 않다. 왜 그런가? 이것에 능한 자가 반드시 저것에 능하지는 않고, 갑(甲)을 잘하는 자가 반드시 을(乙)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까닭에 성인(聖人)이 사람을 대하는 것은 능히 알고 있는 바를 책하는 것이지, 능히 알지 못하는 것을 책하지는 않는다. 사람을 책함에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을 책하지, 능히 행할 수 없는 것을 책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람은 쓸 수 없는 사람이 없으며 또 취할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며, 백관의 일이 진실로 잘 다스려지는 까닭이고 모든 일이 완성되어 다 빛나게 되는 까닭이다.<sup>74</sup>

73 다른 ... 말라 : 《서경》 〈이훈(伊訓)〉에 나온다. 탕임금을 이어 왕위에 오른 태갑(太甲)에게 이윤(伊尹)이 훈계하는 말에 “신왕께서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갖추기를 바라지 않았고[與人不求備], 자신을 검칙함에는 미치지 못함이 있는 듯이[檢身若不及] 하셨습니다.”라고 하였다.

74 백관의 ... 까닭이다 : 《서경》 〈요전(堯典)〉에 “1년은 모두 366일이 되는데, 여기에 윤달을 끼워 넣어야만 사계절이 정해지고 한 해가 이루어져서, 진실로 백관의 일이 다스려지고 모든 일이 완성되어 빛나게 될 것이다. [堯三百有六旬有六日, 以

오호라! 노둔한 증삼(曾參), 어리석은 고시(高柴)도 바탕은 각각 다른 것이 있고<sup>75</sup>, 훌륭한 계책을 내는 방현령(房玄齡)과 용단을 잘 내리는 두여회(杜如晦)도 장점이 있는 곳에 쓰임이 있었으니<sup>76</sup>, 구태여 그 온전함을 구한다면 누구라도 한 가지에는 능하리라. 그것은 장인이 나무를 쓰는 데 있어서, 주나무·누나무·박나무·노나무[株樵構樸]는 크고 가느다란 것이 일정하지 않지만 각각 그 재목에 마땅하게 쓰는 것과 같고, 의사가 약을 쓰는 데 지초(芝草)·복령(茯苓)·삼(參)·백출(白朮)이 달고 쓰기가 한 가지가 아니지만 각기 그 성질에 마땅한 것을 쓰는 것과 같으니, 무릇 천하에는 수만 가지 똑같지 않은 재주가 있으니, 그것을 겸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려면[任重致遠]<sup>77</sup> 오직 갈기가 있는 말<sup>78</sup>만

閏月, 定四時成歲, 允釐百工, 庶績咸熙.]”라는 말이 나온다.

- 75 노둔한 ... 있고 : 《논어》〈선진(先進)〉에 “시(柴)는 어리석고 증삼(曾參)은 노둔하다[柴也愚, 參也魯]”는 공자의 평가가 있다. 주(註)에 “증삼이 마침내 노둔함으로써 도를 얻었다.”는 정자(程子)의 말이 있고, 주자의 《대학장구》 서문에도 “공자의 삼천 제자가 그런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건만, 증자가 전한 것만이 홀로 그 종지(宗旨)를 얻었다.”는 말이 나온다. 고시(高柴)는 공자의 제자인데, 여기에서 어리석다는 것은 곧 지혜는 부족하고 후한 마음은 넉넉함[知不足而厚有餘]을 말한 것이다.
- 76 훌륭한 ... 있었으니 : 방현령(房玄齡)과 두여회(杜如晦)는 당 태종을 명군으로 만든 재상이다. 태종이 방현령과 국사를 의논하면 방현령은 항상 훌륭한 의견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지만 때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태종은 반드시 두여회를 불러 의논하였는데 두여회는 잠깐 분석한 다음 방현령의 의견을 적극 지지했다고 한다. 이처럼 방현령은 훌륭한 계책을 내고 두여회는 용단을 잘 내린다고 하여 ‘방모두단(房謀杜斷)’이라고 하였다.
- 77 무거운 ... 가려면(任重致遠) : 일반적으로 무거운 것을 지고 먼 곳까지 간다는 의미로, 재주가 탁월하여 큰 임무를 맡을 수 있다는 뜻이다. 《주역》〈계사전하(繫辭傳下)〉에 “소를 부리고 말을 타서 무거운 것을 끌어오고 먼 곳에 이르러 하여 천하를 이롭게 한다. [服牛乘馬, 引重致遠, 以利天下.]”라는 내용이 있고, 《묵자(墨子)》〈친사(親士)〉에 “좋은 말은 타기 어려우나 무거운 것을 지고 멀리까지 갈 수 있고, 훌륭한 인제는 부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지존이 되게 할 수 있다. [良馬難乘, 然可以任重致遠; 良才難令, 然可以致君見尊.]”라는 구절이 있다.
- 78 갈기가 있는 말 : 한유(韓愈)의 글 〈획린해(獲麟解)〉에서 “갈기가 난 동물은 그것이 말인 줄을 우리는 잘 안다. [鬣者吾知其爲馬]”라고 한 것을 인용한 표현이

이 할 수 있지만, 농사에 진력하고자 하면, 갈기 있는 말은 뿔이 달린 소만 못하다. 큰 하천을 잘 건너는 데는 오직 배만이 할 수 있지만, 높은 언덕을 앞을 향해 그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은 수레만한 것이 없으니, 만일 취할 수 있다면, 무엇인들 취하지 않을 것이 있겠는가? 만약 버릴 수 있다면 무엇인들 버리지 않을 것이 있겠는가? 이것이 성인이 각자 그 능한 것으로서 사람에게 허여하는 까닭이고, 그 온전하게 갖추었기를 구하지 않는 것을 이를 통해 볼 수 있다.

율려(律呂)는 영륜(伶倫)이 만들었고<sup>79</sup> 산수(算數)는 이수(隸首)가 시작하였으니, 이것이 현원(軒轅)이 다른 사람에게 허여한 까닭이다.<sup>80</sup> 산택(山澤)은 백익(伯益)이 관리하였고<sup>81</sup> 가색(稼穡, 농사)은 후직(后稷)이 담당하였으니,<sup>82</sup> 이것이 우순(虞舜)이 다른 사람에게 허여한 까닭이다. 그 능력에 따라 각기 그 책임을 다하게 되면, 그 재주가 온전하지 않으나 온전한 것이 그중에 있고, 그 구하는 것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나 갖추어진 것이 그중에 있게 된다.

대개 가장 큰 것은 하늘이지만, 하늘은 서북쪽이 부족하며(天不足西

다.

- 79 율려(律呂)는 영륜(伶倫)이 만들었고 : 고대에 황제(黃帝)가 악관 영륜(伶倫)에게 음률을 만들라고 하자, 영륜이 대하(大夏)의 서쪽에서 완유산(곤륜산으로 전해짐) 북쪽으로 가 해계 골짜기에서 대나무를 베어다가 열두 개의 피리를 만들어 십이율(十二律)을 제정했다. 십이율은 봉황의 울음소리를 듣고서 구별하여 만들었는데 수컷 울음소리로써 육률(六律)을 삼고, 암컷 울음소리로써 육려(六呂)를 삼았다고 한다. (《여씨춘추(呂氏春秋)》〈중하기(仲夏紀) 고악(古樂)〉)
- 80 현원(軒轅)이 ... 까닭이다 : 황제(黃帝) 현원씨(軒轅氏)는 천문(天文)을 살펴 달력을 만들고, 산수(算數)와 음악(音樂)을 만들었으며 배와 수레를 만들어 인문을 발달시켰다. (《十八史略 卷1》)
- 81 산택(山澤)은 백익(伯益)이 관리하였고 : 순 임금의 산림천택(山林川澤)을 관리하는 자리에 백익(伯益)을 앉히고, 주호(朱虎)와 웅비(熊羆)로 백익을 보좌하도록 한 것을 인용하였다. (《사기》 권1 <오제본기(五帝本紀)〉)
- 82 가색(稼穡, 농사)은 후직(后稷)이 담당하였으니 : 기(棄)는 주(周)나라의 선조(先祖)로서 어려서부터 농사를 잘 지었으므로 순(舜) 임금에게 등용되어 정정관(田正官)인 후직(后稷)이 되었으며(《시경》〈생민(生民)〉; 《서경》〈순전(舜典)〉), 후직은 뒤에 곡식을 주관하는 신이 되었다.

北],<sup>83</sup> 가장 넓은 것이 땅이지만, 땅은 동남쪽을 채우지 못한다[地不滿東南].<sup>84</sup> 천지가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라! 귀(鬼)는 굽힐 수 있지만 펴지 못하고 신(神)은 펼 수 있지만 굽힐 수 없으니, 이치가 또한 그러한 것이다. 비록 생지(生知)와 상지(上智)의 자질이라 할지라도 어찌 홀로 다른 사람이 갖추지 못한 바를 홀로 갖출 수 있겠는가? 장자(張子)가 말하기를, “보통 사람의 수준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면 사람들이 따르기가 쉽다.”<sup>85</sup>라고 했으니 이 말이 극진하다.

**與人不求備.**

夫短其短而短之, 則物無不短. 長其長而長之, 則物無不長. 盡善盡美, 堯舜病. 諸一藝一才, 愚夫亦能, 則責人以備, 不其難乎? 《書》曰, ‘與人不求備’, 善哉言乎! 蓋人之有是德者, 不無是病. 有是病者, 不無是德. 何者? 能於此者, 不必能於彼也. 善於甲者, 不必善於乙也. 是以聖人之與人也, 責人以所能知, 而不責其所不能知也. 責人以所能行, 而不責其所不能行. 此其所以人無不可用之人, 亦無不可取之人, 而百工之所以允釐, 庶績之所以咸熙者. 嗚呼! 參魯柴愚, 質各有殊, 而房謀杜斷, 用有所長, 則苟求其全, 孰能一之乎? 如匠之用木也, 株橈構榱, 巨細不侔, 而各當其材. 如醫之用藥也, 芝苓蓼朮, 甘苦不一, 而各當其性, 則凡天下有萬不同之才, 兼之者幾人哉? 任重致遠, 惟鬻者能之, 而服田

- 
- 83 하늘은 서북쪽이 부족하며[天不足西北]: 고대 중국에서는 하늘이 서북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일월성신(日月星辰)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믿었다. 《열자(列子)》〈탕문(湯問)〉과 《사기》 권127 〈일자열전(日者列傳)〉에도 “하늘은 서북쪽이 부족하니 별들이 서북으로 이동한다. [天不足西北, 星辰西北移]”라고 하였다.
  - 84 땅은 … 못한다[地不滿東南]: 《열자(列子)》〈탕문(湯問)〉에서 “공공씨가 진욱과 서로 제왕이 되려고 겨루다가 노하여 부주산을 들이받은 바람에 하늘을 받치던 기둥이 부러지고 땅을 묶어 둔 밧줄이 끊어지게 되었다. 이에 하늘은 서북쪽으로 기울어 일월성신이 그쪽으로 옮겨 가고, 땅은 동남쪽을 채우지 못해 온갖 내와 물이 그쪽으로 돌아갔다. [共工氏與顛頊爭爲帝, 怒而觸不周之山, 折天柱, 絕地維. 故天傾西北, 日月星辰就焉. 地不滿東南, 故百川水潦歸焉.]”라고 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 85 보통 … 쉽다: 《중용장구》 13장의 주에 보인다. 장재(張載)의 《정몽(正蒙)》에 나온다.

力穡, 鬻者不如角. 利涉大川, 維舟也能之, 而長驅高坂不如車, 則如可取也, 孰不取也. 如可捨也, 孰不可捨也. 此聖人之所以各以其能與人, 而不求其全備者, 由是觀之. 律呂則伶倫, 而算數則肆首, 此軒轅之所以與人也. 山澤則伯益, 而稼穡則后稷, 此虞舜之所以與人也. 隨其所能, 各盡其責, 則是其才也, 不全而全在其中, 其求也, 不備而備在其中矣. 大率莫大者天, 天不足西北, 莫廣者地, 地不滿東南, 天地尚然, 而況於人乎! 鬼能屈而不伸, 神能伸而不能屈, 則理亦然也. 雖以生知之質, 上智之姿, 安然獨備人之所不備者乎? 張子曰“以眾人望人則易從”斯言盡之矣.

1928년 5월 7일. 을미 -전몽협흡-. 흐림.

七日. 乙未【旃蒙協洽】. 陰.

1928년 5월 8일. 병신 -유조군탄-. 흐림. 저녁에 먼지만 축일 정도로 비가 왔다.

八日. 丙申【柔兆涸灘】. 陰. 夕雨沍塵.

1928년 5월 9일. 정유 -강어작악-. 흐림.

九日. 丁酉【彊圉作噩】. 陰.

1928년 5월 10일. 무술 -저옹엄무-. 맑음. 염락(濂洛)을 보았다.

十日. 戊戌【著雍闞茂】. 陽. 看濂洛.

1928년 5월 11일. 기해 -도유대연한-. 맑다가 흐림.

十一日. 己亥【屠維大淵獻】. 陽而陰.

1928년 5월 12일. 경자 -상장곤돈-. 흐리고 비. 둔재(遯齋) 정선생 문

집을 보았다.

十二日 庚子【上章困敦】. 陰雨. 看遜齋鄭先生文集.

선생의 휘는 여해(汝諧)이고, 자는 중화(仲和)이며, 본관은 하동이다. 신라와 고려 때부터 저명하여 그 성(姓)이 《고려사(高麗史)》·《여지승람》·《동국통감(東國通鑑)》등에 보이는데, 가로대 평장사는 휘가 도정(道正)이니, 바로 공의 비조이다. 전하여 증엽에 휘 현우(賢佑)가 있는데 증현대부 전객령(典客令)이고, 휘 인귀(仁貴)는 우리 태종조의 원종공신이며 호조참판이시니, 공에게는 고조와 증조가 된다. 휘 유주(由周)는 창덕궁 참봉이며, 휘 지영(之英)은 통훈대부 행 홍양현감으로 호는 고정(鼓亭)인데, 공의 조부와 부친이다.

천순 경진년(1460, 세조6)에 현감공의 다섯 형제가 함께 과거에 급제하였다. 이 때문에 오고정(五鼓亭)을 세우고 호로 삼았다. 어머니인 숙인 신평송씨는 승지 송침(宋鍼)의 따님인데, 황명 경태 원년(1450년, 세종 32)인 경오년 12월 17일에 선생을 낳았다.

일두(一蠹)선생은 바로 선생의 4종형인데, 선생에게 뜻이 학문하는 데에 있음을 알고서 글로써 권면하기를, “《역(易)》에 이르기를 ‘어려서 바른 도리로 기르는 것이 성인을 이루는 공이다[蒙以養正, 聖功也]’<sup>86</sup>라고 하였고, 《예기(禮記)》에서는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을 이룰 수 없다[玉不琢, 不成器]’<sup>87</sup>라고 하였는데, 어찌 궁벽한 시골에 칩거하면서 사우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였다. 선생이 깊이 느끼고 깨달아 드디어 점필재 김종직 선생의 문하에 나아가 배웠는데, 맨 먼저 《중용》을 수업하고 깊은 뜻을 얻어 들었다. 이어서 동문인 한훤당, 일두, 추강 등 여러 선생들과 조용히 강마하여 발명한 바가 많았다. 중종 경인년(1530, 중종 25) 3월 19일에 돌아가시니, 능주 이곡의 임좌의 언덕에 장사지냈다.

86 어려서 ... 공이다: 《주역》 몽괘(蒙卦) 단사(象辭)에 보인다.

87 옥을 ... 이룰 수 없다: 《예기》〈학기(學記)〉에 “옥은 쪼지 않으면 그릇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 [玉不琢不成器, 人不學不知道]”라고 하였다.

先生諱汝諧，字仲和，系出河東。自羅麗爲著，姓其見於《麗史》、《輿覽》、《東國通鑑》者曰，平章事諱道正，卽公之鼻祖也。傳之中葉，有諱賢佑，中顯大夫典客令。諱仁貴，我太宗朝原從功臣，戶曹參判，於公爲高祖，曾祖也。諱由周，昌德宮參奉。諱之英，通訓大夫，行興陽縣監，號鼓亭，公之若祖若考也。以天順庚辰，縣監公五昆季，同榜登第。是以，立五鼓亭，因以號焉。妣淑人新平宋氏，承旨鍼女，生先生于皇明景泰元年庚午十月二十七日。一蠹先生，卽先生之四從兄也。知先生有志爲學，以書勉之曰，“《易》曰，‘蒙以養正，聖功也。’《禮》曰，‘玉不琢，不成器’，豈可自蟄窮鄉，而不求師友之助乎？”先生得深自感悟，遂從學于佔畢齋金先生之門。首授中庸，得聞奧旨，因與同門人寒暄一蠹秋江諸先生，從容講磨，多所發明。中廟庚寅三月十九日卒，葬于綾州耳谷壬坐之原。

## 시 詩

〈벽란정에서 짓다〉

## 題碧瀾亭【朔州歸路登碧瀾亭，次柳思菴淑白鷗詩】

-삭주에서 돌아오는 길에 벽란정에 올라서, 사암 유숙의 〈백구〉시에 차운하다-

이 벽란정이 좋다는 소리 듣고,	聞此碧瀾好
와보려는 생각 품은 지 몇 년이던가.	馳懷曾幾年
이제 사람은 가고 백구만 있어서,	人去白鷗在
옛 난간 앞에서 날아다니고 있구나.	浮浮古檻前

〈병중에 시대를 한탄하며 짓다〉 病中傷時作

시운이 어찌 그리도 참혹하여,	氣運何慳忒
간사한 일자들이 임금의 충명을 가렸네.	奸孽弊聰明
천년동안 현인 없음이 <sup>88</sup> 애통하니,	千載云亡慟

88 현인 없음이 : 《시경》〈침앙(瞻仰)〉에 “현인이 죽으니, 나라가 병들었네. [人之云亡, 邦國殄瘁.]”라고 구절을 인용해 말한 것이다.

누가 알라 때맞추어 나를 낳음을.

誰知適我生

〈수옹(睡翁)<sup>89</sup>의 두류산에서 노닌 시에 차운하다〉

次睡翁遊頭流山韻

한 몸에 도리어 강과 유 갖춰져 있으니,

一身還有備剛柔

고요함 속에서 건곤은 몇 년이 흘렀나.

靜裏乾坤度幾秋

천년된 증점의 비파를 속인들이 노래하니,

點瑟千年兼俗詠

온종일 올라와서 풍류를 다하네.

登臨竟日盡風流

〈한훤당(寒暄堂)<sup>90</sup>의 합천정사 시에 차운하다〉

次寒暄堂陝川精舍韻

그대가 집 지었다는 말 듣고 문 앞까지 갔다 돌아오니,

聞君結構造門還

천리 길의 영서(靈犀)<sup>91</sup>가 한 점으로 차갑네.

千里靈犀一點寒

비로소 산중에서 기쁘게 산다는 것 알았으니,

始覺山中歡動靜

합천의 푸른 물에 또 청산이로다.

陝川綠水又青山

〈주자의 무이구곡시에 차운하다〉 次朱夫子武夷九曲韻

무이산 골짜기마다 신선들이 점유하였으니,

武夷曲曲擅仙靈

누가 이 사이에서 흥취 맑음을 알라.

誰識茲間意味清

청산에서 찬물 내리니 마음 씻기에 좋아라,

青山下寒洗心好

때때로 한가로이 뱃노래 소리도 들어보세.

有時閒聽棹歌聲

89 수옹(睡翁) : 정여창(鄭汝昌, 1450~1504)의 호이다.

90 한훤당(寒暄堂) : 김굉필(金宏弼, 1454~1504)을 말함. 자는 대유(大猷), 호는 한훤당(寒暄堂)·사옹(蓑翁),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점필재 김종직의 제자로 김일손, 김전, 남곤, 정여창 등과 동문이었다.

91 영서(靈犀) : 영묘(靈妙)한 무소뿔을 말한다. 무소뿔은 한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어 양방이 서로 관통하는 것에서, 두 사람의 의사(意思)가 서로 투합됨을 비유할 때 쓴다.

## 1곡

일곡이라 가볍게 학해선 띄우니,  
 끊임없는 진맥들 맑은 시내로 쏟아지네.  
 올라와 온종일 노닐 뜻 끝이 없는데,  
 첩첩한 산 사이로 저녁연기 피어나네.

## 其一

一曲輕揚學海船  
 源源真脈注晴川  
 登臨竟日無窮意  
 萬疊山間起夕烟

## 2곡

이곡이라 둘러보니 기이한 봉우리들이라,  
 시내에 입한 옥녀봉은 춘색을 닮았네.  
 좋게 한바탕 웃고 머리에 꽃을 꽂으니,  
 뺨뺨한 푸른 병풍 몇 겹이 둘러있네.

## 其二

二曲回看奇絕峰  
 臨溪玉女盡春容  
 好然一笑簪花立  
 簇簇蒼屏列幾重

## 3곡

삼곡이라 푸른 물결에 한 조각의 배를 타고,  
 또 백발이 되도록 여생을 보내려네.  
 세상의 영욕을 다시 어찌 말하랴.  
 상전벽해 아득하니 정히 가련하구나.

## 其三

三曲滄浪一葉船  
 且將白髮送餘年  
 世間榮辱復何道  
 桑海蒼茫正可憐

## 4곡

사곡이라 연기와 바람은 암석에 잠겨있고,  
 바위에 핀 꽃은 각양각색 늘어지길 닮았네.  
 도체는 더욱 높아 쳐다보는 사람 없으니,  
 종일토록 소요하며 석담을 굽어보네.

## 其四

四曲風烟鎖石巖  
 巖花各色盡氎氎  
 彌高道體無人仰  
 永日逍遙俯石潭

## 5곡

오곡이라 봄이 깊어 꽃이 만발한 곳에,  
 사사로움 없는 한 기운이 온 숲에 붙어있네.  
 초야에서의 참 낙을 누가 알 수 있을 건가.  
 천지조화의 마음을 체득할 뿐이네.

## 其五

五曲春深花滿處  
 無私一氣着千林  
 林間真樂誰能識  
 體得乾坤造化心

6곡

육곡이라 시냇물은 푸른 물굽이로 쏟아지고,  
사립문은 서 있지만 낮에도 잠겨있네.  
그칠 곳에서 그치니 몸에는 욕됨이 없고,  
분수에 만족하고 기미를 아니 스스로 한가롭네.

其六

六曲溪流注碧灣  
柴扉雖設晝常關  
止吾所止身無辱  
安分知幾自得閒

7곡

칠곡이라 빈 배로 푸른 여울 올라가니,  
온갖 광경을 비 온 뒤에 보게 되네.  
억지로 읊조리니 병골은 시로 인해 여위어가고,  
빗겨 부는 바람은 늦추워 가져올까 두렵네.

其七

七曲虛舟上碧灘  
十分光景雨餘看  
苦吟病骨緣詩瘦  
却怕斜風供晚寒

8곡

팔곡이라 고루암이 눈에 들어와 펼쳐지니,  
다시 짚신을 고쳐 신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네.  
시정(詩情)은 물가로 갔다 산에 오르고,  
봄소식을 꽃과 버들가지에서 물어보네.

其八

八曲鼓樓入眼開  
更穿芒屨首重廻  
詩情臨水登山去  
春信尋花問柳來

9곡

구곡이라 깊숙이 찾아드니 눈앞이 탁 트이고,  
나뉘어진 물줄기는 만 갈래 앞내로 쏟아지네.  
누가 다시 어부의 자취를 물으면,  
웃으며 무릉도원에 별천지 있다고 말하리.

其九

九曲深深眼豁然  
分流萬派瀉前川  
誰能更問漁郎蹟  
笑道桃源別有天

〈맑은 밤에 회포를 읊음〉 淸夜述懷

영대가 소쇄하여 먼지 없이 깨끗한데,  
또 중천에 뜬 달빛조차 새롭구나.  
야기가 청명해야 참 생각 드러나니,

靈臺灑灑淨無塵  
又值中天月色新  
夜氣清明真想露

맹자의 교훈 가슴에 새기어 항상 따르리.

服膺鄒訓戒恒遵

〈점필재선생이 본현에 도착하다〉 佔畢齋先生巡到本縣

감당나무<sup>92</sup>의 가을 빛은 능주를 비추고,

甘棠秋色映綾陽

온화한 인풍은 사방을 울리도다.

藹藹仁風動四方

어떤 방법으로 여망을 흡족시킬 수 있을까,

何術能令輿望洽

사랑하기를 자식처럼, 다친 사람 돌보듯 해야 하리.

愛之如子視如傷

〈동봉승(東峯僧)에게 주다〉 서문을 아우름.

열경(悅卿, 김시습의 자)이시여, 우리가 서로 작별한 지 지금 어언 몇 년입니까? 시사(時事)를 슬퍼하고 분개하여 청산(靑山)의 승려 무리에 자취를 의탁하고, 떠돌며 살다가 일생을 마치려 마음먹고, 세월이 어떤 시절인지, 세도(世道)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두 잊었으니, 열경의 입장에서는 쾌활(快活)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다만 창생들은 어느 곳을 향해 바라볼 것이며, 후학들은 어떤 사람을 구하여 귀의하겠습니까?

이곳에서 해인사 동봉암(東峰庵)까지는 반천리나 되는 먼 거리인데도 은혜롭게 찾아와 주셔서 여러 날 동안 맑은 대화를 나누었으니, 그것은 이처럼 내버려진 한 사람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얼마나 권권(眷眷)해 하는지, 작별에 임하여 주위를 배회하면서 더욱 아쉬운 정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운림(雲林)<sup>93</sup>에서 다시 얼굴을 대할 날이 있을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삼가 시 한 수를 지어 박한 전별 선물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줄렬함을 더하자니 부끄럽습니다.

贈東峯僧. 竝小序.

92 감당나무 : 주 무왕(周武王) 때 소공(召公)이 서백(西伯)으로 선정(善政)을 베풀었으므로, 백성들이 그를 추모한 나머지 그가 잠시 그늘 아래 쉬었던 감당나무를 기념하여 잘 가꾸며 보존하는 한편, 이를 노래로 지어 불렀다는 고사가 있다.

93 운림(雲林) : 구름이 끼어 있는 숲인데, 처사(處士)가 은둔(隱遁)하고 있는 곳을 말한다.

悅卿乎, 吾輩相別, 今幾何年耶? 傷憤時事, 托跡青山白衲之徒, 傲遊浮沒, 以終其身, 都忘年華之爲何時, 世道爲何狀, 在悅卿非不快活, 而但蒼生之望向何地, 後學之求歸於何人? 此去海印寺東峯菴, 爲半千里之遠, 而惠然來顧, 以做累日清話, 其所以不忘此一棄人. 又何其眷眷也, 臨別徘徊, 尤不勝情. 未何處雲林復有奉面之日耶? 謹賦一絕以代薄贖, 拙滋可慙.

운수(雲水) <sup>94</sup> 로 정을 잊고 몇 년 세월 보냈던가,	雲水忘情閱幾秋
객창에서 밤마다 부구(浮邱, 신선)를 꿈꾸리라.	客窓夜夜夢浮邱
그대를 인해 아득히 동봉(東峰)의 달을 생각하리니,	憑君遙憶東峯月
병든 늙은이 만곡(萬曲)의 시름을 알리기 위함이니.	爲報病夫萬曲愁

1928년 5월 13일. 신축 -중광적분약-. 흐림.

十三日. 辛丑【重光赤奮若】. 陰.

1928년 5월 14일. 임인 -현익섭제-. 흐림. 집에 돌아왔는데 손자며느리가 담천(痰喘)<sup>95</sup>으로 신음하였다.

十四日. 壬寅【玄默攝提】. 陰. 歸家, 孫婦痰喘呻吟.

1928년 5월 15일. 계묘 -소양단알-. 맑음.

十五日. 癸卯【昭陽單闕】. 陽.

1928년 5월 16일. 갑진 -알봉집서-. 맑음.

十六日. 甲辰【闕逢執徐】. 陽.

94 운수(雲水): 구름 따라 물 따라 떠돌아다니는 행각승(行脚僧)이란 말이다.

95 담천(痰喘): 담(痰)이 성해서 생기는 천증(喘證)의 하나. 습담(濕痰)이 폐(肺)에 물려서 기도를 막기 때문에 잘 생기는데, 가래 끓는 소리가 나고 기침을 하며 걸쭉한 가래가 잘 뺄어지지 않고 가슴이 그득하고 답답하다.

1928년 5월 17일. 을사-전몽대황락-. 맑음.

十七日. 乙巳【旃蒙大荒落】. 陽.

〈무오사화의 여러 현인들을 신구하는 소[伸救戊午諸賢疏]〉

-상동(上同)-

삼가 신은 평소의 성질이 세상과 함께 말살(抹殺)되어 말에서 구하면 말마다 서로 맞지를 앓고, 일에서 구하면 일마다 서로 합당하지 않으니, 마침내 스스로 물러나 문을 잠그고 그림자만을 지키고 있는 것은 감히 몸을 옹크리고 스스로 편하게 살자는 방책이 아닙니다. 대개 몸을 옹크리고 세상을 사양한 것은 평소에 배운 것을 저버리지 않고 분수에 따라 독선기신(獨善其身)<sup>96</sup> 하고자 하는 계책에서 그런 것입니다. 숨는 곳이 깊으면서도 오히려 혹 깊지 못할까 두렵고, 위축된 것이 견고하면서도 오히려 혹 견고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지위를 벗어나고 분수를 범하여 광고(狂瞽, 미친 사람과 장님)의 말을 낸 것에 이르러서는 주광(黜纘, 임금)을 모독하여 참월(僭越)한 죄를 얻게 되었으니, 실로 제가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에 국가의 흥망과 세도의 오염(汚隆)과 사문의 성쇠(盛衰)와 생민의 안위(安危)가 관계되어 있으니, 어찌 하나같이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겠습니까? 방외의 선비라면 과단성이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果哉末難之科哉]<sup>97</sup>

- 96 독선기신(獨善其身): 홀로 자기 몸을 선하게 한다는 뜻으로, 본래는 자신의 수양에 중점을 두고 절조를 지키는 것을 가리켰으나, 뒤에는 시비를 야기(惹起)할까 두려워하여 오직 자기 한 몸만 생각하고 다른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많이 쓰이게 되었는데, 《맹자》〈진심 상(盡心上)〉의 “곤궁할 때에는 홀로 자기 몸을 선하게 하고, 뜻을 얻으면 천하 사람들과 그 선을 함께 한다. [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 97 과단성 ... 것입니다: 《논어》〈헌문(憲問)〉에, 삼태기를 메고 공자가 머문 집을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세상일에 연연해한다며 공자를 비판하자, 공자가 그를 두고 “과감하다도! 어려울 것이 없겠구나. [果哉! 末之難矣.]”라고 하였는데, 주희(朱熹)는 《집주(集註)》에서 “과감하다는 것은 그가 세상을 잊는 데 과감함을 탄식한 것이다. [果哉, 歎其果於忘世也.]”라고 하였다.

가만히 생각건대 음양 속특(淑慝)은 천지의 큰 한계라서 군자와 소인이 말미암은 바이니, 이것에 분명하면 다스려지고 이것에 밝지 못하면 어지러워진다. 이런 까닭에 성인(聖人)은 이상견빙(履霜堅冰)<sup>98</sup>의 경계와 이시부척(羸豕孚蹢躅)<sup>99</sup>의 흉함을 머리카락 하나 실오라기 하나의 사이에서 기미를 변석하고도 오히려 잘못된 것에 의지해서 간택(揀擇)에 미혹됨이 있을까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오늘날 조정에서의 용사(用捨)와 상벌(賞罰)은 하나같이 어떻게 분명하지 않고 애매모호한지요?

삼가 생각건대 선정신(先正臣) 김종직(金宗直)<sup>100</sup>은 동방에서 우뚝 일어나 정확(正學)을 창도하여 밝혔으니 격치성정(格致誠正)의 공이 이미 그 극에 도달했습니다. 천인성명(天人性命)의 온축된 것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주자(周子), 정자(程子), 장자(張子), 주자(朱子)의 대통 정맥을 한 세상에 환하게 다시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순정한 유학자와 바른 선비가 그 문하에서 나왔으니, 전(前) 정랑(正郎) 김굉필(金宏弼), 헌납(獻納) 김일손(金駟孫), 전(前) 현감(縣監) 정여창(鄭汝昌)은 특히 걸출한 인물들입니다.

인군(人君)으로 하여금 진실로 그 도를 믿고 그 말을 수용하게 할 수 있다면, 양(陽)이 안에 있고 음(陰)이 밖에 있어서<sup>101</sup>, 군자(君子)의 도는 길

- 98 이상견빙(履霜堅冰) : 《주역》 〈곤괘(坤卦)〉 초육(初六) 상(象)에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른다는 것은 음이 처음 응결한 것이니, 그 도를 점차 이루어서 단단한 얼음에 이른 것이다. [履霜堅冰，陰始凝也，馴致其道，至堅冰也。]”라는 내용이 보인다. 작은 일이 점점 발전하여 나중에는 큰 일이 된다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일이 미약할 때부터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다.
- 99 이시부척(羸豕孚蹢躅) : 《주역》 〈구괘(姤卦)〉 초육(初六)에 “파리한 돼지가 날뛰려는 마음이 간절하다. [羸豕孚蹢躅]”라고 하였다. 돼지는 성질이 조금하여 함부로 날뛰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는데, 이는 마치 소인이 아무리 미약해도 항상 군자를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늘 군자를 해치려는 마음을 가진 소인’으로 번역하였다.
- 100 김종직(金宗直, 1431~1492) : 자는 효관(孝觀)·계은(季暹), 호는 점필재, 본관은 선산(善山)이다. 현 경상남도 밀양 출신이다. 문장과 경술에 뛰어나 영남학파의 종조(宗祖)가 되었다. 저술로 25권 7책의 《점필재집》 등이 있다.
- 101 양이 ... 있어서 : 《주역》 〈태괘(泰卦)〉 단사(象辭)에 “양이 안에 있고 음이 밖에 있으며, 건강함이 안에 있고 유순함이 밖에 있으며, 군자가 안에 있고 소인이 밖에

어지고 소인(小人)의 도는 소멸되니, 삼대(三代)의 다스려짐을 오늘날에 다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순(舜) 임금의 신하는 다섯 명에 그치지 않았고<sup>102</sup>, 무왕(武王)의 신하가 열 명인 것 또한 부인을 제외한 것이 아닙니다.<sup>103</sup>

신은 비록 일개 불초한 사람일 뿐이지만, 다행히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에서 수학(修學)하는 행운을 가져 음양 속특의 대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건대 요사이 조정에서 사람을 기용하고 정치를 하는 것이 비박(否剝)함이 매우 심하여 화를 장차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다행히 김굉필, 김일손, 정여창 등 몇 사람이 있어서 홀로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바른 말하기를 굽히지 않으니, 거의 이편을 강하게 하고 저쪽을 어렵게 할 계책인 것입니다.

신은 강호(江湖)에 은거하며 오히려 스스로 믿는 바가 있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군소(群小)의 사악한 것들이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한 때의 선한 사람들을 원수로 보고서 일망타진할 꾀를 낼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인하여 사초(史草)의 문장을 들어 백가지로 엮고 날조함으로써 전하를 기만하였으니, 양으로 음을 삼고 음으로 양을 삼으며, 선한 것으로 악을 삼고 악한 것으로 선을 삼기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주고 빼음이 마땅함을 잃고 상과 벌이 의(義)에 어그러지니, 국가의 일이 장차 어느 곳에서 끝맺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이 엮으려 전하께서 종묘(宗廟)에 고하신 글을 대략 보니, “어찌 간신

있으니, 군자의 도가 자라고, 소인의 도가 소멸하는 것이다. [內陽而外陰, 內健而外順, 內君子而外小人, 君子道長, 小人道消也.]”라고 하였다.

102 순임금의 ... 않았고 : 《논어》〈태백〉 20장에 “순 임금이 어진 신하 다섯 사람을 두심에 천하가 다스려졌다. [舜有臣五人, 而天下治.]”라고 하였는데, 주자의 집주(集註)에 다섯 사람은 우(禹), 직(稷), 설(契), 고요(皋陶), 백익(伯益)이라 하였다.

103 무왕의 ... 아닙니다 : 이 말은 《논어》〈태백〉 20장에 보이는데, “무왕이 말씀하기를, ‘나는 천하를 다스릴 신하 열 명을 두었노라.’라고 한 말에 대해 공자가 말씀하기를, ‘인재는 얻기 어렵다는 말이 맞는 말이 아니겠는가? 당우(唐虞, 요순) 시대만이 주나라보다 상하였다. 그러나 주나라도 부인이 끼었으니 아홉 사람일 뿐이다. [武王曰, 予有亂臣十人. 孔子曰, 才難, 不其然乎? 唐虞之際, 於斯爲盛, 有婦人焉, 九人而已.]”라고 하였다.

(奸臣)이 참람하게도 불궤(不軌)한 마음을 품고 고사(故事)를 가탁하여 문자(文字)에 퍼뜨릴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반역을 일으킨 죄가 극악무도합니다.”라고 하였고, 사직(社稷)에 고한 글에서는, “무고(誣告)하는 말을 꾸며서 성덕(聖德)을 헐뜯었으니 죄가 부도(不道)에 해당하므로 대벽(大辟, 사형)에 처함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침내 김종직을 부관참시의 화를 당하게 하였고, 김굉필(金宏弼)·김일손(金駟孫)·정여창(鄭汝昌)·권오복(權五福)·권경유(權景裕) 등 제신(諸臣)은 혹은 능지처참에 처하거나 혹은 아주 먼 변방으로 장류(杖流)되었습니다.

아! 옛날부터 소인이 임금님의 마음을 미혹시켜 현량(賢良)에게 해독을 끼친 것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 금일의 참혹함과 같은 적이 있었겠습니까? 오호라. 하늘이여! 이 무슨 변고입니까? 군자(君子)를 안으로 하고 소인(小人)을 밖으로 하는 것이 천지가 태평해지는 까닭입니다. 소인을 안으로 하고 군자를 밖으로 하는 것은 천지가 막히게 되는 까닭입니다. 태평함을 기뻐하고 막히는 것을 싫어함은 사람이라면 같은 마음입니다.

전하께서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에 기울어졌지만 태로 회복하는[傾否而回泰]<sup>104</sup> 까닭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도리어 비를 기뻐하고 태를 싫어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군소배가 간사한 입으로 참소하는 기만을 당하셔서 현(賢)으로 불초(不肖)를 삼고 불초로 현을 삼는 이러한 행동이 있었으니, 이는 말로 다 논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넓은 대궐 아래와 고운 털방석 위에서 정사를 행하고 사람을 등용할 때 시험삼아 내 마음에 돌이켜 구해보고, 한 생각을 발하여 능히 나를 정도(正道)로 이끌고, 책난(責難)하고 폐사(閉邪)하는<sup>105</sup> 사람이

104 비에 … 회복하는[傾否而回泰] : 회태는 《주역》의 상곤하건(上坤下乾)으로 천지(天地)가 화합하여 만물(萬物)을 태평으로 인도하는 상(象)이다. 바로 천지의 기운이 막혔던 비괘(否卦)에서 태평의 태괘(泰卦)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105 책난(責難)하고 폐사(閉邪)하는 : 맹자(孟子)가 군주를 모시는 바른 신하의 모습을 설명하며 한 말로, “어려운 일을 임금에게 책하는 것을 공이라 이르고, 선한 것을 말하여 사심을 막는 것을 경이라 이르며, 우리 임금은 훌륭한 일을 할

누구인지, 나를 사도(邪道)로 끌어들이고 미열(媚悅, 잘 보이려고 아첨함)하고 승순(承順, 윗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만 함)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책난하고 폐사하는 사람이 이미 군자가 된다는 것을 아셨다면, 참하여 추방한 제신들은 하루가 급하게 그 벼슬을 회복시키고, 그 도를 시행하여 만세토록 태평할 큰 기반을 열어야 합니다. 미열하고 승순하는 사람이 소인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다면, 오늘날 나라와 임금을 기망하고 현양을 무고하여 해친 군소배들을 마땅히 그 직을 박탈하고 그 몸을 멸하며, 그 집을 웅덩이로 만들고 그 일가를 멸하되 그 종자(種子)의 뿌리 밑바닥까지 흑시라도 빠뜨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후에야 교묘하게 없는 죄를 엮어대는[萋斐成錮]<sup>106</sup> 화를 없앨 수 있고, 군자가 비로소 띠 풀의 영켜있는 뿌리를 뽑는 것과 같이[拔茅連茹]<sup>107</sup>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임금 마음이 거경궁리(居敬窮理)하고 도로서 그것을 비추어 보는 것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맹자가 말한, “오직 대인(大人)이라야만 임금의 그른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으니, 임금이 어질어지면 어질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되고, 임금이 의로워지면 의롭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되며, 임금이 바르게 되면 바르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된다.”<sup>108</sup>는 것이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예로부터 임금이 된 자가 누가 그 어질고 의롭고 바르게 되지 않고자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적이라 한다. [責難於君謂之恭，陳善閉邪謂之敬，吾君不能謂之賊。]”라고 하였다. (《맹자》〈이루 상(離婁上)〉)

- 106 교묘하게 ... 엮어대는[萋斐成錮] : 처비(萋菲)는 ‘처비(萋斐)와 통용으로, 남을 중상모략하는 말을 가리킨다. 《시경》〈소아(小雅) 항백(巷伯)〉의 “알록달록 뒤섞어 조개 무늬의 비단을 이루네. 저 남을 참조하는 자여. 또한 너무 심하다. [萋兮斐兮，成是貝錦。彼讒人者，亦已太甚。]”에서 나온 말로, 여공(女工)이 색실을 한 올 한 올 모아 조개 무늬의 비단을 짜듯 작은 허물을 모아 큰 죄를 엮는 것을 의미한다.
- 107 띠 ... 같이[拔茅連茹] : 주로 ‘拔茅連茹’로 쓴다. 띠를 뽑으면 뿌리까지 전부 따라 뽑히듯 훌륭한 한 사람을 진용(進用)하면 도(道)가 같은 사람을 서로 인진(引進)한다는 뜻으로 《주역》〈태괘(泰卦)〉에 나온다.
- 108 오직 ... 없게 된다 : 《맹자》〈이루 상(離婁上)〉에 나온다.

하겠습니까마는, 능히 어질고 능히 의롭고 능히 바른 자는 극히 적고, 사직을 보존하지 못하고 몸이 시해되고 나라를 망치는 자가 서로 잇달아 바라볼 정도가 되는 것은 또 어떤 까닭입니까? 이것은 대개 그 마음이 군자를 소인으로 여기고 소인을 군자로 여긴 소치입니다. 임금의 한 마음이 국가가 흥하고 망하게 하는 근원이니, 그 기미를 살펴서 그 결연함을 이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자품이 졸렬하고 비루하며, 학식은 짧고 천박하니, 스스로 이 세상에 도움이 못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스스로 묻혀서 병을 요양하는 것을 달게 여기고 있습니다만, 구구한 칠실 노처녀<sup>109</sup>의 마음이 하루도 마음 사이에서 잊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오늘날 선류들이 해를 당하는 것을 보고, 혼자서 국가와 세도(世道)를 위하여 애통해하고, 사문과 생민을 위하여 슬퍼합니다. 이에 충정스런 마음이 모이는 바를 힘써 글로 작성하여, 몽매함을 무릅쓰고 진달합니다.

전하께서는 참으로 유념하여 맑게 살피실 수 있으니, 한두 가지라도 채용해 주시고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이니, 이것을 미루어 상벌과 출척을 행할 때에 사용신다면, 국가는 그 경사를 받을 것이고, 세도는 그 융성을 받을 것이며, 사문은 그 형통을 받을 것이고, 생민은 그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살피지 않으셔서 외람되다는 죄와 칼로 베는 죽임을 만나더라도 나라를 위하여 죽고, 세도를 위하여 죽고, 사문을 위하여 죽고, 생민을 위하여 죽는 것이니 남은 미련이 없습니다. 마땅히 웃으며 지하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은 경통(驚痛)하여 부르짖음과 격절하고 망극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삼가 상소문을 올리고 죄를 기다립니다.

#### 伸救戊午諸賢疏. 【上同】

伏以, 臣素性與世抹殺, 求之於言, 則言言不相得, 求之於事, 則事事不

109 칠실 노처녀: 노 목공(魯穆公) 때 임금은 늙고 태자는 어려서 국사가 몹시 위태롭자 칠실에 사는 노처녀가 기둥에 기대어 탄식하면서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였다고 한다. 이는 자신의 분수에 넘친 근심을 뜻하는 말로, 국사에 대한 걱정을 나타내는 겸사로 쓰인다. 칠실은 노(魯)나라의 고을 이름이다. 《열녀전》〈칠실녀(漆室女)〉

相合，遂自退藏杜門守影，非敢爲螺休自逸之述。蓋欲縮謝世，不負平日所學，爲隨分獨善之計也。藏之深而猶恐其或不深，縮之固而猶恐其或不固。至若出位犯分，發狂瞽之，以瀆黷續，以取僭越之罪，實非區區所願欲也。但事有繫於國家之興喪，世道之污隆，斯文之盛衰，生民之安否，豈可一於泯默自趨乎？方外之士，果哉末難之科哉。竊伏惟陰陽淑慝，天地之大界限，君子小人之所由分，明此則治，不明此則亂，是故聖人於履霜堅冰之戒，羸豕孚蹢之凶，辨析其機微於毫髮絲縷之間，猶恐其或疑似依違而轉迷揀擇也。今日朝廷之用捨賞罰，一何黜昧不明也？伏惟先正臣金宗直，崛起東方，倡明正學，格致誠正之功，已到其極。天人性命之蘊，發揮無餘，使周程張朱之大統正脈，煥然復明乎一世。純儒正士，出於其門，如前正郎臣金宏弼，獻納臣金駟孫，前縣監臣鄭汝昌，尤其傑然者也。使人君，苟能信其道，而用其言，則內陽而外陰，君子道長小人道消，三代之治，可以復見於今日，舜臣不止於五，而武王之臣十人亦不於婦人耳。臣雖萬無一肖，幸獲受學於金宗直之門，得聞陰陽淑慝之大概，而目見近日，朝家用人行政，否剝殆甚，禍將難測。惟幸有金宏弼，金駟孫，鄭汝昌等幾人，獨立不懼，讜言不回，庶幾爲強此艱彼之計？臣屏伏江湖，猶有所自恃而不恐矣。豈意群小肆志掩蔽天聰，讎視一時善類，爲一網打盡之謀？因舉史草之文，百般搆捏，以欺殿下，不免以陽爲陰，以陰爲陽，以淑爲慝，以慝爲淑，與奪失當，賞誅乖義，未知國家事將脫泊何地耶？臣伏見，殿下告宗廟文畧曰，“豈意奸臣潛懷不軌，假托故事，播諸文字？逆亂罪大惡極。”告社稷文曰，“構爲誣辭，非毀聖德，罪在不道，宜伏大辟。”竟使金宗直，罹剖棺斬尸之禍，金宏弼、金駟孫、鄭汝昌、權五福、權景裕諸臣，或凌遲處死，或杖流極邊，噫！自故小人蠱惑君心，毒害賢良，非日無之，豈有如今日之慘且酷耶。嗚呼，天乎！此何變也？內君子外小人，天地之所以爲泰也。內小人外君子，天地之所以爲否也。喜泰而愕否，人之同情，以殿下愛國家之心，不思所以傾否而回泰耶？然而反未免喜否而愕泰者，特見欺群小讒邪之口，以賢爲不肖，以不肖爲賢，有此舉措，此不可言語爭也。殿下試於廣廈之下，細旃之上，行政用人之際，反求吾心，一念之發，能導我以正道，

責難閉邪者誰歟，納我於邪道，媚悅承順者誰歟。責難閉邪者，既知爲君子也，則其於斬放諸臣，當不日復其爵用其道，爲萬世開太平之大一根基。媚悅承順者，既知其爲小人也，則其於今日，欺國罔君誣賢害良之群小輩，當奪其職，滅其身，潛其家夷其類，使其種子根基抵莫，或致遺漏，然後可以無萋斐成錦之禍。君子始得拔茅連如之亨矣。此只在君心居敬窮理，以道照之之如何。孟子所謂“大人爲能格君心之非，君仁，莫不仁，君義，莫不義，君正，莫不正”者，此之謂也。自古爲人君者，孰不欲其仁，其義，其正，而能仁，能義，能正者，絕少，不保社稷，身弑國亡者，項背相望，抑又何也？此蓋其心，認君子爲小人，認小人爲君子之所致也。人主一心，爲國家興喪之源，可不察其幾而致其決耶？臣姿稟劣陋，學識短淺，自知其無補於斯世，甘自沈淪以養痼病，而區區漆整之心，未嘗一日忘乎方寸之間。却見近日善類椽喪，竊爲國家痛，爲世道哀，爲斯文悲，爲生民憂。哀情所湊，力疾繕草，冒昧進達，殿下苟能留神澄省，採用其一二，廓揮乾斷，推而用之，於賞罰黜陟之際，則國家受其慶，世道受其隆，斯文受其亨，生民受其福。苟使不見省，遭猥越之誅，刀鉅之斬，而爲國家死，爲世道死，爲斯文死，爲生民死，無所餘戀，當含笑而入地矣。臣無任驚痛號呼，激切罔極之情，謹奉疏以俟罪。

1928년 5월 18일. 병오 -유조돈장-. 맑음.

十八日. 丙午【柔兆敦牂】. 陽.

1928년 5월 19일. 정미 -강어협흡-. 맑음.

十九日. 丁未【疆圉協洽】. 陽.

1928년 5월 20일. 소서. 무신 -저용군탄-. 흐리고 비.

二十日. 小暑. 戊申【著雍涇灘】. 陰雨.

1928년 5월 21일. 기유 -도유작악-. 맑음.

二十一日. 己酉【屠維作噩】. 陽.

1928년 5월 22일. 경술 -상장엄무-. 밤부터 조금씩 내리던 비가 낮이 되어서야 잤다.

二十二日. 庚戌【上章闍茂】. 夜少雨, 至晝晴.

1928년 5월 23일. 신해 -중광대연헌-. 흐림.

二十三日. 辛亥【重光大淵獻】. 陰.

1928년 5월 24일. 임자 -현익곤돈-. 흐림. 비가 오려다가 오지 않으니, 생명들이 말라서 죽으려고 한다.

二十四日. 壬子【玄默困敦】. 陰. 欲雨未雨, 生靈乾欲死.

219

1928년 5월 25일. 계축 -소양적분약-. 흐림. 잠깐 잤다가 잠깐 비가 왔다.

二十五日. 癸丑【昭陽赤奮若】. 陰, 乍晴乍雨.

1928년 5월 26일. 갑인 -알봉섭제-. 흐리고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내렸다.

二十六日. 甲寅【闕逢攝提】. 陰而不雨而雨.

1928년 5월 27일. 을묘 -전몽단알-. 맑음.

二十七日. 乙卯【旃蒙單闕】. 陽.

1928년 5월 28일. 병진 -유조집서-. 맑음.

二十八日. 丙辰【柔兆執徐】. 陽.

1928년 5월 29일. 정사 -강어대황락-. 흐림. 밤에 비가 흠족히 내렸다.

二十九日. 丁巳【疆圉大荒落】. 陰, 夜雨洽足.

1928년 6월 1일. 무오 -저옹돈장-. 맑음.

六月初一日. 戊午【著雍敦牂】. 陽.

1928년 6월 2일. 기미 -도유협흡-. 맑음.

二日. 己未【屠維協洽】. 陽.

1928년 6월 3일. 경신 -상장군탄-. 맑음.

三日. 庚申【上章涪灘】. 陽.

1928년 6월 4일. 신유 -중광작악-. 흐림. 밤에 비가 내렸다.

四日. 辛酉【重光作噩】. 陰, 夜雨.

1928년 6월 5일. 임술 -현익엄무-. 흐림.

五日. 壬戌【玄默闍茂】. 陰.

1928년 6월 6일. 계해 -소양대연헌-. 맑음.

六日. 癸亥【昭陽大淵獻】. 陽.

1928년 6월 7일. 갑자 -알봉곤돈-. 맑음.

七日. 甲子【闕逢困敦】. 陽.

〈괴화(槐花)<sup>110</sup>을 줍다〉拾槐花

남풍이 훈훈하니,	南風之薰兮
회화꽃이 마당 가득 노랗네.	槐花滿庭黃
옛날엔 허성(虛星) <sup>111</sup> 의 정령이라 하여,	古云虛星精
승상부(丞相府)에서만 피게 하였지.	中開丞相府
궁궐에는 세 그루를 심는데,	王庭植三株
동재에는 어찌 한 그루만 서 있는가.	東齋何獨樹
나는 타향 객이 아닌지라,	我非他鄉客
꽃을 위해 스스로 분명하고자 하네.	欲花自分明
선왕의 정치를 회상해보니,	回憶先王政
종이에 이 황색을 물들였었지.	麻紙染此黃
대소의 분황(焚黃) <sup>112</sup> 하는 것들,	小大焚黃者
다르더라도 이 나무의 영광이었는데,	不同此樹榮
산소를 쓰는[掃墳] 일을 선천의 일로 돌리니,	掃歸先天事
남은 느낌 다시 어찌 끝이 있으리.	餘感更何極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 발에 깔리니,	不知人足下
찬란한 꽃송이들 모두 진흙이 되는구나.	燁燁盡成泥
오호라 존양(存羊) <sup>113</sup> 의 마음이어,	嗚呼存羊心

- 110 괴화(槐花) : 회화나무 꽃. 칠석날에 따서 말린 괴화를 우려낸 물에 닥종이를 담갔다가 말리기를 아홉 번 반복하면 진한 노란색이 나온다. 괴화나무의 잎이 낮에는 옅어졌다가 밤에는 벌어지기 때문에 일명 수궁(守宮)이라고도 한다.
- 111 허성(虛星) : 추분에 해당하는 별로, 28수(宿) 중 북쪽에 위치한 7수에 해당한다.
- 112 분황(焚黃) : 예식의 하나로, 관직이 추증(追贈)된 경우 조정에서는 추증의 사령장(辭令狀)과 누런 종이에 쓴 사령장의 부분(副本)을 수여하면 그 자손은 추증된 사람의 분묘(墳墓)에 이를 보고하고 누런 종이의 부분을 그 자리에서 불태우는 예식이다.
- 113 존양(存羊) : 구례(舊例)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일. 노문공(魯文公)이 종묘의 제사에 참석하지 않으므로, 자공(子貢)이 그 제사에 소용되는 양(羊)마저 없애려 하니, 공자가 “사(賜)야, 너는 그 양을 아끼느냐? 나는 그 예를 아끼노라. [子曰, 賜也, 爾愛其羊? 我愛其禮]”(《논어》〈팔일편〉)라고 하였다. 제물에 양이라도 있으면 그런 예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만, 양마저 없애면 그 예는 드디어 없어

차마 더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으랴.	忍看塵埃如
어렸을 적부터 꽃구경하던 벗이라,	己少看花伴
스스로 애석해하며 하나하나 줍네.	自惜點點拾
주워서 어느 때나 쓰려나.	拾以何時用
두었다가 옛 정치 회복되길 기다리려네.	留待回舊政
어찌하면 요순의 이치 터득하여,	安得堯舜理
도가 행해져서 사물과 함께 창성할거나.	行道與物昌

1928년 6월 8일. 을축 -전몽적분약-. 맑음.

八日. 乙丑【旃蒙赤奮若】. 陽.

1928년 6월 9일. 병인 -유조섭제-. 맑음.

九日. 丙寅【柔兆攝提】. 陽.

1928년 6월 10일. 정묘 -강어단알-. 맑음.

十日. 丁卯【疆圉單闕】. 陽.

1928년 6월 11일. 무진 -저옹집서-. 흐리고 비.

十一日. 戊辰【著雍執徐】. 陰雨.

1928년 6월 12일. 기사 -도유대황락-. 맑음.

十二日. 己巳【屠維大荒落】. 陽.

1928년 6월 13일. 경오 -상장돈장-. 맑음.

十三日. 庚午【上章敦牂】. 陽.

1928년 6월 14일. 신미 -중광협합-. 맑음. 두보(杜甫)가 소혜(蘇溪)에게 준 시<sup>114</sup>를 보았다.

十四日. 辛未【重光協洽】. 陽. 看杜律贈蘇溪.

유계 <sup>115</sup> 가 이미 평정되었음에도,	幽薊已削平
거친 변방에선 더욱더 활 쏘아대네.	荒徼尙彎弓
이 사람이 벗어나 왔으니,	斯人脫身來
어찌 우리의 도가 동쪽으로 옮겨가지 않으랴. <sup>116</sup>	豈非吾道東

이라는 구절이다. 각주에 “ ‘사인(斯人)’이란 혜(溪)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는 도적의 반란을 벗어나 촉(蜀)으로 왔다. 정현(鄭玄)<sup>117</sup>이 마융(馬融)에게서 배우다가 하직하고 돌아가자, 융이 말하기를 ‘정생(鄭生)이 이제 가니, 우리의 도가 동쪽으로 옮겨 가는구나.’라고 했다.”라는 내용이 있다.

114 두보(杜甫)가 소혜(蘇溪)에게 준 시: 두보(杜甫)가 사천성(四川省) 동쪽 기주(夔州)의 깊은 산골에 유배되어 있을 때 친구의 아들인 소혜가 유배되어 그곳에 와서 실의에 찬 나날을 보내고 있어 이를 보다 못한 두보가 <군불견간소혜(君不見簡蘇溪)>라는 시를 지어 보내게 되었다. 이 시에서 ‘장부개관사정(丈夫蓋棺事始定)’을 줄여 ‘개관사정(蓋棺事定)’이 유래되었는데, 그 사람의 평가는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평가된다는 뜻과 함께, 평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뜻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115 유계(幽薊): 유주(幽州)와 계주(薊州)인데, 역대 왕조들의 흥망성쇠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116 어찌 ... 않으랴: 후한(後漢)의 정현(鄭玄)이 학업을 완성하고 돌아갈 때 그 스승 마융(馬融)이 말한 ‘우리의 도가 동쪽으로 옮겨 가는구나. [吾道東矣]’를 인용한 것이다.

117 정현(鄭玄, 127~200): 후한(後漢)의 학자로, 자(字)가 강성(康成)이다. 마융(馬融)이 가장 아끼던 제자로서 환제(桓帝) 때 상서(尙書) 벼슬을 하였으나, 십상시(十常侍)의 난 후 고향으로 돌아가 서주(徐州)에 숨어 살았다. 유비(劉備)는 탁군(涿郡)에 있을 때 정현을 스승으로 섬겼으므로 서주(西周)를 차지한 뒤에도 자주 찾아 교시를 받았다.

之句. 註 “斯人指僕, 脫寇亂而來蜀也. 鄭玄學於馬融<sup>ᄃᆞ</sup>다가 辭歸, 融曰, ‘鄭生今去, 吾道東矣.’”

1928년 6월 15일. 임신 -현익군탄-. 맑음.

十五日. 壬申【玄默涪灘】. 陽.

1928년 6월 16일. 계유 -소양작악-. 흐림. 비가 올 듯했으나 오지 않아 백성들의 근심이 매우 심하다.

十六日. 癸酉【昭陽作噩】. 陰. 欲雨未雨, 民憂太甚.

1928년 6월 17일. 갑술 -알봉엄무-. 맑음.

十七日. 甲戌【闕逢闕茂】. 陽.

1928년 6월 18일. 을해 -전몽대연현-. 맑음.

十八日. 乙亥【旃蒙大淵獻】. 陽.

1928년 6월 19일. 병자 -유조곤돈-. 맑음. 사람들이 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十九日. 丙子【柔兆困敦】. 陽. 人人望雲霓.

1928년 6월 20일. 정축 -강어적분약-. 맑음. 밤에 이슬비가 왔다.

二十日. 丁丑【強圉赤奮若】. 陽. 夜微雨.

1928년 6월 21일. 무인 -저옹섭제-. 맑음.

二十一日. 戊寅【著雍攝提】.

1928년 6월 22일. 기묘 -도유단알-. 맑음.

二十二日. 己卯【屠維單闕】. 陽.

1928년 6월 23일. 경진 -상장집서-. 비가 올듯했으나 오지 않았다. 집에 돌아왔다.

二十三日. 庚辰【上章執徐】. 欲雨未雨. 歸巢.

1928년 6월 24일. 신사 -중광대황락-. 맑음. 동오재(東吾齋)로 돌아왔다.

二十四日. 辛巳【重光大荒落】. 陽. 還東吾齋.

1928년 6월 25일. 임오 -현익돈장-. 맑음.

二十五日. 壬午【玄默敦牂】. 陽.

225

1928년 6월 26일. 계미 -소양협흡-.

二十六日. 癸未【昭陽協洽】.

1928년 6월 27일. 갑신 -알봉군탄-. 맑음.

二十七日. 甲申【闕逢涒灘】. 陽.

1928년 6월 28일. 을유 -전몽작악-. 맑음.

二十八日. 乙酉【旃蒙作噩】. 陽.

1928년 6월 29일. 병술 -유조엄무-. 맑음. 중친 진성(鎭成)이 “상제(喪祭) 때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어째서인가?”라고 물었다는 것을 듣고 답하여 가로되, “을곡(粟谷) 선생께서 말씀하기를 ‘기일(忌日)에는 소

례(蔬禮)를 행한다'고 하셨으니, 가만히 생각건대 사람이 죽음에 혼기(魂氣)는 하늘로 올라가고 정백(精魄)은 땅으로 내려온다. 신체가 없어진 것 같아 차마 그 비슷한 것을 먹지 않는다. 자로(子路)가 죽자 위(衛)나라 사람들이 그를 짓갈로 만들었다. 공자가 그것을 듣고 짓갈을 얹어버리라고 명한 것은<sup>118</sup> 차마 그 비슷한 것을 먹지 못하셔서이다.”라고 하였다.

二十九日. 秉戍【柔兆闔茂】. 陽. 聞. 宗鎮成問, “喪祭不食肉何也?”, 答曰, “粟谷先生曰, ‘忌日行蔬禮也.’ 切想, 人之死也, 魂氣上天, 精魄下地, 身體似罔, 不忍食其似也. 子路死, 衛人醢之. 孔子聞之, 命覆醢, 不忍食其似也.

1928년 7월 1일. 정해 -강어대연헌-. 맑음.

七月. 初一日. 丁亥【彊圉大淵獻】. 陽.

1928년 7월 2일. 무자 -저옹곤돈-. 맑음.

二日. 戊子【著雍困敦】. 陽.

1928년 7월 3일. 기축 -도유적분약-. 맑음.

三日. 己丑【屠維赤奮若】. 陽.

1928년 7월 4일. 경인 -상장섭제-. 맑음. 심하게 가물었다. 석양에 일리(一犁)의 비가 내렸다.

118 공자가 ... 명했다 : 《예기》〈단궁 상(檀弓上)〉에, 공자가 자로의 죽음에 대해 곡을 한 뒤에 “어떤 사람이 와서 조문하는 이가 있어 공자는 그에게 절하였다. 곡을 마치고 사자에게 나아가 자로가 죽은 까닭을 물으니, 사자는, ‘짓 담가졌습니니다.’라고 했다. 공자가 마침내 주방에 있던 짓갈을 얹어 버리라고 했다. [有人弔者而夫子拜之. 既哭, 進使者而問故, 使者曰醢之矣. 遂命覆醢.]”라고 했다.

四日. 庚寅【上章攝提】. 陽. 極旱. 夕陽雨一犁.

1928년 7월 5일. 신묘 -중광단알-. 맑음.

五日. 辛卯【重光單闕】. 陽.

1928년 7월 6일. 임진 -현익집서-. 맑음.

六日. 壬辰【玄默執徐】. 陽.

1928년 7월 7일. 계사 -소양대황락-. 맑음. 향기로운 샘물을 마시면서도 그 근원을 알지 못하고, 향기로운 기장밥을 먹으면서도 그 밭을 깨닫지 못했다. <주문공계자서(朱文公戒子書)>에 보인다.

七日. 癸巳【昭陽大荒落】. 陽. 飲芳泉而不知其源, 飯香黍而不知其田. 見 <朱文公戒子書>.

227

1928년 7월 8일. 갑오 -알봉돈장-. 맑음.

八日. 甲午【闕逢敦牂】. 陽.

1928년 7월 9일. 을미 -전몽협흡-. 맑음. 가뭄이 심하다.

九日. 乙未【旃蒙協洽】. 陽. 恒陽極備.

1928년 7월 10일. 병신 -유조군탄-. 맑음.

十日. 丙申【柔兆涸灘】. 陽.

1928년 7월 11일. 정유 -강어작악-. 맑음.

十一日. 丁酉【疆圉作噩】. 陽.

1928년 7월 12일. 무술 -저옹엄무-. 맑음.

十二日. 戊戌【著雍闍茂】. 陽.

1928년 7월 13일. 기해 -도유대연현-. 맑음. 비가 살짝 내렸다. <소학서제(小學書題)><sup>119</sup>의 “원·형·이·정은 천도의 떳떳함이고, 인·의·예·지는 인성(人性)의 버리이다.”<sup>120</sup>라는 뜻을 추심(推尋)하였다. 천도는 유행(流行)으로서 말하기 때문에 원(元)이 끝나면 형(亨)이 되고, 형이 끝나면 이(利)가 되고, 이가 끝나면 정(貞)이 된다. 인성은 대대(對待)로서 말하기 때문에 인(仁)의 대(對)는 의(義)이고, 예(禮)의 대는 지(智)이다. 오늘은 비가 조금씩 더 내렸다. -요사이 햇볕이 항상 붉더니 오늘 아침에는 동쪽에 3층 구름이 있었다. 해가 처음 나왔을 때는 1층 구름이 이를 가리고, 해가 다시 나왔을 때는 2층 구름이 해를 가리었다. 해가 세 번째 나오자 3층 구름이 또 가리었다. 네 번째는 해가 달궈진 것처럼 붉었다. -

十三日. 己亥【屠維大淵獻】. 陽. 雨過.

推尋<小學書題>元亨利貞, 天道之常, 仁義禮智, 人性之綱之義. 天道以流行言, 故元了亨, 亨了利, 利了貞. 人性以對待言, 故仁對義, 禮對智. 是日也雨稍稍添. 【近日日光常赤, 是日朝東有三層雲. 日初出一層掩之, 日再出二層雲掩之, 日三出三層雲掩之, 四次赤日如鍊】

1928년 7월 14일. 경자 -상장곤돈-. 흐리고 비. 한낮에 천둥소리가 한 번 진동하더니, 밤새도록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렸다.

119 소학서제(小學書題): 《소학집주》의 권수(卷首) 중 1편이다. 그런데 ‘원형이정은 <소학제사(小學題辭)>의 첫 부분이다.

120 원·형·이·정은... 버리이다: 《소학집주》의 <소학제사(小學題辭)>의 첫 부분인, “원·형·이·정은 천도의 떳떳함이요, 인·의·예·지는 인성의 버리이다. [元亨利貞, 天道之常, 仁義禮智, 人性之綱]”라고 한 대목을 이른다.

十四日. 庚子【上章困敦】. 陰雨. 當午一振雷聲, 終夜雷電雨.

1928년 7월 15일. 신축 -중광적분약-. 아침에 비가 내리다 사시(巳時)  
무렵 개고 약간 맑음.

十五日. 辛丑【重光赤奮若】. 朝雨至巳晴微陽.

1928년 7월 16일. 임인 -현익섭제-. 맑음.

十六日. 壬寅【玄默攝提】. 陽.

1928년 7월 17일. 계묘 -소양단알-. 맑음.

十七日. 癸卯【昭陽單闕】. 陽.

1928년 7월 18일. 갑진 -알봉집서-. 맑음.

十八日. 甲辰【闕逢執徐】. 陽

1928년 7월 19일. 을사 -진몽대황락-. 맑음.

十九日. 乙巳【旃蒙大荒落】. 陽.

1928년 7월 20일. 병오 -유조돈장-. 흐리고 비.

二十日. 丙午【柔兆敦牂】. 陰雨.

1928년 7월 21일. 정미 -강어협흡-. 흐리고 비.

二十一日. 丁未【彊圉協洽】. 陰雨.

1928년 7월 22일. 무신 -저옹군탄-. 맑음.

二十二日. 戊申【著雍涇灘】. 陽.

1928년 7월 23일. 기유 -도유작악-. 맑음.

二十三日. 己酉【屠維作噩】. 陽.

1928년 7월 24일. 경술 -상장엄무-. 맑음.

二十四日. 庚戌【上章闔茂】. 陽.

1928년 7월 25일. 신해 -중광대연헌-. 맑음.

二十五日. 辛亥【重光大淵獻】. 陽.

1928년 7월 26일. 임자 -현익곤돈-. 아침 내내 비가 내리다가 다시 맑음.

二十六日. 壬子【玄默困敦】. 朝雨終而復陽.

1928년 7월 27일. 계축 -소양적분약-. 맑음.

二十七日. 癸丑【昭陽赤奮若】. 陽.

1928년 7월 28일. 갑인 -알봉섭제-. 맑음.

二十八日. 甲寅【闕逢攝提】. 陽.

1928년 7월 29일. 을묘 -전몽단알-. 맑음.

二十九日. 乙卯【旃蒙單闕】. 陽.

지송옥(池松旭)이 저술한 《척독대방(尺牘大方)》<sup>121</sup>의 ‘난진(亂眞)의 설’

121 척독대방(尺牘大方) : 1916년(大正 4)에 지송옥(池松旭)이 척독을 쓰기 위한 교본으로 출판한 것이다. 지송옥은 조선말 1887년, 서울에 최초로 서점 겸 출판사 신구서림(新舊書林)을 연 출판계의 선구자이다.

에 대해 변론하다. 《물리학》에서 “물리학의 구분은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 예컨대 금·돌·나무의 견고한 것과 물·술·기름·수은의 종류와 바람과 안개·증기의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다. 고체가 변하여 액체와 기체가 되고, 기체가 변하여 액체와 고체가 되어, 모두 인공(人工)을 따라 변화하나, 이것은 화학과 경제학으로 서로 표리가 되어 신학문 중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바라건대 함께 업으로 여기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자답(自答)하건대, 동양 선비가 강구하는 것은 형이상자(形而上者)요, 서인(西人) 철학자가 강구하는 것은 형이하자(形而下者)라. 형이상자는 리(理)이니 형체가 없어서 알기 어렵고, 형이하자는 기(氣)이니 물질에 붙어있어 모두 실제 증험함이 있다. 만일 폐하고 강구하지 않는다면 도덕인의(道德仁義)를 전할 수가 없으리니, 마땅히 배워야[負笈] 할 것이며, 이에 우선 공경히 옳드립니다.”라고 하였다. -지송욱의 말 마침-

辨池松旭所著《尺牘大方》亂眞之說, “《物理學》, 物理學區別이 有三種이니 如金、石、木之堅과 水、酒、油、水銀之類와 風煙蒸氣之動이 是也라. 固變爲液氣고 氣變爲液固야 皆隨人工而變化니 此與化學經濟學으로 相爲表裏而新學中에 最爲切要者也라. 望須同業이 如何오? 自答東洋之士의 講究는 形而上者也오, 西人之哲의 講究는 形而下者也라. 形而上者理也니 無形而難知오, 形而下者는 氣也니 寓於物質에 皆有實驗이라. 若廢而不講이면 道德仁義 無所傳焉리니, 當負笈이며 先此度覆호노니다.”

【松旭言終】

오호라! 예전에 듣건대 노자는 유무(有無)를 둘로 여겼다고 하는데, 송욱의 이와 같은 설은 이와 유사하니, 주부자의 이른바 ‘크게 진실 을 어지럽힌 자’이다. 그 어세를 보면 동방의 학문을 동양의 학문이라고 칭했고, 서양의 학문을 서인의 철학이라고 칭하였으니, 이는 서

학을 위주로 한 것이다.

嗚呼! 昔聞老子, 以有無爲二, 松旭若此之說, 似是, 而朱夫子, 所謂大亂眞者也. 觀其語勢, 則以東方之學, 稱東洋之學, 以西洋之學, 稱西人之哲, 此是主西學者也.

또 이른바 ‘훈도를 축하한다’는 것을 변론하다

시우(時雨)<sup>122</sup>와 풍춘(風春)<sup>123</sup>의 화평은 성문의 지극한 공인데, 끌어다가 격설지인(鳩舌之人)<sup>124</sup>을 운색하였으니, 실로 사문난적(斯文亂賊)이다.

又辨所謂賀訓導.

時雨風春之和, 聖門之極工, 引以潤色鳩舌之人, 實斯文亂賊也.

〈이른바 ‘유학가는 벗을 보내며’를 또 변론한다〉

又辨所謂送友遊學

천하의 사람들이 어찌 다 맡기는 일할 수 있으랴.	天下何能耕且爲
결연이 책을 써서 멀리 스승을 찾아가네.	決然負笈遠從師
봉상(蓬桑)의 처음 뜻 <sup>125</sup> 끝내 이룰 수 있고,	蓬桑初志終能遂

122 시우(時雨) : 제때에 내려 만물을 화육(化育)하는 비라는 뜻으로, 《맹자》〈진심상(盡心上)〉의 ‘시우화지(時雨化之)’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123 풍춘(風春) : 봄에 부는 따스한 바람을 의미한다. 공자의 제자 증점(曾點)이 “늦은 봄에 봄옷이 만들어지면 관을 쓴 이 대여섯 명과 아이들 예닐곱 명을 데리고 기수에 가서 목욕을 하고 무우에서 바람을 쏘인 뒤에 노래하며 돌아오겠다. [暮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라고 자신의 뜻을 밝히자, 공자가 감탄하며 허여한 내용이 《논어》〈선진(先進)〉에 나온다.

124 격설지인(鳩舌之人) : 야만인이 지껄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란 의미로, 《맹자》에, “남만(南蠻) 격설(鳩舌)의 사람”이란 말이 있다. 여기서는 외국 사람을 알잡아 일컫는 말이다.

125 봉상(蓬桑)의 처음 뜻 : 상봉지지(桑蓬之志)로, 유년 시절에 사방을 경륜하려는 큰 뜻을 품은 것을 말한다. 옛날에 남자 아이가 출생하면 뽕나무로 활을 만들고 갈대포로 화살을 만들어[桑弧蓬矢] 천지 사방에 쏘았던 고사에서 유래한 것

봉새와 준마는 앞 길에 절로 기약이 있네.	鵬驥前程自有期
늙은 노파는 응당 마철오(磨鐵杵) <sup>126</sup> 를 알고,	老嫗應知磨鐵杵
염처(豔妻) <sup>127</sup> 는 단기(斷機) <sup>128</sup> 하는 데 실 허비하지 않네.	豔妻不費斷機絲
세상에는 학교가 지금 많이 세워지니,	環球黌舍今林立
대학 치평의 도가 여기에 달려 있으리.	大學治平道在斯

아, 도를 어지럽히고 사람을 그릇되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심하던 말인가? 송욱(松旭)은 실로 만 대의 죄인이다.

嗚呼，亂道誤人，若是之甚也哉？松旭實萬歲之罪人也。

1928년 7월 30일. 병진 -유조집서-. 맑음.

三十日. 丙辰【柔兆執徐】. 陽.

1928년 8월 1일. 정사 -강어대황락-. 맑음. 저녁에 흐려졌다.

八月. 初一日. 丁巳【彊圉大荒落】. 陽. 夕陰.

1928년 8월 2일. 무오 -저용돈장-. 흐림. 아침에 비가 오다가 잠깐 개

이다. 《예기》〈내칙(內則)〉

126 마철오(磨鐵杵) : 철저마침(鐵杵磨鍼)의 고사이다. 이백은 젊었을 때, 사천성(四川省)의 상이산(象耳山)에서 공부를 하다가 중도에 싫증이 나서 포기해 버렸다. 하산하는 길에 작은 시내를 지나가다 한 할머니가 쇠로 된 절구공이를 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할머니는 쇠공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자, 이 말을 듣고 이백은 느낀 바가 있어 오던 길을 되돌아가 학문에 정진하였다.

127 염처(豔妻) : 아름다운 처인데, 포사(褒姒)라고도 하고 달기(妲己)라고도 한다. 《시경》〈소아(小雅) 시월지교(十月之交)〉에 “염처가 기세를 부리며 그대로 있다. [豔妻煽方處]”라는 구절이 있다.

128 단기(斷機) : 무슨 일이고 중도에서 폐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옛적에 맹자의 어머니가 베를 짜다가 아들이 공부하다 중단하고 돌아온 것을 보고, 짜던 베를 끊어버리며 내가 공부를 중도에 그만 둔다는 것이 이와 같다고 경계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맹자는 큰 유학자가 된 것이다.

고 또 잠깐 비가 내렸다.

二日. 戊午【著雍敦牂】. 陰. 朝雨乍晴乍雨.

1928년 8월 3일. 기미 -도유협흡-. 흐림. 종일 비가 개지 않았다.

三日. 巳未【屠維協洽】. 陰. 終日不霽.

1928년 8월 4일. 경신 -상장군탄-. 흐림. 비가 오려다 오지 않았다.

四日. 庚申【上章涿灘】. 陰. 欲雨未雨.

1928년 8월 5일. 신유 -중광작악-. 맑음.

五日. 辛酉【重光作噩】. 陽.

1928년 8월 6일. 임술 -현익엄무-. 흐림. 비가 오려다 오지 않았다.

六日. 壬戌【玄默闍茂】. 陰. 欲雨未雨.

1928년 8월 7일. 계해 -소양대연헌-. 흐림. 잠깐 비가 내렸다.

七日. 癸亥【昭陽大淵獻】. 陰. 乍雨.

1928년 8월 8일. 갑자 -알봉곤돈-. 맑음.

八日. 甲子【闕逢困敦】. 陽.

1928년 8월 9일. 을축 -전몽적분약-. 흐림. 산의 안개비가 가늘게 내렸다.

九日. 乙丑【旃蒙赤奮若】. 陰. 山霏細微.

1928년 8월 10일. 병인 -유조섭제-. 흐림. 지난밤에 내리기 시작한 비

가 낮에까지 이어졌다. 잠깐 갠다가 잠깐 비가 내렸다.

十日. 丙寅【柔兆攝提】. 陰. 去夜雨至晝, 乍晴乍雨.

1928년 8월 11일. 정묘 -강어단알-. 흐림. 밤에 서리가 내렸다.

十一日. 丁卯【彊圉單闕】. 陰. 夜霜.

1928년 8월 12일. 무진 -저옹집서-. 흐림. 밤새 바람이 불었다.

十二日. 戊辰【著雍執徐】. 陰. 終夜風.

1928년 8월 13일. 기사 -저옹대황락-. 조금 맑음. <명분설(名分說)>을 지었다. 집에 돌아왔다.

十三日. 己巳【著雍大荒落】. 微陽. 著<名分說>. 還巢.

### <명분설>

천지 만물은 태극 가운데에서 나와서 각각의 도기(道器)가 있다. 도(道)란 태극이 유행하는 리(理)요, 기(器)란 태극이 물을 이루게 하는 기(氣)이다. 이때문에 하늘에는 하늘의 도기가 있고, 땅에는 땅의 도기(道器)가 있으며, 사람에게는 사람의 도기(道器)가 있고, 사물에는 사물의 도기(道器)가 있다. 가장 신령스런 것은 성인이니, 천지에 참여하여 삼재가 되고 천지 만물의 이름을 정한다. 천지가 아니면 성인을 낳을 수 없고, 성인이 아니면 천지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이다.

복희씨(伏羲氏)<sup>129</sup>가 처음으로 팔괘를 그으니, 한 터럭도 자기 뜻이 아니고, 천지 자연(自然)의 수(數)로 인한 것이다. 선천(先天)의 횡도(橫道)를 살펴보면 하나의 태극이 양의(兩儀)를 낳고 양의는 사상(四象)을 낳고, 사상은 팔괘(八卦)를 낳는다. 팔괘는 16을 낳고, 16은 32를 낳으며, 32

129 복희씨(伏羲氏) : 고대 전설상의 삼황 중 한 사람으로서, 백성에게 농경·목축·어로 등을 가르치고 팔괘를 만들었다고 한다.

는 64를 낳는다. 인하고 거듭하여 매번 18변(十八變)을 해서 괘를 이루고,<sup>130</sup> 4천 9백효<sup>131</sup>가 무궁함에 이르러서 각기 조리의 명명함이 있게 되었다. 또 사황씨(四皇氏)에게 명하여 서계(書契)<sup>132</sup>를 짓고 사물에 응하게 하였다.

우리 부자에 이르러서 《주역》을 찬하기를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건괘와 곤괘가 정해지고, 낮고 높음이 배풀어지니 귀한 자와 천한 자가 자리가 매겨졌다. 동(動)과 정(靜)에 일정함이 있고 강(剛)과 유(柔)가 결 단난다. 일은 끼리끼리 모이고, 물은 유로 나뉘어지며 명분이 분명하였다.”<sup>133</sup>라고 하였다. 삼가 생각건대 진실로 총명한 자가 임금이 되니,<sup>134</sup>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비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우며, 남편은 남편답고 부인은 부인다우며, 형은 형답고 동생은 동생다운 것이<sup>135</sup> 모두 천리 가운데에서 온 것이 분명하다. 비록 그럴지라도 하늘은 음양오행으로서 만물을 낳아 끝없이 운행하여, 차고 비며 사그라지고 불어나며 흥하고 쇠함이 있게 되고, 태고의 세상 사람들은 순박함과 무위(無爲)로서 다스렸다.

복희(伏羲)씨 이래로 사람과 사물이 점차 변성하여 정교(政敎)가 비로소 흥하게 되었다. 현원(軒轅)의 세상 때는 음을 누르고 양을 북돋았으며, 병기를 사용하였다. 전옥(顓頊)<sup>136</sup>은 그것을 받아 백성과 신을 구별하였으며,

- 
- 130 매번 ... 이루고 : 《주역》〈계사전 상(繫辭傳上)〉에, “네 번 경영하여 역을 이루고, 18번 변하여 괘를 이룬다. [四營而成易, 十有八變而成卦.]”라고 하였다.
  - 131 4천 9백효 : 본문에는 4천 9백효로 되어 있으나, 64괘×64괘=4,096괘이다.
  - 132 서계(書契) : 글자로 사물을 나타내는 부호이다.
  - 133 하늘은 ... 분명하였다 : 《주역》〈계사전 상(繫辭傳上)〉에 나온다.
  - 134 진실로 ... 임금이 되니 : 《서경》〈태서 상(泰誓上)〉에 “천지는 만물의 부모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 가운데에서 진실로 총명한 사람이 임금이 되니, 임금은 곧 백성의 부모가 되는 것이다. [惟天地萬物父母, 惟人萬物之靈, 亶聰明作元后, 元后作民父母.]”라고 하였다.
  - 135 임금은 ... 것이 : 《주역》의 〈가인괘(家人卦)〉에 나오는 말이다.
  - 136 전옥(顓頊) :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인 오제(五帝) 중의 한 사람으로, 황제(黃帝)의 손자라고 한다. 처음 고양(高陽)이라는 곳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고양씨(高陽氏)라고 불렀다.

당우(唐虞, 요순시대)가 흥기했을 때는 요는 천신(天神)과 같아 공경하여 밝게 살피고 재주와 도덕이 있어서 진실로 그 중을 잡으니, 또한 다스리지 않아도 다스려졌다. 순임금이 요임금의 선위를 이어받아 ‘인심은 위태하고 도심은 미세하니, 오직 정밀하고 일관되게 하여 그 중도(中道)를 진실로 잡아야 한다.’는 것으로 더하여 사흉(四凶)<sup>137</sup>을 벌하고 팔원(八元)<sup>138</sup>을 거용하여 부정척사(扶正斥邪, 정도를 부추하고 사특함을 내침)를 하고 천하를 안정되게 하였다. 부자가 만대토록 심학 연원의 주가 되니, 전악(典樂)과 사도(司徒)의 관직이 설치되게 되었다. 대우(大禹)는 물을 평정하고 땅을 안정시켜 백성을 살게 하였고, 성탕(成湯)과 문왕 무왕은 중을 세우고 표준을 세웠으며[建中建極], 돌이켜서 성(誠)을 세우니, 주례(周禮)가 이도를 밝히지 않음이 없다.

공자는 주나라가 쇠퇴할 때 태어나서 군사(君師)의 지위를 얻어 그 정사를 행할 수 없었지만, 가르침을 집대성하여 《시경》과 《서경》을 산정하고, 예악을 정하였으며, 《춘추》를 닦아서 왕도를 높이고 패도를 물리쳐 난신적자가 그 이름에서 달아나지 못하게 했다. 임금은 임금으로, 신하는 신하로, 아버지는 아버지로, 자식은 자식으로, 요임금은 요임금으로, 걸왕은 걸왕으로, 순임금은 순임금으로, 도척은 도척으로, 사람은 사람으로, 금수는 금수로, 하(夏)는 하로, 이(夷)는 이로, 천지간에 이름을 정한 것이 이와 같이 절엄하였으며, 거처하는 궁실도 또한 명분이 있었다. 술업(術業)을 공부하는 것도 또한 명분이 있었다.

### 名分說.

天地萬物, 自太極中來, 而各有道器. 道者, 太極流行之理也, 器者, 太極成物之氣也. 是以天有天之道器, 地有地之道器, 人有人之道器, 物有

137 사흉(四凶) : 《서경·순전》에 “공공(共工)을 유주(幽州)에 유배하고, 환도(驩兜)를 숭산에 안치하고, 삼묘(三苗)를 삼위(三危)로 몰아내고, 곤(鯀)을 우산(羽山)에 가두어 네 사람을 죄주니, 천하가 모두 복종하였다.”라고 하였다.

138 팔원(八元) : 고대 전설 가운데 있는 여덟 명의 재자(才子)를 말한다. 여기에서 원(元) 선(善)의 뜻이다. 《좌전·문공(文公)》 18년에는 “고신씨(高辛氏)에게 재자(才子) 8인이 있으니, 곧 백분(伯奮)·중감(仲堪)·숙헌(叔獻)·계중(季仲)·백호(伯虎)·중웅(仲熊)·숙표(叔豹)·계리(季狸) 등이다.”라고 하였다.

物之道器, 最靈者, 聖人也, 參天地爲三才, 定名天地萬物. 非天地, 聖人不生, 非聖人, 天地不立. 伏羲氏始劃八卦, 無一毫自意也, 因天地自然之數也. 觀先天橫圖, 則一太極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生十六, 十六生三十二, 三十二生六十四, 因以重之, 每十八變而成卦, 四千九百爻, 至於無窮, 各有條理之命名. 又命四皇氏造書契應事物. 而至於吾夫子贊《易》曰, “天尊地卑, 乾坤定矣. 卑高以陳, 貴賤位矣. 動靜有常, 剛柔斷矣. 方以類聚, 物以群分, 名分著矣.” 切想, 亶聰明作元后, 君君臣臣, 父父子子, 夫夫婦婦, 兄兄弟弟, 皆從天理中來也, 明矣. 雖然, 天以陰陽五行化生萬物, 運行無端, 有盈虛消息, 興亡盛衰, 而太古之世人, 以淳朴無爲以治. 伏羲以來, 人物漸盛, 政教始興. 軒轅之世, 抑陰扶陽, 習用干戈. 顓頊之受, 辨別民神. 唐虞之興, 堯如天神, 欽明文思, 允執厥中, 亦無爲以治. 舜繼堯禪, 加以‘人心惟危, 道心愈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誅四凶舉八元, 扶正斥邪, 定天下. 父子爲萬世心學淵源之主, 典樂之官, 司徒之職, 所由設也. 大禹平水土定民居, 成湯文武, 建中建極, 而反之傳誠, 周禮無非明此道也. 孔子生于周衰, 不得君師之位以行其政, 教集大成, 而刪《詩》《書》, 定禮樂, 修《春秋》, 尊王黜伯, 亂臣賊子, 不逃其名. 君則君, 臣則臣, 父則父, 子則子. 堯則堯, 桀則桀, 舜則舜, 跖則跖. 人則人, 禽獸則禽獸, 夏則夏, 夷則夷. 天地間定名, 如是切嚴, 所居宮室, 亦有名分焉. 所學術業, 亦有名分焉.

1928년 8월 14일. 경오 -상장둔장-. 맑음.

十四日. 庚午【上章敦牂】. 陽.

1928년 8월 15일. 신미 -중광협합-. 맑음. 비가 뿌렸다.

十五日. 辛未【重光協洽】. 陽. 雨洒.

1928년 8월 16일. 임신 -현익군탄-. 맑음.

十六日. 壬申【玄默涖灘】. 陽.

1928년 8월 17일. 계유 -소양작악-. 맑음.

十七日. 癸酉【昭陽作噩】. 陽.

1928년 8월 18일. 갑술 -알봉엄무-. 맑음.

十八日. 甲戌【闕逢闕茂】. 陽.

1928년 8월 19일. 을해 -전몽대연헌-.

十九日. 乙亥【旃蒙大淵獻】.

1928년 8월 20일. 병자 -유조곤돈-. 맑음. 동오재(東吾齋)로 물러갔다.

二十日. 丙子【柔兆困敦】. 陽. 退去東吾齋.

1928년 8월 21일. 정축 -강어적분약-. 맑음.

二十一日. 丁丑【疆圉赤奮若】. 陽.

1928년 8월 22일. 무인 -저옹섭제-. 맑음.

二十二日. 戊寅【著雍攝提】. 陽.

1928년 8월 23일. 기묘 도유단알-. 맑음. 밤에 비가 조금 내렸다.

二十三日. 己卯【屠維單闕】. 陽. 夜少雨.

1928년 8월 24일. 경진 -상장집서-. 아침에 비오다 맑음.

二十四日. 庚辰【上章執徐】. 朝雨陽.

1928년 8월 25일. 신사 -중광대황락-. 맑음. 오늘은 한로(寒露)이다.

서리가 먼저 내리고 뒤에 이슬이 내렸는데, 거꾸로 됨이 심한 것이 이와

같으니, 여민(黎民)<sup>139</sup>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먼저 거둬가는 것이 없었는데도 천고(天古)에 이처럼 텅 빈 적이 없었다.

二十五日. 辛巳【重光大荒落】. 陽. 是日寒露也. 先霜後露, 倒懸之極若是, 黎民何以得生? 無先斂, 天古無此虛.

1928년 8월 26일. 임오 -현익둔장-. 흐림. 참새가 나뭇가지에 가득 앉아 짹짹거린다.

二十六日. 壬午【玄默敦牂】. 陰. 啾啾雀滿樹.

1928년 8월 27일. 계미 -소양협흡-. 맑음.

二十七日. 癸未【昭陽協洽】. 陽.

1928년 8월 28일. 갑신 -알봉군탄-. 맑음.

二十八日. 甲申【闕逢涿灘】. 陽.

1928년 8월 29일. 을유 -전몽작악-. 맑음.

二十九日. 乙酉【旃蒙作噩】. 陽.

1928년 8월 30일. 병술 -유조엄무-. 맑음.

三十日. 丙戌【柔兆闍茂】. 陽.

1928년 9월 1일. 정해 -강어대연헌-. 흐림.

九月. 初一日. 丁亥【疆圍大淵獻】. 陰.

139 여민(黎民): 관을 쓰지 않은 검은 머리라는 뜻으로, 일반 백성(姓百)을 이르는 말이다.

1928년 9월 2일. 무자 저옹곤돈-. 흐림. 잠깐 비오다 잠깐 개었다 잠깐 맑았다. 하서 김선생이 두 아들에게 《소학(小學)》을 가르친 지 10년에 이를 만큼 오래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과거 문장을 가르칠 것을 권하자, (선생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셨다. 대개 윤리를 중하게 여겨서 그런 것이다. 사람으로서 이름을 얻고도 오상(五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어찌 만물 중 최고로 신령한 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동몽(童蒙)을 교육하는데 이 학문만한 것이 없으니, 아아 아이들아, 힘쓰고 힘쓸지어다.

二日. 戊子【著雍困敦】. 陰. 乍雨乍晴乍陽. 河西金先生, 教二子《小學》, 至十年之久, 或勸教科文, 曰, “人所以爲人者, 在此云.” 盖以倫理爲重而然也. 以人爲名, 不知五常之爲何等事件, 則何可謂萬物之最靈者乎? 蒙以養正, 莫如此學. 嗟嗟! 兒曹勉哉勉哉.

1928년 9월 3일. 기축 -도유적분약-. 맑음.

三日. 己丑【屠維赤奮若】. 陽.

1928년 9월 4일. 경인 -상장섭제-. 맑음.

四日. 庚寅【上章攝提】. 陽.

1928년 9월 5일. 신묘 -중광단알-. 맑음. 《소학》을 보았다. 명도선생(明道先生)이 조정에서 말하기를, “천하를 다스림에는 풍속을 바로 잡고 어진 인재 얻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도(道)는 인륜에 근본을 두고 물리(物理)를 밝혀야 하며, 그 교(教)는 《소학》의 왜소응대(灑掃應對)에서부터 시작하여 효제충신(孝悌忠信)을 닦는 데까지 이르게 하며, 예악(禮樂)이 베풀어지도록 두루 힘써야 합니다. 그 잘 인도하고 격려함으로써 차차 감화되어 도에 나아가는 것은 모

두 절도와 차례가 있는 것이니, 그 요체는 선(善)을 택하여 몸을 닦아서 천하를 덕화(德化)하는 데 이르고, 향인(鄉人)에서부터 성인의 도에 이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두 단락 즉 윤리와 물리는 진실로 하나의 근본인데, 당시 사람들은 나누어 두 개의 근본으로 삼아 윤리를 버리고 물리를 따르니, 윤리가 근본이 됨을 알지 못하므로 특별히 기록한다.

五日. 辛卯【重光單闕】. 陽. 看《小學》. 明道先生, 言於朝曰 “治天下以正風俗, 得賢才爲本. 其道本於人倫, 明乎物理, 其教自《小學》灑掃應對以往, 修其孝悌忠信, 周旋禮樂. 其所以誘掖激礪, 漸摩就之道, 皆有節序, 其要在於擇善修身, 至於化成天下, 自鄉人而可至於聖人之道.” 二段則倫理物理, 實是一本, 時人分爲二本, 敎倫從物, 不知倫理之爲本, 故特記之.

1928년 9월 6일. 임진 -현익집서-. 맑음.

六日. 壬辰【玄默執徐】. 陽.

1928년 9월 7일. 계사 -소양대항락-. 일기(日氣)가 고르지 않았다.

七日. 癸巳【昭陽大荒落】. 日氣不平.

1928년 9월 8일. 갑오 -알봉돈장-. 맑음.

八日. 甲午【闕逢敦牂】. 陽.

1928년 9월 9일. 을미 -전몽협흡-. 맑음.

九日. 乙未【旃蒙協洽】. 陽.

1928년 9월 10일. 병신 -유조군탄-. 맑음.

十日. 丙申【柔兆涸灘】. 陽.

1928년 9월 11일. 정유 강어작약-. 맑음.

十一日. 丁酉【強圉作噩】. 陽.

1928년 9월 12일. 무술 -저옹엄무-. 맑음. 근래 풍속이 퇴폐하여서 아손(兒孫)들이 서로 범하여 다투고 힐난하므로 특별히 남전여씨향약을 기록하여 보여주었다.

남전여씨향약에서 '무릇 동약(同約)에는 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德業相勸].'라고 하였다.

十二日. 戊戌【著雍闞茂】. 陽. 近來風俗頹敗, 兒孫較犯而爭詰, 故特記藍田呂氏鄉約以示之.

藍田呂氏鄉約曰, 凡同約者, 德業相勸.

《소학집해》에 “남전(藍田)은 현명(縣名)으로 지금 서안부(西安府)에 있다. 여씨(呂氏)는 형제가 4명이니, 장남은 대충(大忠), 차남은 대방(大防), 대균(大鈞), 대림(大臨)이다. 향약은 향인과 더불어 약속하고 맹서한 것이며, 권면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 본주에, “덕(德)은 선을 보면 반드시 실천하는 일, 잘못에 대해서 들으면 반드시 고치는 일, 자신을 잘 다스리는 일, 집안을 잘 다스리는 일, 부형을 잘 섬기는 일, 자제를 잘 가르치는 일, 노복을 잘 거느리는 일, 어른이나 윗사람을 잘 섬기는 일, 가까운 사람이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과 화목하게 잘 지내는 일, 교유할 사람을 잘 가리는 일, 청렴과 절개를 잘 지키는 일, 은혜를 널리 잘 베푸는 일, 남의 부탁을 받아 잘 지키는 일, 환난을 당한 사람을 잘 구제하는 일, 남의 과실을 잘 바르게 경계하는 일, 남을 위하여 일을 잘 도모해 주는 일, 여러 사람을 위해 일을 잘 성사시키는 일, 싸우고 다투는 것을 잘 풀어주는 일, 시비를 잘 결단하는 일, 이로운 일을 일으키고 해로운 일을 제거하는 일, 벼슬살이를 하면서 맡은 직분을 잘 이행하는 일 등을 말한다.

업(業)은 집에 있을 때는 부형을 섬기고, 자제를 가르치고, 처첩(妻妾)을

대우하며, 밖에 나가서는 어른이나 윗사람을 섬기고, 친구를 사귀고, 후생을 가르치고, 노복을 거느리는 것부터 글을 읽고, 토지를 관리하고, 가산을 경영하고, 증생을 구제하며, 그리고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와 같은 류를 모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류가 아니면 모두 무익하다.”라고 했다.

《集解》, 藍田縣名在今西安府. 呂氏, 兄弟四人, 長大忠, 次大防, 大鈞, 大臨. 鄉約與鄉人, 約誓也, 勸勉也. 本註, 德謂見善必行, 聞過必改, 能治其身, 能治其家, 能事父兄, 能教子弟, 能御僮僕, 能事長上, 能睦親故, 能擇交遊, 能守廉介, 能廣施惠, 能守寄託, 能救患難, 能規過失, 能爲人謀, 能爲眾集事, 能解鬪爭, 能決是非, 能興利除害, 能居官舉職. 業謂, 居家則事父兄, 教子弟, 待妻妾, 在外則事長上, 接朋友, 教後生, 御僮僕, 至於讀書, 治田, 營家, 濟物, 如禮、樂、射、御、書、數之類, 皆可爲之. 非此之類, 皆爲無益.

### 과실상규

《소학집해》에 “규(規)는 계(戒)와 같다.”라고 하였고, 그 본주에, “의를 범하는 과실은 여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술주정(酗)·도박(博)·싸움(鬪)·소송(訟)하는 것이요, 둘째는 행동거지가 지나치거나 어긋나는 것이요, 셋째는 행동이 공손하지 못한 것이요, 넷째는 말이 충실하지 않고 미덥지 못한 것이요, 다섯째는 말을 만들어서 모함하고 헐뜯는 것이요, 여섯째는 지나치게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수신(修身)하지 않는 과실은 다섯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사귀지 말아야 할 자와 사귀는 것이요, 둘째는 노닥거리고 희학질하며 게으른 것이요, 셋째는 동작에 예의가 없는 것이요, 넷째는 일에 임해 삼감이 없는 것이요, 다섯째는 용도가 걸맞지 않은 것이다.”라고 했다.

### 過失相規.

《集解》, 規猶戒也. 本註, 犯義之過六, 一曰酗、博、鬪、訟, 二曰行止踰違, 三曰行不恭遜, 四曰言不忠信, 五曰造言誣毀, 六曰營私太甚. 不

修之過五, 一曰交非其人, 二曰遊戲怠惰, 三曰動作無儀, 四曰臨事不恪, 五曰用度不節.

예의바른 풍속으로 서로 사귈다.

《소학집해(小學集解)》본주(本註)에 “혼인·상장·왕래·편지·경조의 류를 말한다.”라고 하였다.

禮俗相交.

《集解》本註, 謂 “婚姻、喪葬、往還、書問、慶弔之類.”

환난에 서로 구휼하여야 한다.

《소학집해》본주(本註)에 “첫째는 수재와 화재요, 둘째는 도적이요, 셋째는 질병이요, 넷째는 사망이요, 다섯째는 외롭고 약함이요<sup>140</sup>, 여섯째는 무함으로 억울하게 당함이요, 일곱째는 가난이다.”라고 하였다. 선한 일이 있으면 장부에 기록하고, 과실이 있거나 향약을 위반한 자가 있으면 또한 장부에 기록하여, 세 번 범하면 벌을 시행하되 고치지 않는 자는 향약에서 제명한다.

《소학집해》에 “약(若)은 및[及]이요<sup>141</sup>, 전(悛)은 고침[改]이다. 절지(絕之)는 향약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다.”라고 하였다.

患難相恤.

《集解》本註, “一曰水火, 二曰盜賊, 三曰疾病, 四曰死喪, 五曰孤弱, 六曰誣枉, 七曰貧乏.” 有善則書于籍, 有過若違約者, 亦書之, 三犯而行罰, 不悛者, 絕之.

《集解》“若, 及也, 悛, 改也, 絕之, 使不與約也.”

1928년 9월 13일. 기해 -도유대연헌-. 맑음.

140 외롭고 약함이요[孤弱]: 고아로 남겨져서 의탁할 곳이 없는 자를 말한다.

141 약(若)은 및[及]이요: 원문에는 ‘若, 示也’로 되어 있으나, 원전에 의거하여 ‘若, 及也’로 정정하여 번역하였다.

十三日. 己亥【屠維大淵獻】. 陽.

1928년 9월 14일. 경자 -상장곤돈-. 맑음.

十四日. 庚子【上章困敦】. 陽.

### 〈서암기(棲岩記)〉

세상에 태어나 이름과 자의 호칭이 없을 수 없지만, 또 스스로 ‘서암(棲岩)’이라 부른 것은 한갓 세속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지학의 나이[志學之年, 15세]에 주부자의 〈회암시(晦岩詩)〉 “생각나는구나, 예전 병산옹께서 나에게 주신 한 마디 가르침. 오래도록 그 가르침 자신하지 못했는데, 이제 바위에 깃들여 작은 효험 바라네. [憶昔屏山翁, 示我一言教. 自信久未能, 岩棲冀微效.]”라는 구절을 탄식하며 읊조렸다. ‘일언(一言)’이라는 뜻을 탐구하고자 하여 그 주를 살펴보니, ‘일언’이라는 것은 곧 주부자의 스승인 병산 유옹[유자휘]이 부자의 자설(字說)을 지어준 것으로, 일언으로서 보여주어 말하기를 ‘나무는 뿌리에 감추지만 봄에는 화려하게 드러나고, 사람은 마음에 감추지만 신명스러운 밝음이 안에 그득하다’라고 한 뜻을 보였다. 그러므로 ‘서암(棲岩)’ 두 자를 문미 위에 걸어놓고 출입하면서 보고 살피면서 ‘작은 효험을 바라다[冀微效]’는 뜻을 잊지 않고자 한 것이다.

### 棲岩記.

生于世, 非無名字之稱, 而又自號棲岩者, 非徒循俗而然也. 志學之年, 咏歎朱夫子〈晦岩〉詩 “憶昔屏山翁, 示我一言教. 自信久未能, 岩棲冀微效” 之句. 欲探一言之旨, 察其註, 則一言者, 卽夫子之師屏山劉翁爲著夫子字說, 以一言以示之曰 ‘木晦於根, 春容燁敷, 人晦於心, 神明內腴’ 之意也. 故以 ‘棲岩’ 二字, 揭于楣上, 出入觀省, 不忘冀微效之志也.

### 〈박재연 부친상 만사에 차운하다〉 次朴在演親喪挽

정이가 어찌 그리도 친밀했는데,

情好何其密

홀연히 저세상 사람이 되었네.	忽焉至帝鄉
자식 셋은 순수한 효자이고,	肖子三純孝
손자는 모두 걸출한 사람이네.	人孫衆傑生
책 속에 경계를 말하기도 전에,	維編戒未道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 깊고 밝았네.	歡養按沈明
죽음을 편안히 운명으로 받아들이니,	存沒順寧節
상여소리 더욱더 처량하구나.	轉悽薤露聲
긴 하늘이 끝나도록 산 하나 없고,	長天不盡無山地
넓은 노을 피어나는 곳에 수촌이 있구나.	淡靄多生有樹村

-월사 이정구, 차천로-【李月沙廷龜, 車天輅】

1928년 9월 15일. 신축 -중광적분약-. 맑음. 집으로 돌아왔다.

戊辰. 九月. 十五日. 辛丑【重光赤奮若】. 陽. 還巢.

1928년 9월 16일. 무인 -저옹섭제-. 맑음.

十六日. 戊寅【著雍攝提】. 陽.

1928년 9월 17일. 기묘 -도유단알-. 맑음. 저녁에 동오(東吾, 동오재)로 돌아왔다.

十七日. 己卯【屠維單闕】. 陽. 夕還東吾.

1928년 9월 18일. 경진 -상장집서-. 맑음.

十八日. 庚辰【上章執徐】. 陽.

1928년 9월 19일. 신사 -중광대황락-. 맑음.

十九日. 辛巳【重光大荒落】. 陽.

1928년 9월 20일. 임오 -현익돈장-. 흐리고 비.

二十日. 壬午【玄默敦泮】. 陰雨.

1928년 9월 21일. 계미 -소양협흡-. 맑음.

二十一日. 癸未【昭陽協洽】. 陽.

1928년 9월 22일. 갑신 -알봉군탄-. 맑음. 혹자가 이(吏)자의 의미에 대해서 물었다. 내가 답하길 “이(吏)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으니, 천리(天吏), 관리(官吏), 부리(府吏)이다. 천리는 천명(天命)을 받들어 행하는 자이고, 관리는 관에 거하며 일을 다스리는 자이며, 부리는 관부(官府)에서 일을 기록하는 자이다.”라고 하였다.

二十二日. 甲申【闕逢涸灘】. 陽. 或問吏字之義. 答曰 “吏有三義, 天吏官吏府吏. 天吏奉行天命者, 官吏居官治事者, 府吏官府記事者也.”

248

1928년 9월 23일. 을유 -전몽작악-. 흐리고 비가 오락말락하였다. 괴질부적은 ‘도가 높으면 용호(龍虎)가 엎드리고, 덕이 크면 귀신이 멀리 달아난다.’이다.

二十三日. 乙酉【旃蒙作噩】. 陰. 欲雨未雨. 怪疾符, ‘道高龍虎伏, 德大鬼神遠’

1928년 9월 24일. 병술 -유조엄무-. 흐리고 비.

二十四日. 丙戌【柔兆闓茂】. 陰雨.

1928년 9월 25일. 정해 -강어대연헌-.

二十五日. 丁亥【疆圉大淵獻】.

1928년 9월 26일. 무자 -저옹곤돈-. 맑음.

二十六日. 戊子【著雍困敦】. 陽.

1928년 9월 27일. 기축 -도유적분약-.

二十七日. 己丑【屠維赤奮若】.

1928년 9월 28일. 경인 -상장섭제-. 맑음. 《삼강행실도》를 보고 간략히 기록하였다.

二十八日. 庚寅【上章攝提】. 陽. 看《三綱行實圖》, 略記之.

#### 서(序)

천하의 공통된 도(道)가 다섯인데, 삼강(三綱)이 맨 위에 있으니, 실지로 경륜의 큰 법이요, 모든 교화의 근원이다. 예전 일을 상고해 보면 제순(帝舜)<sup>142</sup>은 오전(五典)을 지었고, 성탕(成湯)<sup>143</sup>은 비로소 인기(人紀)를 만들었으며, 주(周) 나라에서는 백성으로 하여금 오교(五教)를 존중히 여기게 하고 삼물(三物)<sup>144</sup>로 빈흥(賓興)하였으니, 제왕 정치의 급선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142 제순(帝舜): 순(舜)임금을 말하며 우순(虞舜)이라고도 한다. 요(堯)임금의 선위(禪位)로 제위(帝位)에 올라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우(虞)란 순임금이 천하를 차지하여 다스릴 때의 나라이름이다.

143 성탕(成湯): 하남(河南) 상구(商丘) 사람으로 성은 자(子), 이름은 리(履), 묘호는 태조(太祖)이다. 상나라의 개국군주로, BC. 1617년부터 BC. 1588년까지 재위에 있었다. 무탕(武湯), 은탕(殷湯), 천을(天乙), 성탕(成湯), 성당(成唐)으로 불리기도 하고, 갑골문에서는 당(唐), 태을(大乙), 고조을(高祖乙)로 기재되어 있다. 고대 상(商) 부족의 지도자로서, 하(夏)나라를 멸망시키고 상나라를 건립하고 인정(仁政)을 베풀었다. 시호는 무왕(武王)이다.

144 삼물(三物): 육덕(六德)·육행(六行)·육예(六藝)를 말함이니, 육덕은 지(知)·인(仁)·성(聖)·의(義)·충(忠)·화(和)이고, 육행은 효(孝)·우(友)·목(睦)·인(嫻)·임(任)·홍(恤)이며, 육예는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이다. 《주례》〈지관(地官)·대사도(大司徒)〉에 보인다.

선덕(宣德) 신해(1431)년 여름에, 우리 주상 전하께서 근신(近臣)에게 명하기를, “삼대의 정치는 모두 인륜을 밝혔는데 후세에는 교화가 차츰 해이해져서 백성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니, 근신·부자·부부의 큰 인륜이 모두 본연의 성품과 위배되어 항상 박(薄)한 데에 흘렀다. 그러나 간혹 탁월한 행실과 높은 절개가 습속에 휩쓸리지 아니하여 보고 듣는 사람을 깨우쳐 일으키는 자도 많았다. 내가 그 특이한 것을 뽑아서 그림을 그리고 찬을 지어서 안팎에 반포하려고 한다. 거의 어리석은 남자나 무식한 여자들도 모두 보고 느껴 흥기할 것이니, 또한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룩하는 한 가지 방도이다.”라고 하시고, 곧이어 집현전 부제학 신(臣) 설순(裊循)에게 명령하여 편찬하는 일을 맡게 하셨습니다.

이에 중국으로부터 우리 동방에 이르기까지 고급의 서적에 있는 것을 찾아보지 않은 것이 없이 하여 효자·충신·열녀로 뚜렷이 기술했 만한 사람 각각 (1백) 10명을 뽑아서 전면에는 그림을 그리고 후면에는 그 사실을 기록했으며, 아울러 시(詩)까지 써 놓았습니다.

효자에 있어서는 삼가 태종황제(太宗皇帝)가 하사한 효순사실(孝順事實)의 시를 기록하고, 겸하여 신의 고조(高祖) 신 권부(權溥)<sup>145</sup>가 지은 《효행록(孝行錄)》<sup>146</sup> 가운데 있는 명현(名賢) 이제현(李齊賢)의 찬(贊)을 가져왔고, 그 나머지는 보신(輔臣)으로 하여금 나누어 짓도록 하였으며, 충신과 열녀의 시도 문신들로 하여금 나누어 짓게 하였습니다. 편찬이 끝나자 《삼강행실도》란 이름을 내리고 주자소(鑄字所)로 하여금 발간해서 영구히 전하

- 145 권부(權溥, 1262~1346) : 초명은 권영(權永), 자는 제만(齊滿), 호는 국재(菊齋),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1279년 18세로 문과에 급제, 첨의사인(僉議舍人)을 거쳐 충선왕 때에 사림원(詞林院) 학사로 왕의 총애를 받아 우부승지(右副承旨)가 되었고, 충렬왕이 복위하자 밀직학사(密直學士), 지도첨의사사(知都僉議司事)를 지냈다. 주자학이 전래되자 이의 발전을 위해 크게 노력하여 《주자사서집주(朱子四書集註)》의 간행을 상소, 성리학을 보급시키는 데 공헌하고, 《은대집(銀臺集) 20권》을 주서(註書)하였다.
- 146 효행록(孝行錄) : 고려 후기에 중국 역대의 효행 고사를 모아 만든 목판본 책이다. 1346년(충목왕 2년) 권준(權準)이 자신의 아버지 권부(權溥)와 함께 중국의 효행설 62장을 선정하고 이제현(李齊賢)의 찬(贊)을 얻어 엮었다. 1405년(태종 5년) 권준의 현손(玄孫)인 권근(權近)이 주석을 달아 처음 간행했다.

게 하였습니다.

이에 신 권채(權採)<sup>147</sup>에게 명하여 책머리에 서문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신 권채는 삼가 생각하건대, 임금과 어버이와 부부의 인륜에 대한 충·효·절의(節義)의 도리는 바로 하늘이 품부한 천성으로 사람마다 같은 것이니, 천지가 처음 생길 때부터 같이 생겼고 천지가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서, 요순(堯舜)이 어질다고 더 있는 게 아니고 걸주(桀紂)가 사납다고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왕(先王) 때에는 오전(五典)을 잘 따라 백성들이 화복해서 집집마다 표창을 할 만하였는데, 삼대 이후에는 안정된 날이 항상 적어서 난신(亂臣)과 적자(賊子)의 무리가 세상에 발을 붙이게 된 것은 진실로 임금이 그 백성을 잘 인도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지금 우리 주상 전하께서는 성스럽고 신묘한 자질로 군사(君師)의 도리를 다해서 공덕을 이룩하고 정치가 안정되어 온갖 일이 다 확장함과 동시에 강상(綱常)을 붙들어 일으키고 세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았습니다.

무릇 명교(名教)에 관계되는 것은 강구하고 자세히 따져서 이전(彝典)<sup>148</sup>으로 만들지 않은 것이 없으니, 몸소 행하고 마음으로 체득한 나머지 백성을 교화시키는 것이 아주 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도 흥기시키는 방법이 미진한 데가 있을까 염려하여 여기서 이 책을 만들어 민간에 배포하여, 어질거나 어리석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아이거나 부녀자이거나 나를 막론하고 모두 즐겨 보고 익히 들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림을 구경하여 그 모습을 생각하며 그 시를 읊고 그 성정(性情)을 체득하면 흠모하며 권면하고 격려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서, 다 같이 착한 마음을 감발시키고 그 직분에 마땅히 할 일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147 권채(權採, 1399~1438) : 자는 여서(汝鋤),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아버지는 제학(提學) 권우(權遇)이며, 어머니는 남양홍씨(南陽洪氏)로 판사(判事) 홍빈(洪賓)의 딸이다. 또한 조선 초기 유학의 대가인 권근(權近)의 조카이다. 1417년(태종 17)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그 해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 응교·동부승지·우부승지 등을 지냈고, 유호통(俞好通) 등과 함께 『신증향약집성방(新增鄕藥集成方)』을 편찬하였다.

148 이전(彝典) : 상도(常道)·상규(常規)를 이른다.

대개 제왕이 오전(五典)을 돈독히 하고 교화를 펴는 뜻과 더불어 동일한 법인데, 조리는 더 정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백성의 풍속이 아름답게 변하고 다스리는 방도가 더욱 융성하며 집에는 다 효도하는 자식이 되고 나라에는 모두 충성하는 신하가 되면, 남해(南陔)와 백화(白華)<sup>149</sup>의 편(篇)과 광한(廣漢)과 여분(汝墳)<sup>150</sup>의 시(詩)를 장차 위항(委巷)에서 계속해 지을 것입니다. 왕화(王化)의 아름다운 것은 마땅히 이남(二南)<sup>151</sup>에 양보하지 않을 것이요, 왕업의 견고한 것은 실제로 길이 만세에 전할 것이다. 후세의 군자는 더욱 성상의 마음을 본받아서 무궁한 장래에 까지 경건하게 지키는 것은 어찌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종 14년(1432) 6월에 봉렬대부 집현전응교 예문관응교 지제교 경연검토관 신 권채(權採)가 임금의 뜻을 받들어 서를 씁니다.

序.

天下之達道五, 而三綱居其首. 實經綸之大法, 而萬化之本源也. 若稽諸古, 帝舜慎徽五典, 成湯肇修人紀, 周家重民五教, 而賓興三物, 帝王爲治之先務, 可知也已. 宣德辛亥夏, 我主上殿下, 命近臣若曰, “三代之治, 皆所以明人倫也, 後世教化陵夷, 百姓不親, 君臣·父子·夫婦之大倫, 率皆昧於所性, 而常失於薄. 間有卓行高節, 不爲習俗所移, 而聳人觀聽者, 亦多. 予欲使取其特異者, 作爲圖贊, 頒諸中外, 庶幾愚夫愚婦, 皆得以易觀感而興起, 則亦化民成俗之一道也.” 乃命集賢殿副提學, 臣 偲循, 掌編摩. 於是, 自中國以至我東方, 古今書傳所載, 靡不蒐閱, 得孝子、忠臣、烈女之卓然可述者, 各(百)有十人, 圖形前於, 記實於後, 而并系以詩. 孝子則謹錄太宗文皇帝所賜孝順事實之詩, 兼取臣高祖臣

149 남해(南陔)와 백화(白華) : 《시경》〈소아(小雅)〉의 편명으로, 〈백화〉는 효자가 서로 경계하여 어버이를 봉양할 것을 읊은 시이고, 〈남해〉는 효자의 결백을 읊은 시이다. 모두 가사는 없어지고 그 뜻만 전해지고 있다.

150 광한(廣漢)과 여분(汝墳) : 《시경》〈주남(周南)〉의 편명으로, 문왕(文王)의 교화가 멀리까지 펼쳐짐을 말한 것이다.

151 이남(二南) : 이남은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을 말하는데 〈주남〉은 문왕(文王)의 후비인 태사(太姒)의 덕을, 〈소남〉은 후비의 교화를 입은 제후국 왕비의 덕을 읊은 것이다.

溥所撰《孝行錄》中名儒李齊賢之贊，其餘則令輔臣分撰，忠臣烈女之詩，亦令文臣(分)製。編訖，賜名三綱行實圖，令鑄字所，鋟梓永傳。爰命臣採，序其卷端，臣採竊惟，君親夫婦之倫，忠孝節義之道，是乃降衷秉彝，人人所同，窮天地之始而俱生，極天地之終而罔墜，不以堯舜之仁而有餘，不以桀紂之暴而不足。然先王之時，五典克從，民用和睦，而比屋可封，三代以後，治日常少，而亂賊之徒，接跡於世者，良由君上導養之如何耳。今我主上殿下，以神聖之資，盡君師之道，功成治定，萬目畢張，而以扶植綱常，維持世道爲本。凡有關於名教者，無不講究商確著爲彝典，所以化民於躬行心得之餘，既極其至，猶慮興起之方，有所未盡，乃爲此書，廣布民間，使無賢愚貴賤孩童婦女，皆有以樂觀而習聞，披翫其圖，以想形容，諷詠其詩，以體性情，莫不歆羨嘆慕，勸勉激勵，以感發同然之善心，而盡其職分之當爲矣。蓋與帝王敦典敷教之義，同一揆而條理有加密焉。由是民風丕變，治道益隆，家盡孝順之子，國皆忠蓋之臣，南陔白華之什，漢廣汝墳之詩，將繼作於委巷之間，王化之美，當無讓於二南，而王業之固，實永傳於萬世。後之君子，益體宸衷，服膺敬守於無窮，豈不韙歟。宣德七年六月日，奉列大夫，集賢殿應教，禮文應教，知製教，經筵檢討官，臣權採奉教序。

삼강행실효자도 三綱行實孝子圖.

〈민손이 흘옷을 입다[閔損單衣]〉 -노나라-

민손은 공자의 제자이다. 일찍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후처를 취하여, 두 아들을 낳았다. 계모가 민손을 미워하여, 낳은 아들의 옷에는 솜을 두어서 입히고, 민손에게는 갈옷을 두어 입혔다. 아버지가 알고 후처를 내치고자 하므로, 민손이 아버지에게 말하길, “어머니가 있으면 한 아들이 춥고, 어머니가 없으면 세 아들이 흘옷으로 지낼 것입니다.”라고 하니, 아버지가 그 말을 어질게 여겨 그쳤다. 계모가 또한 감동하고 뉘우쳐, 드디어 자애로운 어머니가 되었다.

**閔損單衣【魯】.**

閔損, 孔子弟子. 早喪母, 父娶後妻生二子. 母嫉損, 所生子衣綿絮, 衣損蘆花. 父知之欲遣後妻, 損啓父曰, “母在一子寒, 母去三子單” 父善其言而止, 母亦感悔, 遂成慈母.

**시 詩.**

갈대꽃 든 옷으로 추위를 막을 수 없으나,	身衣蘆花不禦寒
엄동설한을 차라리나 혼자 홑옷으로 지내려네.	隆冬寧使一身單
이에 좋은 말로 아버 마음 돌이키니,	因將好語回嚴父
아들들은 화합하고 어미는 평안함을 얻게 되었네.	子得團圓母得安

효성스러워라 민손, 세상에서는 어짊을 칭송하고,	孝哉閔損世稱賢
덕행은 이로부터 만고(萬古)에 전해지네.	德行由來萬古傳
계모는 하루아침에 감동을 하고 깨달았나니,	繼母一朝能感悟
이로부터 자애로운 마음은 치우침이 없어라.	從茲慈愛意無偏

**찬 贊.**

의붓어미 자애롭지 않아,	後母不慈
오직 자기의 아들만 깊이 사랑했네.	獨厚己兒
아우는 따뜻하고 형은 추우니,	弟溫兄凍
갈대꽃을 두고 솜을 두지 않았네.	蘆絮非綿
아버지는 이에 어미를 내쫓으려고 하니,	父將逐母
무릎 꿇고 앞에서 아뢰기를,	跪白于前
어미가 지금 여기에 있어서,	母今在此
한 아들만 홀로 추우면 되는데,	一子獨寒
만약 어미를 쫓아버리면,	若令母去
세 아들 모두 홑옷으로 지내야 하리.	三子俱單
아버지는 이에 감동하여 그만두었으니,	父感而止

## 〈자로가 쌀을 저오다[子路負米]〉 -노나라-

자로의 성은 중(仲)이고, 이름은 유(由)로 공자의 제자이다. 아버이 섬기기를 지극한 효도로 할 때에 집이 가난하여 나물국<sup>152</sup> 먹으며, 아버이를 위해 백 리 밖에서 쌀을 저왔다. 아버이가 죽은 뒤에 남쪽으로 초나라에서 벼슬하여 뒤따르는 수레가 100승이고, 쌓아 놓은 곡식이 만 중이나 되며, 자리를 겹쳐서 앉고, 술을 늘어놓고 먹었다. 이에 탄식하여 말하기를, “비록 나물국 먹으며 아버이를 위하여 쌀을 저 오고 싶어도, 그럴 수 없구나.”라고 하였다. 공자가 그것을 듣고 말하길, “유는 살아서는 섬김에 힘을 다하고, 죽어서는 섬김에 사모함을 다한다라고 할만 하구나” 하였다.

## 子路負米【魯】.

子路, 姓仲, 名由, 孔子弟子. 事親至孝, 家貧食藜藿, 爲親負米百里. 親歿之後, 南遊於楚, 從車百乘, 積粟萬鍾, 累牀而坐, 列鼎而食. 乃歎曰, “雖欲食藜藿, 負米爲親, 不可得也.” 孔子聞之曰 “由也, 可謂生事盡力, 死事盡思者也.”

255

## 시 詩.

집이 가난하여 나물국으로 겨우 배를 채우며,	家貧藜藿僅能充
곤궁한 가운데 쌀가마 저 아버이를 공양하였네.	負米供親困苦中
당시 공자 문하에서는 그의 극진한 효를 칭송했으니,	當日孔門稱盡孝
중유(仲由)의 높은 풍격 천고에 전하여지네.	仲由千古播高風

아침엔 술 늘어놓고 저녁엔 두터운 요 깔며,	一朝列鼎累重裯
부하고 귀하여도 끝내 천하고 가난했을 때를 생각하네.	富貴終能念賤貧

152 나물국 : 원문의 ‘여곽(藜藿)’은 명아주 잎과 콩잎으로 끓인 국이라는 뜻으로, 빈궁한 자의 거친 음식을 뜻한다.

살아서 섬기고 죽어서 생각하며 오직 효도를 다함에, 生事死思惟盡孝  
공자의 문하에서 그를 찬미하니 현인에 속하네. 聖門嘉譽屬賢人

〈양향이 범의 목을 조르다. [楊香搯虎]〉 -노(魯)나라-

양향은 남향현(南鄉縣) 양풍(楊豐)의 딸이다. 아버지를 따라서 밭에 있을 때, 풍(豐)이 범에게 물리게 되니, 이때 (양향의) 나이 겨우 14세였다. 손에 한 치의 칼도 없어 범의 목을 조르니, 풍(豐)이 범에게서 풀려났다. 태수 맹조지(孟肇之)가 재물과 곡식을 주고, 정문을 세웠다.

**楊香搯虎【魯】.**

楊香, 南鄉縣楊豐女也. 隨父田間, 豐爲虎所噬, 香年十四. 手無寸刀, 乃搯虎頸, 豐因獲免. 太守孟肇之, 賜資穀, 旌其門閭.

시 詩.

아버지 호랑이에게 물려 마음이 화급한데, 父遭虎噬愴心顏  
목숨은 당시 경각(頃刻) 사이에 달렸어라. 命在當時頃刻間  
호랑이 목을 끌어 앉고 죽길 무릅써, 虎頸搯持寧顧死  
아버지의 목숨 구하여 살아오도록 하였네. 致命嚴父得生還

어려서 몸은 약하여도 기개는 높아, 幼齡體弱氣軒昂  
아버지 목숨 호랑이가 해치지 못하도록 했네. 父命能令虎不傷  
청사(靑史)에 지금도 그 명성이 전해져 오니, 靑史尙留名聲在  
지금까지 누군들 양향(楊香)을 말하지않으랴. 至今誰不道楊香

〈고어가 길에서 통곡하다[臯魚道哭]〉 -초(楚)나라-

공자가 출행(出行)할 때 매우 슬픈 울음소리가 있음을 듣고 이르니 고어(臯魚)였다. 배웃을 입고, 칼을 가지고 길가에서 울거늘, 공자가 수레에서 내려서 그 연고를 물으니 대답하여 말하기를 “제가 젊었을 때 학문을 좋아하여 천하를 두루 다녔는데, 어버이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무릇 나무

가 고요하고자 하여도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자식이 봉양하고자 하여도 아버지가 기다리지 아니합니다. 가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은 해[年]요, 가버려서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아버지이니, 내가 여기서 하직하고자 합니다.”라고 하고, 서서 울다가 죽으니, 이에 공자의 문인으로서 돌아가서 아버지가 봉양하는 자가 열세 사람이었다.

**臯魚道哭【楚】.**

孔子出行，聞有哭聲甚悲，至見臯魚也。被褐擁劍，哭於路左，孔子下車而問其故，對曰，“吾少時好學，周流天下，而吾親死矣。夫樹欲靜而風不止，子欲養而親不待。往而不可返者年也，逝而不可追者親也，吾於是辭矣。”立哭而死，於是孔子之門人，歸養親者，一十三人。

<진씨가 시어머니를 봉양하다【陳氏養姑】> -한(漢)나라-

효부라 부르고 《소학》에 보인다.

**陳氏養姑【漢】.**

號曰孝婦，見《小學》.

257

<강혁이 크게 효도하다【江革巨孝】> -한(漢)나라-

**江革巨孝【漢】.**

**시 詩.**

지극한 효도로 말미암아 귀신을 감동케 하여,	至孝由來動鬼神
비록 강도를 만난다 해도 몸은 온전히 했네.	雖逢強暴亦全身
결국 모자는 무사하였으니,	到頭母子俱無恙
하늘과 땅은 마침내 착한 사람에게 복을 내린 것이네.	天地終應福善人

<설포가 집안을 청소하다【薛包洒掃】> -한(漢)나라-

《소학》에 보인다.

**薛包洒掃【漢】.**

見《小學》.

시 詩.

어버이의 마음을 언지 못하여 눈물 흘리며,	不得親心涕泗濡
혼정신성 <sup>153</sup> 하고 쇄소(洒掃)하며 집을 지키네.	晨昏洒掃守門閭
정성을 쌓고 감동을 얻어 어버이 기뻐하니,	積誠感得親(顏悅)
부자 화합하여 궐초(厥初) <sup>154</sup> 를 이루었네.	父子和諧遂厥初

〈효녀 조아가 시체를 안다(孝娥抱屍)〉 -한(漢)나라-

효녀 조아는 회계 사람이다. 아버지 우(盱)가 강물에 빠져 죽으니, 아(娥)의 나이가 24세였다. 강가에서 부르짖어 울더니, 마침내 강에 몸을 던져 열이레 만에 아버지의 주검을 안고 물에 뜨니, 아전과 백성들이 장사지내고 비석을 세웠다.

孝娥抱屍【漢】.

孝女曹娥，會稽人。父盱溺江而死，娥年二十四。沿江號哭，遂投江而旬有七日，抱父屍出，吏民葬而樹碑。

〈황향이 베개에 부채질 하다(黃香扇枕)〉 -한(漢)나라-

《소학》에 보인다. 아홉 살에 어머니를 잃고, 홀로 그 아버지를 봉양하였다.

黃香扇枕【漢】.

見《小學》. 九歲失母，獨養其父。

153 혼정신성 : 아버지를 정성껏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예기》〈곡례 상(曲禮上)〉에 “자식이 된 자는 어버이에 대해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 드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 드려야 하며, 저녁에는 잠자리를 보살펴 드리고 아침에는 문안 인사를 올려야 한다. [冬溫而夏清，昏定而晨省]”라는 말이 나온다.

154 궐초(厥初) : 본연(本然)이란 뜻이다. 《소학(小學)》〈제사(題辭)〉

## 시 詩.

황향(黃香)의 효행은 어릴 때부터 비롯해,  
 선침(扇枕)과 온금(溫衾) 세상에 함께 전하네.  
 추위와 더위를 아비로 하여 몸소 겪지 않도록 하니,  
 효성스런 한결같은 마음은 천연에서 나온 것이네.  
 강하(江夏)의 황향은 어려서도 뜻이 남달라서,  
 당시에 이미 세상에는 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네.  
 누관(累官)하여 곧바로 상서령(尙書令)에 이르니,  
 효성에 감복함이 자손으로 하여금 창성하게 했네.

黃香行孝自髫年  
 扇枕溫衾世共傳  
 寒暑不令親體受  
 誠心一念出天然  
 江夏黃童志異常  
 當時已道世無雙  
 累官直至尙書令  
 孝感能令後嗣昌

## 〈정란이 나무를 새기다[丁蘭刻木]〉 -한(漢)나라-

이십사효를 그림에 새긴 것으로, 정란이 나무를 새겨 어머니상을 만들  
 고 섬겼다.

丁蘭刻木【漢】.

二十四孝圖去, 蘭刻木爲母象.

## 〈동영이 돈빚을 얻다[董永貸錢]〉 -한(漢)나라-

董永貸錢【漢】.

## 시

## 詩.

일만 냥의 돈을 빌려 어버이 장례를 모시고,  
 스스로 종이 되어 주인의 빚을 갚으려고 했네.  
 어찌 생각하였으랴 효심이 끝내 감격시킬 것을,  
 하늘은 직녀로 하여금 자신의 가난을 돕게 했네.

得錢一萬葬其親  
 身擬爲傭報主人  
 豈料孝心終感格  
 天教織女助身貧

효심은 마침내 하늘을 감동시켜,  
 직녀로 하여금 빌린 돈을 갚도록 돕게 했네.

孝心終能感上天  
 爲教織女助還錢

한 달 동안에 비단 삼백 필을 죽히 짜내고,  
홀연히 작별하고 구름 타고 올라가네.

一月足織三百匹  
飄然分手上雲煙

〈맹희가 금을 얻다[孟熙得金]〉 -촉(蜀)나라-

곽거(郭巨)<sup>155</sup>가 땅을 파서 금을 얻어서 관청에서도 빼앗지 말고, 다른 사람도 취하지 말라는 것과는 같지 않다.

맹희는 과실을 팔아 아버이를 봉양하며, 안색을 살펴 뜻을 따르고 신고(辛苦, 어려운 일을 하며 고생함)함을 꺼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항상 말하기를, “내가 비록 가난하나, 한 명의 증삼(曾參, 증자)<sup>156</sup>을 길렀노라.” 라고 하였다. 아버지가 죽자, 슬피 울부짖어 거의 멸성(滅性)에 이르렀으며, 거적자리를 땅에 펴고, 그 위에서 자면서 3년동안 소금과 유장을 먹지 아니하였다. 인하여 쥐구멍을 파다가 황금 수천 냥을 얻게 되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孟熙得金【蜀】.**

與郭巨得金刻土, 官不得奪, 人不得取, 不同.

孟熙, 販果養親, 承顏順志, 不憚苦辛. 父常云, “我雖貧賤, 養得一曾參.” 及父亡哀號, 幾至滅性, 布苫于地, 寢處其上, 三年不食鹽酪. 因見鼠掘地, 得黃金數千兩, 遂爲巨富焉.

- 155 곽거(郭巨) : 곽거는 진(晉)나라 용릉(隆陵) 사람으로 아내와 품팔이를 하여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어머니가 음식을 손자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자 어머니 똥이 줄어든다 하여 땅을 파고 아이를 묻어버리려 하였다. 세자쯤 땅을 파니 황금 술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 위에 “하늘이 효자 곽거(郭巨)에게 내리는 것이니, 관청에서도 빼앗지 말고, 다른 사람도 취하지 말라.”라는 글이 써여 있었다고 한다.
- 156 증삼(曾參) : 공자의 제자인 증자(曾子)의 이름이다. 노나라 남무성(南武城) 사람으로 자는 자여(子輿), 지극한 효자로서 효심이 지극하여 멀리 있어도 모친이 전하는 바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십사효》 중에 ‘교지 통삼의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다.

## 시 詩.

집안이 가난하여 등짐장사로 어머니 봉양하고,  
 받들어 순종하며 어찌 일찍이 고생을 꺼렸으리.  
 돌아가신 후 상을 치를 땀 예도를 다하고,  
 행동은 증자(曾子)와 같아 보통사람과 달랐다네.

家貧負販養嚴親  
 承順何嘗憚苦辛  
 歿後居喪能盡禮  
 行同曾子異常人

귀구멍을 파다가 무슨 연유로 갑자기 금을 얻었나.  
 아버지께 효도하니 이에 하늘이 감동한 것이네.  
 일시에 집이 부유해진 것뿐만이 아니라,  
 향기로운 이름 얻어 지금까지 말해지네.

掘鼠何由遽得金  
 孝親於此感天心  
 一時不但家能富  
 贏得香名說到今

〈왕부가 시를 폐하다[王哀廢詩]<sup>157</sup> -위나라-

《소학》에 보인다.

王哀廢詩【魏】。見《小學》。

261

〈맹종이 대나무를 향해 울다[孟宗泣竹]〉

맹종은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는데 어머니가 늙고 병이 깊어 겨울에 죽순을 먹고자 하시자, 맹종이 대숲에 가서 슬피 우니 죽순 두어 줄기가 솟아났다. 그것을 가져다가 국을 만들어 드리니, 어머니가 먹고 병이 나았다.

孟宗泣竹。性至孝，母年老病篤，冬思筍食，宗入竹林，哀泣筍出數莖，持歸作羹，母食病愈。

157 왕부가 시를 폐하다[王哀廢詩] : 진(晉)나라 왕부(王裒)가 《시경(詩經)》 〈소아(小雅)·육아편(蓼莪篇)〉의 '슬프다 우리 부모, 나를 낳아 얼마나 고생하셨나. [王哀父母 生我劬勞]'라는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형(斬刑)을 당한 부친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곤 하였으므로, 수업받는 문인들이 아예 〈육아편〉을 폐(廢)하려고 했던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진서(晉書)·효우(孝友)·왕부전(王裒傳)》)

시 詩.

효행으로는 당년의 맹종을 말하노니,	孝行當年說孟宗
어머니가 죽순을 생각할 땐 추운 겨울 무렵이었네.	慈親思筍逼寒冬
대숲에서 눈물 뿌리며 슬피 울부짖은 곳에서,	竹林洒淚哀號處
몇 줄기 죽순이 깜짝할 새 솟아 나왔네.	數筍須臾出地中

어머니가 죽순을 먹은 것으로 인해 병이 다 나오니,	母因食筍病全蘇
하늘의 이치가 밝고 밝아 속이지 않음을 믿겠네.	天理昭昭信不誣
오직 이 마음으로 효도 생각 보존하면,	惟以此心存孝念
저승이나 이승에서 저절로 귀신의 도움 있으리.	幽明自有鬼神扶

<왕상이 얼음을 깨다[王祥剖冰]> -진나라-

《소학》에 보인다.

王祥剖冰【晉】。見《小學》。

시 詩.

왕상의 성효는 참으로 부럽구나.	王祥誠孝真堪羨
부모님을 받들어 뜻을 돌이키지 않았네.	承順親顏志不回
얼음이 갈라져 쌍 잉어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不獨剖冰雙鯉出
돌아와 보니 참새들이 스스로 날아들었네.	還看黃雀自飛來

마을에선 그 효성에 깊이 감동하고,	鄉里驚嗟孝感深
하늘이 보응하여 참마음을 표창했네.	皇天報應表純心
늙어서는 삼공의 자리로 귀하게 되니,	白頭重作三公貴
행의는 더욱 세상에서 공경한 바 되었네.	行誼尤爲世所欽

<왕연을 위해 물고기가 뛰어나오다[王延躍魚]> -진나라-

왕상(王祥)이 얼음을 두드린 것과 대략 비슷하다.

王延躍魚【晉】。與王祥叩冰，略相似。

〈반종이 아버지를 구하다【潘綜救父】〉 -진나라-

반종은 오흥(吳興) 사람이다. 손은(孫恩)<sup>158</sup>의 난리 때 요당(祿黨)이 촌읍을 공격하자, 반종이 그 아버지 표(驃)와 함께 적을 피해 달아나는데, 표는 늙어서 행동이 더디었다. 적이 점점 표에게 다가오자 표가 종에게 이르길, “나는 더 갈 수가 없다. 너는 달아나면 벗어날 수 있으니, 함께 죽지 말길 바란다.”라고 하고, 표가 피곤하여 땅에 주저앉았다. 반종이 적을 맞이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이르되, “아버지는 늙었으니 목숨을 살려주소.”라고 하였고, 표도 또 청하되, “아들이 나를 위해서 가지 않고 있으니, 이 아들을 살려주소.”라고 했다. 적이 표를 찌르려 하자, 반종이 배 아래에 아버지를 안으니, 적이 반종의 얼굴 부분을 치길 무릇 네 번이나 하였다. 반종이 이미 기절하였는데, 한 적군이 와서 무리들에게 말하길, “아들이 죽음으로써 아버지를 구하니, 효자를 죽이는 것은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적군이 이내 그쳤고,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죽음을 면하였다. 원가(元嘉, 송문제의 연호, 424~453) 4년에 유사가 상주하여 그 마을 이름을 ‘순효’라고 고치고, 조포(租布, 세금)를 삼 대 동안 면제해주었다.

潘綜救父【晉】。綜吳興人。孫恩之亂，祿黨破村邑，綜與父驃共走避賊。驃年老行遲，賊轉逼驃，驃語綜曰，“我不能去，汝走可脫，幸勿俱死。”驃困乏坐地，綜迎賊叩頭曰，“父年老，乞賜生命。”驃亦請曰，“兒爲不去，乞活此兒。”賊斫驃，綜抱父於服下，賊斫綜頭面，凡四創。綜已悶絕，有一賊來語眾曰，“此兒以死救父，殺孝子不祥。”賊乃止，父子並得免。元嘉四年，有司奏改其里爲純孝，蠲租布三世。

158 손은(孫恩, ?~402) : 진 안제(晉安帝) 때의 반장(叛將)으로, 자는 영수(靈秀)이다. 안제가 정신박약이라는 점 때문에 동진 안제의 친인척인 사마원현(司馬元顯)이 폭정을 일삼는 것을 이용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스스로 정동장군(征東將軍)이라 하였으며, 그의 무리들을 장생인(長生人)이라 하였다. 뒤에 유유(劉裕)·신경(辛景)에게 패하여 죽었다. (《진서(晉書)·손은열전(孫恩列傳)》)

시 詩.

난을 피하지만 어찌 상란의 나머지 감당할 수 있으리,	避難何堪喪亂餘
무기의 어지러움이 마을에 가득하였네.	干戈擾擾遍村墟
가까이에서 도적 만나 풀려날 수 없었으니,	不逢傍寇能開釋
부자가 도적의 구역에서 죽음을 당할 때였네.	父子當時死盜區

난을 벗어나 거듭 태평 연간을 만나니,	亂離重遇太平年
3대가 세금이 이미 모두 면제되었네.	三世公租已盡蠲
듣자니 오흥 땅에 옛집이 남았다는데,	聞道吳興存舊業
마을 이름이 순효리로 지금까지 전한다네.	里名純孝至今傳

〈검루가 똥을 맛보다[黔婁嘗糞]〉 -제나라-

신야(新野)사람이다.

《소학》에 보인다.

黔婁嘗糞【齊】. 新野人. 見《小學》.

시 詩.

잔릉의 영이 되어 있다가 문득 마음이 놀라,	孱陵作令忽心驚
관직을 버리고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병에 걸렸네.	棄職還家父疾嬰
소식을 어찌 알아서 먼 길을 왔는가.	消息何曾來遠道
감응하여 통한 것은 참된 정성에 있었네.	感通應是在純誠

자신의 몸이 아버 대신 죽고자 하여,	願將身殞代嚴親
하늘에 머리 조아리고 북두칠성에 기도하였네.	稽顙中天禱北辰
문득 소리 있어 보을할 것을 전하였으니,	便覺有聲傳報應
예로부터 효성은 신과 인간을 감동시키네.	從來孝念感神人

〈숙겸이 약을 구하러 다니다[叔謙訪藥]〉 -제나라-

해숙겸(解叔謙)은 안문(鴈門) 사람이다. 어머니가 병이 들어 숙겸이 밤에 뜰 가운데에서 머리 조아리고 빌 때 허공에서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병은 정공등(丁公藤)으로 술을 빚어 먹으면 곧 나으리라.”라고 하였다. 곧바로 의원한테 병과 본초(本草)를 물으니, 모두 알지 못하는 것 인지라 이내 두루 구하러 다니다가 의도군(宜都郡)<sup>159</sup>에 이르렀다. 멀리에서 산중에 한 늙은 사람이 나무를 베고 있는 것을 보고, 어디에 쓸 것인지 물으니, 대답하되, “이것은 정공등으로, 풍병을 치료하는 데 더욱 효험이 있소,”라고 하였다. 숙겸이 문득 절하고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이곳에 오게 된 뜻을 모두 말하였다. 이 늙은 사람도 마음 아파하며 네 가닥을 주고 아울러 술 담그는 법을 알려주었다. 숙겸이 그것을 받고 이 사람을 돌아보니 이미 홀연히 보이지 않았다. 법대로 술을 만들어 드리니, 어머니의 병이 곧바로 나왔다.

叔謙訪藥【齊】. 解叔謙, 鴈門人. 母有疾, 叔謙夜於庭中稽顙祈福, 聞空中語云, “此病得丁公藤爲酒便差.” 卽訪醫及本草, 皆無識者, 乃求訪至宜都郡. 遙見山中一老公伐木, 問其所用, 答曰, “此丁公藤, 療風尤驗.” 叔謙便拜伏流涕, 具言來意. 此公愴然, 以四段與之, 并示以漬酒法. 叔謙受之, 顧視此人, 已忽不見. 依法爲酒, 母病卽差.

265

### 시 詩.

어미의 병에 약을 구하여 밤낮으로 근심하며,	母疾求醫(日夜憂)
하늘을 우러르고 머리 조아리며 힘써 빌었네.	仰天稽顙苦祈求
신명께서 간절한 정성에 특별히 감동하여,	神明特感誠心切
좋은 처방법을 말해주어 병을 고쳤네.	說與良方治病由

159 의도군(宜都郡) : 현재 중국의 호북성(湖北省) 의도시(宜都市)로 장강(長江)의 중류 남안(南岸)에 위치해 있다. 춘추전국시기에는 초(楚)에 속해있었으며,전한 무제(前漢 武帝) 때 현을 설치하고 이도현(夷道縣)이라고 했다가 후한말 건안(建安) 14년(209)에 유비(劉備)가 임강군(臨江郡)을 고치고 이어 의도군(宜都郡)으로 삼았다. 역사상 유명한 이릉지전(夷陵之戰)이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였다. 험난한 산골에 위치한다.

숙검의 효성에 감응함이 어찌 공연한 뜻이겠나.	叔謙孝感豈徒然
정성이 응당 하늘에 도달해서이네.	應有精誠達上天
홀연히 정공득을 얻어 술을 담그니,	忽得丁公藤漬酒
곧바로 어미의 병이 편안하게 낫게 하였네.	卽令母病頓安痊

〈길분이 아버지를 대신하다[吉拊代父]〉 -양나라-

길분은 풍익(馮翊) 사람이다. 아버지가 향령(鄕令)이 되었는데, 아전의 무고로 인해 정위(廷尉)<sup>60</sup>에게 붙잡혀갔다. 길분의 나이 15세로, 울면서 그를 따라가니, 보는 자들이 모두 눈물을 떨구었다. 그 아버지가 다스린 것은 비록 청백하였을지라도 무고를 입은 것은 대벽(大辟, 사형)에 해당되었다. 길분이 복을 쳐서 알리며 대신 죽기를 빌었는데 무제(武帝)가 가상히 여기고, 그가 어리다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것인가 의심하여 정위 채법도(蔡法度)에게 신칙하길 ‘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여 말을 받아내라’고 하였다. 채법도가 무겁게 가두고서 엄한 얼굴로 묻길, “네가 아버지를 대신해 죽으러 온 것은 칙명으로 이미 허락하셨다. 그러나 형벌이 매우 매서우니, 견디기 힘들 것이다. 만약 뉘우침이 있다면 또한 죽지 않도록 들어주겠다.”라고 하자, 대답하되, “죄인이 비록 어리석을지라도 어찌 죽음이 두려운 것을 모르겠습니까? 아버지의 극형을 차마 볼 수 없어서입니다.”라고 했다. 몸을 바치길 측량할 수 없는 까닭에 길분이 처음에는 감옥에 갇혔다가 법에 의해 차꼬와 수갑을 차게 되었는데, 법도가 ‘두 칼을 벗기라’고 명령했다. 길분이 듣지 않고 이르되, “사형 죄수를 어찌 감형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법도가 군주에게 알리니 군주가 곧 그 아버지를 사면해주었다. 양주(楊州)의 중정(中正) 장축(張仄)이 길분을 효행(孝行)으로 천거하고, 태상(太常)에 칙명하여 정려를 내리게 했다.

吉拊代父【梁】。吉拊，馮翊人。父爲鄕令，爲吏所誣，逮詰廷尉。拊年十五，號泣隨之，見者隕涕。其父理雖清白，被誣當大辟。拊檣登聞鼓乞代命，武帝嘉之，‘以其幼，疑受教於人’，勅廷尉蔡法度脅誘取款。法度

160 정위(廷尉): 관직명. 구경(九卿)의 하나로, 형벌이나 감옥의 일을 관장했다.

盛陳徽纆，厲色問曰，“爾來代父(死)，勅已相許。然刀鉅至劇，審能死不，若有悔異，亦相聽許。”對曰，“囚雖蒙弱，豈不知死可畏？不忍見父極刑。”所以殉身不測。玠初見囚獄依法桎梏，法度命脫二械。玠不聽曰，“死囚豈可減乎？”法度以聞，帝乃宥其父。楊州中正張仄薦玠孝行，勅太常旌舉。

### 시 詩.

아버가 무고를 당해 극형에 떨어지니,	父爲遭誣陷極刑
맹세코 자신이 대신하길 마음 깊이 하소연하였네.	誓將身代懇中情
누가 알랴, 하늘의 거울이 아득한 것이 아님을,	誰知天鑒非玄遠
부자가 모두 온전하고 효성으로 표창되었네.	父子俱全表孝誠

부럽게도 아동으로서 지극한 정이 있어서,	堪羨兒童有至情
아버지를 대신해주길 슬피 울부짖어 조정을 감동시켰네.	哀號代父感朝廷
당년의 효행으로 정려가 내려지고,	當年孝行蒙旌舉
마침내 천추에 좋은 이름 남기게 하였네.	遂使千秋有令名

### <불해가 시신을 찾아내다[不害捧屍]> -양나라-

은불해(殷不害)는 진군(陳郡) 사람이다. 아버지의 초상 치루길 예를 넘게 하고, 아우 다섯이 있되 다 어린지라, 은불해가 노모를 섬기며 어린 아우들을 양육하길 매우 힘써 이르지 않는 것이 없었다. 간문제(簡文帝)<sup>161</sup>가 그의 어머니인 채씨(蔡氏)에게 의복과 자리와 이불을 하사하였다. 위평강릉(魏平江陵)에서 어머니를 잃었는데, 때는 매우 추워서 눈이 얼어붙는 때로, 죽은 자가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 은불해가 몸을 던져 시신 사이를 찾아다니면서 7일 만에 찾아냈는데, 몸이 얼어붙어도 물 한 모금 입에 넣

161 간문제(簡文帝): 중국 양(梁)나라의 제2대 황제로 재위 기간은 2년(549~551)이다. 성은 소(蕭), 자는 세찬(世讚), 이름은 강(綱)이다. 재위 기간에 대보(大寶)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지않으니,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不害捧屍【梁】. 殷不害, 陳郡人. 居父憂過禮, 有弟五人皆幼, 不害養老  
母養小弟, 勤劇無所不至. 簡文帝, 賜其母蔡氏, 錦裙襦氎席被褥. 魏平  
江陵, 失母, 時甚寒雪凍, 死者填滿溝壑. 不害投身推屍, 捧出七日, 體  
凍, 水漿不入口, 行路流涕.

시 詩.

백행의 유래는 효를 가장 우선으로 치니,	百行由來孝最先
인심에 효를 다하는 것은 이치상 당연한 것이네.	人心盡孝理當然
어머니의 시신이 불행히도 구덩이에 매워져있어서,	慈親不幸填溝壑
칠일 동안 슬피 찾았으니 거듭 가련하구나.	七日哀求重可憐

부모가 자식 낳아 기른 수고에 끝내 보답 못하니,	父母劬勞竟莫酬
가없는 하늘은 망극하여 생각만 유유하구나.	昊天罔極思悠悠
은가의 형제들은 능히 효도 할 수 있어서,	殷家兄弟能行孝
만고토록 이름 날리길 영원히 멈추지 않으리.	萬古揚名永不休

〈효숙이 아버 모습을 그려 모시다[孝肅圖像]〉-수나라-

서효숙(徐孝肅)은 급군(汲郡) 사람이다.

孝肅圖像【隋】. 徐孝肅, 汲郡人.

시 詩.

어릴 때 고아 되어 아버 모습 몰랐는데,	早孤不識父容儀
그림 그려 사모하니 어머니에게 물은 것이네.	圖像依依問母慈
사당을 지으니 혼정신성할 수 있어,	構廟晨昏能定省
정성스레 제향하길 살아계실 때처럼 하네.	殷勤祭享似存時

〈노조가 어머니께 순종하다[盧操順母]〉

노조(盧操)는 하동(河東) 사람이다. 아홉 살에 《효경》과 《논어》에 통달했는데, 계모 장씨(張氏)를 섬기길 지극한 효로써 하였다. 장씨가 세 아들을 낳아 편애를 하고, 노조에게만 명하여 밥을 짓게 하였는데, 노조는 북중하여 열심히 하고 게을리 하지 않았다. 장씨가 그 아들을 독서하러 보내면서 노조에게 명령하여 나귀를 끌게 하였는데, 노조는 공손하길 하인처럼 하였다. 세 아우가 술을 좋아하고 방종하여 남과 다툼이 있었는데, 남이 문에 와서 그 어머니를 꾸짖었다. 노조가 즉시 울면서 절하고 말리니, 사나운 소년들이 이르기를, “세 도둑놈에게 이런 어진 형이 있을 줄 몰랐다.”라고 하고, 서로 노조에게 절하고 돌아갔다. 계모가 죽으니, 노조가 세 아우를 가르치고 사랑하기를 평상시보다 더했고, 어머니의 상을 입으며 슬퍼하여 뼈만 남았다. 나중에 임환현(臨渙縣)의 현위(縣尉, 지방관)에 뽑혀 정사를 돕기를 관대하고 너그럽게 하였다. 관사에 궤연(几筵)을 설치하고 부모를 제사하며 나갈 적에 아뢰고 들어오면서 비었으며, 딸을 지날 적이면 몸을 굽히었다. 아침마다 《효경》을 세 번 읽었는데, <상친장(喪親章)>에 이르면 목이 메임을 이기지 못했으며, 그런 연후에야 정사를 보았다.

### 盧操順母.

盧操，河東人。九歲通《孝經》《論語》，事繼母張氏至孝。張生三子溺愛之，命操常執勤主炊，操服勤不倦。張遣其子讀書，命操策驢，操恭勤如僮僕。三弟嗜酒縱佚，抵忤於人，致人踵門詬及其母。操卽涕泣拜而解之，惡少年曰，“不謂三賊有此令兄。”相與拜操而去。繼母亡，操訓養三弟，恩愛過於平日，服母喪，哀毀骨立。後調臨渙縣尉，佐政寬仁。官舍設几筵以祀父母，出告反面，鞠躬如也。每朝讀《孝經》三遍，至喪親章，號啞不勝，然後視事。

### 시 詩.

정성스런 효행으로 어버이 마음에 순종했고,  
자세한 곡절 응당 알아 경애심이 깊었네.

殷勤行孝順親心  
委曲應知敬愛深

밥짓고 나귀 몰면서 능히 아우에게 우애하니,  
마을의 악동들도 또한 공경함을 더했네.

執爨驅驢能友弟  
里中惡少亦加欽

〈서적이 독실히 효를 행하다[徐積篤行]〉 -송나라-

서적(徐積)은 초주(楚州) 사람이다. 세 살 때 아버지가 죽으니, 아침마다 아버지를 찾길 매우 슬프게 하였고, 어머니를 섬기면서 아침저녁으로 관대를 갖추고서 문안했다. 과거시험을 보러 도성에 들어갈 때는 차마 그 어머니를 버려두지 못해서 수레에 싣고서 서쪽으로 갔다. 거수(擧首, 장원 급제자)로 합격을 하니, 허안국(許安國)이 동년들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절하고 또 백금을 주어 오래 봉양하도록 하였으나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아버지의 이름이 '석(石)'이라는 것으로서 죽도록 돌 그릇을 쓰지 아니 하였으며, 다니다가 돌을 만나면 피하고 밟지 않았다. 어머니가 죽자 비통하여 피를 토했으며, 시묘살이 3년을 하는데 눈 오는 밤에도 무덤에 엎드려 곡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한림학사 여진(呂溱)이 지나가다가 그일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단 이슬이 해마다 무덤에 내렸으며, 살구나 무의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졌다. 이미 상을 마쳤는데도 궤연을 거두지 않고 문안하고 음식 바치기를 평소처럼 하였다. 고을에서 행(行)으로서 나라에 알리니, 조칙으로 속백(粟帛, 곡물과 포백)을 하사하게 하였다. 황우(皇祐)<sup>162</sup> 연간에 초주교수(楚州教授)가 되었고, 또 이어서 화주(和州)의 방어추관(防禦推官)을 지냈다. 휘종(徽宗)이 시호를 내리고 '절효처사(節孝處士)'라고 하였다.

徐積篤行【宋】。徐積，楚州人。三歲父死，**모모**求之甚哀，事母朝夕冠帶定省。從胡瑗學，瑗饋以食弗受。應舉入都，不忍捨其親，徒載而西。登第擧首，許安國率同年入拜，且致百金爲壽，謝而却之。以父名石，終身不用石器，行遇石，則避而不踐。母亡，悲痛嘔血，廬墓三年，雪夜伏羲，哭不絕音。翰林學士呂溱，聞之泣下，甘露歲降兆域，杏兩枝合榦。既終喪，

162 황우(皇祐) : 중국 북송(北宋)의 제 4대 황제인 인종(仁宗, 1049~1054)의 재위 기간을 말한다.

不徹几筵，起居饋獻如平生。州以行聞，詔賜粟帛。皇祐爲楚州教授，又轉和州防禦推官。徽宗賜諡，節孝處士。

시 詩.

갓난아이 때 아버 잃고 날마다 슬피 찾으니,	嬰孩亡父日哀求
가슴 속으로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게 되네.	感切中情涕泗流
어미를 섬기면서 더욱 효도로써 봉양하니,	事母更能躬孝養
당시의 명사들도 다시 누구와 짝하리오.	當時名士復誰儔

봉양할 때나 치상할 때 모두 온 정을 다하니,	致養居喪總盡情
神明께서 묵묵히 도와 길상을 드러냈네.	神明默贊顯祥禎
거듭 조정의 명령 받고 영광된 포상 내리니,	重膺朝命榮褒寵
고금의 사람들이 절효라는 이름으로 전하네.	今古人傳節孝名

〈오이가 재앙을 면하다[吳二免禍]〉 -송나라-

임천(臨川)의 백성이다.

吳二免禍【宋】. 臨川小民.

〈왕천이 아버지의 수명을 더하다[王薦益壽]〉 -원나라-

王薦益壽【元】.

〈유씨가 시어머니께 효도하다[劉氏孝姑]〉 -우리나라-

劉氏孝姑【國朝】.

〈누백이 호랑이를 잡다[婁伯捕虎]〉 -고려-

수원의 호장(戶長)으로 성은 최씨이다.

婁伯捕虎【高麗】. 水原戶長, 姓崔氏.

〈자강이 무덤에 엎드리다[自强伏塚]〉-우리나라-

성주 사람으로, 성은 김씨이다.

自強伏塚【本國】. 星州人, 姓金氏.

〈석진이 손가락을 자르다[石玠斷指]〉-우리나라-

고산(高山)의 현리(縣吏)로, 성은 유(俞)씨이다.

石玠斷指【本國】. 高山縣吏, 姓俞氏.

〈은보가 까마귀를 감동시키다[殷保感鳥]〉-우리나라-

殷保感鳥【本國】.

열녀 烈女.

〈백희가 불에 타죽다[伯姬逮火]〉-송나라-

백희(伯姬)는 노(魯)나라 선공(宣公)의 딸로, 송(宋)나라 공공(恭公)에게 시집갔다. 공공이 죽고 일찍이 밤에 불이 났는데, 좌우의 사람들이 말하길, “부인(夫人)께서는 잠깐 불을 피하소서.”라고 하자, 백희는 “아녀자의 의리는 부모와 부모가 함께하지 않고는 밤에 당(堂)에서 내려가지 않는 것이니, 부모와 부모를 기다리라.”라고 하였다. 부모는 왔지만 부모는 오지 않았는데, 좌우 사람들이 또 말하길, “부인(夫人)께서는 잠깐 불을 피하소서.”라고 하였고, 백희는 “아녀자의 지극한 의리로는 부모가 오지 않았으면 밤에 당을 내려갈 수 없다. 의리를 어기고 사는 것이 의리를 지키다가 죽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고, 마침내 불에 타서 죽었다.

伯姬逮火【宋】. 伯姬魯宣公之女, 嫁於宋恭公. 公卒, 嘗遇夜失火, 左右曰, “夫人少避火.” 姬曰, “婦人之義, 保傳不俱, 夜不下堂, 待保傳來.” 保母至矣, 傳母未至也, 左右又曰, “夫人少避火.” 姬曰, “婦人至義, 傳母不至, 夜不可下堂. 越義而生, 不如守義而死.” 遂逮於火而死.

## 시 詩.

궁중에 불이 나서 사방이 밝게 불타니,	宮中失火口燻燻
연기와 화염이 한밤중에 하늘까지 이어졌네.	煙燄連天半夜時
좌우 사람들 말하길 피하는 것 마땅하다고 하는데,	左右縱言宜出避
부인이 어찌 아내자의 예의를 어그러뜨리랴.	夫人豈肯婦儀虧
공희[백희]가 예를 지켜 몸 버리길 마음대로 하였으니,	共姬守禮任捐軀
부도의 굳고 바름을 짝할 자 누구인가.	婦道堅貞孰與儔
성인의 글로 특서하니 현명함과 절의로다.	聖筆特書賢節義
명성은 밝게 빛나 지금까지 남아있네.	聲名煥赫至今留

## 〈여종이 예절을 알다[女宗知禮]〉 -송나라-

여종(女宗)은 포소(鮑蘇)의 아내이다. 포소가 위나라에서 벼슬살이 한 지 3년만에 다른 여자를 얻었다. 여종(女宗)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길 더욱 공경히 하고, 왕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남편에게 안부하였으며, 첩에게 물건을 매우 많이 보냈다. 남편의 누이가 이르기를, “이 집을 떠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자, 여종이 “무슨 까닭인가요?”라고 물었다. 시누이가 말하길, “남편이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대가 무엇하러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자, 여종이 이르기를, “아녀자가 한 번 초례(醮禮, 혼인식)를 하면 바꾸지 않는 법이다, 남편이 죽어도 시집가지 않는 것이니, 길쌈질을 하고 누에쳐서 고치를 뽑으며, 베를 짜서 옷을 만들고 술을 빚고 음식을 만들어서 시부모를 섬기며 한결같은으로 끝은 도리를 삼고, 착하게 따름으로 순리를 삼는 법인데, 어찌 오로지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만을 좋은 일로 삼으리오? 예[周禮]에서 천자는 부인이 열 둘이고, 제후는 아홉이며, 공경대부는 셋이며, 선비는 둘이니, 내 남편은 선비니 두 여자 두는 것이 옳지 않은가요? 또 여자는 일곱 가지 내칠 일이 있고 남자는 하나도 내칠 일이 없습니다. 일곱 가지 내칠 일에 질투가 제일이고, 음란하

고, 도둑질하고, 말 많고, 교만하며 업신여기고, 자식 없고, 모진 병 앓는 것이 모두 그 뒤에 있습니다. 내 시누이가 예절은 가르치지 않고 도리어 내 쫓길 행동을 하게 하려 하니, 장차 무엇에 쓰리오?” 라고 하고, 시어미를 더욱 조심해서 섬기었다. 송공(宋公)이 이를 듣고 마을 문에 표를 세우고, 호를 ‘여종(女宗, 여자의 으뜸)’이라 하였다.

女宗知禮【宋】. 女宗, 鮑蘇之妻. 蘇仕衛三年娶外妻, 女宗養姑愈敬, 因往來者, 請問其夫, 賂遺外妻甚厚. 女宗如謂曰, “可以去矣.” 女宗曰, “何故?” 如曰, “夫人既有所好, 子何留乎?” 女宗曰, “婦人, 一醮不改. 夫死不嫁, 執麻枲絲纒, 織紵組紃, 以供衣服, 澂漠酒醴, 羞饋食, 以事舅姑, 以專一爲貞, 以善從爲順, 豈以專夫室之愛爲善哉?” 禮天子十二, 諸侯九, 卿大夫三, 士二, 吾夫士也, 有二不亦宜乎? 且婦人有七見去, 夫無一去義, 七去之道, 妬正爲首, 淫僻、竊盜、長舌、驕侮、無子、惡病皆在其後, 吾如不教以居室之禮, 而反欲使吾爲見棄之行, 將安所用?” 事姑愈謹. 宋公聞之, 表其閭, 號曰, “女宗”.

시 詩.

남편은 당년에 딴 여자에게 장가드니,	君子當年娶外妻
아하 정은 벌어져도 어찌 슬퍼만 하랴.	恩情雖隔豈含悽
시어머니 모시길 게을리 않고 정성 다하니,	養姑不懈誠彌切
천고의 꽃다운 이름 누가 나란히 할 수 있으랴.	千古芳名孰(與)齊

아녀자의 시기질투는 인지상정(人之常情)인데,	閨門嫉妬是常情
재물을 보내주다니 지극정성에서 나온 것이라.	賂遺還能出至誠
여종(女宗)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분한 칭찬 아니니,	稱號女宗非溢美
부인의 의례를 펼침이 매우 분명하구나.	開陳婦禮甚分明

<식의 아내가 남편 주검에 통곡하다[殖妻哭夫]> -제(齊)나라 -

제나라 장공(莊公)이 거(莒)나라를 칠 때 기량식(杞梁殖)이 싸움에 나가

죽었다. 장공이 돌아오다가 기량식의 아내를 보고 사람을 시켜 길에서 문상하게 하였다. 기량의 처가 말하기를, “지금 식이 유죄인데, 임금의 사명을 어찌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식의 죄를 면해주신다면, 저는 남편과 살던 낡은 집에 돌아가 있겠습니다. 저는 교외에서 조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 장공이 수레를 돌이켜 집에 가서 예의를 갖춘 뒤에야 갔다. 기량의 아내는 자식이 없었고, 시가와 친정에 모두 5가지 상복을 입을 친척이 없었다. 이미 돌아갈 곳이 없어 이내 성 밑에서 그 남편의 주검을 베고 울고 있었는데, 안에서 우러난 진실한 정성이 사람을 감동시켜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눈물을 훔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장례를 마치고 이르기를, “내 어디로 가리오? 대저 아녀자는 반드시 의지할 곳이 있는 것이니,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에게 의지하고, 남편이 있으면 남편에게 의지하고, 아들이 있으면 아들에게 의지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나는 위로 부모가 없고, 가운데로 남편이 없으며, 아래로 자식이 없다. 안으로는 의지해서 나의 정성을 드러낼 곳이 없고, 밖으로는 의지해서 나의 절개를 나타낼 데가 없다. 내가 어찌 개가(改嫁)를 하겠는가? 죽을 따름이다.”라고 하고, 치수(淄水)에 빠져 죽었다.

### 殖妻哭夫【齊】.

齊莊公襲莒，杞梁殖戰而死。莊公歸，遇其妻，使使者弔之於路。杞梁妻曰，“今殖有罪，君何辱命焉？若令殖免罪，則賤妾有先人之敝廬在，下妾不得與郊弔。”於是莊公乃還車詣其室，成禮然後去。杞梁之妻無子，內外無五屬之親。既無所歸，乃枕其夫之屍於城下而哭，內誠動人，道路過者莫不爲之揮涕。既葬曰，“吾何歸矣？夫婦人必有所依者，父在則依父，夫在則依夫，子在則依子。今吾上則無父，中則無夫，下則無子，內無所倚以見吾誠，外無所倚以見吾節。吾豈能更二哉？亦死而已。”遂赴淄水而死。

### 시 詩.

남편이 돌아오지 못함에 슬픔을 못 견디나,

良人不返最堪哀

교외에서 어찌 조문을 받을 수 있으리오.	郊弔焉能偶受廻
성 아래에서 시신을 베고 종일토록 곡을 함에,	城下枕屍終善哭
나라 사람들 눈물 흠치니 어찌 그러했겠는가.	國人揮涕豈徒哉

어느 곳에 의지하여 나의 정성을 드러내라,	依歸何所見吾誠
개가(改嫁)할 마음 없고 이생애 애정도 없여라.	更二無心愛此生
마침내는 치수의 물에 가벼이 몸을 던지니,	遂赴淄流輕一死
지금까지도 오열하는 강물소리 들리네.	至今嗚咽帶愁聲

〈송나라 여인이 개가하지 않다[宋女不改]〉 -채(蔡)나라-

《소학(小學)》에 보인다.

宋女不改【蔡】. 見《小學》.

〈절녀가 대신 죽다[節女代死]〉 -한(漢)나라-

節女代死【漢】.

〈고행이 코를 베다[高行割鼻]〉 -한(漢)나라<sup>163</sup>-

高行割鼻【漢】.

〈목강(穆姜)이 (전처의) 아들을 사랑하다[穆姜撫子]〉 -한(漢)나라-

정문구(程文矩) 아내의 자는 목강(穆姜)인데, 두 아들을 두었고, 전처는 네 아들을 두었다. 문구가 안동<sup>164</sup>의 원이 되었다가 임소(任所, 옛 관원이 머물던 곳)에서 죽으니, 전처의 네 아들은 목강이 저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여 헐뜯으며 미워하기가 날로 심하였다. 그러나 목강이 사랑하기를 더욱 극진히 하여 의복과 식량을 대주는 것이 낡은 자식보다 더하였다. 전처의 맏아들 흥(興)이 병이 들어 심해지자 목강이 친히 약과 음식으로 보

163 한(漢)나라 : 역주 오류행실도에는 양나라로 되어 있다.

164 안동 : 원문에는 안동으로 되어 있으나, 《삼강행실도》 원전에는 안중(安重)으로 되어 있다.

살펴 은정이 더욱 깊었다. 흥이 병이 나아 세 아우들에게 말하기를, “계모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거늘, 우리 형제는 은혜를 알지 못했다. 비록 어머니의 도리라고 하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크다.”라고 하고, 세 아우를 데리고 고을 옥으로 나아가 스스로 형벌 받기를 청하니, 현에서 상급 관청인 군에 보고하여 그 어머니를 표창하고 집의 세금과 부역을 면제하였다. 그리고 네 아들을 보내며 행실을 고치라 하니, 그 후로 훈도를 더욱 밝게하여 모두 어진 사람이 되었다.

### 穆姜撫子【漢】.

程文矩妻, 字穆姜, 有二男, 而前妻四子. 文矩爲安東令, 喪於官, 四子以母非所生, 憎毀日積. 而穆姜撫子益隆, 衣食資供, 皆兼倍所生. 前妻子興, 遇疾困篤, 母親調藥膳, 恩情篤密. 興疾瘳, 呼三弟謂曰, “繼母慈仁, 吾兄弟不識恩養. 雖母道, 我曹過惡深矣.” 遂將三弟, 詣南鄭獄, 乞就刑辟. 縣言之郡, 表異其母, 蠲除家徭. 遣散四子, 許以修革. 自後訓導愈明, 並爲良子.

277

### 시 詩.

하늘을 옮겨 이미 죽으니 항상 근심하여,	移天已喪在惻惻
전처의 고아들 양육 친아들보다 더하였네.	撫育諸孤倍所生
훈도를 더욱 밝게 하고 어미 도리 높이니,	訓導愈明隆母道
마침내는 뉘우치고 깨달아 어진 선비가 되었네.	終教悔悟有賢名

전처의 아들들 어리석어 원수처럼 보니,	義子頑愚視若讎
어찌 어머니 사랑이 뉘우기 같음을 알까. <sup>165</sup>	那知慈母似鳴鳩

165 어찌 ... 알까 : 원문에는 ‘那知慈母似鳴鳩’로 되어 있는데 역주 《오륜행실도》에는 ‘那知慈母似鳴鳩’로 되어 있다. 《시경》〈조풍(曹風) 시구(鳴鳩)〉에 “뉘우기가 뽕나무에 등지를 틀었나니, 새끼가 일곱 마리로다. 우리 훌륭한 군자님이며, 그 말과 행동이 한결같도다. [鳴鳩在桑, 其子七兮. 淑人君子, 其儀一兮.]”라는 말이 나온다. 뉘우기가 새끼를 먹일 때의 순서를 보면 아침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오고 저녁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굶는 새끼가 없도록 공평하게 먹이를 나누어 주기 때문에, 공평하고 균등하게 남을 대할 때의 비유로 흔히 쓰인다.

마침내는 저들 잘못 뉘우치고 다투어 옥으로 가니, 終然悔過爭歸獄  
비로소 인심은 근본이 변하지않음을 믿겠네. 166 始信人心本不偷

〈정의가 목을 찢러 죽다[貞義劓死]〉 -한(漢)나라-

악양자(樂羊子)의 처는 누구의 딸인지 알지 못한다. 태수가 비단을 하사하고 예로써 장례를 지내주었다. ‘정의(貞義)’라는 이름을 내렸다.

**貞義劓死【漢】.**

樂羊子妻，不知何氏女。太守賜縑帛，以禮葬之。號‘貞義’。

〈예종이 동탁을 꾸짖다[禮宗罵卓]〉 -한(漢)나라-

황보규(黃甫規)의 아내이며, 누구의 딸인지는 알지 못한다. 황보규가 죽었으나 예종은 젊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동탁(董卓)이 상국(相國)이 되어 그 이름을 듣고 수레 일백 승과 말 이십 필로 청빙하니, 노비와 재물이 길에 가득하였다. 예종이 간소한 차림새로 동탁의 집 문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청원하는데, 그 말이 매우 슬펐다. 동탁이 시자(侍者)들로 하여금 칼을 뽑아들어 에워싸게 하고 말하기를, “내 위엄이 사해를 풍미하는데, 어찌 일개 부녀자에게 무엇을 못하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예종이 옥을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일어서서 동탁을 꾸짖어 말하기를, “너는 오랑캐의 종자로 천하에 지독한 해를 끼치고도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는가? 나의 조상들은 대대로 맑은 덕을 지녔으며, 황보씨(皇甫氏)는 문무(文武)의 뛰어난 재주로 한나라의 충신이 되었다. 그대는 시킨 일이나 쫓아다니며 하던 사환이 아닌가? 감히 네 어른의 부인에게 무례한 일을 하려 하는가?”라고 말하였다. 동탁이 수레를 뜰 가운데로 끌고 가 예종의 머리를 수레의 멍에에 매고 채찍으로 어지럽게 내리쳤다. 예종이 치는 사람에게, “어찌 맵게 치지 않느냐? 빨리 죽게 하는 것이야말로 은혜이다.”라고 말하였다. 수레 밑에서 죽으니 후세의 사람들이 그녀의 얼굴을 그리고 이름을 지어

166 비로소 ... 믿겠네 : 원문에는 ‘始信人心本不偷’로 되어 있는데 역주 《오륜행실도》에는 ‘始信人心本不渝’로 되어 있다.

‘예종(禮宗)’이라고 하였다.

### 禮宗罵卓【漢】.

皇甫規妻, 不知何氏女. 規卒妻年猶盛而容色美. 董卓爲相國, 承其名, 聘以駟輜百乘馬二十匹, 奴婢錢帛充路. 妻乃輕服詣卓門, 跪自陳請, 辭甚酸愴. 卓使侍者拔刀圍之而謂曰, “孤之威教欲令四海風靡, 何有不行於一婦人乎?” 妻知不免, 乃立罵卓曰, “君胡羌之種, 毒害天下, 猶未足耶? 妾之先人, 清德奕世, 皇甫氏文武上才爲漢忠臣. 君非其趣使走吏乎? 敢欲行非禮於爾君夫人耶?” 卓乃引車庭中, 以其頭懸軛, 鞭撲交下. 妻謂持杖者曰, “何不重乎? 速盡爲惠.” 遂死車下, 後人圖畫, 號曰, ‘禮宗’.

### 시 詩.

맑은 덕 집안에 전해져 절개도 순결하니,	清德傳家節自純
흥하고 비루한 것들 따라가 이 몸 더럽힐까.	肯從兇豎洩(吾)身
아무리 사해를 모두 휩쓰는 힘일지라도,	縱然四海皆風靡
그 위엄으로 한 부인을 따르게 하지 못했네.	威令難行一婦人

뜰 앞에 도열한 칼날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不畏庭前列劍鋒
일어서서 차분하게 꾸짖기를 다했네.	陳辭立罵儘從容
한번 죽음을 달게 여겨 청절을 온전히 하니,	甘心一死全清節
후세에 그의 모습 그려 예종이라 불렀네.	後世圖形號禮宗

### <원강이 남편의 칼을 벗겨주다[媛姜解柁]> -한나라-

성도(盛道)의 아내 조씨(趙氏)는 자(字)가 원강(媛姜)이었다. 건안 5년(200) 익부난(益部亂) 때 성도가 무리를 모아 병사를 일으켰으나 일이 실패하여 부부가 잡혀 죽게 되었다. 원강이 밤중에 성도에게 말하기를, “법에 일정한 형벌이 있어서 살아날 가망이 없으니, 당신은 빨리 도망하여 가문(門戶)을 보전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당신을 대신하여 옥에 머물겠습니다.”

다.”라고 하였다. 성도가 법대로 하겠다며 따르지 않으려고 하자, 원강이 도의 칼을 벗기고 양식과 재물을 싸주며 3살된 아들을 데리고 달아나게 하였다. 원강이 도를 대신하여 빠짐없이 응대하다가, 도가 이미 멀리 갔을 것으로 짐작하고, 이에 사실로써 말하니 관리가 바로 죽였다. 후에 성도 부자(父子)가 사면을 받고 돌아왔는데, 도가 그 의로움에 감동하여, 몸이 다하도록 다른 아내를 얻지 아니하였다.

**媛姜解桎【漢】.**

盛道妻趙氏，字媛姜。建安五年，益部亂，道聚眾起兵，事敗夫妻執繫當死。媛姜夜中告道曰，“法有常刑必無生望，君可速潛逃，建門戶，妾自留獄代君塞咎。”道依法未從，媛姜便解道桎梏，爲齎糧貨，子翔年三歲，使道携持而走。媛姜代道，應對不失，度道已遠，乃以實告，吏應時見殺。道父子會赦得歸，道感其義，終身不娶。

시 詩.

숙인(淑人) 조씨의 자는 원강(媛姜)이었는데,	淑人趙氏字媛姜
죄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니 슬프기 그지없어라.	塞咎捐(生)最可傷
부자가 모두 온전하여 가문을 세울 수 있었으니,	父子俱全門戶立
종신도록 장가들지 않음은 의로움을 잊지 못해서이네.	終身不娶義難忘

성도는 어찌하여 무리를 모아 군사를 일으켰나,	盛道胡爲欲弄兵
온 집안이 옥에 연루되어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웠네.	渾家繫獄勢難生
현명한 원강은 대신하여 죽어 종사를 보존하니,	賢媛代戮存宗祀
천추 역사에 그의 의로운 이름 우뚝 빛나네.	竹帛千秋有令名

충신 忠臣.

〈용방이 임금에게 간하다가 죽다〉

하나라 걸(桀)임금이 못을 파서 야궁(夜宮)을 만들고, 남녀를 뒤섞어 거

처하게 하면서 한달동안 조회를 받지 아니하였다. 용방이 간하여 말하기를, “임금이 겸공(謙恭)하고 경신(敬信)하며, 재물을 절용(節用)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까닭에 천하가 평안하고, 사직 종묘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임금은 재물 쓰기를 다함이 없을 듯이 하고, 사람 죽임을 미쳐 못할 듯이 하니, 백성이 오직 임금이 더디 망할까 두려워합니다. 인심이 이미 배반하고, 천명(天命)이 돕지 아니하거늘, 어찌 조금도 고치지 아니합니까?” 라고 하였다. 용방이 서서 가지 아니하니, 걸임금이 용방을 죽였다.

### 龍逢諫死.

桀鑿池爲夜宮, 男女雜處, 三旬不朝. 關龍逢諫曰, “人君謙恭敬信, 節用愛人, 故天下安, 而社稷宗廟固. 今君用財若無窮, 殺人若不勝, 民惟恐君之後亡矣. 人心已去, 天命不祐, 蓋少悛乎?” 龍逢立不去, 桀殺之.

### 시 詩.

하나라 걸왕은 음탕하고 백성에게 혹독해,	夏桀荒淫毒下民
친히 정사를 돌보지 않은 지 한 달이 되었네.	弗親朝政至三旬
생명을 가버어 극간하니 언사가 간절해라,	輕生極諫言辭切
용방과 같은 사람 몇이나 있으리오.	得似龍逢有幾人

### 〈악비가 등에 글자를 새기다[岳飛涅背]〉 -송나라-

처음에 추밀부사(樞密副使) 악비(岳飛)가 말하길, ‘화의를 계획이 아니다’고 하니, 진희(秦檜)가 미워하였다. 악비는 천성이 충성되고 효성스러웠고, 병사를 사랑하고 아꼈다. 군사를 통솔하는 데는 기율이 있어서 적은 병력으로 많은 병력을 물리치고 적군을 평정하였다. 국토를 회복할 계획을 세우고 개연히 나라의 치욕 씻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으니, 금나라 사람이 두려워하여 ‘아비’라 부르기에 이르렀으며, 악비의 군기를 보면 가까이 가지 못했다. 악비가 ‘진충보국(盡忠報國)’이라는 네 자를 등에 새겨 두었더니, 고종 임금이 ‘정충(精忠)의 기(旗)’를 하사하여, 그의 탁이한 행적을 가상히 여겼다. 악비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니 천하가 원통해하

였다.

**岳飛涅背【宋】.**

初樞密副使岳飛言‘和議非計’，秦檜惡之。飛忠孝出於天性，愛養士卒，行師有紀律，能以少擊眾，力平羣盜。建議恢復，慨然以雪(國)恥爲己任，金人畏之，(至)呼爲父，望其旗亦不敢近。嘗涅其背爲‘盡忠報國’四字，高宗賜‘精忠旗’，以嘉異焉。及聞其死，天下寃之。

시 詩.

간흉이 나라를 망치고 화친하려 하니,	奸兇誤國欲和親
중원 찾자고 맹서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나.	誓取中原有幾人
거의하여 복수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으니,	舉義復讎爲己任
악비의 충성과 효성은 하늘의 진성이 내었구나.	岳王忠孝出天真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 보답함은 단심에서 나와,	盡忠報國出丹誠
등에 먹으로 새기니 글자마다 분명하네.	涅背還應字字明
사랑으로 군사를 양성하나 기율은 엄격히 하니,	愛養軍兵嚴紀律
고금에 누가 그와 이름을 나란히 할 수 있으랴.	古今誰得更齊名

〈천상이 굴복하지 않다【天祥不屈】〉 -송나라-

상흥(祥興) 무인년(1278)에 원나라 장홍범(張弘範)이 조양(潮陽)에 이르러, 승상 문천상(文天祥)<sup>167</sup>이 그에게 잡혀 독약을 삼켰으나 죽지 못하였다. 이듬해에 장홍범이 애산(崖山)에 이르러, 천상을 꺾박하여 글을 써서 장세걸(張世傑)을 부르라고 하였다. 문천상이 말하기를, “내가 부모를 보필할 수 없다해서, 이내 남을 시켜 부모를 배반하라 할 것인가?”라고 하니, 장홍범이 “네 나라가 망하였으니, 내가 몸을 죽여서 충신이 되고자 하

167 문천상(文天祥, 1236~1282): 중국 남송의 충신으로, 자는 송서(宋瑞)·이선(履善), 호는 문산(文山)이다. 옥중에서 절개를 읊은 노래인 <정기가(正氣歌)>가 유명하다. 저서에 『문산집』이 있다.

나, 누가 기록하겠는가?”라고 말하였다. 문천상이 “상나라가 패망했지만 백이와 숙제가 주나라 곡식을 먹지 아니하였다. 신하가 각각 그 마음을 다하는 것이지 기록하고 안 하고를 따지겠는가?”라고 하였다. 장홍범이 낮빛을 바꾸고 연나라로 보냈는데, 여드레나 밥을 안 먹고도 죽지 않았다. 발라(孝羅) 승상이 “네가 두 왕을 세워 무슨 일을 이루었는가?”라고 물으니, 문천상이 “임금을 세움으로써 종묘가 보전되니, 하루라도 보존할 수 있다면 신하된 사람은 하루라도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과 같으니, 부모의 병이 심해져서 비록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찌 약을 쓰지 않겠는가? 죽음이 있을 뿐이니 어찌 많은 말을 하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옥에 갇힌 지 한 달이 넘어 다시 물어도 굴복하지 아니하였다. 지원(至元) 임오년(1282)에 사사(賜死)되니, 남향하고 무릎을 꿇은채 죽었다. 옷의 허리띠 속에 찬하는 글이 있었는데, “공자는 인(仁)을 이룬다 말씀하시고 맹자는 의(義)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니, 오직 그 의를 다함이 인에 이르는 까닭이다. 성현의 글을 읽어 배우는 것이 무슨 일인가? 오늘 이후에는 부끄러움이 없게 되겠구나.”라고 쓰여 있었다.

### 天祥不屈【宋】.

祥興戊寅. 元張弘(範)至潮陽, 丞相文天祥被執, 吞腦子不死. 明年張至崖山, 令以書招張世傑. 文曰, “我不能相(扞)父母, 乃教人叛父母乎?” 張曰, “國亡矣, 殺身爲忠, 誰復書之?” 文曰, “商非不亡, 夷齊不食周粟, 人臣各盡其心, 何論書不?” 張改容, 送燕, 不食八日不死. 丞相孛羅問曰, “汝立二王, 做得甚事?” 文曰, “立君以存宗廟, 存一日則盡臣子一日(之)責. 人臣事君, 如子事父母, 父母有疾雖甚不可爲, 豈有不下藥之理? 有死而已, 何必多言?” 繫獄月餘, 再問不屈. 至元壬午賜死, 南向跪而死. 衣帶中有贊曰. “孔曰成仁, 孟曰就義, 惟其義盡, 所以仁至, 讀聖賢書, 所學何事? 而今(而)後, 庶幾無愧.”

시 詩.

나라 망하고 집 망했는데 충신이 나타나,	國亡家破見忠臣
독약을 먹고 의연하게 살신성인하고자 했네.	仰藥從容欲殺身
의리는 무겁고 목숨은 가벼워 끝내 굽히지 않으니,	重義輕生終不屈
높은 이름 천년토록 홀로 무리에서 떠났네.	高名千歲獨離倫

옥에 갇혀 고생함이 한 달 넘기에 이르러도,	繫獄艱辛至月餘
한 몸의 충절은 처음처럼 변함이 없어라.	一身忠節不渝初
옷 가운데 찬한 글 있어 내용 깊고 간절하니,	衣中有贊辭深切
평생토록 배운 글에 부끄럼이 없게 되었네.	無愧平生所學書

〈박제상이 충렬을 다하다[提上忠烈]〉 -신라-

신라 실성왕이 내물왕의 아들 말사흔(末斯欣)<sup>168</sup>을 왜나라에 보내어 볼모로 삼고, 또 사흔의 형 복호(卜好)를 고구려에 볼모로 보냈다. 눌지왕이 즉위해서 변사(辨士)를 보내어 맞아 오고자 하므로 박제상이 가기를 청하였다. 고구려에 가서 임금을 설득하여 데리고 오니, 임금이 기뻐하면서 이르기를, “두 아우를 두 쪽 팔같이 여겼는데, 이제 한 팔만 얻으니, 어찌하리오?” 제상이 배사(拜辭)하고, 집에도 들리지 않고 왜나라에 이르러, “임금이 우리 아버지와 형을 죽이므로 도망해 왔습니다.”라고 속여 말하니, 왜나라 임금이 이를 믿었다. 제상이 사흔과 함께 배 타고 노니는 듯이 하니 왜인들이 의심하지 않았다. 제상이 사흔에게 몰래 돌아갈 것을 권하니, 사흔이 함께 돌아가자고 하였다. 제상이 “함께 가면 뜻을 못 이룰 것이다.”라고 하였다. 사흔이 이미 멀리 갔을 때 왜나라 임금이 제상을 가두고, “어찌 왕자를 몰래 보냈는가?”라고 물었다. “나는 계림의 신하이므로 내가 임금 뜻을 이루려 했다.”라고 대답하니, 왜나라 임금이 노해서 이르기, “계림 신하라 하면 반드시 오형(五刑)을 다 내리겠다.”라고 하였다. 명하여 발바닥 가죽을 벗기고 썰어 놓은 갈대 위를 달리라 하고, “어느

168 말사흔(末斯欣) : 《삼국사기》에는 ‘미사흔(末斯欣)’으로 되어 있다.

나라 신하인가?”라고 물으니, “계림의 신하이다.”라고 답하였다. 또 달구어진 쇠 위에 세우고 문기를 “어느 나라 신하인가?” 하니, “계림의 신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왜나라 임금의 굴복하지 않을 줄 알고 불에 태워서 죽였다. 그 아내가 세 딸을 데리고 치술령(鴉述嶺)<sup>169</sup>에 올라 왜국을 바라보며 울다가 죽었다.

#### 提上忠烈【新羅】.

實聖王遣奈勿王子末斯欣，質倭，又遣斯欣兄卜好，質高句麗。訥祗王立，思得辨士往迎，朴堤上請行。至句麗，說王同歸。王喜曰，“念二弟如左右臂，今只得一臂，奈何？”堤上拜辭，不入家。至倭國，給(言)，“王殺我父兄故逃來。”倭王信之。堤上與斯欣乘舟，若游玩者，倭人不疑。堤上勸欣潛還，欣欲偕歸。堤上曰，“俱去則恐謀不成。”欣行既遠，倭王囚堤上，問曰，“何竊遣王子？”對曰，“臣是雞林臣，欲成吾君之志耳。”倭王怒曰，“言雞林臣，必具五刑。”命剝腳下皮，刈蒹葭使趨其上，問曰，“何國臣？”曰，“雞林臣。”又使立熱鐵上，問，“何國臣？”曰，“雞林臣。”倭王知不屈，燒殺之。妻率三娘，上鴉述嶺，望倭國哭死。

285

#### 〈정몽주가 운명을 하다(夢周殞)〉 -고려-

처음에 최영(崔瑩)이 신우(辛禡)에게 권하여 병력을 일으켜 요동을 치니, 우리 태조(이성계)가 거의(舉義)하였다가 회군하고 왕씨를 도로 세웠다. 좌사 조준(趙浚)과 정당 정도전(鄭道傳), 밀직사 남은(南問) 등이 천명과 인심의 소재를 알아 태조를 추대하고자 하였다. 홍무(洪武) 임신년(1392, 공양왕 4년) 3월에 태조가 말에서 떨어졌는데, 수시중(守侍中) 정몽주가 조준·정도전·남은 등이(태조를) 한 마음으로 보익(輔翼)하는 것을 보고, 대간을 시켜 탄핵하여 귀양 보내게 하고, 김귀련(金龜聯)과 이반(李蟠)을 폄소(貶所)에 보내어 죽이려 하였다. 의안대군(義安大君) 화(和)와 흥안군(興安君) 이제(李濟) 등이 태조에게 말하길 “형세가 이미 급하니, 장차 어

169 치술령(鴉述嶺) : 경상북도 경주시의 외동읍 녹동리와 울산광역시 두동면의 경계선에 있는 산이다. 현재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다는 망부석(望夫石)과 신모사(神母寺), 기우단 등이 남아 있다.

찌해야 하오?”라고 하니, 태조가 이르기를, “죽고 사는 것은 천명이니 오직 순순히 받을 따름입니다.”라고 하였다. 화와 제가 휘하인 조영규에게 이르기를, “이씨가 왕실에 공로 있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아는데, 지금 모함에 빠지게 되었으니 후세에 누가 알겠는가? 휘하의 병사 가운데 힘을 이가 없는가?”라고 하였다. 영규가 “감히 명을 따르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고, 영규 등이 요로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몽주를 격살(擊殺)하였다. 태조가 병이 심해져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정대왕(恭定大王, 태종)이 즉위하여 ‘섬기는 바에 전심하여 그 지조를 바꾸지 않음[專心所事, 不貳其揆]’이란 것으로서 시호를 문충(文忠)으로 주었다.

**夢周殞命【高麗】.**

初崔瑩勸辛禡，興師功遠，我太祖舉義回軍，復立王氏。左使趙浚·政堂鄭道傳·密(直)使南閻等，知天命人心所在，欲推戴太祖。洪武壬申三月，太祖墮馬，守侍中鄭夢周，以浚·道傳·閻等，同心輔翼，令臺諫効流之，遣金龜聯李蟠，就貶所將殺之。義安大君和·興安君李濟等，白太祖曰，“勢已急矣，將若何？”太祖曰，“死生有命，但當順受而已。”和·濟謂麾下趙英珪曰，“李氏之有功王室，人皆知之，今爲人所陷，後世誰知？麾下士其無効力者乎？”英珪曰，“敢不從命？”英珪等要於路，擊殺夢周。太祖因病篤，至不能言。恭定大王即位，以專心所事，不貳其揆，贈謚文忠。

시 詩.

고려 말 쇠미해지고 태운이 성하자,	麗季衰微泰運(升)
못 현인들 거기 붙어 모두 날아올랐네.	羣賢攀附摠飛騰
조용히 죽음에 나아가간 오천자(烏川子) <sup>170</sup> ,	從容就死烏川子
우리 조선 절의가 흥성함을 열었네.	啓我朝鮮節義興

170 오천자(烏川子) : 오천은 연일(延日)의 고후(古號)로, 연일 정씨인 정몽주를 가리킨다.

충의는 본디부터 민멸할 수 없는 건데,	忠義由來不可堙
평상시에 이를 힘써 갈고 닦는 사람 없네.	平時砥礪且無人
질풍 속에 꺾끗한 풀 보기 더욱 어려워도,	疾風勁草尤難見
고려조의 충신 한 분은 반드시 알아야만 하리.	須識高麗一个臣

〈길재가 절의로 항거하다[吉再抗節]〉 -고려-

홍무(洪武) 기사년(1389) 겨울에 주서(注書) 길재(吉再)가 관직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경진년(1400)에 공정대왕(恭定大王, 태종)이 동궁에 있을 때 그를 부르니 다시 이르렀다. 공정대왕(恭靖大王, 정종)께 아뢰어 봉상박사를 제수하였으나 길재가 동궁께 사직하고자 아뢰었다. 공정대왕(후에 태종)이 이르길 “그대가 말한 것은 실로 강상과 관계된 것이다. 다만 부른 사람은 나요, 벼슬을 준 사람은 전하이니, 전하께 사직함이 옳다.”라고 하였다. 길재가 곧 상서하기를 “제가 신조(辛朝)<sup>171</sup>에 급제하여 문하주서(門下注書)에 이르렀습니다. 신하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으니 시골로 놓아 보내시면 늙은 어미 봉양하고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라고 하였다. 다음날 공정대왕이 경연에 나아가 지경연사(知經筵事) 권근(權近)에게 묻기를 “길재가 절의를 들어 벼슬을 하지 않으니, 옛사람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조처했는가?”라고 하니, 근이 대답하기를, “엄광(嚴光)<sup>172</sup>이 굽히지 않자, 광무제가 이를 따랐습니다. 재가 떠나기를 원하면, 자신의 뜻대로 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공정대왕이 이에 허락하여 돌려보내고, 그 집을 복호(復戶)<sup>173</sup>하였다. 영락무술년(1418)에 전하께서 즉위함에 공정대왕(태종)의 명을 이어받아 그

171 신조(辛朝) : 신돈(辛旽)의 조정이란 뜻으로 여말(麗末)의 우왕(禡王)·창왕(昌王)대를 가리킨다.

172 엄광(嚴光) : 후한(後漢) 사람으로, 자는 자릉(子陵)이다. 어려서 광무제(光武帝)와 같이 공부하였는데, 광무제가 즉위하자 성명을 고치고 숨어 살았다. 광무제가 찾아서 간의대부(諫議大夫)를 제수하였으나 사양하고 부춘산(富春山)에 은거하였다.

173 복호(復戶) : 국가가 호(戶)에 부과하는 요역(徭役) 부담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던 제도를 말한다.

아들에게 벼슬을 내리고, 선덕 병오년(1426)에 좌사간대부(左司諫大夫)에 추증하였다.

**吉再抗節【高麗】.**

洪武己巳冬, 注書吉再棄官歸家. 歲在庚辰, 恭定大王在東宮召之, 再至. 啓于恭靖大王, 授奉常博士, 再啓東宮辭職. 恭定大王曰“子之所言, 實關綱常. 但召之者吾, 而官之者殿下也, 宜辭於殿下”. 再乃上書曰, “再擢第辛朝, 爲門下注書. 臣無二主, 乞放歸田里, 終養老母, 以遂不事二君之志.” 明日, 恭靖大王御經筵, 問知經筵事權近曰, “吉再抗節不仕, 未審古人何以處之乎?” 近對曰, “嚴光不屈, 光武從之. 再若求去, 則不如使之自盡其志之爲愈也.” 恭靖大王乃許歸, 仍復其家. 永樂戊戌, 殿下即位, 承恭定大王命, 官其子, 宣德丙午, 贈左司諫大夫.

시 詩.

송악산의 왕기는 이미 재가 되었고,	崧山王氣已成灰
참주인인 용이 일어나 큰 운을 열었네.	眞主龍興泰運開
아직도 옛 임금 그리워하며 절개 지키니,	尙戀舊君全一節
표연히 돌아가 자릉대(子陵臺)에 눕네.	飄然歸臥子陵台

우뚝한 높은 절개 가을서리처럼 늠름하니 <sup>174</sup> ,	亭亭高節凜秋霜
곧바로 수양산에서 굶어 죽은 자취를 따르고자 하네. <sup>175</sup>	直欲追蹤餓首陽

성대(聖代)에 높이 기려 의열(義烈)을 표창하니,	聖代褒崇彰義烈
삼한(三韓)에 억만년토록 강상(綱常)이 세워졌네.	三韓億載樹綱常

174 가을서리처럼 늠름하니 : 《신당서(新唐書)》 권194 <탁행열전(卓行列傳)의 찬(贊)에 “원덕수(元德秀)는 덕으로, 양성(陽城)은 굳셈으로, 사공도(司空圖)는 명을 알아 절의를 지켰다. 그 지조가 늠름하여 가을서리와 삼엄함을 다룰 만하니, 참으로 장부로다. [德秀以德, 城以鯁峭, 圖知命, 其志凜凜與秋霜爭嚴, 眞丈夫哉.]”라고 하였다.

175 수양산 ... 하네 : 수양산(首陽山)에서 주나라 곡식을 먹지 않고 고사리만 뜯어 먹다가 죽었다는 백이(伯夷)와 숙제(叔齊)의 고사를 가리킨다.

1928년 9월 29일. 신묘 -중광단알-. 맑음.

二十九日. 辛卯【重光單闕】. 陽

1928년 10월 1일. 임진 현익집서-. 맑음. 밤에 비가 내렸다.

十月. 初一日. 壬辰【玄默執徐】. 陽. 夜雨.

1928년 10월 2일. 계사 소양대황락-. 흐림.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손부(孫婦)의 산괘(産藿, 해산하고 먹는 미역)을 사 왔다.

初二日. 癸巳【昭陽大荒落】. 陰. 雨濛濛. 買來孫婦產藿.

〈방득이 나물을 먹다[榜得茹蔬]〉 -송(宋)나라-

북군이 요주(饒州) 땅을 공격할때 강동제치사(江東制置使) 사방득(謝枋得)이 안인(安仁)에서 막아 싸우다가 패하여 성명을 바꾸고 당석산(唐石山)에 들어갔다. 원군이 신주(信州)에 이르러 방(榜)을 붙여 근포(跟捕, 죄인을 찾아 쫓아가서 잡는 일)할 때에, 아내 이씨를 잡아서 양주에 구류하였고, 사방득은 창산(蒼山) 등지의 험한 산골로 들어갔다. 갑신년에 대사면이 있어 사방득이 나왔으나 이때 아내는 이미 죽고, 건양의 역교에 우거하였다. 무자년에 참정(參政) 위천우(魏天祐)가 조경(朝京, 조정의 사신)으로 북행(北行)하기를 다그쳤다. 사방득이 수궁하지 않고 죽기로써 스스로 맹세하고,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서 곧바로 먹지 않았다. 위(魏)와 함께 앉았으나 대언하지 않았는데, 혹 오만한 말로 무례하게 하였다. 위천우가 꾸짖어 말하길 “봉강(封疆)의 신하는 봉강에서 죽어야 마땅한데 안인에서 패하였는데 어찌 죽지않는가?”라고 하니, 사방득이 말하길 “정영(程嬰)과 저구(杵臼)는 한 사람은 앞에 죽고 한 사람은 뒤에 죽었으며<sup>176</sup>, 왕망이

176 정영(程嬰)과 저구(杵臼) ... 뒤에 죽었으며 : 춘추시대 진(晉)나라 경공(景公) 3년에 도안가(屠岸賈)가 조삭을 죽이고 조씨를 멸족시키려 하자 조삭의 문객 공손저구(公孫杵臼)와 친구 정영(程嬰)이 조삭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가짜 아들을 만들어 공손저구가 데리고 있다가 적들에게 잡혀서 죽고 진짜 아들은 정영

한(漢)을 찬탈한지 14년에 공승(龔勝)<sup>177</sup>도 이내 죽었으니, 죽음은 태산보다 무거울 때도 있고, 홍모(鴻毛)보다 가벼울때도 있어서 개관사정(蓋棺事定)<sup>178</sup>하는 것이니, 참정(參政)은 어찌 이것을 알겠는가?"라고 하였다. 사방득이 이십여일 동안 먹지 않았는데도 죽지 않아 다시 먹었다. 마침내 작은 수레에 누워 채석강을 건널 때 다시 먹지 않았다. 다만 채소와 과을만 먹으니 여러달 곤궁하고 위대로움이 쌓여 기축년 4월 초1일에 연경에 이르러, 초5일에 역에서 죽었다.

**榜得茹蔬【宋】.**

北軍攻饒州，江東制置使謝枋得，拒戰于安仁敗績，變姓名入唐石山。元軍至信州，鏤榜根捕，執妻李氏拘楊州。謝入蒼山等處，崎嶇山谷。甲申大赦，謝乃出，時妻已斃，寓建陽之驛橋。戊子魏參政天祐，朝京逼以北行。謝不肯，以死自誓，知不可免，即不食。魏與坐而言不對，或嫚言無禮。魏讓曰，“封疆之臣，當死封疆，安仁之敗，何不死？”謝曰，“程嬰杵臼，一死於前，一死於後。王莽篡漢十四年，龔勝乃死。死有重於泰山，輕於鴻毛，蓋棺事定，參政豈足以知此？”謝不食二十餘日不死，乃復食。遂臥轎中，渡采石，復不食。只茹蔬果，積數月困殆，己丑四月初一日至燕京，初五日死於驛。

이 몰래 키웠다. 15년 뒤 한궐(韓闕)의 주선으로 그 아들이 조씨의 후계자가 되자 정영이 먼저 죽은 공손저구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자살하였다. 《사기》 권 43 〈조세가(趙世家)〉)

177 공승(龔勝) : 한 애제(漢哀帝) 때 사람인데, 세 번 효렴(孝廉)의 추천을 받아 간의대부(諫議大夫)가 되었다. 그가 간관(諫官)이 되자, 자주 소(疏)를 올려 조정의 정사를 논하였고, 뒤에 외직으로 나가 발해태수(渤海太守)로 있다가 왕망(王莽)이 황위(皇位)를 찬탈하자, 벼슬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가 은거하였다. 왕망이 사자를 보내어 상경(上卿)으로 불렀으나 응하지 않고, 문인 고히(高暉) 등에게 말하기를, “내가 조만간에 땅속으로 들어갈 터인데, 어찌 일신(一身)으로 두 성씨를 섬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14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다가 죽었다. 《한서(漢書)》 72권 〈양공전(兩龔傳)〉 참조.

178 개관사정(蓋棺事定) : 관 뚜껑을 덮을 때에야 일이 비로소 정해진다. 사람에게 대한 평가는 모든 일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 시 詩.

칼날이 꺾이고 적에게 함락되어 뜻 이루지 못하니, 摧鋒陷敵志無成  
 산림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성명을 바꾸었네. 遁跡山林變姓名  
 몇 달 동안 나물만 먹으며 끝내 죽음으로 절개 지켜, 數月茹蔬終死節  
 늠름하게 천년동안 풍격과 성망을 세웠네. 凜然千載樹風聲

원나라 군사의 질탕질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元兵跌宕力難當  
 전쟁에서 패배하여 떠돌다가 건양에 우거하였네. 戰敗流離寓建陽  
 두 임금을 섬기는 부끄럽고 한 번 죽음은 가벼우니, 羞事二君輕一死  
 이름은 역사<sup>179</sup>에 남아서 더욱 빛나는구나. 名留竹帛更輝光

1928년 10월 3일. 갑오 알봉돈장-. 갸.

初三日. 甲午【關逢敦牂】. 晴.

1928년 10월 4일. 을미 전몽협흡-. 흐림. 비가 조금 뿌렸다.

初四日. 乙未【旃蒙協洽】. 陰. 雨小灑.

1928년 10월 5일. 병신 -유조군탄-. 흐림.

五日. 丙申【柔兆涓灘】. 陰.

1928년 10월 6일. 정유 -강어작악-. 맑음.

六日. 丁酉【疆圉作噩】. 陽.

1928년 10월 7일. 무술 -저옹엄무-. 맑음.

七日. 戊戌【著雍闞茂】. 陽.

179 역사 : 원문의 '죽백(竹帛)'은 서적(書籍)이나 사기(史記)를 이르는 말로 고대에 종이기가 없을 때 죽간(竹簡)과 명주에 글을 썼던 데서 온 말이다.

1928년 10월 8일. 기해 -도유대연헌-. 흐림.

八日. 己亥【屠維大淵獻】. 陰.

1928년 10월 9일. 경자 -상장곤돈-. 흐리고 비. 밤에 천둥치고 큰 지진이 있었다.

九日. 庚子【上章困敦】. 陰雨. 夜雷大震.

1928년 10월 10일. 신축 중광적분약-. 흐림. 바람이 불고 추웠다.

十日. 辛丑【重光赤奮若】. 陰. 風寒.

1928년 10월 11일. 경인 -상장섭제-. 맑음.

十一日. 庚寅【上章攝提】. 陽.

1928년 10월 12일. 신묘 -중광단알-. 맑음.

十二日. 辛卯【重光單闕】. 陽.

1928년 10월 13일. 임진 -현익집서-. 맑음. 종인 진성(鎭成)이 “염라국의 사자는 어떻게 사람의 혼백을 뽑아서 잡아갑니까?”하고 물었다. 답하길 “이것은 부도(浮屠)의 망언에 침음당한 것으로, 사람이 어떻게 사자에게 잡혀가겠는가? 저녁이 되면 해가 못으로 기우니, 어찌 잡아가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겠는가? 그름에는 달에 빛이 없으니, 어찌 잡아가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겠는가? 봄이 저물면 꽃이 떨어지고, 가을이 깊어지면 잎이 떨어지니, 어찌 잡아가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겠는가? 모두가 천지조화요, 음양굴신(陰陽屈伸)의 양능이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도 이와 같아서 기가 이르면 살고, 기가 흠어지면 죽는다.”라고 하였다.

十三日. 壬辰【玄默執徐】. 陽. 宗人鎮成問, “閻王國使者, 何以拔人之魂魄而捉去?” 答曰, “此是浸滯浮屠之妄言, 人何爲使者之捉去乎? 當夕之日仄淵, 有何捉去而然歟? 當晦之月無光, 有何捉去而然歟? 春暮落花, 秋深落葉, 有何捉去而然歟? 皆是天地造化, 陰陽屈伸之良能也, 人之死生, 亦如此, 氣至則生, 氣散則死也.”

1928년 10월 14일. 계사 -소양대황락-. 맑음.

十四日. 癸巳【昭陽大荒落】. 陽.

1928년 10월 15일. 갑오 -알봉돈장-. 흐림.

十五日. 甲午【闕逢敦牂】. 陰.

1928년 10월 16일. 을미 -전몽협흡-. 맑음.

十六日. 乙未【旃蒙協洽】. 陽.

〈죽은 아내에 대한 만사〉 輓亡室

인연을 맺은 이후론 나를 버리로 삼고,

結緣以後我爲綱

경책이 도리어 많아도 오상(五常)을 지켰네.

警策還多守五常

오십육년동안의 은의(恩義)가 중하니,

五十六年恩義重

고궁(固窮)<sup>180</sup>의 간곡한 정 가장 애달프구나.

固窮情曲最悲傷

오늘밤 월식이 있었다.

是夜月有蝕之.

1928년 10월 17일. 병신 -유조군탄-. 맑음.

180 고궁(固窮): 도의(道義)를 고수하면서 빈궁한 처지를 편안하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十七日. 丙申【柔兆涓灘】. 陽.

1928년 10월 18일. 정유 -강어작악-. 맑음. 오늘 차증손을 얻었다. 무진 10월 18일 술시(戌時, 19시~21시) 에 태어나니, 무진(戊辰), 계해(癸亥), 정유(丁酉), 경술(庚戌)이다.

十八日. 丁酉【疆圉作噩】. 陽. 是日得次曾孫. 戊辰十月十八日戌時生, 戊辰, 癸亥, 丁酉, 庚戌.

1928년 10월 19일. 무술 -저옹엄무-. 맑음

十九日. 戊戌【著雍闓茂】. 陽.

1928년 10월 20일. 기해 -도유대연현-. 맑음. 집으로 돌아왔다.

二十日. 己亥【屠維大淵獻】. 陽. 還巢.

1928년 10월 21일. 경자 상장곤돈-. 흐림. 비가 오려고 했으나 오지 않고 밤에 비가 내렸다.

二十一日. 庚子【上章困敦】. 陰. 欲雨而未雨, 夜雨.

1928년 10월 22일. 신축 중광적분약-. 흐림. 눈바람이 불다가 비가 내렸다.

二十二日. 辛丑【重光赤奮若】. 陰. 雪風雨.

1928년 10월 23일. 임인 -현익섭제-. 흐리고 눈.

二十三日. 壬寅【玄默攝提】. 陰雪.

1928년 10월 24일. 계묘 -소양단알-. 흐림. 동오(東吾)로 돌아왔다. 이

근영(李根榮)이 재실을 지키고 있었다. 이종기(李鍾琪)·종삼(鍾三)이 와서 나에게 고향집 안부를 물었다. 이몽우·성우가 와서 나에게 왕래하는 데 어수선향이 없었는지 물었다. 당직(堂直) 표인학(表仁學)이 문안하였다. 수업받는 아이들도 혹 먼저 와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 혹 뒤에 와서 진현하기도 했다.

二十四日. 癸卯【昭陽單闕】. 陰. 還東吾. 李根榮守齋. 李鍾琪、鍾三來問我本第安否. 李濛雨、成雨來問我往還之無擾. 堂直表仁學問安. 受業兒, 或先候問, 或後來進見.

1928년 10월 25일. 갑진 -알봉집서-. 흐림. 본촌(本村)의 유상적(柳相迪)이 왔다.

二十五日. 甲辰【闕逢執徐】. 陰. 本村柳相迪來.

1928년 10월 26일. 을사 -전몽대황락-. 맑음. 연초(煙草, 담배)는 평생 즐겨하던 것인데, 신식담배를 전매(權賣)한 후로는 항상 그만두고자 하기를 등한히 하지 않았다. 금년 겨울에 전매국<sup>181</sup> 사람이 봉초(封草)<sup>182</sup>를 피우지 않는가 의심하고 어디에서 한 가치를 주워 와서 나에게 묻고자 하였으나, 내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해 날카롭게 꾸짖어 보냈다. 이후 소문에 담양에서 범금자(犯禁者)가 오백명에 이르렀다는 것을 들었다. 결국에는 인민의 손발을 둘 곳이 없게 되겠구나. 이규번(李圭番), 이근영(李根榮), 나 세 사람은 구석에 앉아 세상을 탄식하며 절

181 전매국 : 1910년 조선총독부소속으로 전매국을 설치하면서 개인의 담배경작과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1921년 4월 1일 <조선 담배 전매령(제령제5호)>을 공포하여 7월 1일부터 담배의 전매를 실시하였고, 4월 1일에 <칙령 제53호>에 의해서 전매국을 신설하였다.

182 봉초(封草) : 담뱃대에 넣어서 피울 수 있도록 잘게 썰어 봉지로 포장한 담배를 말한다.

초(絶草)를 맹세하였다.

二十六日. 乙巳【旃蒙大荒落】. 陽. 烟草平生所嗜, 而新式權賣後, 常欲止之不閑. 今冬全賣局人疑不吸封草, 拾一商於何處以來, 欲質問我, 我不知其由, 快叱而遣之. 此後所聞潭陽一鄉, 犯禁者至於五百名, 畢竟人民手足無所措. 李圭番、根榮與我三人, 隅坐嘆世, 誓以絶草.

1928년 10월 27일. 병오 -유조돈장-. 맑음.

二十七日. 丙午【柔兆敦牂】. 陽.

1928년 10월 28. 정미 -강어협흡-. 맑음.

二十八日. 丁未【疆圉協洽】. 陽.

1928년 10월 29일. 무신 -저옹군탄-. 맑음.

二十九日. 戊申【著雍涿灘】. 陽.

1928년 10월 30일. 기유 -도유작악-. 맑음.

三十日. 己酉【屠維作噩】. 陽.

1928년 11월 1일. 경술 -상장엄무-. 맑음.

十一月. 初一日. 庚戌【上章闔茂】. 陽.

1928년 11월 2일. 신해 -중광대연헌-. 맑음.

二日. 辛亥【重光大淵獻】. 陽.

1928년 11월 3일. 임자 현익곤돈-. 흐림. 끝내 밤에 비가 내렸다.

十一月. 初三日. 壬子【玄默困敦】. 陰. 終夜雨.

1928년 11월 4일. 신축 -소양적분약-. 흐림.

四日. 癸丑【昭陽赤奮若】. 陰.

〈청고(靑臯) 이승학(李承鶴)<sup>183</sup>의 만사〉 輓李承鶴靑臯

석전(石田, 이최선)의 후인으로 청고가 유일한데,  
효도는 증자와 같고<sup>184</sup>, 처세는 도연명과 같았네.  
당세에 전귀(全歸)<sup>185</sup>한 일을 차마 들으랴.

石田之後一靑臯  
爲孝若曾處似陶  
忍聞當世全歸事  
寄淚□□□高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짓다〉 代人作

선생이 세상을 떠나 이미 호고(呼臯)<sup>186</sup>하였으니,  
태산 북두와 같은 높은 희망 끊어졌네.  
사문(斯文)을 부식할 사람 몇이나 남았나,  
서글피 상여 끈 잡으니 눈물이 옷을 적시네.

先生云沒已呼臯  
望絕泰山北斗高  
扶植斯文餘有幾  
愴然執紼淚盈袍

1928년 11월 5일. 갑인 -알봉섭제-. 흐림.

183 이승학(李承鶴, 1857~1928) : 자는 자화(子和), 호는 청고(靑臯), 본관은 전주이다. 이최선(李最善)의 아들이며,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의 문인이다.

184 효도는 증자와 같고 : 증자는 아버지 증석(曾楨)을 섬길 때 반드시 술과 고기를 갖추고 상을 물릴 때 누구에게 줄 것인지 묻고, 남은 것이 있는지 물으면 반드시 있다고 답하여 그 뜻을 받드는[養志] 효를 다했는데, 맹자가 이를 두고 “어버리 섬기기를 증자같이 함이 옳다. [事親, 若曾子者, 可也]”라고 하였다. (《맹자》〈이루상(離婁上)〉)

185 전귀(全歸) : 몸을 잘 보존하여 훌륭한 명성을 남기고 생을 마치는 효성을 말한다. 증자(曾子)의 제자인 악정자춘(樂正子春)이 “부모가 자식을 온전히 낳아주셨으니 자식이 몸을 온전히 하여 돌아가야 효도라고 이를 수 있으니, 몸을 훼손하지 않으며 몸을 욕되게 하지 않으면 온전히 한다고 이를 수 있다. [父母全而生之, 子全而歸之, 可謂孝矣. 不虧其體, 不辱其身, 可謂全矣.]”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예기》〈제의(祭義)〉)

186 호고(呼臯) : 고복(臯復)을 외치는 것을 말함. 고복은 사람이 죽은 뒤 지붕 위에 올라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부르는 일을 말한다.

五日. 甲寅【關逢攝提】. 陰.

1928년 11월 6일. 을묘 -전몽단알-. 맑음.

六日. 乙卯【旃蒙單闕】. 陽.

1928년 11월 7일. 병진 -유조집서-. 흐리고 추운 바람이 불었다. 손자 용주(容周)가 왔다.

七日. 丙辰【柔兆執徐】. 陰寒風. 孫容周來.

1928년 11월 8일. 정사 -강어대황락-. 맑음. 용주가 갔다.

八日. 丁巳【疆圉大荒落】. 陽. 容周去.

1928년 11월 9일. 무오 -저옹둔장-. 맑음.

九日. 戊午【著雍敦牂】. 陽.

1928년 11월 10일. 기미 -도유협흡-. 맑음. 근래 무릎 아래에 독창(毒瘡)이 나서 매우 고통스러웠는데 지금에야 비로소 버선을 신을 수 있다. 옷을 화로에 태운 재로 효험을 봤다.

十日. 己未【屠維協洽】. 陽. 近以膝下毒瘡辛苦, 今始着襪. 得效於爐衣灰.

1928년 11월 11일. 경신 -상장군탄-. 맑음. 밤에 비가 옴.

十一日. 丙申【上章涓灘】. 陽. 夜雨.

1928년 11월 12일. 정유 -강어작악-. 둘째 손자가 왔다.

十二日. 丁酉【疆圉作噩】. 次孫來.

1928년 11월 13일. 무술 -저옹엄무-. 맑음.

十三日. 戊戌【著雍闍茂】. 陽.

1928년 11월 14일. 기해 -도유대연헌-. 맑음. 용준(容俊)이 갔다.

十四日. 己亥【屠維大淵獻】. 陽. 容俊去.

1928년 11월 15일. 경자 -상장곤돈-. 맑음.

十五日. 庚子【上章困敦】. 陽.

1928년 11월 16일. 신축 -중광적분약-. 흐림.

十六日. 辛丑【重光赤奮若】. 陰.

1928년 11월 17일. 임인 -현익섭제-. 흐리고 눈.

十七日. 壬寅【玄默攝提】. 陰雪.

299

1928년 11월 18일. 계묘 -소양단알-. 흐림.

十八日. 癸卯【昭陽單闕】. 陰.

1928년 11월 19일. 갑진 -알봉집서-. 눈.

十九日. 甲辰【闕逢執徐】. 雪.

1928년 11월 20일. 을사 -전몽대황락-. 흐리고 눈.

二十日. 乙巳【旃蒙大荒落】. 陰雪.

1928년 11월 21일. 병오 -유조돈장-. 흐리고 눈. 매우 추웠다.

二十一日. 丙午【柔兆敦牂】. 陰雪. 極寒.

1928년 11월 22일. 정미 -강어협흡-. 흐림.

二十二日. 丁未【疆圉協洽】. 陰.

1928년 11월 23일. 무신 -저용군탄-. 흐림. 집에서 기별이 왔다.

二十三日. 戊申【著雍涸灘】. 陰. 家奇來.

1928년 11월 24일. 기유 -도유작악-. 먼지는 눈은 뒤 맑아짐.

二十四日. 己酉【屠維作噩】. 前雪後陽.

1928년 11월 25일. 경술 -상장엄무-. 흐림.

二十五日. 庚戌【上章闔茂】. 陰.

1928년 11월 26일. 신해 -중광대연현-. 흐리고 눈.

二十六日. 辛亥【重光大淵獻】. 陰雪.

1928년 11월 27일. 임자 -현익곤돈-. 맑음.

二十七日. 壬子【玄默困敦】. 陽.

1928년 11월 28일. 계축 -소양적분약-. 흐리고 눈.

二十八日. 癸丑【昭陽赤奮若】. 陰雪.

1928년 11월 29일. 갑인 -알봉섭제-. 맑음.

二十九日. 甲寅【闕逢攝提】. 陽.

1928년 11월 30일. 을묘 -전몽단알-. 맑음.

三十日. 乙卯【旃蒙單闕】. 陽.

1928년 12월 1일. 병진 -유조집서-. 맑음.

初一日. 丙辰【柔兆執徐】. 陽.

1928년 12월 2일. 정사 -강어대황락-. 맑음.

十二月. 二日. 丁巳【疆圉大荒落】. 陽.

1928년 12월 초3일. 무오 저옹돈장-. 흐림. 밤에 비가 왔다.

初三日. 戊午【著雍敦牂】. 陰. 夜雨.

1928년 12월 4일. 기미 -도유협흙-. 흐림.

四日. 己未【屠維協洽】. 陰.

1928년 12월 5일. 경신 -상장군탄-. 흐림.

初五日. 庚申【上章涿灘】. 陰.

1928년 12월 6일. 신유 -중광작악-. 맑음.

六日. 辛酉【重光作噩】. 陽.

1928년 12월 7일. 임술 -현익엄무-. 맑음.

七日. 壬戌【玄黓闞茂】. 陽.

1928년 12월 8일. 계해 -소양대연헌-. 맑음.

八日. 癸亥【昭陽大淵獻】. 陽.

1928년 12월 9일. 갑자 -알봉곤돈-. 맑음. 집으로 돌아왔다.

九日. 甲子【闕逢困敦】. 陽. 還巢.

1928년 12월 10일. 을축 -전몽적분약-. 맑음.

十日. 乙丑【旃蒙赤奮若】. 陽.

1928년 12월 11일. 병인 -유조섭제-. 맑음.

十一日. 丙寅【柔兆攝提】. 陽.

1928년 12월 12일. 정묘 -강어단알-. 맑음. 경성시의 고양군 송인면 돈암리 448번지에 사는 이승욱(李承旭)이 삼가 고한 <진신록(摺紳錄)>을 보았다.

十二日. 丁卯【疆圉單闕】. 陽. 看京城市外高陽郡崇仁面敦岩里四四八李承旭謹告【摺紳錄】.

1928년 12월 13일. 무진 -저옹집서-.

十三日. 戊辰【著雍執徐】.

1928년 12월 14일. 기사 -도유대황락-. 맑음.

十四日. 己巳【屠維大荒落】. 陽.

1928년 12월 15일. 경오 -상장돈장-. 맑음.

十五日. 庚午【上章敦牂】. 陽.

1928년 12월 16일. 신미 -중광협흡-. 흐리고 눈.

十六日. 辛未【重光協洽】. 陰雪.

1928년 12월 17일. 임신 -현익군탄-. 맑게 갠.

十七日. 壬申【玄默涒灘】. 晴陽.

1928년 12월 18일. 계유 -소양작약-. 맑음.

十八日. 癸酉【昭陽作疆】. 陽.

1928년 12월 19일. 갑술 -알봉엄무-. 맑음.

十九日. 甲戌【關逢關茂】. 陽.

1928년 12월 20일. 을해 -전몽대연현-. 맑음.

二十日. 乙亥【旃蒙大淵獻】. 陽.

1928년 12월 20일. 맑음. 병자 -유조곤돈-.<sup>187</sup>

二十日. 陽. 丙子【柔兆困敦】.

1928년 12월 21일. 병자 -유조곤돈-. 맑음.

二十一日. 陽.

1928년 12월 22일. 정축 -강어적분약-. 맑음.

二十二日. 丁丑【疆圉赤奮若】. 陽.

1928년 12월 23일. 무인 -저옹섭제-. 맑음

二十三日. 戊寅【著雍攝提】. 陽.

1928년 12월 24일. 기묘 -도유단알-. 맑음.

二十四日. 己卯【屠維單闕】. 陽.

187 원문에 1928년 12월 20일을 한 번 더 기록하면서, 이후 12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모두 간지가 한 단계씩 밀려 써졌다. 번역문에서는 간지를 모두 바로잡아 기록했다.

1928년 12월 25일. 경진 -상장집서-. 흐림. 눈 온 흔적이 있었다. 오늘  
은 입춘(立春)이다. 사람들이 충재(虫災)를 걱정한다.

二十五日. 庚辰【上章執徐】. 陰. 有雪痕. 是日立春也. 人憂虫災.

1928년 12월 26일. 신사 -중광대황락-. 흐림. 새벽에 눈이 왔다.

二十六日. 辛巳【重光大荒落】. 陰. 晨雪.

1928년 12월 27일. 임오 -현익돈장-. 흐림.

二十七日. 壬午【玄默敦牂】. 陰.

1928년 12월 28일. 계미 -소양협흡-. 맑음.

二十八日. 癸未【昭陽協洽】. 陽.

1928년 12월 29일. 갑신 -알봉군탄-.

二十九日. 甲申【闕逢涿灘】.

1928년 12월 30일. 을유. 매우 추움.

三十日. 乙酉. 極寒.



1929년 1월 1일

운동과 체조에 대한 논

차종손(次宗孫)의 죽음에 삼가 만사(挽詞)를 차운하다

삼가 행원 임문규시에 차운하다[謹次杏園林文奎]

심재 원운에 차운하다[謹次心齋元韻]

세원산인을 곡하다[哭世遠山人]

들은 것을 기록하다[記所聞]

삼가 오후석 선생이 이별할 때 준 시에 차운하다[謹次吳後石先生贈別韻]

서암재 김옹과 이별하며 주다[後石贈別詩 贈別棲岩齋金翁] -오준선(吳駿善)

김도병에게 지포시를 지어주다[贈金道炳芝圃原韻]

심과 성의 구분[心性之分]

재거우감(齋居偶感)(文)

물이 이르면 도랑이 이루어진다는 설[水到渠成說]

심(心)성(性)정(情)의(意)의 명목(名目)(文)

감횡거시(感橫渠詩)

장횡거 선생의 파초시[橫渠先生芭蕉詩]



1929년 1월 1일. 병술. 맑음. 청명하고 북풍이 불었다.

己巳. 正月初一日. 丙戌. 陽. 清明北風

1929년 1월 2일. 정해. 흐리고 눈.

二日. 丁亥. 陰雪.

1929년 1월 3일. 무자 -저옹곤돈-. 흐림. 눈이 온 산야에 가득하고 매우 추웠다. 새벽에 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아들이 횡역(橫逆)의 화를 당해 광주에 들어갔는데, 두 손자가 따라가서 종일토록 검사국 밖에서 있다가 한밤중에 돌아왔다.

三日. 戊子【著雍困敦】. 陰. 雪滿山野酷寒. 晨風凜凜. 子被橫逆之禍, 入光州, 二孫隨之, 終日竟夕, 立於檢査局外, 乘夜而還.

1929년 1월 4일. 기축 -도유적분약-. 맑음.

四日. 己丑【屠維赤奮若】. 陽.

1929년 1월 5일. 경인 -상장섭제-. 맑음.

五日. 庚寅【上章攝提】. 陽.

1929년 1월 6일. 신묘 -중광단알-. 맑음.

六日. 辛卯【重光單闕】. 陽.

1929년 1월 7일. 임진 -현익집서-. 맑음.

七日. 壬辰【玄默執徐】. 陽.

1929년 1월 8일. 계사 -소양대황락-. 흐림.

八日. 癸巳【昭陽大荒落】. 陰.

1929년 1월 9일. 갑오 -알봉돈장-. 맑음.

九日. 甲午【關逢敦牂】. 陽.

1929년 1월 10일. 을미 -전몽협흡-. 맑음.

十日. 乙未【旃蒙協洽】. 陽.

1929년 1월 11일. 병신 -유조군탄-. 망실(亡室, 죽은 아내)의 연기(練期, 소상(小祥))의 제사가 있어서 향당의 친구들이 많이 와 위로해주었다.

十一日. 丙申【柔兆涓灘】. 亡室練期之祭, 鄉黨知舊多來慰.

1929년 1월 12일. 정유 -강어작악-. 맑음. 질명(質明, 날이 썰 무렵)에 연제(練祭)를 지냈는데, 시간[時界]이 황급해서 예대로 하지 못하고, 임시로 지방(紙榜)을 써서 제사를 행했다. 축문(祝文)에서 '슬픔과 쓰라림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 [悲悼酸苦, 不自勝堪]<sup>1</sup>'라는 문장을 썼다. 장성(長城) 수성(水城)에 사는 사위 이대수(李大洙) -본관이 함평(咸平)이다. -가 처자를 데리고 전(奠)을 갖추고 왔다.

十二日. 丁酉【疆圉作噩】. 陽. 質明行練祭, 時界蒼荒, 未能遵禮, 權行紙榜行事. 祝用 '悲悼酸苦, 不自勝堪' 之文. 長城水城居, 女婿咸平人李大洙, 率妻子具奠而來.

1929년 1월 13일. 무술 -저용엄무-. 맑음.

1 슬픔과 ... 없다 : 제사의 축문 서식에서 남편이 죽은 아내에게 고할 경우 '슬픔과 쓰라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 [悲悼酸苦, 不自勝堪]'라고 쓴다.

十三日. 戊戌【著雍闾茂】. 陽.

1929년 1월 14일. 기해 -도유대연현-. 맑음. 이씨에게 시집간 딸이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고, 사위는 발이 부르터서 가지 못하고 며칠을 머물렀다.

十四日. 己亥【屠維大淵獻】. 陽. 李氏女率子而去, 女婿以足趺不能行, 留連.

1929년 1월 15일. 경자 -상장곤돈-. 맑음. 매년 이날이면 꽤 하나를 뽑아 그 해의 운수를 살핀다. 오늘도 꽤를 뽑았는데, 바로 뇌수해(雷水解) 사효(四爻)였다. 그 효사에 “구사(九四)는 네 엄지발가락을 풀어버리면 벗이 이르러 믿으리라. [九四, 解而拇, 朋至斯孚.]”라고 했으며, 상전(象傳)에서는 “네 엄지발가락을 풀어버리라는 것은 자리에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解而拇, 未當位也.]”라고 하였다.

十五日. 庚子【上章困敦】. 陽. 每年此日求一卦, 以觀其年數. 今又求卦, 乃雷水解四爻也. 辭曰 “九四, 解而拇, 朋至斯孚”, 象曰 “解而拇, 未當位也.”

그때 위문하는 자가 있었는데 예를 갖춘 후에 말이 시사(時事)에 미쳤다. 말하길, “지금 세상의 문명은 예전에는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내가 응수하기를 “이 무슨 말인가? 이 무슨 말인가? 반구척자(半句隻字)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 말을 하지 않는데, 이 무슨 말인가? 무슨 소견이 있어서 이 말을 하는 것인가?”라고 하자, 대답하기를 “요·순·우·탕·문·무·주·공자의 시대는 다만 중국만이 다스렸으나 지금은 비록 사망의 오랑캐일지라도 모두 제자리를 얻어, 곳곳마다 학교요, 집집마다 학생이어서 재예(才藝)가 발달하니

이보다 최상은 없습니다.

운동과 체조에 대해서는 신체가 건강해지니, 이것은 무희씨(無懷氏)<sup>2</sup>가 춤을 가르치는 방법이고, 지지(地誌)와 역사에 대해서는 고금의 사변(事變)이 통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또 신기(神機)·기차·운선(輪船)·자동차·자전거[自行車]·전기(傳奇)·전화(傳話)·비행기[飛行車]·무선전화(無線傳話)·유성기계(有聲器械)·전화(電火)·전기(電氣)·우편(郵便)·은행(銀行) 등의 종류가 있는데, 모두 예부터 있지 않았던 사물로, 모두 살아가는 데 매우 편리하여 사람들의 생활이 신선과 같아졌습니다. 어찌 예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내가 질책하여 말하기를 “옛 성인은 천하를 덕으로 다스렸는가? 공적으로 다스렸는가? 지금 세상은 공적으로 다스리는가? 덕으로 다스리는가? 옛날이 덕으로써 했다면 지금은 공적으로써 한다. 옛날 성인이 본으로 했겠는가? 말로 했겠는가? 지금 세상이 본으로 하는가? 말로 하는가? 옛날이 본으로 했다면, 지금은 말로써 하니, 이것이 이른바 ‘한 치 되는 나무를 높은 누각보다 더 높게 할 수 있다. [方寸之木, 可使高於岑樓者也]’<sup>3</sup>라는 것이니, 아, 가소롭구나!

삼대(三代)의 학교는 명륜(明倫, 인륜을 밝힘), 수선(首善, 선을 시작함)하는 곳이었는데, 지금의 학교는 명륜하는 곳인가? 수선하는 곳인가? 남녀가 혼란하게 섞여 있으니 인륜을 어지럽히는 곳이며, 대소

2 무희씨(無懷氏) : 상고(上古) 시대 제왕(帝王)으로, 이상적으로 세상을 잘 다스려서 천하가 태평했다고 전한다. 도잠(陶潛)의 <오류선생전(五柳先生傳)>에 의하면, “술을 실컷 마시고 시를 지어서 자신의 뜻을 즐기니, 무희씨의 백성인가, 갈천씨의 백성인가? [酣觴賦詩, 以樂其志, 無懷氏之民歟, 葛天氏之民歟?]”라고 하였다.

3 한 ... 있다 : 맹자가 이르기를 “그 밑동을 헤아리지 않고 그 끝만을 가지런히 한다면 한 치 되는 나무를 높은 누각보다 더 높게 할 수 있다. [不揣其本而齊其末, 方寸之木可使高於岑樓.]”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맹자》 <고자 하(告子下)>

가 이기는 것을 위주로 하여 악(惡)을 기르는 곳이다. 옛날이 도를 밝혔다면 지금은 도를 어지럽히는 때이니, 어찌 문명이 되겠는가? 남만(南蠻)의 때까지 소리(鳩舌)를 내는 사람들이<sup>4</sup> 어리석은 자들을 유인하여 당을 결성하고 곳곳에서 봉기해서 백성들의 재산을 고갈시키며 생명을 그르치고, 스스로 굴혈(窟穴)을 만들어 학교 생도의 이름을 흠치니, 아 애통하도다! 세력을 좇는 자는 이롭게 하고 반대하는 자는 해롭게 하니, 이해(利害)로 백성을 가르친다면 어느 때나 예의를 돌아보겠는가?

전(傳)에서 이른바 ‘공자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인간다움이 사라졌을 것이다. [孔子不生, 人之類滅矣]’<sup>5</sup>라고 하였으니, 이 때가 그러하다. 기예(技藝)나 기교(奇巧)에 이르러서는 어찌 예전에는 그 이치가 없고 오늘에만 유독 있는 것이겠는가? 성인은 무본억말(務本抑末)하여 백성을 편안히 하는 계책을 삼았으니, 《서경》의 <여오(旅獒)>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체조를 교무(敎舞)와 비교하는 설 또한 크게 옳지 않다. 시세(時勢)가 같지 않으니, 옛날에는 백성이 흠바닥과 굴에서 살아서 맥락이 관격(關格)<sup>6</sup> 하기 때문에 춤을 가르쳐서 영위(榮衛, 혈기)가 통하게 하였는데, 지금 생민은 도탄(塗炭)이 이미 심해 준동할 겨를도 없이 피곤

4 남만(南蠻)의 ... 사람들이: 《맹자》 <등문공 상(滕文公上)>에 나오는 말로, 맹자가 초(楚)나라의 허행(許行)을 가리켜 “남만의 때까지 소리를 내는 사람[南蠻鳩舌之人]”이라고 표현한 데서 나온 말이다. 여기서 남만은 서양의 문명을 따르는 이들을 말한 듯하다.

5 공자가 ... 것이다: 한유(韓愈)가 지은 원도(原道)에 “옛날에 성인이 없었다면 인류가 멸망된 지 오래되었을 것이다. [如古之無聖人, 人之類滅久矣.]”라고 하였다.

6 관격(關格): 한의학에서는 음기(陰氣)가 크게 성하나 양기(陽氣)가 그것을 길러 주지 못하는 것을 ‘관(關)’이라 하고, 양기가 크게 성하나 음기가 그것을 길러 주지 못하는 것을 ‘격(格)’이라 하며, 음양(陰陽)이 모두 성한데 서로 길러 주지 못하는 것을 ‘관격(關格)’이라 한다.

함으로 병이 생길 지경이니, 운동하고 체조하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듣는 자가 멍하게 오래있다가 그 말을 회피하면서 말하길 “소강절(邵康節)의 밝음으로도 상수학(象數學)에 붙고, 무후(武侯, 제갈량)의 바름으로도 신한(申韓)<sup>7</sup>에 가깝다는 설은 진실로 잘못이지만 이 두 선생도 성인입니다.”라고 함에 내가 응답하기를 “이는 보통사람 수준으로 기대한다면 진실로 성인과 같겠지만, 성인의 수준으로 기대한다면 어찌 차등이 없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렇다면 공적과 덕이 차등이 있습니까?”라고 물어서, “있다.”라고 답하였다. “왜 그렇습니까?”라고 물어서, “덕은 무궁하고, 공적은 한계가 있으며, 덕은 본이요, 공적은 말이다. 때문에 덕교(德教)를 버리고 공리(功利)를 숭상한다면 공리(功利)를 계산하는 마음이 생겨나, 필경에는 기괴한 재예가 변환하는 것이 끝이 없고 생민의 도탄도 그 끝이 없게 되어, 무부무군(無父無君)<sup>8</sup>에 이르게 되리니, 어찌 쓰겠는가?”라고 대답하였다. 듣는 자가 좋아하지 않고 물러나 다시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혹자가 나에게 “덕과 재(才)는 다른 점이 있습니까?”라고 물어서, 내가 “있다. 덕은 제나라 선왕(齊宣)이 양을 소로 바꿨던 종류이고<sup>9</sup>, 재

7 신한(申韓) : 전국 시대의 정(鄭)나라 사람 신불해(申不害)와 한(韓)나라 사람 한비자(韓非子)를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형법학(刑法學)의 창시자들이다. 무후는 신한(申韓)을 좋아하여 손수 그 문자를 써서 후주(後主, 유선(劉禪))에게 바쳐 다스림에 임함을 위주하도록 청하기도 했다.

8 무부무군(無父無君) : 임금과 아버지를 모두 부정한다는 뜻으로, 맹자(孟子)가 겸애설(兼愛說)을 주장한 묵적(墨翟)과 위아설(爲我說)을 주장한 양주(楊朱)의 학설을 비판하면서 언급한 말이다. 《맹자》〈등문공 하(滕文公下)〉에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9 제나라 ... 종류이고 : 《맹자》〈양혜왕 상(梁惠王上)〉에 나온 고사로, 전국 시대 제 선왕(齊宣王)이 새로 주조한 종에 소의 피를 칠하기 위해 소를 끌어가는 자를 보고 말하기를 “그 소를 놓아주어라. 내가 그것이 벌벌 떨면서 죄없이 죽을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노라. ... 양으로 대신하라. [畝之. 吾不

는 포정(庖丁)이 소를 해체했던 종류이다.<sup>10)</sup>라고 대답하였다.

時有慰問者，修禮後，語及時事，曰“此世文明，自古未及也。”余應之曰“是何言也？是何言也？不識半句隻字之人，不有此言，是何言也？有何所見，而有此言也？”答曰“堯、舜、禹、湯、文、武、周、孔之時，但以中國爲治，至今雖四夷蠻貊，皆得其所，處處學校，家家學生，才藝發達，莫此爲上。至於運動體調，身體健強，此是無懷氏教舞之術也。至於地誌、歷史，古今事變，無所不通，又有神機汽車、輪船、自動車、自行車、傳奇、傳話、飛行車、無線傳話、有聲器械、電火、電氣、郵便、銀行之類，皆古未有之事物，而凡所云爲極便利，於人人之生活如仙也。何其古有此事乎？”余責之曰“古聖治天下以德乎？以功乎？今世治國以功乎？以德乎？古則以德，今則以功。古聖以本乎？以末乎？今世以本乎？以末乎？古則以本，今則以末，此所謂‘方寸之木，可使高於岑樓’者也，噫，噓戲可笑哉！學校三代，所以明倫首善之地，今之學校，明倫乎？首善乎？男女混雜亂倫也，小大主勝養惡也。古則明道，今則亂道，何其爲文明也哉？‘南蠻鳩舌’，誘愚結黨，處處蜂起，殫民財，誤生靈，自成窟穴，盜學校生徒之名，嗚呼痛哉！赴勢者利之，反對者害之，以利害教民，何時顧禮義哉！傳所謂‘孔子不生，人之類滅’矣，此時爲然。至於技藝奇巧，豈古無其理，而今獨有之？聖人務本抑末，以爲安民之計也，觀於〈旅葵〉，則可見也。以其體調比教舞說，亦大不可也。時勢不同，古者民土處穴居，脈絡關格，故教舞以通榮衛，今

忍其叢棘，若無罪而就死地…以羊易之。]”라고 했던 데서 온 말이다.

- 10 재는 … 종류이다 : 기예의 경지가 높아 일 처리를 자유자재로 능란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장자(莊子)》〈양생주(養生主)〉에서 포정(庖丁)이 “지금 내가 칼을 잡은 지 19년이나 되었고, 잡은 소만도 수천 마리를 헤이리는데, 칼날이 지금 숫돌에서 금방 꺼낸 것처럼 시퍼렇기만 하다. 소의 마디와 마디 사이에는 틈이 있는 공간이 있고 칼날은 두께가 없으니, 두께가 없는 것을 그 틈 사이에 밀어 넣으면 그 공간이 넓적하여 칼을 놀릴 적에 반드시 여유가 있게 마련이다. [스승의 칼 19년矣, 所解數千牛矣, 而刀刃若新發於硎. 彼節者有間, 而刀刃者無厚, 以無厚入有間, 恢恢乎其於游刃, 必有餘地矣.]”라고 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則生民塗炭已極，蠢動不暇，而困瘁生病，運動體調，何益之有哉？”聞者  
 憮然良久，遁其辭曰“康節之明，付於數學，武侯之正，近於申韓說’誠過  
 也，此二先生亦聖人也。”余應之曰“以眾人望之，則實同聖人，以聖人望  
 之，則豈無差等乎？”，“然則功德有差等乎？”，曰“有之”，“何則”，曰“德  
 無窮而功有限，德者本也，功者末也，故捨德教尚功利，則計功謀利之心  
 生，畢竟奇怪才藝，變幻無窮，生民塗炭，罔有其極，至於無父無君，焉用之  
 乎？”聞者不肯而退，不復更言。或有問於余曰“德與才有異乎？”曰“有。  
 德者齊宣王以羊易牛之類，才者庖丁解牛之類。”

1929년 1월 15일.<sup>11</sup> 경자 상장곤돈-. 맑음. 괘를 구하여 뇌수해괘(雷  
 水解卦)<sup>12</sup>의 사효(四爻) 구사(九四) “너의 엄지발가락을 풀어버리면 벗  
 이 와서 신뢰한다[解而拇，朋至斯孚]”를 얻었다. 전에 이르길, “구사가  
 양강(陽剛)의 재질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육오(六五)의 임금을 받  
 들고 있고, 대신이면서도 아래로는 초육(初六)의 음과 응하게 된다.  
 무(拇)는 아래에 있으면서 작은 것이니, 초(初)라고 한다. 높은 지위  
 에 있으면서 소인을 친히 하면 현인과 정사들이 멀리 물러가버릴 것이  
 요, 소인을 배척하여 버리면 군자의 무리들이 다가와서 진실로 서로  
 뜻이 맞을 것이다. 사가 초육의 음유함을 풀어버릴 수 있으면 양강  
 군자의 벗이 와서 진실로 합할 것이요, 소인을 풀어버리지 않으면 자  
 기의 정성이 지극하지 못한 것이니, 어찌 남의 믿음을 얻을 수 있겠는  
 가? 초육은 구사의 응이기 때문에 멀리함을 일러 풀어버린다고 한 것  
 이다.”라고 하였다.

11 1929년 1월 15일 일기는 중복되는데 내용에 다름이 있기 때문에 모두 신는다.

12 뇌수해괘(雷水解卦) : 감하진상(坎下震上). 천지의 기운이 풀어져서 뇌우(雷雨)가  
 일어나고 만물이 싹트는 시기에 군자(君子)는 이 뜻을 본받아 죄과(罪過)를 사  
 유(赦宥)한다는 뜻이다.

본의(本義)에서는 “무(拇)는 초(初)를 가리킨다. 초와 사는 모두 제 자리를 얻지 못하고 서로 응하니, 응한 것이 정도로써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사는 양이고 초는 음이어서 그 류가 같지 않으니, 만일 초를 풀어버리면 군자의 벗이 이르러 서로 믿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상(象)에서 이르길, “너의 엄지발가락을 푼다고 함은 아직 정당한 지위에 올라있지 않기 때문이다. [解而拇, 未當位也]”라고 했다.

전(傳)에서는 “사가 비록 양강이나 음의 자리에 있어서 정도에 부족한가 의심되는데, 만일 다시 소인을 친히 한다면 그 정도를 잃음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엄지발가락을 풀어버린 뒤에야 군자를 오게 한다고 경계하였으니, 이는 치한 것이 자리에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解)는 본래 합하였다가 떠남이니, 반드시 엄지발가락을 풀어버린 뒤에야 벗이 믿을 것이다. 대개 군자와 사귄 때 소인을 그 사이에 용납한다면 이는 군자와 함께하는 정성이 지극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戊辰己巳。正月。十五日。庚子【上章困敦】。陽。求卦得雷水解，四爻九四，“解而拇，朋至斯孚”，傳曰，“九四以陽剛之才，居上位，承六五之君，大臣也，而(下)與初六之陰爲應。拇，在下而微者，謂初也。居上位親小人，則賢人正士遠退矣。斥去小人，則君子之黨，進而誠相得也。四，能解去初六之陰柔，則陽剛君子之朋，來至而誠合矣。不解去小人，則己之誠未至，安得人之孚也？初六，其應故謂遠之爲解。”本義，“拇，指初，初與四，皆不得其位而相應，應之不以正者也。然四陽而初陰，其類則不同矣。若能解而去之，則君子之朋，至而相信矣。”象曰，“解而拇，未當位也。”傳，“四雖陽剛，然居陰，於正疑不足，若復親比小人，則其失正必矣。故戒必解其拇然後，能來君子，以其處未當位也。解者，本合而離之也，必解拇而後，朋孚。蓋君子之交，而小人容於其間，是與君子之誠未至也。”

1929년 1월 16일. 신축 -상장적분약-. 맑음.

十六日. 辛丑【上章赤奮若】. 陽.

1929년 1월 17일. 임인 -현익섭제-. 맑음.

十七日. 壬寅【玄默攝提】. 陽.

1929년 1월 18일. 계묘 소양단알-. 밤에 비가 내림.

十八日. 癸卯【昭陽單闕】. 夜雨.

1929년 1월 19일. 갑진 -알봉집서-. 갸.

(十)九日. 甲辰【闕逢執徐】. 晴.

1929년 1월 20일. 기사 -전몽대황락-. 흐림.

二十日. 己巳【旃蒙大荒落】. 陰.

1929년 1월 21일. 병오 -유조돈장-. 맑음, 매우 추웠다.

二十一日. 丙午【柔兆敦牂】. 陽. 極寒.

1929년 1월 22일. 정미 -강어섭제-. 맑음.

二十二日. 丁未【強圉攝提】. 陽.

1929년 1월 23일. 무신 -저용군탄-. 맑음.

二十三日. 戊申【著雍涿灘】. 陽.

1929년 1월 24일. 기유 -도유작악-. 맑음.

二十四日. 己酉【屠維作噩】. 陽.

1929년 1월 26일. 차종손이 16일에 별세를 했는데, 오늘에야 삼가 만사에 차운한다.

二十六日. 次宗孫, 十六日別世, 今日謹次挽詞.

우리 종인의 품성은 온전하니,	吾宗稟性全
젊어서부터 효가 우선이었네.	自少孝爲先
예절은 추정(趨庭) <sup>13</sup> 한 날에 이미 쇠고,	禮立趨庭日
덕은 장국(杖國) <sup>14</sup> 의 해에 이미 높았네.	德尊杖國年
어찌하여 세상을 싫어하여,	何以其厭世
홀연히 속세 떠나 선경으로 올라갔다.	忽焉去上僊
차마 해로가 <sup>15</sup> 를 들으면서,	忍聞歌薤露
뇌사를 쓰니 눈물이 샘물처럼 솟네.	寫誄淚如泉

1929년 1월 25일. 경술 -상장엄무-. 맑음.

二十五日. 庚戌【上章闡茂】. 陽.

1929년 1월 26일. 신해 -중광대연헌-. 맑음.

二十六日. 辛亥【重光大淵獻】. 陽.

- 13 추정(趨庭) :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을 말한다. 공자(孔子)가 뜰에 혼자 서 있을 때, 아들 백어(伯魚)가 종종걸음으로 뜰을 지나가자 공자가 그에게 시(詩)와 예(禮)를 배웠는지 물었던 데서 유래한다. 《논어》〈계씨(季氏)〉
- 14 장국(杖國) : 노인을 말한다. 《예기》에 나이 70이면 국도(國道)에서 지팡이를 짚는다고 하였다. 또 옛날에 70세가 된 대신에게는 나라에서 궤(几)와 장(杖)을 하사하여 치사(致仕)를 만류하고 계속 일을 보게 하였다.
- 15 해로가(薤露歌) : 부추 위에 맺힌 이슬처럼 덧없이 지는 인생을 슬피하는 노래로, 초상 때 부르던 만가이다. 한 고조(漢高祖)에게 만기를 듣다 패망한 전횡(田橫)의 죽음을 두고 그 무리가 지은 만가 2장 중 1장에 “부추 위에 맺힌 이슬 어이 쉽게 마르나. 이슬은 말라도 내일이면 다시 내리지만, 사람은 죽어 한번 가면 언제나 돌아오나. 薤上朝露何易晞, 露晞明朝更復落, 人死一去何時歸”라고 하였다. (《고금주(古今注)》〈음악(音樂)〉)

1929년 1월 27일. 임자 -현익곤돈-. 맑음.

二十七日. 壬子【玄默困敦】. 陽.

1929년 1월 28일. 계축 -소양적분약-. 맑음.

二十八日. 癸丑【昭陽赤奮若】. 陽.

1929년 1월 29일. 갑인 -알봉섭제-. 맑음.

二十九日. 甲寅【闕逢攝提】. 陽.

1929년 2월 1일. 을묘 -전몽단알-. 밤에 눈. 큰 바람에 나무가 부러지고 지붕이 날아갔다.

二月. 初一日. 乙卯【旃蒙單闕】. 夜雪. 大風折木發屋.

1929년 2월 2일. 병진 -유조집서-. 맑음.

二日. 丙辰【柔兆執徐】. 陽.

1929년 2월 3일. 정사 -강어대황락-. 흐림.

三日. 丁巳【疆圉大荒落】. 陰.

1929년 2월 4일. 무오 -저옹돈장-. 흐림. 밤에 눈.

四日. 戊午【著雍敦牂】. 陰. 夜雪.

1929년 2월 5일. 기미 -도유협흡-. 맑음.

五日. 己未【屠維協洽】. 陽.

1929년 2월 6일. 경신 -상장군탄-. 맑음.

六日. 庚申【上章涸灘】. 陽.

1929년 2월 7일. 신유 -중광작악-. 맑음.

七日. 辛酉【重光作噩】. 陽.

1929년 2월 8일. 임술 -현익엄무-. 맑다가 바람이 불. 바람 불고 흐렸으며 밤에 비.

八日. 壬戌【玄默闍茂】. 陽而風. 風陰夜雨.

1929년 2월 9일. 계해 -소양대연헌-. 맑다가 바람 불고 추움.

九日. 癸亥【昭陽大淵獻】. 陽而風寒.

1929년 2월 10일. 갑자 -알봉곤돈-. 맑음.

十日. 甲子【闕逢困敦】. 陽.

319

1929년 2월 11일. 을축 -전몽적분약-. 맑음.

十一日. 乙丑【旃蒙赤奮若】. 陽.

1929년 2월 12일. 병인 -유조섭제-. 맑다가 바람 불.

十二日. 丙寅【柔兆攝提】. 陽而風.

1929년 2월 13일. 정묘 -강어단알-. 맑음.

十三日. 丁卯【疆圉單闕】. 陽.

1929년 2월 14일. 무진 -저용집서-. 맑음.

十四日. 戊辰【著雍執徐】. 陽.

1929년 2월 15일. 기사 -도유대황락-. 맑음.

十五日. 己巳【屠維大荒落】. 陽.

1929년 2월 16일. 경오 -상장돈장-. 흐리고 비.

十六日. 庚午【上章敦牂】. 陰雨.

1929년 2월 17일. 신미 -중광협합-. 맑음.

十七日. 辛未【重光協洽】. 陽.

1929년 2월 18일. 임신 -현익군탄-. 맑음.

十八日. 壬申【玄默涒灘】. 陽.

1929년 2월 19일. 계해 -소양작악-. 맑음.

十九日. 癸酉【昭陽作噩】. 陽.

1929년 2월 20일. 갑술 -알봉엄무-. 맑음.

二十日. 甲戌【闕逢闍茂】. 陽.

1929년 2월 21일. 을해 -전몽대연현-. 맑음. 하릴없이 검단리(檢丹里)

에 이르러 청련(靑蓮)<sup>16</sup>의 후에 이정균(李正均) 집에서 머물러 잤다.

二十一日. 乙亥【旃蒙大淵獻】. 陽. 無聊至檢丹里, 靑蓮后裔李正均家留宿.

16 청련(靑蓮) : 이후백(李後白, 1520~1578)의 호(號)이다. 시호는 문청(文淸)이다. 1555년(명종10)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이후 이조 판서에 올랐으며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강진 서봉서원(瑞峰書院)과 함안(咸安)의 문회서원(文會書院)에 제향되었고, 저서에 《청련집》(靑蓮集)이 있다.

1929년 2월 22일. 을해 -진몽대연찬.<sup>17</sup> 맑음. 광주(光州) 매월리(梅月里)<sup>18</sup>에 위문하러 가다가 그 길을 잃어버려 니산동(泥山洞)<sup>19</sup>에 이르렀다. 돌아서 매월리로 가는데, 길 앞에 날아갈 듯한 모양의 기와집이 있어 들어가 보니 고제봉(高霽峰)선생의 포충사(褒忠祠)<sup>20</sup>였다. 원지기[院直]를 불러 장의(掌議)<sup>21</sup>와 색장(色掌)<sup>22</sup>이 있는지 없는지 물었다. 원지기가 답하기를, “오시지 않아서 원문(院門)을 닫아놓았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원지기에게 명해서 문을 열어 봉심(奉審)하고 물러나와 압산(鴨山)<sup>23</sup>에 이르렀다. 개동촌(開東村)<sup>24</sup> 고창석(高昌錫) 집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현와(弦窩)<sup>25</sup> 봉산정사(鳳山精舍)<sup>26</sup>에 이르러 머물러 잤다.

- 
- 17 을해 -진몽대연찬 : 순서로 보아 '병자 유조곤돈'이라야 한다. 착오는 이후 2월 25일까지 계속된다.
- 18 광주(光州) 매월리(梅月里) :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관할 하의 매월동을 가리킨다.
- 19 니산동(泥山洞) :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 대촌동 관할 하의 이장동으로 추정된다.
- 20 포충사(褒忠祠) : 임진왜란 초기 호남 지방에서 의병 7천명을 모집하여 금산성 전투 및 진주성 전투에서 순절한 고경명·고종후·고인후 3부자와 유팽로·안영 등 5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사액 사당이다. 흥선대원군이 서원철폐령을 내렸을 때 장성의 필암서원과 함께 훼손되지 않은 전라도 지방의 2개 서원 중 하나이다.
- 21 장의(掌議) : 성균관(成均館)이나 향교(鄕校) 재임(齎任)의 으뜸자리를 부르는 말이다.
- 22 색장(色掌) : 성균관(成均館), 향교(鄕校), 사학(四學) 등에 거처하던 역원(役員)을 가리킨다.
- 23 압산(鴨山) : 현재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동 압촌마을을 가리킨다.
- 24 개동촌(開東村) : 현재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동 관할 하의 이장동으로 추정된다.
- 25 현와(弦窩) : 고광선(高光善, 1855~1934)의 호(號)이다. 고광선은 고경명(高敬命, 1533~1592)의 후손으로 광주(光州)에서 태어나 나도규(羅燾圭, 1826~1885), 기정진(奇正鎭)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광주 서창 봉산(鳳山)에 은거하였고, 1906년 엄이재(掩耳齋)를 세우고 후진교육에 정진하였다. 1919년 봉산정사를 건립하였다.
- 26 봉산정사(鳳山精舍) : 고광선(高光善)이 세운 정자로, 광주광역시 서구 용두동 봉황산 중턱에 있다.

二十二日. 乙亥【旃蒙大淵獻】. 陽. 作光州梅月里, 慰問之行, 迷其途, 至於泥山洞. 回行梅月里, 前路有翼然之瓦家, 入見, 乃高霽峰先生褒忠祠也. 呼院直, 問掌議色掌之存否, 院直答, “不來, 固閉院門.” 命直啓門, 奉審以退, 至鴨山. 到開東村高昌錫家點心, 至弦窩鳳山精舍留宿.

1929년 2월 23일. 병자. 매월리에 당도해 위문하고 머물러 잤다.

二十三日. 丙子. 到梅月里, 慰問而留宿.

1929년 2월 24일. 정축 -강어적분약-. 맑음. 돌아가는 길에 정균(正均) 댁에 들어가 머물러 잤다.

二十四日. 丁丑【疆圉赤奮若】. 陽. 回入正均宅留宿.

1929년 2월 25일. 무인 -저옹섭제-. 맑음. 집으로 돌아왔다. 기묘 -도유단알-. 맑음. 이날이다.<sup>27</sup>

二十五日. 戊寅【著雍攝提】. 陽. 還巢. 己卯【屠維單闕】. 陽. 是日.

1929년 2월 26일. 경진 -상장집서-. 맑음. 오늘은 청명(淸明)이다.

二十六日. 庚辰【上章執徐】. 陽. 是日淸明也.

1929년 2월 27일. 신사 -중광대항락-. 흐리고 비.

二十七日. 辛巳【重光大荒落】. 陰雨.

1929년 2월 28일. 임오 -현익돈장-. 맑음.

二十八日. 壬午【玄默敦牂】. 陽.

27 기묘 ... 이날이다 : 2월 22일부터 착오를 일으켰던 간지와 고갑자를 깨닫고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

1929년 2월 29일. 계미 -소양협흡-. 맑음.

二十九日. 癸未【昭陽協洽】. 陽.

1929년 2월 30일. 갑신 -알봉군탄-. 맑음.

三十日. 甲申【關逢涸灘】. 陽.

1929년 3월 1일. 을유 -전몽작악-. 맑음. 이날은 죽은 아내의 기일이  
라서 애통한 마음을 그만 둘 수 없다.

三月. 初一日. 乙酉【旃蒙作噩】. 陽. 是日亡室忌日也, 悲悼不已.

1929년 3월 2일. 병술 -유조엄무-. 흐리고 비.

初二日. 丙戌【柔兆闍茂】. 陰雨.

1929년 3월 3일. 정해 -강어대연헌-. 갸.

初三日. 丁亥【彊圉大淵獻】. 晴.

1929년 3월 4일. 무자 -저옹곤돈-. 맑지만 바람이 불었다.

初四日. 戊子【著雍困敦】. 陽而風.

1929년 3월 5일. 기축 -도유적분약-. 맑음.

五日. 己丑【屠維赤奮若】. 陽.

1929년 3월 6일. 경인 -상장섭제-. 맑음.

六日. 庚寅【上章攝提】. 陽.

1929년 3월 7일. 신묘 -중광단알-. 맑음.

七日. 辛卯【重光單闕】. 陽.

1929년 3월 8일. 임진 -현익집서-. 맑음.

八日. 壬辰【玄默執徐】. 陽.

〈삼가 행원 임문규시에 차운하다〉 謹次杏園【林文奎】

행원의 학문 씨앗은 동선의 행림 <sup>28</sup> 이니,	杏園學種董仙林
이로부터 사람을 살리는 의미가 깊네.	自此活人意味深
의술은 단약 같아 용호가 엮드린 듯 하고,	術若凝丹龍虎伏
정성은 연꽃 따러 옥정에 임한 듯하네.	誠如摘蓮玉井臨
한가로이 기백 <sup>29</sup> 을 보며 담자를 먹고,	閒看岐伯茹淡字
묵묵히 신농과 계합하여 초심을 맛보네.	默契神農嘗草心
널리 중생을 구제해 축하하는 곳에서,	廣濟衆生來賀地
혹은 노래하고 혹은 춤추며 혹은 시 읊네.	或歌或舞或詩吟

1929년 3월 9일. 계사 -소양대황락-. 맑음.

28 동선의 행림 : 동선행림(董仙杏林)은 '신선(神仙) 동봉(董奉)이 머무는 행림'이라는 뜻이다. 동봉은 삼국시대 오(吳)나라 사람으로, 일찍이 여산(廬山)에 은거하면서 의술(醫術)에 정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었는데, 그는 질병을 치료해 주고도 돈을 받지 않고 다만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원에 살구 나무를 심게 하여 살구나무가 무려 10만 그루에 달했던바, 그는 또 그 행림(杏林) 속에 조그마한 창고 하나를 지어 놓고, 그 살구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곡식 한 그릇을 그 창고에 갖다 두고 대신 살구 한 그릇을 가져가도록 하여 그것으로 생활했다고 한다. (《신선전(神仙傳)》〈동봉(董奉)〉)

29 기백(岐伯) : 전설로 전하는 황제(黃帝) 시대의 명의(名醫)이다. 지금 전하는 《황제내경(黃帝內經)》은 황제와 기백이 의학(醫學)에 관하여 문답한 것을 모았다고 전해지지만, 사실은 전국 시대와 진한(秦漢) 시대의 의가(醫家)가 그들의 이름을 가탁하여 편집한 책이다. 《운급칠첩(雲笈七籤)》 권100에 “당시에 선백이 기산 아래에서 나와 호를 기백이라고 하였는데, 초목의 약성과 맛을 잘 해설하여 대의가 되었다. [時有仙伯，出於岐山下，號岐伯，善說草木之藥性味，爲大醫。]”라는 말이 나온다.

九日. 癸巳【昭陽大荒落】. 陽.

1929년 3월 10일. 갑오 -알봉돈장-. 맑음.

十日. 甲午【闕逢敦牂】. 陽.

〈심재 원운에 차운하다〉 謹次心齋元韻

학문 공부는 마음을 검속하는 것이니,  
인도를 나누어 말해도 본원은 깊네.  
유정유일과 윤궐집중을 말하고,  
경이라 하고 성이라 해도 이치는 알 수 있네.  
광명정대함을 어찌 나중에 보겠는가,  
영롱함과 투탈함이 동시에 임하네.  
사물의 뿌리요 몸의 주인이니,  
편액 위에 걸어두고 날마다 읊조리네.

爲學工夫檢此心  
分言人道本源深  
惟精惟一中云執  
曰敬曰誠理可尋  
正大光明安后見  
玲瓏透脫動時臨  
事之根也身之主  
揭扁上詩日日吟

325

1929년 3월 11일. 을미 -전몽협흡-. 맑음.

十一日. 乙未【旃蒙協洽】. 陽.

1929년 3월 12일. 병신 -유조군탄-. 맑음.

十二日. 丙申【柔兆涖灘】. 陽.

1929년 3월 13일. 정유 -강어작악-. 맑음.

十三日. 丁酉【彊圉作噩】. 陽.

1929년 3월 14일. 무술 -저옹엄무-. 맑음.

十四日. 戊戌【著雍闞茂】. 陽.

1929년 3월 15일. 기해 -도유대연한-. 맑음. 옥과에 성묘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청단리의 세규의 사랑에서 유숙하였다.

十五日. 己亥【屠維大淵獻】. 陽. 作玉果省行, 回路, 留宿於青丹世奎舍廊.

1929년 3월 16일. 다음날. 비가 왔다. 순창 금동의 박인(朴寅) 집에 가서 위문하였다. 밤에 비가 왔다.

翌日十六日. 雨. 向淳昌金洞朴寅家, 慰問. 夜雨.

〈세원산인(세상을 멀리한 산인)을 곡하다〉 哭世遠山人

아, 세상을 멀리한 그대여,	于嗟世遠子
자식을 가르치며 성인을 기대하였네.	教子聖人期
본래 성품은 온전하여 덕을 숭상하고,	素性全尙德
마음 씬은 능하여 사리를 이겨냈네.	用心能克利
정이 두텁게 오십년을 지냈는데,	情好五十載
일순간에 영원히 헤어지게 되었네.	永分一瞬時
어느덧 궤연을 거두는 날 당하니,	便當撤筵日
쇠잔한 눈물 비통함을 이길 수 없네.	殘淚不勝悲

다음날, 남계<sup>30</sup> 오서방을 위문하였다. 이날 과동에서 유숙하였다.

翌日, 慰問南溪吳書房. 是日留宿於果洞.

1929년 3월 17일. 신축. 갸.

十七日. 辛丑. 晴.

1929년 3월 18일. 임인. 덕진내(德振內)를 향해서 성묘를 하고, 조

30 남계: 현재 전북 순창군 금과면 남계리에 해당된다.

윤주(趙允周)의 사랑에 머물러 잤다.

十八日. 壬寅. 向德振內省墓, 留宿於趙允周舍廊.

1929년 3월 19일. 계묘. 집에 돌아왔다.

十九日. 癸卯. 還巢.

1929년 3월 20일. 갑진.

二十日. 甲辰.

1929년 3월 21일. 을사. 맑음.

二十一日. 乙巳. 陽.

1929년 3월 22일. 병오 -유조돈장-. 맑음.

二十二日. 丙午【柔兆敦牂】. 陽.

1929년 3월 23일. 정미 -강어협흡-. 맑음.

二十三日. 丁未【強圉協洽】. 陽.

1929년 3월 24일. 무신 -저용군탄-. 광주 서창면의 봉산정사(鳳山精舍)에 갔다. 현와(弦窩) 고평선 선생, 안강현령의 손자 대석과 윤석, 안강현령이 따침 방축안에 있었다. 삼산 이계종(李啓琮)씨, 남평의 야산 이홍수(李洪洙), 금구동의 문정기(文正基)가 와서 참여하였다.

二十四日. 戊申【著雍涒灘】. 作光州西倉面鳳山精舍之行. 高弦窩先生光善氏, 安康令抱大錫允錫, 安倅, 適有防築內. 李三山啓琮氏, 南平夜山李洪洙, 金龜洞文正基來參.

들은 것을 기록한다.

옛적 포拯(包拯)<sup>31</sup>은 합비인(合肥人)인데, 본군의 수령으로 왔다. 조금도 법을 굽혀서 고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부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세속에서 서로 비방하니, 공이 이에 시를 지어 자신의 뜻을 보여 주었다. 그 중에 일련(一聯)에 이르기를, “곧은 가지는 마침내 동량이 될 수 있고, 진실로 강한 것은 갈고리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 정도를 지키고 굽히지 않음이 이와 같다.

책을 보면 곧 잊어버리지만, 마치 성긴 체에 물을 걸러 아직 습기는 남아 있는 같다.

음덕은 마치 귀가 우는 것과 같아서 남은 알지 못하는데 자기 홀로 그 것을 아는 것과 같다. -수나라 이사겸(李士謙)<sup>32</sup>-

記所聞.

昔包拯, 合肥人, 出守本郡. 不肯少屈法, 以阿鄉曲之好. 故流俗相謗議, 公乃爲詩, 以見意. 其間一聯云 “直幹終爲棟, 眞剛不作鈎.” 其守正不回, 如此.

看書旋忘, 如疏篩瀉水, 猶有濕氣.

陰德, 如耳鳴, 人不知, 而已獨知之. 【隋李士謙】

1929년 3월 25일. 기유 -도유작악-. 맑고 바람이 차가움.

二十五日. 己酉【屠維作噩】. 陽而風寒.

오늘은 봉산정사(鳳山精舍) 강학일이다. 강생으로 관동(冠童) 수백

31 포拯(包拯, 999~1062) : 송 인종(宋仁宗) 때 사람으로 자는 희인(希仁), 시호는 효숙(孝肅)이다. 벼슬은 천장각 대제(天章閣待制)·개봉지부(開封知府)·추밀부사(樞密副使)·예부 시랑(禮部侍郎)을 지냈다. 강직하기로 유명하였다. 《송사(宋史)》 권316 <포拯열전(包拯列傳)>

32 이사겸(李士謙) : 자는 자약(子約)으로, 수나라 조군(趙郡) 평곡(平棘) 사람이 다. 선행을 즐기고 벼풀기를 좋아하였다. 위 글은 《수서(隋書)》 열전(列傳) 42, 이사겸전에 나온다.

명이 와서 모였는데, 다만 이난수(李蘭秀) -동아(東阿)에 거주함- 와 양상하(梁相賀)<sup>33</sup>, 최기홍(崔基洪)·기욱(基彘) 형제, 고제근(高濟根)만 서로 이름을 아는 사람이었다. 석양에 나주(羅州) 등림(藤林)에 사는 임상포(林相包) 낙중(洛仲) -호는 금파(錦坡)- 이 끌고 가고자 하여 주인을 청했다. 주인이 곧 허락하였으므로 따라가 석정촌에 들어갔더니 주인은 곧 고제만(高濟萬)으로, 금파의 사위 집이었다. 인하여 유숙하고 다음날 다시 봉산정사에 들어가 작별하였다. 단지 황계(潢溪)<sup>34</sup>에 사는 이정상(李廷相) -호는 만괴(晩愧)- 과 남원(南原) 응령(應嶺)<sup>35</sup>에 사는 고재룡(高在龍) -자는 이현(理賢)으로, 학봉(鶴峯, 고인후) 섭종(攝宗)<sup>36</sup> 고씨- 만 있었다.

是日鳳山精舍講學日也. 講生冠童數百名來會, 但李蘭秀【居東阿】, 梁相賀, 崔基洪、基彘兄弟 高濟根相知名. 夕陽羅州藤林, 林相包洛仲號錦坡, 欲引去, 請主人, 主人乃許, 故隨入石汀村, 則主人乃高濟萬, 卽錦坡之壻郎家也. 因以留宿. 翌復入鳳山作別, 只有潢溪李廷相號晚愧, 南原應嶺高在龍字理賢鶴峯攝宗高氏也.

1929년 3월 26일. 경술-상장엄무-. 맑음. 하루종일 길을 가느라 매우 피곤했다. 황혼 무렵 상덕리(上德里)<sup>37</sup> 고광석(高光奭)의 집에 들어갔다.

是日, 二十六日. 庚戌【上章闡茂】. 陽. 終日行路, 困憊茲甚. 黃昏入上德里

33 양상하(梁相賀) : 용진정사(湧珍精舍)에서 후석(後石) 오준선(吳駿善, 1851~1931)에게 학문을 배웠다고 한다.

34 황계(潢溪)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동에 황계마을이 있다.

35 응령(應嶺) : 지금의 남원시 이백면 효기리이다.

36 섭종(攝宗) : 종손이 종무(宗務)를 직접 관장하지 못하여 종손과 가까운 친척이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37 상덕리(上德里) :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신덕리에 상덕마을이 있다.

高光爽家.

1929년 3월 27일. 신해. 밤에 비가 내림. 재종제부(再從弟婦)가 세상을 떠났다. 삼지천(三支川)<sup>38</sup>에 들어가 고경옥(高景玉)·중희(仲晦)·관일(貫一)과 만났다.

二十七日. 辛亥. 夜雨. 再從弟婦棄世. 入三支川, 與高景玉、仲晦、貫一相逢.

1929년 3월 28일. 임자 -현익곤돈-. 흐림. 재종제부(再從弟婦)의 초상에 위문갔다.

二十八日. 壬子【玄默困敦】. 陰. 奔再從弟婦喪.

1929년 3월 29일. 계축 -소양적분-. 맑음. 집으로 돌아왔다.

二十九日. 癸丑【昭陽赤奮】. 陽. 還巢.

1929년 4월 1일. 갑인 -알봉섭제-. 맑음.

四月. 初一日. 甲寅【闕逢攝提】. 陽.

1929년 4월 2일. 을묘 -전몽단알-. 맑음. 곡성(穀城)<sup>39</sup>에 사는 유병우(柳炳宇)씨가 왔다.

初二日. 乙卯【旃蒙單闕】. 陽. 穀城柳炳宇氏來.

1929년 4월 3일. 병진 -유조집서-. 맑음.

三日. 丙辰【柔兆執徐】. 陽.

38 삼지천(三支川):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에 삼지천 마을이 있다.

39 곡성(穀城): 곡성(谷城)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1929년 4월 4일. 정사 -강어대황락-. 맑음. 목동(木洞)에 사는 송달환(宋達煥)씨가 왔다.

四日. 丁巳【疆圉大荒落】. 陽. 木洞宋達煥氏來.

1929년 4월 5일. 무오 -저옹둔장-. 맑음.

五日. 戊午【著雍敦旌】. 陽.

1929년 4월 6일. 기미 -도유협흡-. 맑음. 남원(南原)에 사는 방진효(房鎭敎) -자는 학중(學中), 호는 소간(素澗)- 가 와서 말하기를, “송조헌(宋祖憲)이 광주 반산(礬山)에 와서 거주하는데 호가 화석(華石)이다.”라고 하였다.

六日. 己未【屠維協洽】. 陽. 南原房鎭敎, 字學中, 号素澗, 來言, 宋祖憲來居光州礬山, 号華石.

331

1929년 4월 7일. 경신 -상장군탄-. 맑음.

七日. 庚申【上章涒灘】. 陽.

1929년 4월 8일. 신유 중광작악-. 흐리다가 맑음.

八日. 辛酉【重光作噩】. 陰而陽.

1929년 4월 9일. 임술 -현익엄무-. 맑음.

九日. 壬戌【玄黓闞茂】. 陽.

1929년 4월 10일. 계해 -소양대연헌-. 맑음.

十日. 癸亥【昭陽大淵獻】. 陽.

1929년 4월 11일. 갑자 -알봉곤돈-. 맑음.

十一日. 甲子【關逢困敦】. 陽.

1929년 4월 12일. 을축 -전몽적분약-. 맑음. 천둥소리가 났다. 월산(月山)<sup>40</sup>에 다니러 갔다.

十二日. 乙丑【旃蒙赤奮若】. 陽. 雷聲. 作月山之行.

1929년 4월 13일. 병인 -유조섭제-. 맑음. 장성(長城) 수성(水城)에 다니러 가서 영광(靈光) 불갑(佛甲)에 사는 강영철(姜永喆) -자는 군필(君弼)- 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천둥소리가 났다.

十三日. 丙寅【柔兆攝提】. 陽. 作長城水城之行, 與靈光佛甲姜永喆字君弼談論. 有雷聲.

1929년 4월 14일. 정묘 -강어단알-. 맑음. 천둥이 쳤다.

十四日. 丁卯【彊圉單闕】. 陽. 有雷聲.

1929년 4월 15일. 무진 -저옹집서-. 맑음.

十五日. 戊辰【著雍執徐】. 陽

1929년 4월 16일. 기사 -도유대항락-. 맑음. 장산(長山)<sup>41</sup>의 참봉 김용순(金容珣)을 방문하고 유숙하였다. 이 때 전북 고창군 부안면 검곡리에 사는 김도병(金道炳)<sup>42</sup>이 있었다.

十六日. 己巳【屠維大荒落】. 陽. 訪問長山金參奉容珣, 因以留宿. 時有全

40 월산(月山):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이다.

41 장산(長山): 담양군 고서면 장산리를 이른다.

42 김도병(金道炳): 호는 지포(芝圃)이고, 자는 덕중(德中)이며, 본관은 김해이다.

北高敞郡富安面檢谷里金道炳.

1929년 4월 17일. 경오 -상장돈장-. 맑음. 나주 용진정사(湧珍精舍)<sup>43</sup>에 갔다. 가는 길에 북창(北昌)<sup>44</sup> 오동수(吳東洙)<sup>45</sup> -호는 도호(道湖)-택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정사에 들어가 유숙했다.

十七日. 庚午【上章敦狀】. 陽. 作羅州湧珍精舍. 行至北昌吳東洙【號道湖】宅午飯, 入精舍留宿.

1929년 4월 18일. 신미 -중광협흡-. 맑음. 돌아오는 길에 진곡(晉谷)<sup>46</sup> 박응규(朴應圭)택에서 점심을 먹고, 안청(安淸)<sup>47</sup> 고재봉(高在鵬)<sup>48</sup>택에 이르러서 유숙했다. 《하남정씨수언》목록 상권에 대해서 물었다. 재봉이 말하길, “정자가 말하길, ‘일과 이를 합하면 삼이 된다. 삼을 보면 일과 이가 없어진 것이다. 삼을 분리하면 일과 이가 되는데, 일과 이를 보면 삼이 없어진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야흐로 일과 이를 베풀

43 용진정사(湧珍精舍) : 한말의 도학자 오준선(1851~1931)이 강당을 짓고 후학을 양성하던 곳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동 용진산에 있다.

44 북창(北昌) : 당시 나주 북창으로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수동 용강마을을 이른다.

45 오동수(吳東洙, 1878~1945) : 호는 도호(道湖)이고, 본관은 나주이며, 오준선(1851~1931)의 둘째 아들이다.

46 진곡(晉谷) : 당시 전남 광산군 하남면 진곡리로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동을 이른다.

47 안청(安淸) : 당시 전남 광산군 하남면 안청리로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청동을 이른다.

48 고재봉(高在鵬, 1869~1936) : 자는 윤권(允拳), 호는 익재(翼齋), 본관은 제주이다. 광주 안청리(安淸里)에서 광규(光奎)의 아들로 태어났다. 진우(田愚, 1841~1922)에게 나아가 수학하였는데 간재(艮齋)는 그에게 익재(翼齋)라는 호를 붙여 주었다. 만년에 전라북도 진안군(鎭安郡) 주천면(朱川面) 대불리(大佛里)로 이사하여, 이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본인의 수양에 더욱 힘써 호남처사라 불렸다.

어 삼을 구함에 이미 삼이 이루어진 것인데, 또 일과 이를 말하니 이치를 알지 못하겠소.”라고 하였다.

내가 답하길 “삼가 살피건대 이것은 도(道)와 기(器)를 겸해서 한 말이니, 도 또한 기이고, 기 또한 도이다. 합하면 하나가 되고 떨어지면 둘이 된다는 말을 숫자로써 비유한 것이오.”라고 하였다.

재봉이 문기를 “이천(伊川, 정이(程頤))이 부주(涪州)로 갈 때, 염여(灑潁)<sup>49</sup>의 파도로 배안의 사람 모두가 두려워 하였는데, 이천 홀로 태연하였다. 강가에서 한 나무꾼이 노래하길, ‘목숨을 버리려고 작정하여 이런 것인가, 도리를 통달하여 이런 것인가? [舍去如斯, 達去如斯]<sup>50</sup>’라고 한 뜻은 무엇인가?”라고 하였다.

내가 답하길 “삼가 살피건대 우임금이 강을 건널 때 황룡이 배를 짊어지니, 배 안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지만, 우임금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생(生)은 부친 것이요, 죽음은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뜻이요.”라고 했다.

재봉이 도인법(導引法)<sup>51</sup>을 행하기에, 내가 바로잡아 말하길 “요망스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니, 답하길, “예부터 장심(掌心)을 마찰하는 양생(養生)의 방법이 있었는데, 이천의 어머니 후씨(侯氏)가 이미 그것을 행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이정전서(二程全書)》를 살펴보았지

49 염여(灑潁) : 염여퇴(灑潁堆)의 준말로, 배를 타고 무사히 건너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험하다는 장강(長江) 구당협(瞿塘峽)의 여울물 이름이다.

50 목숨을 … 것인가 : 송(宋)나라 이천(伊川) 정이(程頤)가 부릉(涪陵)에서 배를 탔는데, 풍량이 극심하여 배 안의 사람들이 모두 정신을 잃었으나, 정이는 신색(神色)이 자약하였다. 배에서 내리자, 언덕 위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높여 정이에게 문기를, “사(舍)해서 이러한가, 달(達)해서 이러한가? [舍去如斯, 達去如斯]”라고 하였다. 여기서 사(舍)는 모든 것을 버린다는 뜻이고 달(達)은 모든 이치를 달관한다는 뜻이다. 《심경》 권2)

51 도인법(導引法) : 몸을 굴신하고 대기(大氣)를 마셔서 체내(體內)로 끌어들이는 도가의 양생법(養生法)을 이른다.

만 보이지 않았다.

十八日. 辛未【重光協洽】. 陽. 回路入晉谷朴應圭宅午飯. 至安清高在鵬宅留宿. 問《河南程氏粹言》目錄上卷. 在鵬曰“子曰, ‘一二而合爲三, 三見則一二亡矣. 離三而爲一二, 一二見而三亡矣.’ 方爲一二而求三, 既已成三, 又一二, 是不知理.” 余答曰, “謹按此是兼道器而言, 道亦器, 器亦道, 合而爲一, 離而爲二之說, 譬諭以數.” 在鵬問“伊川涪州行, 波濤灑灑, 舟中人皆懼, 伊川獨自若. 岸上一樵夫歌曰, ‘舍去如斯, 達去如斯.’” 答曰“謹按禹濟江, 黃龍負舟, 舟中人懼. 禹仰天嘆曰‘生寄也, 死歸也’之義.” 在鵬行導引, 余正之曰“勿爲妖妄.” 答曰“古有摩擦掌心養生之法, 伊川母夫人候氏, 已行之.” 考諸《二程全書》, 不見.

1929년 4월 19일. 임신 -현익군탄-. 맑음. 돌아오는 길에 와우리(臥牛里)<sup>52</sup>에 이르니 정문(旌門) 하나가 홀로 우뚝 앞에 서 있었다. 가만히 보니 이강문(二綱門)으로 쌍전각(雙全閣)에 좌우 주련(柱聯)에 ‘한 사람의 효열(孝烈), 천고의 일월(日月)이네. 춘암(春菴) 이강(李綱)<sup>53</sup> 쓰다.’라고 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비석은 대서특필(大書特筆)로 ‘효열정부인광산김씨지비(孝烈貞夫人光山金氏之碑)’라고 쓰여 있으니, 흠모함이 그치지 않는다. 그 주인을 방문하니 곧 최병오(崔炳梧)로, 자는 화집(和集)이다.

十九日. 壬申【玄默涪灘】. 陽. 回路至臥牛里, 有一旌門, 兀然在前. 熟視之二綱門, 雙全閣左右柱聯 ‘一身孝烈, 千古日月, 春菴李綱書’. 其中碑, 大

52 와우리(臥牛里): 현재 담양군 봉산면 와우리를 이른다.

53 이강(李綱, 1877~1955): 초명은 평길(平吉), 호는 만오(晩梧) 춘암(春菴),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의왕(義王) 의친왕(義親王) 또는 의화군(義化君)이라고도 불린다. 고종의 다섯째 아들이며, 수종의 이복동생으로 어머니는 귀인 장씨(貴人張氏)이다. 이강은 서예에 조예가 깊었으며, 서예 작품에는 춘암이라는 별호를 많이 사용하였다.

書特筆, ‘孝烈貞夫人光山金氏之碑’, 欽慕不已, 訪問其主人, 乃崔炳梧字和集也.

1929년 4월 20일. 계유 -소양작악-. 장성 읍곡(粟谷)<sup>54</sup>에 사는 김광언(金光言) -이름은 영규(泳奎)- 과 함께 절산(節山)<sup>55</sup> 유옥건(柳沃建)덕에서 점심을 먹고, 종가에 들어가 유숙하였다.

二十日. 癸酉【昭陽作噩】. 與長城粟谷金光言【名泳奎】, 午飯於節山柳沃建宅, 入宗家留宿.

1929년 4월 21일. 갑술 -알봉엄무-. 흐림.

二十一日. 甲戌【闕逢闍茂】. 陰.

1929년 4월 22일. 을해 -전몽대연헌-. 맑음.

二十二日. 乙亥【旃蒙大淵獻】. 陽.

1929년 4월 23일. 병자 -유조곤돈-. 맑음.

二十三日. 丙子【柔兆困敦】. 陽.

1929년 4월 24일. 정축 -강어적분약-. 맑음.

二十四日. 丁丑【強圉赤奮若】. 陽.

1929년 4월 25일. 무인 -저옹섭제-. 맑음.

二十五日. 戊寅【著雍攝提】. 陽.

54 읍곡(粟谷): 장성군 진원면 읍곡리를 이른다.

55 절산(節山): 담양군 창평면 유곡리 절산마을을 이른다.

1929년 4월 26일. 기묘 -도유단알-. 맑음.

二十六日. 己卯【屠維單闕】. 陽.

1929년 4월 27일. 경진 -상장집서-. 맑음. 일전에 술자리에서 써준 작별시를 기록한다.

二十七日. 庚辰【上章執徐】. 陽. 記日前所酬酌贈別韻.

〈삼가 후석 오준선<sup>56</sup> 선생이 이별할 때 준 시에 차운하다〉

謹次吳後石先生贈別韻

도를 꺾으며 벗을 우러러보지만,	謀道仰知舊
용진산의 그윽한 곳에 이르기 어렵네.	難到湧珍幽
삼산(三山) <sup>57</sup> 에서 계를 묻은 정의로 인해,	修契三山誼
물가에서 이별하며 시를 주네.	贈別一水頭
오늘날 윤리를 싫증내는 것 근심하며,	憂今歎倫理
나에게 훈계하며 세상의 도에 신중하라네.	戒我慎世道
다른 날 서로 만나길 약속하니,	他日相逢約
서글픈 감회 끝이 없네.	悵懷正悠悠

337

후석 오준선의 증별시이다. 後石贈別詩.

56 오준선(吳駿善, 1851~1931) : 자는 덕행(德行), 호는 후석(後石), 본관은 나주이다. 오하규(吳夏圭)의 아들로 오항규(吳恒圭)에게 입양되었다. 기정진의 문인으로, 임헌희·송근수·최익현·송병선·송병순 등과도 폭넓게 교류하였다. 1917년에 용진산에 용진정사를 지어 후학을 가르쳤으며, 유집으로 《후석유고(後石遺稿)》가 있다.

57 삼산(三山) : 송사 기우만(奇宇萬)이 1896년에 은거하던 장성 삼성산의 삼산재(三山齋)를 말한다.

〈서암재 김옹과 이별하며 주다〉 贈別棲岩齋金翁

삼산에서 옛날에 짝이 되어 놀았는데,	三山舊遊伴
용진산의 그윽함을 찾아 방문해주었네.	訪到湧珍幽
나를 보고 웃으면서 이제 늙은이 되었다고 하는데,	笑我今黃耆
그대를 보아도 또한 흰머리가 되었군.	看君亦白頭
서암과 하는 말마다 흥미로운데,	滿說棲岩興
세간에선 대부분 말하기 두려운 것이네.	世間多畏道
두 늙은이 다시 이별을 애석해하니,	兩衰還惜別
그리움은 갈수록 끝이 없으리.	懷思轉悠悠

용진병생 오준선이 남을 시켜 씀. 湧珍病生 吳駿善 倩草

또 전북 고창군 부안면 검곡리의 지포(芝圃) 김도병(金道炳) -자는 덕중- 에게 준 지포 원운시를 기록한다.

又記, 贈全北高敞郡富安面檢谷里, 金道炳字德中芝圃原韻.

지초를 모종함에 어찌 다만 석전의 모래일거나.	蒔芝奚待石田沙
구름 속 신령한 뿌리 찬란하게 비껴있네.	雲裏靈根燁燁斜
인간 세상에서도 신선의 약 지을 만하니,	可作人間仙子藥
천상의 벽도화를 구하지 않네.	不求天上碧桃花
노래 전한 사호(四皓) <sup>58</sup> 는 낙지를 꺼려했고,	歌傳四皓嫌樂地
술서로 십황(十黃) 얻은 이 장수가에 합당하네.	術得十黃合壽家
동행(董杏) <sup>59</sup> 이 숲 이루기 어려운 일 아니니,	成林董杏非難事

58 사호(四皓) : 상산사호(商山四皓), 즉 진(秦)나라 말기에 폭정(暴政)을 피해 상산(商山)에 숨어 살았던 네 명의 노인을 말하는데, 후세에 나이도 많고 덕도 높은 은사(隱士)를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한고조 유방은 황제에 오른 뒤 상산사호가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초청했으나 상산사호는 '자지가(紫芝歌)'를 부르며 거절했다고 한다.

59 동행(董杏) : 동봉(董奉)의 살구란 뜻인데, 행림(杏林)이란 고사에서 나온 것이다. 삼국(三國) 시대 오(吳)나라 동봉이 여산(廬山)에 은거하면서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고 치료비 대신 중환자는 살구나무 다섯 그루를 심고 경환자는 살구

음덕이 우선하여 끝없는 복 얻으리.

蔭德爲先獲福遐

1929년 4월 28일. 신사 -중광대황락-. 맑음. 《주역·계사전(繫辭傳)》 4장을 보았는데, ‘신은 일정한 장소가 없고 역은 일정한 체가 없다. [神無方易無體]’에서 불쑥 ‘태극이면서 무극’이라는 이치가 보였다.

二十八日. 辛巳【重光大荒落】. 陽. 看繫辭四章, ‘神無方易無體’, 闔然見乎太極而無極之理.

1929년 4월 29일. 임오 -현익돈장-. 맑음.

二十九日. 壬午【玄默敦牂】. 陽.

1929년 5월 1일. 계미 -소양협흡-. 맑음.

五月. 初一日. 癸未【昭陽協洽】. 陽.

339

1929년 5월 2일. 갑신 -알봉군탄-. 맑음.

二日. 甲申【闕逢涿灘】. 陽.

1929년 5월 3일. 을유 -전몽작악-. 맑음.

三日. 乙酉【旃蒙作噩】. 陽.

1929년 5월 4일. 병술 -유조엄무-. 맑음.

四日. 丙戌【柔兆闍茂】. 陽.

1929년 5월 5일. 정해 -강어대연현-. 흐림, 아침에 비가 내렸다. 이날

---

나무 한 그루를 심도록 하였는데,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나자 울창한 숲이 되었다. 이로 인해 후세 사람들이 행림을 양의(良醫)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였다.

밤 새벽에 망실(亡室)의 담제(禫祭)<sup>60</sup>를 지냈는데, 동해효부(東海孝婦)<sup>61</sup>를 제사 지낼 때와 방불하게 하였다.

五日. 丁亥【強圉大淵獻】. 陰, 朝雨. 是夜質明行亡室禫祭, 彷彿如祭東海孝婦時也.

1929년 5월 6일. 무자 -저용곤돈-. 맑음.

六日. 戊子【著雍困敦】. 陽.

1929년 5월 7일. 기축 -도유적분약-. 맑음.

七日. 己丑【屠維赤奮若】. 陽.

1929년 5월 8일. 경인 -상장섭제-. 맑음.

八日. 庚寅【上章攝提】. 陽.

1929년 5월 9일. 신묘 -중광단알-. 흐림. 비가 오려다가 오지 않았다.

九日. 辛卯【重光單闕】. 陰. 欲雨未雨.

1929년 5월 10일. 임진 -현익집서-. 맑음.

十日. 壬辰【玄默執徐】. 陽.

60 담제(禫祭) : 대상(大祥)을 지낸 그 다음다음 달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61 동해효부(東海孝婦) : 한(漢)나라 때 동해군(東海郡)에 어떤 효부가 있었는데 젊어서 자식도 없이 과부가 되었으나 개가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효성스럽게 모셨다. 시어머니는 자기 때문에 며느리가 개가하지 않음을 안타깝게 여겨 자살했는데 그 딸은 며느리가 죽었다고 고하여 효부는 결국 무복(巫服)하고 마침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였다. 이 때문에 온 고을에 3년 동안 가뭄이 들었다는 고사가 있다.

1929년 5월 11일. 계사 -소양대황락-. 흐림. 비가 오려다가 오지 않았다.

十一日. 癸巳【昭陽大荒落】. 陰. 欲雨未雨.

1929년 5월 12일. 갑오 -알봉돈장-. 맑음.

十二日. 甲午【闕逢敦牂】. 陽.

1929년 5월 13일. 을미 -전몽협흡-. 맑음.

十三日. 乙未【旃蒙協洽】. 陽.

1929년 5월 14일. 병신 -유조군탄-. 맑음.

十四日. 丙申【柔兆涿灘】. 陽.

1929년 5월 15일. 정유 -강어작악-. 맑음.

十五日. 丁酉【疆圉作噩】. 陽.

341

1929년 5월 16일. 무술 -저옹엄무-. 맑음. 오늘은 하지(夏至)이다. 백성들의 가뭄 걱정이 매우 심했다.

十六日. 戊戌【著雍闓茂】. 陽. 是日夏至也. 民之旱憂滋甚.

1929년 5월 17일. 기해 -도유대연헌-. 맑음.

十七日. 己亥【屠維大淵獻】. 陽.

1929년 5월 18일. 경자 -상장곤돈-. 맑음.

十八日. 庚子【上章困敦】. 陽.

1929년 5월 19일. 신축 -중광적분약-. 맑음. 이처럼 가문 날이 계속되는 것은 전에도 드물었다.

十九日. 辛丑【重光赤奮若】. 陽. 如許亢陽, 前所罕有.

1929년 5월 20일. 임인 -현익섭제-. 잠깐 비가 오다가 잠깐 개고 잠깐 개다가 잠깐 비가 내림. 또 잠깐 갬.

二十日. 壬寅【玄默攝提】. 乍雨乍晴, 乍晴乍雨, 又乍晴.

1929년 5월 21일. 계묘 -소양단알-. 흐림. 밤에 비가 내렸다.

二十一日. 癸卯【昭陽單闕】. 陰. 夜雨.

1929년 5월 22일. 갑진 -알봉집서-. 흐리고 비가 내렸다.

二十二日. 甲辰【闕逢執徐】. 陰雨.

1929년 5월 23일. 을사 -전몽대황락-. 갬.

二十三日. 乙巳【旃蒙大荒落】. 晴.

1929년 5월 24일. 병오 -유조돈장-. 맑음.

二十四日. 丙午【柔兆敦牂】. 陽.

1929년 5월 25일. 정미 -강어협흡-. 맑음.

二十五日. 丁未【彊圉協洽】. 陽.

1929년 5월 26일. 무신 -저옹군탄-. 맑음.

二十六日. 戊申【著雍涿灘】. 陽.

1929년 5월 27일. 기유 -도유작악-. 맑음.

二十七日. 己酉【屠維作噩】. 陽.

1929년 5월 28일. 경술 -상장엄무-. 맑음.

二十八日. 庚戌【上章闡茂】. 陽.

1929년 5월 29일. 신해 -중광대연헌-. 맑음.

二十九日. 辛亥【重光大淵獻】. 陽.

1929년 5월 30일. 임자 -현익곤돈-. 맑음. 석양에 비 흔적이 있었다.

晦日. 壬子【玄默困敦】. 陽. 夕陽雨痕.

1929년 6월 1일. 계축 -소양적분약-. 맑음.

六月. 初一日. 癸丑【昭陽赤奮若】. 陽.

1929년 6월 2일. 갑인 -알봉섭제-. 맑음.

初二日. 甲寅【闕逢攝提】. 陽.

1929년 6월 3일. 을묘 -전몽단알-. 맑음.

三日. 乙卯【旃蒙單闕】. 陽.

1929년 6월 4일. 병진 -유조집서-. 맑음.

四日. 丙辰【柔兆執徐】. 陽.

1929년 6월 5일. 정사 -강어대황락-. 맑음.

五日. 丁巳【強圉大荒落】. 陽.

1929년 6월 6일. 무오 -저옹돈장-. 맑음.

六日. 戊午【著雍敦牂】. 陽.

1929년 6월 7일. 기미 -도유협흡-. 맑음.

七日. 己未【屠維協洽】. 陽.

1929년 6월 8일. 경신 -상장군탄-. 맑음.

八日. 庚申【上章涿灘】. 陽.

1929년 6월 9일. 신유 -중광작악-. 맑음.

九日. 辛酉【重光作噩】. 陽.

1929년 6월 10일. 임술 -현익엄무-. 맑음.

十日. 壬戌【玄默闍茂】. 陽.

1929년 6월 11일. 계해 -소양대연헌-. 맑음.

十一日. 癸亥【昭陽大淵獻】. 陽.

1929년 6월 12일. 갑자 -알봉곤돈-. 맑음.

十二日. 甲子【闕逢困敦】. 陽.

1929년 6월 13일. 을축 -전몽적분약-. 맑음.

十三日. 乙丑【旃蒙赤奮若】. 陽.

1929년 6월 14일. 병인 -유조섭제-. 맑음.

十四日. 丙寅【柔兆攝提】. 陽.

1929년 6월 15일. 정묘 -강이단알-. 맑음.

十五日. 丁卯【疆圉單闕】. 陽.

1929년 6월 16일. 무진 -저옹집서-. 맑음.

十六日. 戊辰【著雍執徐】. 陽.

1929년 6월 17일. 기사 -저옹대황락-. 맑음.

十七日. 己巳【屠維大荒落】. 陽.

1929년 6월 18일. 경오 -상장돈장-. 맑음.

十八日. 庚午【上章敦牂】. 陽.

1929년 6월 19일. 신미 -중광협흡-. 맑음.

十九日. 辛未【重光協洽】. 陽.

1929년 6월 20일. 임신 -현익군탄-. 맑음.

二十日. 壬申【玄默涸灘】. 陽.

1929년 6월 21일. 계유 -소양작악-. 맑음.

二十一日. 癸酉【昭陽作噩】. 陽.

1929년 6월 22일. 갑술 -알봉엄무-. 맑음.

二十二日. 甲戌【闕逢闕茂】. 陽.

1929년 6월 23일. 을해 -전몽대연현-. 맑음.

二十三日. 乙亥【旃蒙大淵獻】. 陽.

1929년 6월 24일. 병자 -유조곤돈-. 맑음.

二十四日. 丙子【柔兆困敦】. 陽.

1929년 6월 25일. 정축 -강어적분약-. 맑음. 오후에 비가 왔는데, 먼지를 적실 정도였다. 송혁모(宋赫模)씨와 함께 면양선생(俛仰先生)<sup>62</sup> 연보를 보았다.

二十五日. 丁丑【強圉赤奮若】. 陽. 午後, 雨滃塵. 與宋赫模氏, 看俛仰先生年譜.

1929년 6월 26일. 무인 -저옹섭제-. 맑음. 어떤 사람이 ‘심과 성의 구분’에 대해서 물었다. 대답하기를 “주자는 말하기를, ‘사람의 덕성이 본래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으나, 기질의 부여된 바가 치우치지 않은 바가 드물다.’고 하였고, 경원보씨(慶源輔氏)<sup>63</sup>는 말하기를 ‘덕성은 무극의 진(眞)에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온전하여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고, 기질은 음양과 오행의 기운에서 품부받은 것이니 강함과 부드러움, 과불급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음이 드물다.’라고 하였으며, 진씨는 말하기를 ‘형체가 있으면 심이 있다. 생각건대 심은 기이고, 성은 리이다. 진실한 것이 성이고, 허령한 것이 심이다. 심은 곧 이(理)를 실은 도구이다.’라고 했고, 남당은 말하기를 ‘오행의 정령한 기가 모여서 심이 된다’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二十六日. 戊寅【著雍攝提】. 陽. 或問‘心性之分’. 答曰, “朱子曰, ‘人之德性, 本無不備, 而氣質所賦, 鮮有不偏.’ 慶源輔氏曰, ‘德性, 根於無極之眞,

62 면양선생(俛仰先生) : 송순(宋純, 1493~1582)의 호. 자는 수초(遂初) 또는 성지(誠之), 호는 기촌(企村) 또는 면양정(俛仰亭), 본관은 신평(新平)이다. 담양 면양정의 주인이다.

63 경원보씨(慶源輔氏) : 주희의 문인(門人) 보광(輔廣)을 말함. 경원(慶源)은 출신지명이다.

所以全無不備. 氣質, 稟於陰陽五行之氣, 則有剛柔過不及之分, 所以鮮有不偏.’ 陳氏曰, ‘有形則有心. 切想, 心即氣也, 性即理也, 眞實底爲性, 虛靈底是心, 心即載理之具也.’ 南塘曰, ‘五行精靈之氣聚而爲心.’”

1929년 6월 27일. 기묘 -도유단알-. 맑음.

二十七日. 己卯【屠維單闕】. 陽

1929년 6월 28일. 경진 -상장집서-. 맑음. 비가 지나감.

二十八日. 庚辰【上章執徐】. 陽, 雨過.

1929년 6월 29일. 신사 -중광대황락-. 맑음.

二十九日. 辛巳【重光大荒落】. 陽

1929년 7월 1일. 임오 -현익돈장-. 맑음.

七月. 初一日. 壬午【玄黓敦牂】. 陽

1929년 7월 2일. 계미 -소양협흡-. 맑음.

二日. 癸未【昭陽協洽】. 陽

1929년 7월 3일. 갑신 -알봉군탄-. 맑음.

三日. 甲申【闕逢涿灘】. 陽

1929년 7월 4일. 을유 -전몽작악-. 맑음.

四日. 乙酉【旃蒙作噩】. 陽

1929년 7월 5일. 병술 -유조엄무-. 맑음.

五日. 丙戌【柔兆闡茂】. 陽

1929년 7월 6일. 정해 -강어대연헌-. 맑음.

六日. 丁亥【強圉大淵獻】. 陽

1929년 7월 7일. 무자 -저옹곤돈-. 맑음.

七日. 戊子【著雍困敦】. 陽

1929년 7월 8일. 기축 -도유적분약-. 맑음.

八日. 己丑【屠維赤奮若】. 陽

1929년 7월 9일. 경인 -상장섭제-. 맑음.

九日. 庚寅【上章攝提】. 陽

1929년 7월 10일. 신묘 -중광단알-. 맑음.

十日. 辛卯【重光單闕】. 陽

1929년 7월 11일. 임진 -현익집서-. 맑음. 가뭄 걱정이 극심해서 마음을 진정하려고 장전리의 이박사 이광수(李光洙)<sup>64</sup>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날 밤 비가 왔다.

十一日. 壬辰【玄默執徐】. 陽. 旱憂極甚, 欲爲寬抑, 訪長田李博士光洙而來. 是夜雨.

64 이광수(李光秀, 1873~1953) : 자는 미중(美中), 호는 옥산(玉山), 본관은 전주로, 양녕대군의 후손이다. 담양 창평 장전리에서 이최선(李最善)의 손자, 이승학(李承鶴)의 아들로 태어났다. 박사이다.

1929년 7월 12일. 계사 -소양대황락-. 흐림. 오전에 잠깐 비가 내렸다. 작년에 지은〈재실에 거처하면서 우연히 느끼다[齋居偶感]〉를 기록한다.

十二日. 癸巳【昭陽大荒落】. 陰. 午前, 乍雨. 記前年所著〈齋居偶感〉.

태극이 처음 갈라져서 음양으로 비로소 나뉘어지니, 하늘은 위에 자리하고, 땅은 아래에 자리하게 되었다. 천기는 하강하고, 지기는 상승하여 영기고 교감하니, 사람과 만물이 자연히 화생하게 되었다. 오직 사람만이 가장 신령스러워서 삼황오제가 번갈아 출현하였다. 복희가 처음 팔괘를 긋고 서계를 만들었으며, 문왕에 이르러서 팔괘를 부연하여 64괘를 만들어서 이름을 붙이고 괘사를 지었다. 주공에 이르러서는 효사를 덧붙이고, 공자에 이르러서는 십익(十翼)을 찬하고, 이어 ‘음양도기(陰陽道器)’, ‘계선성선(繼善成性)’의 설을 자세히 말 씀하시니 의리와 강령이 여기에서 크게 드러났다.

크도다! 공부자께서는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이 합하고, 일월과 더불어 그 밝음이 합하며, 사시와 더불어 그 절서가 합하고, 귀신과 더불어 그 길흉이 합하니, 하늘보다 먼저 행할 때 하늘이 어기지 않으며, 하늘보다 뒤에 행할 때 천시를 받게 된다.<sup>65</sup> 그러므로 상고의 성인의 치적에 대해 계사(繫辭)로 밝혔으니, “복희씨는 그물을 엮어 사냥과 고기잡이를 하게 하였으니, 이괘(禽卦)에서 취한 것이고,<sup>66</sup> 신농씨

65 천지와 ... 받게 된다 : 성인(聖人)의 덕이 지극함을 이르는 말. 《주역》〈건괘(乾卦) 문언(文言)〉에 있다.

66 복희씨는 ... 것이고 : 《주역》〈계사전 하(繫辭傳下)〉에 “노끈으로 매듭을 지어 맺어 각종 그물을 만든 뒤에 사냥과 고기잡이를 하게 하였으니, 이는 대개 이괘(離卦)에서 취한 것이다. [作結繩而爲網罟, 以佃以漁, 蓋取諸離.]”라는 말이 나온다. 망(網)은 조수(鳥獸)를 잡는 그물이고, 고(罟)는 어벌(魚鱉)을 잡는 그물이다.

는 가래와 따비를 만들어 천하를 가르쳤으니, 익괘(益卦)에서 취한 것이다. 한낮이 되면 저자를 열고 물건을 교역하여 돌아갔으니, 서합괘(噬嗑卦)에서 취한 것이다.<sup>67</sup>

황제(黃帝)와 요순(堯舜)씨는 그 변(變)을 통달하고, 신묘하게 화(化)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마땅하게 하였다. 그러자 옷을 늘어뜨리고 있어도 천하가 다스려졌으니, 대개 건곤괘(乾坤卦)에서 취한 것이다. 나무를 파내어 배를 만들고, 나무를 깎아 노[柁]를 만들어, 통할 수 없는 곳을 건너게 하였으니, 환괘(渙卦)에서 취한 것이다. 소와 말을 사용하여 무거운 것을 끌고 멀리까지 가게 하였으니, 수괘(隨卦)에서 취한 것이다. 문을 겹으로 세우고 딱따기를 쳐서 폭객(暴客, 도적)이 오지 못하게 대비하였으니, 예괘(豫卦)에서 취한 것이다.

나무를 잘라 절구의 공이를 만들고, 땅을 파서 절구를 만들어 만민을 구제하였으니, 소과괘(小過卦)에서 취한 것이다. 나무를 휘어서 활을 만들고, 나무를 깎아 화살을 만들어 천하에 위엄을 보였으니, 규괘(睽卦)에서 취한 것이다. 상고에는 굴이나 들판에서 거처하였는데, 후세의 성인은 이를 바꾸어 집과 방을 만들었으니, 대장괘(大壯卦)에서 취한 것이다. 옛날에는 장사를 지낼 적에는 쉼을 두텁게 입혀서 하였는데 후세의 성인은 관곽(棺槨)로 바꾸었으니, 대과괘(大過卦)에서 취한 것이다. 옛날에는 매듭을 지어 다스렸는데 후세의 성인은 서계로 바꾸어서 백관을 다스리고 백성을 살폈으니, 쾌괘(夬卦)에서 취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으로써 보면 성인의 도는 곧 역리(易理)이다. 역리는 곧 천리라는

67 한낮이 ... 것이다 : 《주역》〈계사전 하(繫辭傳下)〉에 “한낮에 시장을 만들어 천하의 백성을 오게 하고 천하의 재화를 모아서 교역하고 물러가 각각 살 곳을 얻게 하였으니 서합괘(噬嗑卦)에서 취하였다. [日中爲市, 致天下之民, 聚天下之貨, 交易而退, 各得其所, 蓋取諸噬嗑.]”라고 하였다.

것이 분명하다. 주자(朱子)는 심성정(心性情)을 논하여 말하기를, “심이 성과 정을 통솔한다.”고 하였다. 그러니 심이란 것은 일신의 주관자이고 만사의 근본으로, 본래 스스로 광명(光明)하기 때문에 허령하고 어둡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성(性)은 곧 하늘이 부여한 이치로, 심에 갖추어진 것이다. 정은 곧 심중(心中)의 성이 감발(感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이 성과 정을 통솔한다는 것은 그 체(體)와 용(用)을 논한 것이니, 천명(天命)의 선(善)을 이은 것이 성(性)이다. 그러니 성은 체이고 심은 용이다.

만세의 심학(心學)이 어찌 유래한 곳이 없겠는가? 대개 자사(思子)의 신독(慎獨), 증자(曾子)의 근독(謹獨), 주자(周子)의 기자(幾字), 횡거(橫渠)의 예자(豫字)가 모두 심중에서 처음에 감동(感動)한 곳을 따라 그 선정(善正)의 묘결(妙訣)을 살피는 것이다.

太極肇判，陰陽始分，天位乎上，地位乎下。天氣下降，地氣上昇，網緼交感，則人物自然化生。惟人最靈，三皇五帝迭出。伏羲始劃八卦，造書契。至於文王，演八卦，作六十四卦，以名之，又作辭。至於周公，添爻辭。至孔子，贊十翼，乃備言，‘陰陽道器 繼善成性之說’。義理綱領，於是大著矣。大哉！孔夫子，與天地合其德，與日月合其明，與四時合其序，與鬼神合其吉凶，先天而天不違，後天而奉天時。故追述上古聖人之蹟，繫辭而明之曰，“伏羲氏，結網罟以佃以漁，取諸禽。神農氏，作耒耜，以教天下，取諸益。日中爲市，交易而退，取諸噬嗑。黃帝、堯舜氏，通其變，神而化之，使民宜之。垂衣裳而天下治，蓋取諸乾坤。剡木爲舟，剡木爲楫，以濟不通，取諸渙。服牛乘馬，引重致遠，取諸隨。重門擊柝，以待暴客，取諸豫。斷木爲杵，掘地爲臼，萬民以濟，取諸小過。弦木爲弧，剡木爲矢，以威天下，取諸睽。上古穴居野處，後世聖人，易之以宮室，取諸大壯。古之葬者，厚衣以薪，後世聖人，易之棺槨，取諸大過。上古結繩而治，後世聖人，易之以書契，百官以治，萬民以察，取諸夬。”以此觀之，聖人之道，即易理也，易理即天理也，明矣。

子朱子論心性情曰, “心統性情.” 然則心者一身之主, 萬事之本, 本自光明, 虛靈不昧者也, 而性乃天所賦之理, 具於心者也, 情乃心中之性, 感發者也, 故心統性情, 論其体用, 則繼天命之善者性也, 然則性體心用也, 萬世心學, 豈無所由來乎? 蓋子思子之慎獨, 子曾子之謹獨, 周子之幾字, 橫渠之豫字, 皆從心中初感動處, 審其善正之妙訣也.

1929년 7월 13일. 갑오 -알봉돈장-. 흐림. 잠깐 비가 오다가 개고 또 잠깐 비가 왔다. 오후에 개고 맑아졌다.

十三日. 甲午【關逢敦牂】. 陰. 乍雨乍晴又乍雨, 午後晴陽.

〈물이 이르면 도량이 이루어진다는 설[水到渠成說]〉

어떤 사람이 물기를, “물이 이르러 도량이 만들어지는 것인가? 도량이 만들어져서 물이 이르는 것인가?”라고 하였다. 내가 응답하여 말하기를, “물이 이르러 도량이 만들어진다거나, 도량이 만들어져서 물이 이른다는 것은 선유(先儒)들이 이기선후(理氣先後)의 설로 다룬 것과 같다. 물과 도량은 모두 기(氣)이다. 물과 도량이 이루어지는 까닭은 이(理)이다. 무슨 뜻인가? 물과 도량은 모두 형상이 있다. 오직 이(理)는 형상이나 까닭이 없다.

만일 도기(道器)로써 말하여도 또한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는 형상이 없고 기는 형상이 있으며, 이는 짝[상대]가 없고 기는 짝이 있으니,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 《역》에서 이르기를 ‘태극이 양의(兩儀)를 낳는다. [大極生兩儀]’고 하였으니, 태극은 이이고 양의는 기이다. 음양은 서로 짝이 되고, 태극은 정당(正當)하여 짝이 없다. 그러나 이기가 곧 도기이고 도기가 곧 이기여서 선후도 없고 이합(離合)도 없으니, 어찌 감히 입을 놀리겠는가?

주자가 이미 ‘유행의 측면에서 약간 선후가 있다. [流行上略有先後]’라고 하였으니, 모(某)<sup>68</sup>가 침잠반복(沈潛反覆, 깊이 연구하고 거듭 공부함)

68 모(某): 서암 김영찬 본인을 지칭한 듯하다.

한 것이 여러 해인데, 지금 수거(水渠)의 설을 듣고 하나의 절충한 것이 있다. 수와 거가 갖추어 이루어지나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까닭은 곧 이이고 도요, 수거는 곧 기(氣)이고 기(器)이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곧 태극이 조판(肇判)하는 때이고, 태극이 조판하기 전은 곧 혼돈의 세계이다. 나누어져 천지가 되니, 응당 가볍고 맑은 것은 위로 떠서 천이 되고, 무겁고 탁한 것은 아래로 응집되어 땅이 되는 까닭에 양이 반드시 선이 되고 음이 반드시 후가 되는 것이다. 음양이 서로 나누어지기 전에 반드시 음양이 서로 나누어지는 이가 있으니, 이가 선이고 기가 후라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했다.

### 水到渠成說.

或問, “水到渠成? 渠成水到?” 余應之曰, “水到渠成, 渠成水到, 先儒爭理氣先後之說. 水渠皆氣也, 所以成水渠者理也. 何者? 水渠皆有象也, 惟理無象故也. 若以道器言之亦然. 然則理無象而氣有象, 理無對而氣有對, 何其然也? 《易》曰 ‘大極生兩儀’, 太極理也, 兩儀氣也. 陰陽互爲相對, 太極正當無對也. 然理氣卽道器, 道器卽理氣, 無先後無離合, 豈敢容喙哉. 子朱子旣曰 ‘流行上略有先後’, 則某沈潛反覆者多年所, 而今聞水渠之說, 有一折衷者, 水渠具成, 而所以成之故, 卽理也道也, 水渠卽氣也器也. 成之時卽太極肇判之時, 太極肇判之前, 卽混沌世界也. 分而爲天地, 應當輕清上浮爲天, 重濁下凝爲地, 所以陽必先, 陰必後. 陰陽相分之先有陰陽相分之理, 則理先氣後也明矣夫.”

1929년 7월 14일. 을미 -전몽협흡-. 맑음.

十四日. 乙未【旃蒙協洽】. 陽.

1929년 7월 15일. 병신 유조군탄-. 맑음. 오후에 비가 내렸다.

十五日. 丙申【柔兆涖灘】. 陽. 當午雨.

1929년 7월 16일. 정유 -강어작약-. 흐림. 아침에 비가 잠깐 개었다가

오후에 비가 내렸다.

十六日. 丁酉【疆圉作噩】. 陰. 朝雨乍晴, 而午後雨.

1929년 7월 17일. 무술 -저옹엄무-. 흐림.

十七日. 戊戌【著雍闾茂】. 陰.

1929년 7월 18일. 기해 -도유대연헌-. 흐렸다 맑음.

十八日. 己亥【屠維大淵獻】. 陰而陽.

1929년 7월 19일. 경자 -상장곤돈-. 맑음.

十九日. 庚子【上章困敦】. 陽.

1929년 7월 20일. 신축 -중광적분약-. 맑다가 밤에 비.

二十日. 辛丑【重光赤奮若】. 陽夜雨.

1929년 7월 21일. 임인 -현익섭제-. 맑음.

二十一日. 壬寅【玄默攝提】. 陽.

1929년 7월 22일. 계묘. 흐리고 간간이 비.

二十二日. 癸卯. 陰間雨.

1929년 7월 23일. 갑진

二十三日. 甲辰.

1929년 7월 24일. 을사 -전몽대황락-. 갸.

二十四日. 乙巳【旃蒙大荒落】. 晴.

1929년 7월 25일. 병오 -유조돈장-. 맑음.

二十五日. 丙午【柔兆敦牂】. 陽.

1929년 7월 26일. 정미 -강어협흙-. 흐리고 비.

二十六日. 丁未【疆圉協洽】. 陰雨.

1929년 7월 27일. 무신 -저옹군탄-. 맑음.

二十七日. 戊申【著雍涇灘】. 陽.

〈심(心)·성(性)·정(情)·의(意)의 명목(名目)〉

심(心)에는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이 있고, 성(性)에는 천부(天賦)와 기질(氣質)의 이름이 있으며, 정(情)에는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모양의 심과 두 가지 모양의 성(性), 두 가지 모양의 정(情)이 아니다. 성명(性命)에 근본하면 도심이고 형기(形氣)에서 생겨나면 인심이다.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것을 천부성(天賦性)이라 하며, 사람이 품부 받은 것을 기질성(氣質性)이라 한다. 사단(四端)의 정(情)은 기질을 겸하지 않지만, 칠정(七情)의 정은 기질을 겸한다. 그러므로 심성정(心性情)이 이름을 얻은 것은 비록 나눌 수 있어도 이치는 진실로 관통하는 것이다.

대개 사람은 건순(健順) 오상(五常)<sup>69</sup>의 덕(德)을 얻어서 생겨나니, 음양 오행의 정령(精靈)한 기운이 모여 심(心)이 된다. 그 안에 갖추어진 바의 이

69 오상(五常) :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오성(五性)을 가리킨다. 《중용장구》 제 1장의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한다. [天命之謂性]”에 대한 주희의 주석 중에 “인과 물이 세상에 나올 적에 각기 부여받은 바의 이를 얻음으로 인하여 건순·오상의 덕을 삼게 되니, 이것이 이른바 성이라는 것이다. [人物之生, 因各得其所賦之理, 以爲健順五常之德, 所謂性也.]”라는 말이 나온다. 건순(健順)은 각각 건곤(乾坤) 즉 천지(天地)의 성(性)으로, 양(陽)과 음(陰)을 말한다. 《주역》〈설괘전(說卦傳)〉에 “건은 건이요, 곤은 순이다. [乾健, 坤順]”라고 하였다.

(理)가 곧 성(性)이요, 성이 발하면 정(情)이 된다. 정은 기질에 구애되지 않으니, 어찌 선(善)하지 않을 단서가 있겠는가? 심(心)이 도심(道心)에게서 명(命)을 들으면, 어찌 사욕(私欲)의 짝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정자(程子)는 말하기를, “성(性)이 발하여 정(情)이 된다.”고 하였고, 주자(朱子)는 말하기를, “심이 발하여 의(意)가 된다.”라고 하였다. 성이 발하고 심이 발하는 것은 각자 발하는 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발하면 하나이다. 다만 발하는 것 중에서 단지 이(理)만을 지목하여 ‘성이 발한 것’이라고 하고, 기를 겸한 것을 ‘심이 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심과 성은 두 가지 물건이 아니니, 기를 겸하느냐 겸하지 않느냐에 따라 이 두가지 이름이 있을 뿐 사실은 일물(一物)이다. 정(情)과 의(意) 또한 그러하다. 정은 천리(天理)가 곧바로 나온 것이요, 의는 상량(商量)하고 계교(計較)하는 것이다.

정이 만약 기(氣)에서 변환 것을 받지 않고 곧바로 나온다면 단연코 선(善)이 된다. 맹자(孟子)는 성(性)을 논하여, “그것이 그 정(情)과 같다면 선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공자(孔子)는 말씀하기를 “일음일양(一陰一陽)을 도(道)라 하고, 그것을 잇는 것을 선(善)이라 하며, 그것을 이루는 것을 성(性)이라 한다.”라고 했으니, 정(情)이 아니면 어찌 성(性)이 선함을 알겠으며, 성(性)이 아니면 어찌 천명(天命)이 선함을 알겠는가? 자사(子思)는 말하기를, “천명을 가리켜 성(性)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동자(董子, 동중서)는 말하기를, “도(道)의 대원(大原)은 하늘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심성정의(心性情意)는 모두 자기가 하늘의 덕에서 부여받아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大學)》에서 말하기를, “명명덕은 지어지신 덕에 있다.”라고 하였다. 《주역(周易)》(진괘(晉卦))에서 ‘스스로 밝은 덕을 밝힌다. [自昭明德]’라고 한 것에 대해 건안(建安)<sup>70</sup>의 설에서는 ‘자소

70 건안(建安): 송나라 학자인 채모(蔡模, 1188~1246)를 말한다. 건주(建州) 건양인(建陽人)으로 자는 중각(仲覺)이고, 호는 각현(覺軒)이다. 채침(蔡沈)의 아들이다. 벼슬하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하여 건안서원(建安書院)의 장을 지냈다. 《논맹집소(論孟集疏)》·《속근사록(續近思錄)》 등을 편집하였다.

명덕(自昭明德)은 치지(致知)하는 것이며, (건괘(乾卦)의) 자강불식(自強不息)은 역행(力行)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대저 치지(致知)하고 역행(力行)한다면, 뜻은 정성스러워지고 마음이 바르게 되어, 도심은 자연히 따르는 곳마다 발현하게 될 것이다.

### 心性情意名目.

心有入心道心, 性有天賦氣質之名, 情有四端七情之異. 然非兩樣心兩樣性兩樣情也. 本於性命則道心, 生於形氣則人心. 以天賦予謂之, 天賦性, 以人稟受謂之, 氣質性. 四端之情, 非兼氣質, 而七情之情, 兼氣質也, 故心性情之得名雖分而理實貫通. 蓋人得健順五常之德, 以生, 則陰陽五行精靈之氣, 聚而爲心, 其中所具之理卽性. 性發則爲情, 情不拘於氣質, 則有何不善之端? 心聽命於道心, 則有何私欲之萌乎? 程子曰, “性發爲情.” 朱子曰, “心發爲意.” 性發心發非各爲所發, 發則一也. 但所發之中, 單指理以爲性發, 兼氣以謂心發. 心性非二物, 以氣之兼不兼, 有此二名, 其實一物. 情意亦然. 情是天理之直出者, 意是商量計較者也. 情若不受變於氣而直出, 則斷然爲善. 孟子論性, “乃若其情, 則可謂善矣.” 孔子曰,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 成之者性.” 非情何以知性善, 非性何以知天命之善? 子思子曰, “天命謂性, 率性之謂道.” 董子曰, “道之大原出于天.” 然則心性情意, 皆自己稟得於天之德也, 故《大學》曰, “明明德止至善.” 《易》曰, ‘自昭明德’, 建安之說, ‘自昭明德致知也, 自強不息力行也.’ 大抵致知力行, 則意識心正, 道心自然隨處發見矣.

### 〈도심(道心)〉

그 어버이께 효도하고자 하고, 그 임금에게 충성하고자 하며,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면 측은히 여기고, 종묘를 지날 때는 공경하는 마음을 내는 등의 류는 형기(形氣)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 道心.

欲孝其親, 欲忠其君, 見孺子入井而惻隱, 過宗廟而恭敬之類, 不屬形氣者.

### 인심(人心)

굶주리면 먹고 싶고, 추우면 입고 싶고, 힘들면 쉬고 싶으며, 정력이 차면 결혼하고 싶은 것 등의 류는 형기(形氣)에 속하는 것이다.

人心.

飢欲食, 寒欲衣, 勞欲休, 精盛思室之類, 屬形氣者.

### 성(性)

주자는 '성이 곧 이이다[性卽理]'라고 했으니, 인의예지이다.

性.

朱子曰, '性卽理', 仁義禮智.

### 정(情)

성이 발하여 정이 되니, 희·노·애·락·애·오·욕과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이것이다.

情.

性發爲情, 喜怒哀樂愛惡欲, 惻隱羞惡辭讓是非.

### 의(意)

심이 발하여 의가 되니, 상량하고 계교하는 것이다. 그 추향(趨向)이 정해지면 지(志)이다. 또 별명이 있으니, 염(念)과 려(慮)와 사(思)이다. 염(念)은 잊지 못한다는 뜻이 있고, 려(慮)는 우탁(虞度)의 뜻이 있으며, 사(思)는 염려에 비해 상태가 조금 소활하다.

意.

心發爲意, 商量計較者, 定其趨向則志. 又有別名念慮思, 念有不忘之義, 慮有虞度之義, 思比於念慮地步較闊.

1929년 7월 28일. 무신-저용군탄-. 흐림.

二十八日. 戊申【著雍涇灘】. 陰.

1929년 7월 29일. 기유 -도유작악-.

二十九日. 己酉【屠維作噩】.

1929년 8월 1일. 경술 -상장엄무-.

八月. 初一日. 庚戌【上章闡茂】.

1929년 8월 2일. 신해 -중광대연헌-. 맑음. 밤에 비가 조금 지나갔다.

二日. 辛亥【重光大淵獻】. 陽. 夜雨小過.

1929년 8월 3일. 임자 -현익곤돈-. 맑음.

三日. 壬子【玄默困敦】. 陽.

1929년 8월 4일. 계축 -소양적분약-. 맑음.

四日. 癸丑【昭陽赤奮若】. 陽.

1929년 8월 5일. 갑인 -알봉섭제-. 맑음.

五日. 甲寅【闕逢攝提】. 陽.

1929년 8월 6일. 을묘 -전몽단알-. 맑음. 파초가 뜰에 솟아나는 것을 보고 <감횡거시(感橫渠詩)>를 읊었다.

六日. 乙卯【旃蒙單闕】. 陽. 見芭蕉茁庭, 感橫渠詩吟.

가운데 말린 잎이 퍼져서 가지 되고,  
매양 열흘 남짓 만에 한몸 되어 따르네.  
덕은 새롭게 기르는 것이니 누가 배울 수 있을까.  
나보다 먼저 횡거선생이 이 이치를 아셨네.

中心卷葉展爲枝  
每十日餘一體隨  
德新所養誰能學  
先我橫渠至理知

〈장횡거 선생의 파초시〉 橫渠先生芭蕉詩

파초의 심이 다하여 새 가지를 펼치니,  
새로 말린 새 심이 몰래 이미 뒤따르네.  
원컨대 새 심으로 새 덕 기르는 걸 배우고 싶어,  
이내 새 잎 따라 새 지식 일으키네.

芭蕉心盡展新枝  
新卷新心暗已隨  
願學新心養新德  
旋隨新葉起新知

1929년 8월 7일. 정사 -강어대황락-. 맑음.

七日. 丁巳【強圉大荒落】. 陽.

1929년 8월 8일. 무오 -저옹둔장-. 맑음.

八日. 戊午【著雍敦牂】. 陽.

1929년 8월 9일. 기미 -도유협흡-. 맑음.

九日. 己未【屠維協洽】. 陽.

1929년 8월 10일. 경신 -상장군탄-. 맑음.

十日. 庚申【上章涿灘】. 陽.

1929년 8월 11일. 신유 -중광작악-. 맑음.

十一日. 辛酉【重光作噩】. 陽.

1929년 8월 12일. 임술 -현익엄무-. 맑음. 순창(淳昌) 죽림(竹林) 사문  
박인(朴寅) 댁에서 머물렀다.

十二日. 壬戌【玄默闍茂】. 陽. 留連淳昌竹林朴斯文寅宅.

1929년 8월 13일. 계해 -소양대연현-. 맑. 덕진내(德振內)에 있는 생부

의 묘에 성묘를 갔다가 문암리(門巖里)에 들어가 생부의 조카 집에서 점심을 먹고, 조상제(趙喪制) 덕 사랑에서 머물러 잤다. 이어서 추석을 지냈다.

十三日. 癸亥【昭陽大淵獻】. 晴. 作德振内生庭親先考墓省楸之行, 入門巖里, 生庭親侄家點心, 留宿趙喪制宅舍廊. 仍過秋夕.

1929년 8월 14일. 갑자 -알봉곤돈-. 맑음.

十四日. 甲子【關逢困敦】. 陽.

1929년 8월 15일. 을축 -전몽적분약-. 맑음.

十五日. 乙丑【旃蒙赤奮若】. 陽.

1929년 8월 16일. 병인 -유조섭제-. 흐리고 비가 내렸는데 밤새도록 내렸다.

十六日. 丙寅【柔兆攝提】. 陰雨通宵.

1929년 8월 17일. 정묘 -강어단알-. 갸. 오현동(五絃洞) 뒤 입봉(笠峰) 오른쪽에 있는 어머니 산소에 성묘를 갔다. 내려와서 김용수(金龍秀) 덕 사랑에서 자고 그대로 머물렀다.

十七日. 丁卯【彊圉單闕】. 晴. 作五絃洞後笠峰石先考妣山所省楸之行. 下宿於金龍秀宅舍廊, 因以留連.

1929년 8월 18일. 무진 -저옹집서-. 맑음.

十八日. 戊辰【著雍執徐】. 陽.

1929년 8월 19일. 기사 -도유대황락-. 맑음. 동산리(東山里)의 사돈

이몽우(李夢雨) 댁에 도착해 손부(孫婦)와 증손(曾孫)을 보고 그대로 머물렀다.

十九日. 己巳【屠維大荒落】. 陽. 到東山里查家李夢雨宅, 見孫婦與曾孫, 仍以留連.

1929년 8월 20일. 경오 -상장곤돈-. 맑음. 이봉우(李鳳雨)와 이종덕(李鐘惠)을 위문하고 서암(棲岩)의 뜻을 토론하였다. 왕산리(王山里)의 이경우(李敬雨) 댁을 방문해 머물러 잤다.

二十日. 庚午【上章敦牂】. 陽. 慰問李鳳雨與李鐘德, 討論棲岩之義. 訪到王山里李敬雨宅留宿.

1929년 8월 21일. 신미 -중광협흡-. 맑음. 이종순(李鐘淳) 댁에서 점심을 먹고, 석양에 오룡(五龍) 사돈집에 도착해 이윤보(李潤寶)의 사랑에서 머물러 잤다.

二十一日. 辛未【重光協洽】. 陽. 點心於李鐘淳宅, 斜陽還五龍查家, 李潤寶舍廊留宿.

1929년 8월 22일. 임신 현익군탄-. 마각치(馬脚峙) 선산에 성묘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二十二日. 壬申【玄默涒灘】. 省行馬脚峙先山, 而還巢.

1929년 8월 23일. 계유. 등갈리(藤葛里)의 이병종(李丙種, 고모부)이 출타했다가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만났다. 밤에 비가 내렸다.

二十三日. 癸酉. 喜聞藤葛里李丙種出他回還, 訪問來遇雨. 夜雨.

1929년 8월 24일. 갑술 -알봉엄무-. 맑.

二十四日. 甲戌【闕逢闕茂】. 晴.

1929년 8월 25일. 을해 -전몽대연헌-. 맑음.

二十五日. 乙亥【旃蒙大淵獻】. 陽.

1929년 8월 26일. 병자 -유조곤돈-. 맑음.

二十六日. 丙子【柔兆困敦】. 陽.

1929년 8월 27일. 정축 -강어적분약-. 맑음.

二十七日. 丁丑【疆圉赤奮若】. 陽.

1929년 8월 28일. 무인 -저옹섭제-. 맑음.

二十八日. 戊寅【著雍攝提】. 陽.

1929년 8월 29일. 기묘 -도유단알-. 맑음.

二十九日. 己卯【屠維單闕】. 陽.

1929년 8월 30일. 경진 -상장집서-. 맑음.

三十日. 庚辰【上章執徐】. 陽.

1929년 9월 1일. 신사 -중광대황락-. 맑음.

九月. 初一日. 辛巳【重光大荒落】. 陽.

1929년 9월 2일. 임오 -현익돈장-. 맑음.

初二日. 壬午【玄默敦牂】. 陽.

1929년 9월 3일. 계미 -소양협흡-. 맑음.

初三日. 癸未【昭陽協洽】. 陽.

1929년 9월 4일. 갑신 -알봉군탄-. 맑음

初四日. 甲申【闕逢涖灘】. 陽.

1929년 9월 5일. 을유 -전몽작악-. 흐리고 비 음.

初五日. 乙酉【旃蒙作噩】. 陰雨.

1929년 9월 6일. 병술 -유조엄무-. 맑음.

六日. 丙戌【柔兆闓茂】. 陽.

1929년 9월 7일. 정해 -강어대연헌-. 맑음.

七日. 丁亥【強圉大淵獻】. 陽.

1929년 9월 8일. 무자 -저옹곤둔-. 맑음.

八日. 戊子【著雍困敦】. 陽.

1929년 9월 9일. 기축 -도유적분약-. 맑음.

九日. 己丑【屠維赤奮若】. 陽.

1929년 9월 10일. 경인 -상장섭제-. 맑음.

十日. 庚寅【上章攝提】. 陽.

1929년 9월 11일. 신묘 -중광단알-. 맑음.

十一日. 辛卯【重光單闕】. 陽.

1929년 9월 12일. 임진 -현익집서-. 맑음.

十二日. 壬辰【玄默執徐】. 陽.

1929년 9월 13일. 계사 -소양대황-. 맑음.

十三日. 癸巳【昭陽大荒】. 陽.

1929년 9월 14일. 갑오 -알봉돈장-. 절반은 흐리고 절반은 맑음. 비가 지나감.

十四日. 甲午【闕逢敦牂】. 半陰半陽. 雨過.

1929년 9월 15일. 을미 -전몽협흡-. 흐림. 잠깐 비가 내렸다.

十五日. 乙未【旃蒙協洽】. 陰. 乍雨.

1929년 9월 16일. 병신 -유조군탄-.

十六日. 丙申【柔兆涸灘】.

1929년 9월 17일. 정유 -강어작악-. 맑음.

十七日. 丁酉【強圉作噩】. 陽.

1929년 9월 18일. 무술 -저옹엄무-. 맑음.

十八日. 戊戌【著雍闓茂】. 陽.

1929년 9월 19일. 기해 -도유대연천-. 맑음.

十九日. 己亥【屠維大淵獻】. 陽.

1929년 9월 20일. 경자 -상장곤돈-. 맑음.

二十日. 庚子【上章困敦】. 陽.

1929년 9월 21일. 신축 -중광적분약-. 맑음.

二十一日. 辛丑【重光赤奮若】. 陽.

1929년 9월 22일. 임인 -현익섭제-. 맑음.

二十二日. 壬寅【玄默攝提】. 陽.

1929년 9월 23일. 계묘 -소양단알-. 맑음. 근래의 박람회라는 것은 ‘서리(黍離)<sup>71</sup>’시의 뜻을 알지 못하는가? 경원보씨(慶源輔氏)는 말하기를 “천왕(天王)으로서 이적에게 부림을 당하는 것은 천지의 큰 변괴이고, 중국의 큰 수치이며, 동주(東周)의 신자(臣子)들의 큰 원수이다. 문왕과 무왕, 성왕, 강왕의 종묘가 모두 기장 밭이 되었으니, 듣는 자는 마땅히 눈물을 흘릴 것이다. 마음은 흔들려서 차마 떠나지 못하는 데, 하늘은 유유하여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능히 주나라를 민망하게 여겨 시를 짓는 자는 일행 중에 대부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구나.”라고 하였다.

二十三日. 癸卯【昭陽單闕】. 陽. 近日博覽會者, 不知黍離詩之意乎? 慶源輔氏曰, “天王而役於夷狄, 天地之大變, 中國之大恥, 東周臣子之大讐也. 文武成康之宗廟而盡爲禾黍, 聞者當流涕矣. 心搖搖而不忍去, 天悠悠而不我知. 能爲閔周之詩者, 一行役大夫之外, 無人也.”

71 서리(黍離) : 《시경》〈왕풍(王風)〉의 편명인데, 동주(東周)의 대부(大夫)가 행역(行役)을 나가는 길에 이미 멸망한 서주(西周)의 옛 도읍인 호경(鎬京)을 지나가다가 옛 궁실과 종묘가 폐허로 변한 채 메기장과 잡초만이 우거진 것을 보고 비감에 젖어 탄식하며 부른 노래이다.

1929년 9월 24일. 갑진 -알봉집서-. 맑음. 이치삼(李致三)씨 대상(大祥)에 조문하였다. 중간에 한 노인이 알고 지내기를 청하였다. 그 말을 들어보니, 바로 보성 우산의 안혁환(安赫煥)으로, 곧 치삼씨의 사위였다. 정의를 매우 친밀했다.

二十四. 甲辰【闕逢執徐】. 陽. 弔李致三氏大祥. 中班一老人請知, 聞其言, 則乃寶城牛山安赫煥, 卽致三氏之壻郎也. 情好甚密.

1929년 9월 25일. 을사 -전몽대황락-. 맑음.

二十五日. 乙巳【旃蒙大荒落】. 陽.

1929년 9월 26일. 병오 -유조돈장-. 맑음.

二十六日. 丙午【柔兆敦牂】. 陽.

1929년 9월 27일. 정미 -강어협흡-. 맑음.

二十七日. 丁未【強圉協洽】. 陽.

1929년 9월 28일. 흐림. 무신 저용군탄-. 밤에 비가 내렸다.

二十八日. 陰. 戊申【著雍涇灘】. 夜雨.

1929년 9월 29일. 기유 -도유작악-. 맑음.

二十九日. 己酉【屠維作噩】. 陽.

1929년 9월 30일. 경술 -상장엄무-. 맑음.

三十日. 庚戌【上章闡茂】. 陽.

1929년 10월 1일. 신해 -중광대연헌-. 맑음.

十月. 初一日. 辛亥【重光大淵獻】. 陽.

1929년 10월 2일. 임자 -현익곤돈-. 맑음.

二日. 壬子【玄默困敦】. 陽.

1929년 10월 3일. 계축 -소양적분약-. 맑음.

三日. 癸丑【昭陽赤奮若】. 陽.

1929년 10월 4일. 갑인 -알봉섭제-. 맑음.

四日. 甲寅【闕逢攝提】. 陽.

1929년 10월 5일. 을묘 -전몽단알-. 흐림. 밤에 비가 음.

五日. 乙卯【旃蒙單闕】. 陰. 夜雨.

1929년 10월 6일. 병진 -유조집서-. 맑음.

六日. 丙辰【柔兆執徐】. 陽.

1929년 10월 7일. 정사 -강어대황락-. 맑음.

七日. 丁巳【強圉大荒落】. 陽.

1929년 10월 8일. 정사. 맑음.

八日. 丁巳. 陽.

1929년 10월 9일. 무오 -저용돈장-. 맑음.

八日. 戊午【著雍敦牂】. 陽.

1929년 10월 10일. 기미 -도유협흡-. 맑음.

十日. 己未【屠維協洽】. 陽.

1929년 10월 11일. 경신 -상장군탄-. 맑음.

十一日. 庚申【上章涿灘】. 陽.

1929년 10월 12일. 신유 -중광작악-. 맑음.

十二日. 辛酉【重光作噩】. 陽.

1929년 10월 13일. 임술 -현익엄무-. 맑음. 추수를 마쳤다.

十三日. 壬戌【玄黓闔茂】. 陽. 秋收畢.

1929년 10월 14일. 계해 -소양대연헌-. 맑음. 《주역》의 〈계사전(繫辭傳)〉을 보았는데, 제6장에 이르러, “대저 건(乾)은 정(靜)함이 전일하고 그 동함이 곧기 때문에 큼[大]이 생겨난다. 대저 곤은 그 정함이 합쳐지고 그 동함이 열리기 때문에 넓음[廣]이 생겨난다.”라고 했다. 탄식하나니, 우암 선생(尤菴先生)의 직자결은 여기에서 얻은 것인가?

十四日. 癸亥【昭陽大淵獻】. 陽. 看〈繫辭〉, 至六章, “夫乾, 其靜也專, 其動也直, 是以大生焉. 夫坤, 其靜也翕, 其動也闢, 是以廣生焉.” 歎尤菴先生訣直字, 得於此乎?

1929년 10월 15일. 갑자 -알봉곤돈-. 맑음.

十五日. 甲子【闕逢困敦】. 陽.

1929년 10월 16일. 을축 -전몽적분약-. 맑음.

十六日. 乙丑【旃蒙赤奮若】. 陽.

1929년 10월 17일. 병인 -유조섭제-. 흐림. 오후에 비가 오고 밤에 또 눈이 내렸다.

十七日. 丙寅【柔兆攝提】. 陰. 午後雨, 夜又雨雪.

1929년 10월 18일. 정묘 -강어단알-. 약간 맑음.

十八日. 丁卯【彊圉單闕】. 微陽.

1929년 10월 19일. 무진 -저옹집서-. 맑음.

十九日. 戊辰【著雍執徐】. 陽.

1929년 10월 20일. 기사 -도유대황락-. 맑음.

二十日. 己巳【屠維大荒落】. 陽.

1929년 10월 21일. 경오 -상장돈장-. 맑음. 밤에 눈이 많이 내렸다.

二十一日. 庚午【上章敦牂】. 陽. 夜雪霏.

1929년 10월 22일. 신미 -중광협합-. 맑음.

二十二日. 辛未【重光協洽】. 陽.

1929년 10월 23일. 임신 -현익군탄-. 맑음. 《주역》의 〈계사전(繫辭傳)〉을 보았는데, 제12장에서 “이런 까닭에 형이상(形而上)인 것을 도(道)라고 하고, 형이하(形而下)인 것을 기(器)라고 한다.”라고 하였고, 소주(小註)에서 잠실 진씨(潛室陳氏)<sup>72</sup>가 말하기를, “하나의 사물에는

72 잠실 진씨(潛室陳氏) : 남송의 학자인 진식(陳植)을 가리킨다. 진식은 자가 기지(器之)이며, 영가(永嘉) 사람이다. 어려서 섭적(葉適)에게서 수학하다가 뒤에 주희에게 배웠다. 저서로는 《우공변(禹貢辯)》, 《홍범해(洪範解)》, 《목동집(木童集)》

반드시 하나의 이(理)가 있으니, 도(道)는 바로 기(器) 속의 이(理)이다. 기는 이미 형체가 있고, 도는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드러나니, 이것은 분개(分開)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선성(先聖)들이 후학(後學)을 깨우쳐주고자 하면서 어찌 사람들에게 열어 보여주지 않았겠는가? 그렇지만 둘에게 모두 형(形)을 말한 것은 본래 하나의 물건임을 알게 함이다. 만약에 이 형(形)이란 글자를 제외하고서 단지 ‘상자(上者)를 도라고 하고, 하자(下者)를 기라고 한다’고 한다면 도리어 두 조각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특별히 기록하여 앞에서 기록한 형이상과 형이하의 뜻을 밝히고자 한다.

二十三日. 壬申【玄默涪灘】. 陽. 看〈繫辭〉十二章, “是故形而上者謂之道, 形而下者謂之器.” 小註, 潛室陳氏曰, “一物必有一理, 道即器中之理. 器既有形, 道即因而顯, 此是分開不得底事. 先聖欲悟後學, 不奈何指開示人? 所以俱言形者, 見得本是一物. 若除了此字, 止言上者謂之道, 下者謂之器, 却成二片矣.” 特記之, 欲明前所記形上形下之意.

1929년 10월 24일. 계유 -소양작악-. 맑음.

二十四日. 癸酉【昭陽作噩】. 陽.

1929년 10월 25일. 갑술 -알봉엄무-. 맑음.

二十五日. 甲戌【闕逢闡茂】. 陽.

1929년 10월 26일. 을해 -전몽대연현-. 맑음.

二十六日. 乙亥【旃蒙大淵獻】. 陽.

1929년 10월 27일. 병자 -유조곤돈-. 맑음.

二十七日. 丙子【柔兆困敦】. 陽.

1929년 10월 28일. 정축 -강어적분약-. 맑음.

二十八日. 丁丑【彊圉赤奮若】. 陽.

1929년 10월 29일. 무인 -저옹섭제-. 맑음.

二十九日. 戊寅【著雍攝提】. 陽.

1929년 10월 30일. 기묘 -도유단알-. 맑음.

三十日 己卯【屠維單闕】. 陽.

1929년 11월 1일. 경진 -상장집서-. 맑음.

十一月. 初一日. 庚辰【上章執徐】. 陽.

1929년 11월 2일. 신사 -중광대황락-. 흐림.

二日. 辛巳【重光大荒落】. 陰.

1929년 11월 3일. 임오 -현익돈장-. 흐리고 비.

三日. 壬午【玄黓敦牂】. 陰雨.

1929년 11월 4일. 계미 -소양협흡-. 맑음.

四日. 癸未【昭陽協洽】. 陽.

1929년 11월 5일. 갑신 -알봉군탄-. 맑음.

五日. 甲申【闕逢涿灘】. 陽.

1929년 11월 6일. 을유 -전몽작악-. 맑음.

六日. 乙酉【旃蒙作噩】. 陽.

1929년 11월 7일. 병술 -유조엄무-. 흐리고 비.

七日. 丙戌【柔兆闍茂】. 陰雨.

1929년 11월 8일. 정해 -강어대연헌-. 맑음.

八日. 丁亥【彊圉大淵獻】. 陽.

1929년 11월 9일. 무자 -저용곤돈-. 맑음.

九日. 戊子【著雍困敦】. 陽.

1929년 11월 10일. 기축 -도유적분약-. 맑음.

十日. 己丑【屠維赤奮若】. 陽.

1929년 11월 11일. 경인 -상장섭제-. 맑음.

十一日. 庚寅【上章攝提】. 陽.

1929년 11월 12일. 신묘 -중광단알-. 맑음.

十二日. 辛卯【重光單闕】. 陽.

1929년 11월 13일. 임진 -현익집서-. 맑음

十三日. 壬辰【玄默執徐】. 陽.

1929년 11월 14일. 계사 -소양대황락-. 맑음.

十四日. 癸巳【昭陽大荒落】. 陽.

1929년 11월 15일. 갑오 -알봉돈장-. 흐리고 비.

十五日. 甲午【閼逢敦牂】. 陰雨.

1929년 11월 16일. 을미 전몽협흡-. 흐림. 비가 종일 내렸다.

十六日. 乙未【旃蒙協洽】. 陰. 雨終日.

1929년 11월 17일. 병신 -유조군탄-. 흐림.

十七日. 丙申【柔兆涇灘】. 陰.

1929년 11월 18일. 정유 -강어작악-. 맑음.

十八日. 丁酉【疆圉作噩】. 陽.

1929년 11월 19일. 무술 -저용엄무-. 흐림.

十九日. 戊戌【著雍闓茂】. 陰.

1929년 11월 20일. 기해 -도유대연헌-. 흐리고 비.

二十日. 己亥【屠維大淵獻】. 陰雨.

1929년 11월 22일. 경자 -상장곤돈-. 흐리고 비.

二十二日. 庚子【上章困頓】. 陰雨.

1929년 11월 23일. 신축 -중광적분-. 흐리고 비.

二十三日. 辛丑【重光赤奮】. 陰雨.

1929년 11월 24일. 임인 -현익섭제-. 맑.

二十四日. 壬寅【玄默攝提】. 晴.

1929년 11월 25일. 계묘. 맑음.

二十五日. 癸卯. 陽.

1929년 11월 26일. 갑진 -알봉집서-. 흐리고 눈.

二十六日. 甲辰【關蓬執徐】. 陰雪.

1929년 11월 27일. 을사 전몽대황락-. 흐림. 밤에 비가 왔다.

二十七日. 乙巳【旃蒙大荒落】. 陰. 夜雨.

1929년 11월 28일. 병오 -유조돈장-. 흐리고 비.

二十八日. 丙午【柔兆敦牂】. 陰雨.

1929년 11월 29일. 정미 -강어협흡-. 흐림.

二十九日. 丁未【彊圉協洽】. 陰.

375

1929년 11월 30일. 기유 -도유작악-. 흐림.

三十日. 己酉【屠維作噩】. 陰.

1929년 12월<sup>73</sup> 1일. 경술 -상장엄무-. 흐리고 비.

十二月. 初一日. 庚戌【上章闡茂】. 陰雨.

1929년 12월 2일. 신해 -중광대연헌-.

二日. 辛亥【重光大淵獻】.

73 일기 원문에 11월로 되어있는데 이는 12월을 잘못 쓴 것이므로 수정하였다.

1929년 12월 3일. 임자 현익곤돈-. 흐림. 눈바람이 불었다.

初三日. 壬子【玄默困頓】. 陰. 雪風.

1929년 12월 4일. 계축 -소양적분약-. 흐림.

四日. 癸丑【昭陽赤奮若】. 陰.

1929년 12월 5일. 갑인 -알봉섭제-. 흐림.

五日. 甲寅【闕逢攝提】. 陰.

1929년 12월 6일. 을묘 -전 단알-. 흐림.

六日. 乙卯【旃蒙單闕】. 陰.

1929년 12월 7일. 병진 -유조집서-. 흐림.

七日. 丙辰【柔兆執徐】. 陰.

1929년 12월 8일. 정사 강어대항락-. 흐림. 밤에 눈이 내렸다.

八日. 丁巳【疆圉大荒落】. 陰. 夜雪.

1929년 12월 9일. 무오 -저옹돈장-. 흐리고 추움.

九日. 戊午【著雍敦牂】. 陰寒.

1929년 12월 10일. 기미 -도유협흡-. 흐림.

十日. 己未【屠維協洽】. 陰.

1929년 12월 11일. 경신 -상장군탄-. 맑음.

十一日. 庚申【上章涒灘】. 陽.

1929년 12월 12일. 신유 -중광작약-. 맑음.

十二日. 辛酉【重光作疆】. 陽.

1929년 12월 13일. 임술 -현익엄무-. 맑음.

十三日. 壬戌【玄默闡茂】. 陽.

1929년 12월 14일. 계해 -소양대연헌-. 맑음.

十四日. 癸亥【昭陽大淵獻】. 陽.

1929년 12월 15일. 갑자 -알봉곤돈-. 맑음.

十五日. 甲子【闕逢困敦】. 陽.

1929년 12월 16일. 을축 -전몽적분약-. 맑음.

十六日. 乙丑【旃蒙赤奮若】. 陽.

1929년 12월 17일. 병인 -유조섭제-. 맑음.

十七日. 丙寅【柔兆攝提】. 陽.

1929년 12월 18일. 정묘 -강어단알-. 맑음. 오늘은 손녀의 혼인날이다. 날씨가 화평하여 마음이 기쁘기 그지없다.

十八日. 丁卯【彊圉單闕】. 陽. 是日孫女婚日也. 日氣和平, 中心欣豁.

1929년 12월 19일. 흐름. 무진 -저옹집서-. 맑음.

十九日. 陰. 戊辰【著雍執徐】.

1929년 12월 20일. 기사 -도유대황락-. 맑음.

二十日. 己巳【屠維大荒落】. 陽.

1929년 12월 21일. 경오 -상장돈장-. 맑음.

二十一日. 庚午【上章敦牂】. 陽.

1929년 12월 22일. 신미 -중광협흡-. 맑음.

二十二日. 辛未【重光協洽】. 陽.

1929년 12월 23일. 임신 -현익군탄-. 맑음.

二十三日. 壬申【玄默涸灘】. 陽.

1929년 12월 24일. 계유 -소양작약-. 맑음.

二十四日. 癸酉【昭陽作噩】. 陽.

1929년 12월 25일. 갑술 -알봉엄무-. 맑음.

二十五日. 甲戌【闕逢闍茂】. 陽.

1929년 12월 26일. 을해 -전몽대연헌-. 맑음.

二十六日. 乙亥【旃蒙大淵獻】. 陽.

1929년 12월 27일. 병자 -유조곤돈-. 맑음.

二十七日. 丙子【柔兆困敦】. 陽.

1929년 12월 28일. 정축 -강어적분약-. 흐림. 눈 흔적이 있었다.

二十八日. 丁丑【疆圉赤奮若】. 陰. 雪痕.

1929년 12월 29일. 무인. 아침에 큰 안개로 사방이 막혔다.

二十九日. 戊寅. 朝大霧四塞.

1929년 12월 30일. 기묘 -도유단알-. 맑음. 《통서(通書)》<sup>74</sup>를 보다가 <사제칠(師第七)>의 “중(中)이란 것은 화(和)이며 절도에 맞는 것이니, 천하의 달도(達道, 공통된 도)요, 성인의 일이다. [惟中也者, 和也, 中節也, 天下達道也, 聖人之事也.]”라는 구절에 이르렀는데, 그 주(註)에서 “화(和)를 중(中)이라고 하는 것은 《중용》과 합치되지 않는다. [以和爲中, 與中庸不合]”라고 하였다. 대개 이발(已發)에 과(過)와 불급(不及)이 없는 것을 취해서 말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서경》의 이른바 ‘윤집궐중(允執厥中)’이란 것이다. 가만히 생각컨대 부자(夫子, 공자)의 시중(時中)<sup>75</sup>은 미발(未發)의 중과 발하여 절도에 맞는 중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동정(動靜)의 다름은 있지만 그 중의 이치는 하나이다. 三十日. 己卯【屠維單閼】. 陽. 看《通書》, 至〈師第七〉, “惟中也者, 和也, 中節也, 天下達道也, 聖人之事也.” 註言 “以和爲中, 與《中庸》不合.” 蓋取已發無過不及者而言之, 如《書》所謂 ‘允執厥中’ 者也. 竊想如夫子之時中也, 未發之中, 發而中節之中, 有二義. 有動靜之殊, 然中之理一也.

74 《통서(通書)》: 중국 북송대 인물인 주돈이(周敦頤)의 저서로 1권 4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래 《역통(易通)》이라 칭하기도 했다.

75 시중(時中): 때에 따라 적중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중용장구》 제2장에 공자가 “군자는 중용이요, 소인은 중용에 반한다. 군자의 중용은 군자이어서 때에 따라 중도를 지키는 것이고, 소인의 중용은 소인이어서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仲尼曰 “君子中庸, 小人反中庸. 君子之中庸也, 君子而時中, 小人之中庸也, 小人而無忌憚也.”]”라고 하였다.





1930년 1월 1일

태극도 중의 선악과 남녀의 구분

학정 정씨의 원운시에 차운하다[次鶴亭鄭某元韻]

평장동의 시조를 단향 하는 원운시 뒤에 짓다[題平章洞壇享始祖元韻後]

증신암재운(贈新菴齋韻)

종유습구 시에 차운하다[次從遊習句韻]

1930년 6월 15일 끝



1930년 1월 1일. 경진 -상장집서-. 맑음. 두 해가 함께 나왔다고 한다.  
庚午. 正月. 初一日. 庚辰【上章執徐】. 陽. 兩日竝出云.

1930년 1월 2일. 신사 -중광대황락-. 맑음. 아들 인수(寅洙)는 <수괘(隨卦)·육삼(六三)> “장부에 잃매이고 소자를 잃으니, 따름에 구함을 얻으나 정(貞)에 거함이 이롭다. [係丈夫, 失小子, 隨有求得, 利居貞.]”를 얻었다. 손자 용주(容周)는 <수괘·육이(六二)> “소자에 잃매이면 장부를 잃으리라. [係小子, 失丈夫.]”를 얻었다. 손자 용준(容俊)은 <수괘·구사(九四)> “따름에 얻음이 있으면 바르더라도 흉하니, 믿음이 있고 도가 있어서 밝음으로써 처리하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隨有獲, 貞凶, 有孚在道以明, 何咎?!”를 얻었다. 그 <상전(象傳)>에 이르기를 “따름에 얻음이 있는 것은 그 의리상 흉하고, 믿음이 있고 도에 있으면 공(功)을 밝게 이룰 수 있다. [隨有獲, 其義凶也, 有孚在道, 明功也.]”고 하였다. (구사(九四)) 효사(爻辭)의 주(註)에 “옛사람 중에 이를 행한 자가 있으니, 이윤(伊尹)·주공(周公)·제갈공명이 이러한 자들이다. 모두 덕이 백성에게 미치고 백성들이 그것을 따랐으니, 백성의 따름을 얻은 것은 군주의 공(功)을 이루고 나라의 편안함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지성(至誠)이 중심에 있는 것은 이는 부성(孚誠)이 있는 것이요, 시행한 바가 도에 맞지 않음이 없는 것은 도에 있는 것이요, 명철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밝음을 쓴 것이니, 다시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가(家)와 국(國)은 일치한다.

初二日. 辛巳【重光大荒落】. 陽. 子寅洙, 得卦<隨、六三> “係丈夫, 失小子, 隨, 有求, 得, 利居貞.” 孫容周, 得卦<隨、六二> “係小子, 失丈夫.” 孫容俊, 得卦<隨、九四> “隨, 有獲, 貞, 凶, 有孚, 在道, 以明, 何咎?” <象>曰 “隨有獲, 凶也, 有孚在道, 明功也.” 爻註 “古之人, 有行之者, 伊尹、周

公、孔明, 是也. 皆德及於民而民隨之, 其得民之隨, 所以成其君之功, 致其國之安. 其至誠, 存乎中, 是有孚也, 其所施爲, 無不中道, 在道也, 唯其明哲, 故能如是以明也, 復何過咎之有?”, 然則家國一致也.

1930년 1월 3일. 임오 -현익돈장-. 맑음.

初三日. 壬午【玄默敦莊】. 陽.

1930년 1월 4일. 계미 -소양협흡-. 맑음.

四日. 癸未【昭陽協洽】. 陽.

1930년 1월 5일. 갑신 -알봉군탄-. 맑음.

五日. 甲申【闕逢涸灘】. 陽.

1930년 1월 6일. 을유 -전몽작악-. 맑음. 저녁에 눈이 내렸다.

六日. 乙酉【旃蒙作噩】. 陽. 夜雨雪.

1930년 1월 7일. 병술 -유조엄무-. 맑음.

七日. 丙戌【柔兆闔茂】. 陽.

1930년 1월 8일. 정해 -강어대연헌-. 흐리다 맑음.

八日. 丁亥【疆圉大淵獻】. 陰而陽.

1930년 1월 9일. 무자 -저옹곤둔-. 맑음.

九日. 戊子【著雍困敦】. 陽.

1930년 1월 10일. 기축 -도유적분약-. 맑음.

十日. 己丑【屠維赤奮若】. 陽.

1930년 1월 11일. 경인 -상장섭제-. 맑음.

十一日. 庚寅【上章攝提】. 陽.

1930년 1월 12일. 신묘 -중광단알-. 맑음.

十二日. 辛卯【重光單闕】. 陽.

1930년 1월 13일. 임진 -현익집서-. 맑음.

十三日. 壬辰【玄默執徐】. 陽.

1930년 1월 14일. 계사 -소양대황락-. 맑음.

十四日. 癸巳【昭陽大荒落】. 陽.

1930년 1월 15일. 갑오 -알봉돈장-. 맑음. 점을 쳐 비괘(否卦) 구오(九五)의 ‘비색한 것을 쉬게 한다. 대인의 길함이니 그 망할까 망할까 하여 뿔나무 뿌리에 매워둔다[休否, 大人吉, 其亡其亡, 繫于苞桑]’를 얻었다.

十五日. 甲午【闕逢敦牂】. 陽. 占得否九五, ‘休否 大人吉 其亡其亡 繫于苞桑’.

1930년 1월 16일. 을미 -전몽협흡-. 맑음. 아들이<태극도>중에 선악과 남녀의 구분에 대해 물었다. 내가 답하기를, “오직 선일 뿐이니 대적할 것이 없다. 공자(孔子)는 말씀하기를, ‘일음일양(一陰一陽)을 도(道)라 한다. 그것을 잇는 것을 선(善)이라 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성(性)이라 한다.’고 하셨다. 정자는 ‘생지위성(生之謂性)’을 말했으니,

생지위성이란 것은 성은 곧 기(氣)이며 기는 곧 성이므로, 타고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은 나면서 기(氣)를 받고 태어나며, 이(理)에는 선악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 가운데 원래부터 이 두가지의 것이 서로 짝하여 생겨난다는 것이 아니다. 무릇 이 구절은 주자(周子)의 ‘선악설(善惡說)’로서, 맹자(孟子)의 ‘성선본연(性善本然)’ 상의 설(說)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장횡거(張橫渠)의 ‘기질(氣質)’ 상의 설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했다.

十六日. 乙未【旃蒙協洽】. 陽. 子問, “〈太極圖〉中, 善惡男女之分也?” 余答曰, “惟善無對. 子曰,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 成之者性. 程子, ‘生之謂性’ 說, 生之謂性, 性即氣, 氣即性, 生之謂也. 人生氣稟, 理有善惡. 然不是性中元有此兩物相對而生也. 盖此句, 周子‘善惡說’, 非指孟子‘性善本然’ 上說, 指橫渠‘氣質’ 上說.”

1930년 1월 17일. 병신 맑음.

十七日. 丙申. 陽.

1930년 1월 18일. 정유 -강어작악-. 맑음.

十八日. 丁酉【疆圉作噩】. 陽.

1930년 1월 19일. 무술 -저옹엄무-. 맑음.

十九日. 戊戌【著雍闓茂】. 陽.

1930년 1월 20일. 기해 -도유대연헌-. 맑음.

二十日. 己亥【屠維大淵獻】. 陽.

1930년 1월 21일. 경자 -상장곤돈-. 맑음.

二十一日. 更子【上章困敦】. 陽.

1930년 1월 22일. 신축 -중광적분약-. 흐림.

二十二日. 辛丑【重光赤奮若】. 陰.

1930년 1월 23일. 임인 현익섭제-. 흐림. 비가 흠족하게 왔다.

二十三日. 壬寅【玄默攝提】. 陰. 雨洽足.

1930년 1월 24일. 계묘 -소양단알-. 흐림.

二十四日. 癸卯【昭陽單闕】. 陰.

1930년 1월 25일. 갑진 -알봉집서-. 흐리고 비가 왔으며 크게 뇌성벽력이 쳤다. 밤에 생각하기를, '사람의 일[人事]은 《소학》책에 뚜렷이 드러나 있으니, 일(事)로 인하여 심(心)을 알 수 있고, 심으로 인하여 정(情)을 알 수 있으며, 정으로 인하여 성(性)을 알 수 있고, 성으로 인하여 천리(天理)의 순수지선(純粹至善)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二十五日. 甲辰【闕逢執徐】. 陰. 雨大雷聲. 夜思, '人事著乎《小學》書. 因事而知心, 因心而知情, 因情而知性, 因性而達天理之純粹至善也.'

1930년 1월 26일. 을사 -진몽대황락-. 흐림.

二十六日. 乙巳【旃蒙大荒落】. 陰.

1930년 1월 27일. 병오 -유조돈장-. 흐림.

二十七日. 丙午【柔兆敦牂】. 陰.

1930년 1월 28일. 정미 -강어협흡-. 맑음.

二十八日. 丁未【疆圍協洽】. 陽.

1930년 1월 29일. 무신 -저용군탄-. 흐림.

二十九日. 戊申【著雍涿灘】. 陰.

1930년 2월 1일. 기유 -저용작악-. 맑음.

二月. 初一日. 己酉【屠維作噩】. 陽.

1930년 2월 2일. 경술. -상장엄무-. 흐림.

初二日. 庚戌【上章閹茂】. 陰.

1930년 2월 3일. 신해 -중광대연헌-. 흐리고 비.

三日. 辛亥【重光大淵獻】. 陰雨.

1930년 2월 4일. 임자 -현익곤돈-. 흐리고 비.

四日. 壬子【玄默困敦】. 陰雨.

1930년 2월 5일. 계축. -소양적분약-. 흐림.

五日. 癸丑【昭陽赤奮若】. 陰.

1930년 2월 6일. 갑인. -알봉섭제-. 흐림.

六日. 甲寅【闕逢攝提】. 陰.

1930년 2월 7일. 을묘. -전몽단알-. 흐림.

七日. 乙卯【旃蒙單闕】. 陰.

1930년 2월 8일. 병진. -유조집서-. 맑음.

八日. 丙辰【柔兆執徐】. 陽.

1930년 2월 9일. 정사 -강어대황락-.

九日. 丁巳【疆圉大荒落】.

1930년 2월 10일. 무오 -저옹돈장-. 맑음.

十日. 戊午【著雍敦牂】. 陽.

1930년 2월 11일. 기미 -도유협흙-. 맑음.

十一日. 己未【屠維協洽】. 陽.

1930년 2월 12일. 경신 -상장군탄-. 맑은 후 흐림.

十二日. 庚申【上章涿灘】. 陽而陰.

1930년 2월 13일. 신유. 흐리고 비.

十三日. 辛酉. 陰雨.

1930년 2월 14일. 임술 -중광작악-. 흐리고 비.

十四日. 壬戌【重光作噩】. 陰雨.

〈학정(鶴亭) 정씨의 원운시에 차운하다〉 次鶴亭鄭某元韻

편액이 학정이니 은거하는 집이라,

扁是鶴亭隱僻堂

주인옹의 신선같은 모습은 저물녘에 더 빛나네.

主翁仙態暮遼陽

말을 희롱하며 장차 상천의 즐거움 이루고,

弄馬將成汜上樂

복숭아 심어 눈앞의 향기 넘치도록 언네.

種桃剩得眼前香

본래의 업은 이어온 것 있어 서가에 책 가득하니,  
일생에서 어찌 만드시 술잔에 술 가득해야 하나.  
어지러운 세상의 일에는 관심이 없으니,  
속세 떠난 맑은 풍격 백세토록 빛나리.

素業有因書滿架  
生涯何必酒盈觴  
紛紛時事無關也  
邈世清風百歲光

1930년 2월 15일. 계해 -현익업무-. 흐리고 비가 내렸으며, 천둥이 울었다.

十五日. 癸亥【玄默闡茂】. 陰雨雷聲.

1930년 2월 16일. 갑자. 흐림.

十六日. 甲子. 陰.

1930년 2월 17일. 을축. 맑음.

十七日. 乙丑. 陽.

1930년 2월 18일. 병인. 맑음.

十八日. 丙寅. 陽.

1930년 2월 19일. 정묘. 맑음.

十九日. 丁卯. 陽.

1930년 2월 20일. 무진. 맑음.

二十日. 戊辰. 陽.

1930년 2월 21일. 기사. 맑음.

二十一日. 己巳. 陽.

1930년 2월 22일. 경오. 맑음.

二十二日. 庚午. 陰.

1930년 2월 23일. 신미, 맑음.

二十三日. 辛未. 陽.

1930년 2월 24일. 임신. 맑음.

二十四日. 壬申. 陽.

1930년 2월 25일. 계유. 맑음.

二十五日. 癸酉. 陽.

1930년 2월 26일. 갑술. 맑음.

二十六日. 甲戌. 陽.

391

1930년 2월 27일. 을해. 맑음.

二十七日. 乙亥. 陽.

1930년 2월 28일. 병자. 흐림. 큰 비가 내렸다.

二十八日. 丙子. 陰. 大雨.

1930년 2월 29일. 정축 -강어적분약-. 맑음.

二十九日. 丁丑【強圉赤奮若】. 陽.

1930년 2월 30일. 무인 -저용섭제-. 맑음. 오늘은 망실(亡室)의 정제(正祭)일이다.

三十日. 戊寅【著雍攝提】. 陽. 是日亡室正祭.

1930년 3월 1일. 기묘 저용단알-. 맑음. 망실의 기일이다.

三月. 初一日. 己卯【著雍單闕】. 陽. 亡室忌日.

1930년 3월 2일. 경진 -상장집서-. 맑음.

二日. 庚辰【上章執徐】. 陽.

1930년 3월 3일. 신사 -중광대황락-. 맑음.

三日. 辛巳【重光大荒落】. 陽.

1930년 3월 4일. 임오 -현익돈장-. 맑음.

四日. 壬午【玄默敦牂】. 陽.

1930년 3월 5일. 계미 -소양협흡-. 맑음.

五日. 癸未【昭陽協洽】. 陽.

1930년 3월 6일. 갑신 -알봉군탄-. 맑음.

六日. 甲申【闕逢涿灘】. 陽.

1930년 3월 7일. 을유 -전몽작약-. 맑음.

七日. 乙酉【旃蒙作噩】. 陽.

1930년 3월 8일. 병술 -유조엄무-. 한식날이다. 망실(亡室)이 세상을

떠난 후 3일 만에 집 옆에 가매장을 하였는데, 보현(寶鉉)<sup>1</sup>의 음해를 입어서 공동산으로 이장하였고, 3년 후에야 전천(前阡)의 땅에 환장(還葬)<sup>2</sup>하게 되었다. 일기가 화창하였으며, 그 다음날에는 비가 세차게 퍼부었다.

八日. 丙戌【柔兆闔茂】. 是日寒食也. 亡室棄世後三日, 權葬于家側, 被寶鉉之陰害, 移于共同山, 三年後還葬于前阡之地. 日氣和暢, 越翌日雨滂沱.

1930년 3월 9일. 정해 -강어대연헌-. 맑음.

九日. 丁亥【強圉大淵獻】. 陽.

1930년 3월 10일. 무자 -저옹곤돈-. 흐리고 비움.

戊子【著雍困頓】. 十日. 陰雨.

1930년 3월 11일. 기축, 갸.

十一日. 己丑. 晴.

1930년 3월 12일. 경인 -상장섭제-. 비움.

十二日. 庚寅【上章攝提】. 雨.

1930년 3월 13일. 신묘 -중광단알-. 갸.

十三日. 辛卯【重光單闕】. 晴

1930년 3월 14일. 임진 -현익집서-. 맑음.

1 보현(寶鉉) : 김보현(金寶鉉)을 말함. 저자 김영찬의 일가이다.

2 환장(還葬) : 귀장(歸葬). 타향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屍體)를 고향으로 모셔다가 장사 지내는 것을 말한다.

十四日. 壬辰【玄默執徐】. 陽.

1930년 3월 15일. 계사 -소양대황락-. 맑음.

十五日. 癸巳【昭陽大荒落】. 陽.

1930년 3월 16일. 갑오 -알봉돈장-. 맑음.

十六日. 甲午【闕逢敦牂】. 陽.

1930년 3월 17일. 을미 -진몽협흡-. 맑음.

十七日. 乙未【旃蒙協洽】. 陽.

1930년 3월 18일. 병신 -유조군탄-. 맑음.

十八日. 丙申【柔兆涒灘】. 陽.

1930년 3월 19일. 정유 -강어작악-. 맑음. 태인(泰仁)의 고용주(高用柱) -자는 경천-을 만나 회포를 풀었다.

十九日. 丁酉【強圉作噩】. 陽. 逢泰仁高用柱, 字擎天敍懷.

1930년 3월 20일. 무술 -저용엄무-. 맑음.

二十日. 戊戌【著雍闞茂】. 陽.

1930년 3월 21일. 기해 -도유대연현-. 맑음. 사창리(社倉里)에 가서 이헌선(李憲善) -자는 덕삼(德三), 호는 잠재(潛齋)라고 함- 을 방문하였다.

무릇 횡역(橫逆)을 만나면 항상 노사 선생 시의

상고 세상에 살려고 해도 원래 땅이 없으니,

欲居上世元無地

스스로 흉중에 별유천이 있음을 돌아켜보네.

自反胸中別有天

한 구절을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너그러워진다. 점심을 먹은 뒤에 이승목(李承穆) -자는 경순(慶純)- 이 와서 맞이하기에 그 집 사랑에 들어가니 서적이 서가에 뿅뿅하였다. 또 《송자대전》이 있어서 봉심하였다. 갑자기 비가 내려서 유숙하였다.

二十一日. 己亥【屠維大淵獻】. 陽. 作社倉里行, 訪李憲善字德三號潛齋云. 凡遇橫逆, 常思蘆沙先生詩, ‘欲居上世元無地, 自反胸中別有天’, 一句則稍寬矣. 午飯後, 李承穆字慶純來迎, 入其家舍廊. 書籍滿架, 又有宋子大全, 故奉審. 忽然天雨, 留連.

1930년 3월 22일. 경자 -상장곤돈-. 흐림. 크게 비가 오고 또 뇌성벽력이 있었는데 종일 그랬다.

二十二日. 庚子【上章困敦】. 陰. 大雨且雷電終日.

395

1930년 3월 23일. 신축 -증광적분약-. 맑음. 집에 돌아왔다.

二十三日. 辛丑【重光赤奮若】. 陽. 還巢.

1930년 3월 24일. 임인 -현익섭제-. 흐림. 못자리를 만들었다.

二十四日. 壬寅【玄默攝提】. 陰. 秧板成.

1930년 3월 25일. 계묘 -소양단알-. 흐리고 비움.

二十五日. 癸卯【昭陽單闕】. 陰雨.

1930년 3월 26일. 갑진 -알봉집서-. 흐리고 비움. 뇌성이 울리고 벼락이 쳤다.

二十六日. 甲辰【闕逢執徐】. 陰雨. 雷震.

1930년 3월 27일. 을사 -전몽대황락-. 흐리고 비 음.

二十七日. 乙巳【旃蒙大荒落】. 陰雨

1930년 3월 28일. 병오 -유조돈장-. 흐림.

二十八日. 丙午【柔兆敦牂】. 陰.

1930년 3월 29일. 정미 -강어협흡-. 맑음.

二十九日. 丁未【強圉協洽】. 陽.

1930년 3월 30일. 무신 -저용군탄-. 흐리고 비 음.

三十日. 戊申【著雍涒灘】. 陰雨.

1930년 4월 1일. 기유 -도유작악-. 흐리고 비 음.

四月. 初一日. 己酉【屠維作噩】. 陰雨

1930년 4월 2일. 경술 -상장엄무-. 흐림.

二日. 庚戌【上章闡茂】. 陰.

1930년 4월 3일. 신해 -중광대연헌-. 맑음.

三日. 辛亥【重光大淵獻】. 陽.

1930년 4월 4일. 임자. 흐림.

四日. 壬子. 陰.

1930년 4월 5일. 계축. 맑음.

五日. 癸丑. 陽.

1930년 4월 6일. 갑인. 흐리고 비 음.

六日. 甲寅. 陰雨.

1930년 4월 7일. 을묘. 흐리고 비 음.

七日. 乙卯. 陰雨.

1930년 4월 8일. 병진 -유조집서-. 개고 맑음.

八日. 丙辰【柔兆執徐】. 晴陽.

1930년 4월 9일. 정사. 흐림.

九日. 丁巳. 陰.

1930년 4월 10일. 무오, 흐리고 비 음.

十日. 戊午. 陰雨.

1930년 4월 11일. 기미, 흐리고 비 음.

十一日. 己未. 陰雨.

1930년 4월 12일. 경신 -상장군탄-. 맑음. 어떤 사람이 “무왕(武王)이 주를 친 것과 백이(伯夷)가 말고삐를 붙잡고 말린 것은 누가 옳은가?”라고 물었다. 답하길, “천리는 원래 둘 다 옳은 것은 없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둘 다 옳다. 그것은 그 지위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였다.

十二日. 庚申【上章涓灘】. 陽. 或問, “武王之伐紂, 伯夷之叩馬, 孰是?” 曰, “天理元無兩是, 至於此事兩是, 而以其地位之不同而然也.”

1930년 4월 13일. 신유 -상장작악-. 맑음.

十三日. 辛酉【上章作噩】. 陽.

1930년 4월 14일. 임술 -현익엄무-. 맑음.

十四日. 壬戌【玄默闍茂】. 陽.

1930년 4월 15일. 계해 -소양대연헌-. 맑음.

十五日. 癸亥【昭陽大淵獻】. 陽.

1930년 4월 16일. 갑자 -알봉곤돈-. 맑음. 장성(長城)으로 가는 중에 양지리(陽地里)<sup>3</sup>를 지나는데 거문고를 타고 시를 읊는 소리가 났다. 기뻐서 그 집으로 들어가 보니 범달삼(范達三)이 제자 수십 인을 거느리고 강학하고 있었다. 고산사(高山祠)를 봉심(奉審)하였다.

十六日. 甲子【闕逢困敦】. 陽. 作長城之行, 過陽地里, 有絃誦之聲. 喜入其堂, 范達三率弟子數十人, 講學也. 奉審高山祠.

노사 기정진 선생(蘆沙奇正鎭先生), 노백헌 정재규 선생(老栢軒鄭載圭先生), 월고 조성가 선생(月皐趙性家先生), 동오 조의곤 선생(東梧曹毅坤先生), 석전 이최선 선생(石田李最善先生), 송사 기우만 선생(松沙奇宇萬先生), 신호 김록휴 선생(莘湖金祿休先生)<sup>4</sup>을 배향하였다.

3 양지리(陽地里):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양지리이다.

4 신호 김록휴 선생(莘湖金祿休先生, 1827~1899): 자는 치경(樞敬), 호는 신호(莘湖)이며 본관은 울산(蔚山)이다. 전라남도 장성(長城) 월평리(月坪里)에서 태어났

蘆沙奇先生正鎮, 老栢軒鄭先生載圭, 月臯趙先生性家, 曹東梧先生毅坤,  
石田李先生最善, 松沙奇先生宇萬, 莘湖金先生祿休.

자리에 는 공학원(孔學源), 황철원(黃澈源)<sup>5</sup>, 양회갑(梁會甲)<sup>6</sup>, 양성묵(梁成默)<sup>7</sup>, 기준도(奇春度), 기노선(奇老善)<sup>8</sup>, 기숙도(奇淑度), 기순서(奇順叙)<sup>9</sup>가 앉아 있었다.

座上孔學源, 黃澈源, 梁會甲, 梁成默, 奇春度, 奇老善, 奇淑度, 奇順叙.

1930년 4월 17일. 을축. 집으로 돌아왔다.

十七日. 乙丑. 還巢.

1930년 4월 18일. 병인 - 유조섭제 -. 맑음.

十八日. 丙寅【柔兆攝提】. 陽.

으며,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의 후손이다. 기정진(奇正鎭)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문집으로 《신희집(莘湖集)》이 있다.

- 5 황철원(黃澈源, 1878~1932) : 자는 경함(景涵)이고 호는 중헌(重軒)·은구재(隱求齋)이다. 본관은 장수(長水)이며, 전라남도 화순군(和順郡) 능주(綾州) 운곡(雲谷)에서 태어났다. 기정진(奇正鎭)의 제자인 정의림(鄭義林)과 정재규(鄭載圭)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저서로는 《중헌집(重軒集)》이 있다.
- 6 양회갑(梁會甲, 1884~1961) : 자는 원숙(元淑)이고, 호는 정재(定齋)이다. 본관은 제주(濟州)이고, 전라남도 화순군(和順郡) 이양면(梨陽面) 초방리(草坊里) 출신이다. 학포(學圃) 양팽손(梁彭孫)의 후손으로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기우만의 《송사집(松沙集)》과 선조 양팽손의 《학포집》 간행하는 일을 주관하였으며, 저서로는 《정재집(定齋集)》과 《풍천록(風泉錄)》·《성학원류(聖學源流)》 등이 있다.
- 7 양성묵(梁成默, 1869~?) :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에 거주하였다.
- 8 기노선(奇老善, 1895~1937) : 자는 공길(公吉), 호는 도남(道南)으로, 기정진(奇正鎭)의 현손이며, 기우만(奇宇萬)의 종손(從孫)이다. 그의 아버지 기준도(奇春度, 1876~1931)가 1931년에 사망하자, 노사와 송사 및 고산서원과 관련된 일을 주관하여 해나갔는데, 그도 일찍 사망함으로써 고산서원과 노사 후손가는 침체를 면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 9 기순서(奇順叙) : 기노선의 큰아들 기순서(奇舜舒, 1912~1950)를 말한다.

1930년 4월 19일. 정묘 -강어단알-. 맑음.

十九日. 丁卯【疆圉單闕】. 陽.

1930년 4월 20일. 무진 -저옹집서-. 맑음.

二十日. 戊辰【著雍執徐】. 陽.

1930년 4월 21일. 기사 -도유대황락-. 흐리고 비.

二十一日. 己巳【屠維大荒落】. 陰雨.

1930년 4월 22일. 경오 -상장돈장-. 갸.

二十二日. 庚午【上章敦牂】. 晴.

1930년 4월 23일. 신미. 맑음.

二十三日. 辛未. 陽.

1930년 4월 24일. 임신. 맑음.

二十四日. 壬申. 陽.

1930년 4월 25일. 계유. 맑음.

二十五日. 癸酉. 陽.

1930년 4월 26일. 갑술. 맑음.

二十六日. 甲戌. 陽.

1930년 4월 27일. 을해. 맑음.

二十七日. 乙亥. 陽.

1930년 4월 28일. 병자. 맑음.

二十八日. 丙子. 陽.

1930년 4월 29일. 정축. 맑음. 다니러 나갔다.

二十九日. 丁丑. 陽. 出行.

1930년 5월 1일. 무인. 맑음.

五月. 初一日. 戊寅. 陽.

1930년 5월 2일. 기묘. 맑음. 당현(唐峴)의 여진사(呂進士) 댁에서 점심을 먹고, 지나는 길에 순창 고례(古禮)<sup>10</sup>에 사는 양찬수(楊贊洙) 댁에서 묵으면서, 가잠(佳岑)<sup>11</sup>에 사는 권병헌(權炳憲) 댁에서 놀았다. 다음날 다시 고례에서 묵고, 집으로 돌아왔다.

二日. 己卯. 陽. 自唐峴呂進士宅午飯, 過宿於淳古禮楊贊洙宅, 遊於佳岑權炳憲宅. 翌日更宿於古禮, 還巢.

401

1930년 5월 3일. 경진. 맑음.

三日. 庚辰. 陽.

1930년 5월 4일. 신사. 맑음. 밤에 비가 내렸다.

四日. 辛巳. 陽. 夜雨.

1930년 5월 5일. 임오. 흐리고 비. 오늘은 천중절(天中節, 단오절)이다.

五日. 壬午. 陰雨. 是日天中節也.

10 순창(淳昌) 고례(古禮):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를 말한다.

11 가잠(佳岑):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가남리 일대에 가잠로가 있다.

〈평장동<sup>12</sup>의 시조를 단향 하는 원운시 뒤에 짓다〉

題平章洞壇享始祖元韻後

선조의 사덕 <sup>13</sup> 은 사시의 봄과 같아,	祖先四德四時春
자손에게 전해지는 것 진실로 진리이네.	傳子傳孫實理眞
효경인성(孝敬仁誠)으로 천오백 년 이어왔으니,	孝敬仁誠千五百
어찌하여 불초자에게 이런 분 있게 되었나?	何爲不肖有斯人

삼가 살피건대 《논어》 문채장(問禘章) 주(註)의 ‘왕이 아니면 체제사를 지낼 수 없다. [不王不禘之法]’라는 것으로 휘(諱)한 것이다.<sup>14</sup>

謹按魯論，問禘章註，‘不王不禘之法’，諱之。

1930년 5월 6일. 계미 -소양협흡-. 맑음.

六日. 癸未【昭陽協洽】. 陽.

1930년 5월 7일. 갑신. 맑음.

七日. 甲申. 陽.

1930년 5월 8일. 을유 -전몽작악-. 맑음.

八日. 乙酉【旃蒙作噩】. 陽.

12 평장동(平章洞) : 광산김씨 시조인 김흥광(金興光)을 모시는 평장사가 있는 곳을 말한다. 담양군 대전면 평장리에 있다.

13 사덕(四德) : 인성(人性)의 사덕(四德)은 인(仁)·의(義)·예(禮)·지(智)의 본성을 가리킨다.

14 《논어》… 것이다 : 〈팔일(八佾)에 “혹자가 체(禘) 제사의 내용을 물었다. [或問禘之說]”라는 구절의 집주에 “왕(王)이 아니면 체(禘)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법은 또한 노(魯)에서 마땅히 휘(諱)하여야 할 일이었으므로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不王不禘之法，又魯之所當諱者，故以不知答之.]”라는 말이 있다. 《예기(禮記)》〈상복(喪服)에 “예에 왕이 아니면 체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 [禮不王不禘]”라는 말도 있다.

1930년 5월 9일. 병술 -유조엄무-. 맑음.

九日. 丙戌【柔兆闡茂】. 陽.

1930년 5월 10일. 정해 -강어대연헌-. 맑음.

十日. 丁亥【疆圉大淵獻】. 陽.

1930년 5월 11일. 무자 -저옹곤돈-. 맑음.

十一日. 戊子【著雍困敦】. 陽.

1930년 5월 12일. 기축 -도유적분약-. 맑음.

十二日. 己丑【屠維赤奮若】. 陽.

1930년 5월 13일. 경인 -상장섭제-. 맑음.

十三日. 庚寅【上章攝提】. 陽.

1930년 5월 14일. 신묘 -중광단알-. 맑음.

十四日. 辛卯【重光單闕】. 陽.

1930년 5월 15일. 임진 -현익집서-. 맑음. 미암선생의 제삿날이라 초대 받아 가서 배불리 먹고 취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맹자》 호연장(浩然章)의 훈고(訓誥, 자구를 풀이하는 것)를 보았는데, “정자(程子)가 말하길, ‘하늘과 사람은 똑같아서 다시 분별할 것이 없으니, 호연지기는 바로 나의 기이다. 이를 길러서 해침이 없게 하면 천지에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였다.”라고 한 말이 있어서, 특별히 기록하여 종인(從人)에게 보여주었다.

十五日. 壬辰【玄默執徐】. 陽. 眉巖先生忌辰也, 赴招醉飽歸巢. 看《孟子》

浩然章訓誥, “程子曰, ‘天人一也, 更不分別, 浩然乃吾氣也. 養而無害, 則塞于天地.’ ” 特記之, 以示從人.

1930년 5월 16일. 기사 -소양대황락-. 맑음.

十六日. 癸巳【昭陽大荒落】. 陽.

1930년 5월 17일. 갑오 -알봉돈장-. 맑음. 양식이 떨어져서 먹질 못했다.

十七日. 甲午【關逢敦牂】. 陽. 糧絕不食.

1930년 5월 18일. 을미 -진몽협흡-. 맑음.

十八日. 乙未【旃蒙協洽】. 陽.

1930년 5월 19일. 병신 -유조군탄-. 맑다가 비.

十九日. 丙申【柔兆涓灘】. 陽雨.

1930년 5월 20일. 정유 -강어작악-. 흐림.

二十日. 丁酉【疆圉作噩】. 陰.

1930년 5월 21일. 무술 -저옹엄무-. 맑음. 이전에 신암재(新菴齋)에게 주었던 시를 보고 복부(覆瓿)<sup>15</sup>를 위해 기록한다.

二十一日. 戊戌【著雍闓茂】. 陽. 見前所贈新菴齋韻, 爲覆瓿記之.

15 복부(覆瓿) : 장독 뚜껑이라는 의미로, 《한서(漢書)》〈양웅전(揚雄傳)〉에 “유흠(劉歆)이 양옹이 지은 법언(法言)을 보고 ‘왜 세상에서 알지도 못하는 글을 이토록 애써지었을까. 나중에는 장독 뚜껑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다.”라고 하였다. 대개 자기의 저술을 겸칭(謙稱)한 말로 쓰인다.



1930년 5월 26일. 계묘 -소양단알-. 흐림.

二十六日. 癸卯【昭陽單闕】. 陰.

1930년 5월 27일. 갑진 -알봉집서-. 맑음.

二十七日. 甲辰【闕逢執徐】. 陽.

1930년 5월 28일. 을사 -전몽대황락-. 흐리고 비.

二十八日. 乙巳【旃蒙大荒落】. 陰雨.

1930년 5월 29일. 병오 -유조돈장-. 흐리고 비.

二十九日. 丙午【柔兆敦牂】. 陰雨.

1930년 6월 1일. 정미. 흐리고 비. 밤에 꿈을 꾸는데 뜰에 한 괴이한 물건이 있었는데, 사람도 아니고 거북이도 아니며, 바위도 아니고 돌도 아니며, 새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었다. 귀·눈·입·코가 없는데도 말소리를 내서 나에게 말하길, “그대는 박상(虬商)이다.”라고 하였다. 박상의 글자 획수로 점을 치니 혁괘(革卦)이다. 자연히 동효(動爻)<sup>18</sup>를 살펴보니 오효(五爻)<sup>19</sup>이다. 구오의 ‘대인이 범이 변하듯 함이니 점치지 않아도 믿음이 있다. [九五, 大人虎變, 未占有孚]<sup>20</sup>의 상전(像傳)에 이르길 ‘대인이 호변함은 그 문채가 빛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六月. 初一日. 丁未. 陰雨. 夜夢庭有一怪物, 非人非龜非巖非石非禽非獸. 無耳目口鼻, 而能語聲謂余曰 “君爲虬商”, 以虬商字畫數占之乃革卦也.

18 동효(動爻) : 효(爻)가 변동하는 것이다. 곧 양효(陽爻)는 음효(陰爻)가 되고 음효는 양효가 되어서, 이에 따라 괘(卦)도 변한다.

19 오효(五爻) : 역(易)의 1괘(卦)는 6효(爻)로 이루어져 있다. 모두 아래에서부터 세는데 다섯째의 효를 말한다. 양위(陽位)로서 신분의 위치로는 임금의 자리이다.

20 구오...있다 : 《주역》 혁괘(革卦) 구오(九五)의 효사에 나오는 말이다.

觀自然動爻則五爻也, ‘九五, 大人虎變, 未占有孚’. 象曰 ‘大人虎變, 其文炳也’.

1930년 6월 2일. 무신 -저용군탄-. 흐리고 비.

二日. 戊申【著雍涿灘】. 陰雨.

1930년 6월 3일. 기유. 흐리고 비.

三日. 己酉. 陰雨.

1930년 6월 4일. 경술. 흐리고 비. 천둥이 크게 소리쳤다.

四日. 庚戌. 陰雨. 雷大發聲.

〈‘종유습구(從遊習句)’ 시에 차운하다〉〈次從遊習句韻〉

요인(要人)도 대개는 문 나서면 같아지고,

要人爲蓋出門同

세상은 되돌리기 어려우니 고풍으로 향하리.

世謂難回往古風

물러나 찾아온 벗과 함께 역사를 살펴보니,

退與來朋看歷史

성현(聖賢)이 전수한 법에 의리가 무궁하네.

聖賢垂法義無窮

1930년 6월 5일. 신해 중광대연헌-. 흐림. 잠깐 맑다 잠깐 비가 왔다.

五日. 辛亥【重光大淵獻】. 陰. 乍晴乍雨.

1930년 6월 6일. 임자. 흐리고 비.

六日. 壬子. 陰雨.

1930년 6월 7일. 계축. 흐림.

七日. 癸丑. 陰.

1930년 6월 8일. 갑인. 흐리고 비.

八日. 甲寅. 陰雨.

1930년 6월 9일. 을묘. 흐리고 비.

九日. 乙卯. 陰雨.

1930년 6월 10일. 병진. 흐림.

十日. 丙辰. 陰.

1930년 6월 11일. 정사. 흐림. 비가 올듯말듯하였으며, 천둥소리가 크게 진동했다.

十一日. 丁巳. 陰. 欲雨未雨, 雷聲大震.

1930년 6월 12일. 무오. 흐리고 비.

十二日. 戊午. 陰雨.

1930년 6월 13일. 기미. 흐림. 가랑비가 내리다 개었다.

十三日. 己未. 陰. 小雨而霽.

1930년 6월 14일. 경신. 맑음.

十四日. 庚申. 陽.

1930년 6월 15일. 신유 중광작악-. 흐림. 가랑비가 내렸다.

十五日. 辛酉【重光作噩】. 陰. 小雨.

• 역자 약력

전형택(전남대 역사교육과 명예교수)  
권수용(한국호남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문학박사)  
김봉곤(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연구교수, 문학박사)  
김은영(전남대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노금선(전남대 문화재학박사)  
박미향(전남대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박해장(순천대 강사, 전남대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안정애(나주고등학교 교사, 문학박사)  
채희숙(나주고등학교 수석교사, 문학박사)

호남한국학자료총서 2  
서암일기樓巖日記 2

인쇄 2020년 1월 10일  
발행 2020년 1월 20일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이종범)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3-27, 4층  
전화 062-603-9600 팩스 062-941-6705  
홈페이지 <http://hiks.or.kr>

역자 전형택, 권수용, 김봉곤, 김은영, 노금선,  
박미향, 박해장, 안정애, 채희숙

편집제작 도서출판 바로  
61487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23번길 8-3  
전화 062-225-4820 팩스 062-225-4821

비매품

ISBN 979-11-968006-3-5

본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호남한국학진흥 사업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으며,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

